

생기를 찾아가는
명랑경기학 ②

문

생기를 찾아가는 명랑경기학

2

물

2020 경기지역학활성화 공모지원 개인연구 모음집

양경직(이천)
임종삼(수원)
조경철(군포)
정기선(포천)
윤종준(성남)
김재익(양평)
허행윤(양평)
이병권(화성)
곽수정(의정부)
박혜숙(시흥)
김양우(화성)
고영창(안성)
고희상(연천)
김명희(구리)

2020 경기지역학활성화 공모지원 개인연구 모음집

생기를 찾아가는 명랑경기학 [2] - 물

집필자(연구지역)

양경직(이천), 임종삼(수원), 조경철(군포), 정기선(포천), 윤종준(성남), 김재익(양평),
허행윤(양평), 이병권(화성), 곽수정(의정부), 박혜숙(시흥), 김양우(화성), 고영창(안성),
고희상(연천), 김명희(구리)

발행일 2020. 12. 07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정책실(경기학센터)

문의 경기문화재단 정책실 031.231.7252

디자인 로컬앤드

ISBN 978-89-999-0186-7

비매품

이 책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집필자와 경기문화재단 양측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기문화재단

차례

- 6 필자 소개
- 9 양경직 이천시 울면 지역의 하천문화
- 33 임종삼 아산·평택 거북놀이로 본 백제건국세력의 남하 흔적
- 61 조경철 군포 덕고개 당숲의 역사적 유래와 군옹제
- 83 정기선 포천 창옥병에 관한 문헌적 연구
- 105 윤종준 성남 탄천(炭川)의 역사와 함께한 주민들의 생활문화
- 131 김재익 강마을, 산마을이 공존하는 양평군 서종(면)마을 생활기록 연구
- 171 허행윤 의절(義節)의 역사 담고 흐르는 석곡천, 그리고 양동면
- 197 이병권 화성시 찬우물마을의 어제와 오늘
- 225 곽수정 의정부 안골마을 백석천과 지역민의 개인적 영향사 연구
- 249 박혜숙 바다향이 머무는 시흥 땅, 갯골 30인 30답
- 279 김양우 경기도 화성시 제조업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 303 고영창 안성 죽산면에서 이루어진, 나말여초, 불사(佛事) 연구
- 325 고희상 물과 용암, 그리고 시간이 빚어낸 아름다운 한탄강 현무암 협곡에 관한 연구
- 353 김명희 구리 토펑마을과 수변지역 자연마을의 물환경 변천사

필자 소개

양경직

- 현)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 현) 이천학연구소 운영위원
- 저서 :『1899 경인철도 고찰』,『다시 쓰는 부천의 향토지명, 원미구편』,『富川의 洞祭』등 다수
- 수상 : 부천시문화상 문화부문 수상(2015) 등 다수

임종삼

- 기전향토문화연구회 연구위원
- 오산시사 편찬위원
- 경기문화인협회 고문
- 저서:『광개토태왕의 하나개 상륙작전』등

조경철

- 연세대학교 사학과 객원교수
- 동아일보와 한국연구재단 인용지수 2위(한국사, 2013)
- 『백제불교사연구』,『한국고대사』(공저),『나만의 한국사』

정기선

-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소속 강사

윤중준

-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 상임위원
- 성남문화의집 관장
- 시정소식지 <비전성남> 편집위원

김재익

- 현) 아트렉처 에디터/대표자
- 지역문화재단연계 창작 활동 시각예술가
- 작품활동으로는 미디어와 혼합매체를 사용하여 공공예술 설치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국내외 활동 작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허행운

- 전) 경기일보 기자
- 경기일보에서 30년 동안 기자로 활동하며, 틈틈이 발품을 들여 경기도의 문화와 역사 등에 대해 천착했다. 은퇴 이후에도 경기도와 관련된 글쓰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병권

- 지역사 연구가
- 화성시 등 문화유산의 답사와 지역사 연구에 대한 글쓰기를 하며,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자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곽수정

- 학교에연극을심는사람들 대표
- 의정부시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장
- 배우, 의정부시 신곡권역 마을활동가

박혜숙

-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 2015년부터 시흥 마을기록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갯벌의 비릿한 향기에 익숙했던 그 느낌이 살아있는 갯골생태공원을 알게 된 이후 그냥 좋았다. 그래서 바다 향기가 머무는 땅, 갯골의 이야기가 계속되기를 바란다.

이천시 율면 지역의 하천문화

양경직

김양우

- 예술가 겸 활동가
- 지역과 장소에 관심을 가지고 리서치를 하거나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본인이 살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라는 지역에 대하여 들여다보고 있으며,
산업단지, 기술, 이동, 아주 노동자, 생산직 근로자, 화물기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고영창

- 전)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원
- 2017년부터 현재까지 '파주시 전통 마을 기록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고희상

- 현)연천문화원 향토사위원장
- 석사학위 논문『동의보감』의 생명관 연구, 박사학위 논문『내단학의 음양쌍수 단법 연구』

김명희

- 구리문화원 향토사연구소 회장
- 2016년 디지털구리문화대전 기초조사 연구 및 원고 집필
- 2019년 경기지역학 활성화 공모지원 개인연구『흙-구리문화, 그 흔적의 어제와 오늘』
- 다양한 시대의 문화재를 가진 구리시에서 산업화에 사라지는 향토문화 보전을 위해 매해 회원 공동체 향토문화자료 보고서 발간, 향토문화자료 탁본전시회를 통해 지역민과 미래 세대에게 우리 고장의 향토문화유산 의미를 전달한다.

I. 들어가는 말

II. 본론

1. 청미천(淸渼川)
2. 석원천(石院川)
3. 응천(鷹川)

III. 나가는 말

I. 들어가는 말

산맥이 골격을 이룬다면 강하(江河)는 단 1초도 쉼 없이 생동하는 혈관 같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유사 아래 강과 하천 변에서 삶을 영위해 왔다. 역대 도읍지를 보면 모두 강을 끼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로움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중환(1690~1752)은 『택리지』(1751) 「계거(溪居)」에서 “바닷가에서의 삶은 강가에서 사는 것만 못하고, 강가에서의 삶은 시냇가에 사는 것만 못하다”고 한 것이다.

조선총독부 1915년
1:50,000 지도. 울면을
흐르는 청미천, 석원천, 응천

이천시 울면의 주요 하천은 북쪽 가를 서에서 동으로 스치듯 흐르는 청미천(淸渼川)이다. 청미천은 비옥하기 이를 데 없어 죽산에서 발원



하여 장호원을 거쳐 여주 한강에 합류하기까지, 천변(川邊)의 넓은 옥토(沃土)에서 질 좋은 쌀이 많이 소출되었다.

이에 일제는 이 일대의 쌀을 수탈하기 위해 1927년 9월 15일 안성-장호원 간 41.8km에 이르는 경기선(京畿線)을 개통하였다. 이 철도는 경남철도주식회사에서 놓은 사철(私鐵)이었다. 현재 당시의 철도길 흔적과 교각(橋脚)의 흔적이 90% 이상 고스란히 남아 있다. 울면 내 청미천의 지류로는 울면 중앙을 남에서 북으로 관통하는 석원천(石院川)과, 울면 동쪽 가를 남에서 북으로 스치듯 흐르는 응천(鷹川)이 있다. 그러면 아래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본론

1. 청미천(淸渼川)

1) 청미천의 지명 유래

청미천의 발원지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문수봉(文殊峰, 404m) 처녀샘이다. 조선시대에는 죽산 땅이었다. 문수봉에서 발원한 청미천은 안성시 일죽면을 지나 이천시 울면 신추리·고당리·월포리를 스치듯 흘러간다. 대개는 하천을 경계로 삼기 때문이다. 이후 곧장 장호원을 지나 여주군 점동면 삼합리(三合里)에서 한강에 합류하는 총 64km의 한강 제1지류이다.

청미천은 『세종실록』(1444.2.30)에 “거가(車駕)가 죽산현 천민천(天民川)가에 머물렀다”고 기록한 것이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1)에도 죽산현·음죽현·여주목 조에 한결같이 천민천(天民川)으로 기록하였고, 이후 『대동여지도』(1861)를 전후한 시기까지 각종 문헌에 천민천으로 나타난다.

『여지도(輿地圖)』(1760)에
표기된 천민천(天民川)



1 천민천(天民川) : 『기재별집(企齋別集)』(1573) / 『동국여지도』(1656) / 『인재집(印齋集)』(1778) / 『해동지도』(1750년대 초) 음죽현 / 『번암선생집(樊巖先生集)』(1824) / 『조선지도』(1750~1768) 여주, 음죽, 충주 / 『비변사인방안지도』(1745~60) <충청좌도각읍지도> / 『조선 팔도지도』(1724~1800) 경기도·충청도 / 『광여도(廣輿圖)』(1737~1776) 음죽현 / 『팔도 군현지도』(1724~1800) 여주, 음죽, 충주 / 『팔도분도(八道分圖)』(1767년 이전) / 『대동지지(大東地志)』(1862) 여주목, 음죽현, 죽산부 / 『대동지지(1862)』 음죽현 / 『청구도(青邱圖)』(1834) / 『동여도(東輿圖)』(1856~1861) / 『청구요람(1834)

2 천민대천(天民大川) : 『해동지도(海東地圖)』(1800년 이후) 여주목

3 천민천(川民川) : 『여지도(輿地圖)』(1760) 죽산부, 음죽현 / 『1872년 지방도』(1737~1776) 죽산부 / 『해동지도』(1800년 이후) 음죽현, 죽산부 / 『경기읍지』(1871) 음죽현

4 천민천(千民川) : 『필운시고(弼雲詩稿)』(1747)

5 청민천(淸泯川) : 『1872년 지방도』(1862) 여주목 / 『대동지지(大東地志)』(1862) / 『경기지(京畿誌)』(1832) 죽산부지도 / 『호서읍지(湖西邑誌)』(1871) 충주부

당시 ‘천민천(天民川)’으로 명명한 것을 보면 천변의 백성들이 기름진 별판에서 풍요롭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늘이 혜택을 주는 개울이어서 천민천으로 명명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천민천(天民川)¹이 본래의 지명으로 보인다. 아닌 게 아니라 이중환은 『택리지』(1751)에서 “경기도에는 용인의 어비천(魚肥川)과 음죽(陰竹)의 청미천(淸美川) 땅이 삼남(三南)과 같이 비옥하여 살만하다” 하였고, 성해옹(1760~1839)은 『연경제전집(研經齋全集)』(간행년도 미상)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음죽의 천민천(天民川)은 지금 청미천(淸美川)이라 부르는데 현(縣) 남쪽 16리 지점에 있다. 땅이 비옥하고 또한 시냇물 따라 물대기가 좋아 가히 살만하다.”

이 말을 통해 청미천의 비옥함을 잘 알 수 있다. 여기에서 1600년 대 말에 이미 ‘천’은 ‘청’으로 ‘민’은 ‘미’로 음운변화가 일어나 ‘청미천(淸美川)’으로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각종 지도와 문헌을 살펴보면

6 천미천(天尾川) : 『여지도서』(1757~1765) / 『음죽현읍지』(1842) / 『1872년 지방도』 음죽현지도 / 『조선팔도지도』(1724~1800) 경기도 / 『경기읍지』(1871) 음죽현 / 이천부이 속음죽현읍지(利川附屬陰竹縣邑誌)』(1895)

7 천미천(天迷川) : 『동국여도(東國輿圖)』(간행 미상) 기전도(畿甸圖) / 『조선팔도지도』(조선 후기) 경기도·충청도 / 『팔도지도』(1724~1800) 경기도·충청도 / 『경세유표(經世遺表)』(1817)

8 천미천(千尾川) : 『유하집(柳下集)』(1730)

9 천미천(天彌川) : 『증종실록』(1520.4.20)

10 청미천(淸美川) : 김구(1649~1704)의 『관복재유고(觀復齋遺稿)』(간행년도 미상) / 『택리지(擇里志)』(1751) / 성해옹(1760~1839)의 『연경제전집(研經齋全集)』(간행년도 미상) / 『1895년 구한말한반도지형도』(음죽, 여주 / <1918년 1:50,000 지도> 장호원, 죽산, 여주

11 청미천(淸漢川) : 『죽산부읍지』(1891) / 『죽산군읍지』(1899.8) / 『음죽군읍지』(1899.5) / 『조선지지자료』(1911) 음죽군, 죽산군 / 『안성기략(安城記略)』(1926)

12 실미천(失迷川) : 『동역도(東域圖)』(1700년대 후기) 경기도·충청도

13 미수(沫水) : 『경세유표(經世遺表)』(1817) 죽산(竹山) 남쪽에 있는 미수(沫水: 속명은 天迷川이다)

14 대민천(大民川) : 『세종실록』(1444.5.4) / 『대동지도(大東地圖)』(미상) 경기호서(京畿湖西)

보니 이외에도 천민대천(天民大川)², 천민천(川民川)³, 천민천(千民川)⁴, 청민천(淸泯川)⁵, 천미천(天尾川)⁶, 천미천(天迷川)⁷, 천미천(千尾川)⁸, 천미천(天彌川)⁹, 청미천(淸美川)¹⁰, 청미천(淸漢川)¹¹, 실미천(失迷川)¹², 미수(沫水)¹³, 대민천(大民川)¹⁴, 대교천(大橋川)¹⁵, 남천(南川)¹⁶, 청미니¹⁷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만 개중에는 음운변화로 인한 한자의 오기(誤記)도 보이고, 대교천(大橋川)이나 남천(南川)처럼 별칭도 보인다. 청미천의 지명 변천 개요는 아래와 같다.

천민천(天民川) → 천미천·청민천·청미천으로 변화 → 청미천(淸漢川)
(1444~1862) (1600년대 말~1915) (1891~1911 / 1915 이후~현재)

청미천 지명 변천의 순서가 꼭 이렇다는 것은 아니다. 1444년 『세종실록』에 천민천(天民川)으로 기록한 이후, 『대동여지도』(1861)와 『대동지지』(1862)까지 꾸준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여러 지명으로 혼용(混用)하다가, 1600년대 말부터 ‘아름다울 미(美)’ 자로 쓴 청미천(淸美川)으로 쓰기도 하였다.

그런 한편 1891년에 발간한 『죽산부읍지』에서 ‘물 이름 미(渼)’ 자를 넣은 청미천(淸渼川)을 쓰기 시작하면서 『음죽군읍지』(1899.5)나 『조선지지자료』(1911) 음죽군·죽산군에서도 현재 쓰고 있는 청미천(淸渼川)으로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후 잠시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한편 1915년 지도에 청미천(淸美川)으로 표기하더니 1916년 『조선총독부 관보』에서는 ‘청미천(淸美川) 또는 청미천(淸渼川)¹⁸’이라 헷갈려 하고 있지만, 이후로는 청미천(淸渼川)으로 굳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어쨌든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 지명 ‘淸渼川’은 아마도 누군가 『죽산부읍지』(1891)나 『음죽군읍지』(1899.5) 그리고 『조선지지자료』(1911)에 기록된 청미천(淸渼川)을 보고 개칭한 듯하다. 그러나 『매일신보』(1937.1.25)에 청미천(淸美川)¹⁹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헷갈려 하

15 대교천(大橋川) :『대동지지(大東地志)』(1862)

16 남천(南川) :『경기도지』(1982)
이천군 / <1915년 1:50,000
지도>/『이천군지』(1984) /『한
국하천지명사전』(2011)

17 清漢川 청미니 :『조선지지자
료』(1911) 음죽군, 죽산군

18 1916년 6월 19일 제1162호

고 있다. 그러나저러나 두 지명은 모두 천민천에서 청미천으로 음운변
화가 일어난 결과이므로, 이왕 개칭할 바에야 본래의 명칭인 천민천(天
民川)으로 복원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어쨌든 울면 신추리와 고당리 그리고 월포리는 옛날부터 청미천가
의 넓은 옥토(沃土)를 터전으로 농사를 짓고 사는 마을들이다. 특히 신
추리 마을 앞 천변(川邊)에 드넓은 만중벌(萬重坪)이 펼쳐져 있다. ‘만(萬)’
은 크다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만중(萬重)이란 논이랑이 만 이랑이나 될
정도로 넓은 별판을 의미이다. 그런 만큼 어느 마을보다도 청미천의 혜
택을 누리고 사는 마을들이다.

이곳 만중벌에 1970년대 중반에 한미(韓美) 합동 군사작전인 팀스
피리트 훈련을 하기 위해 미군이 달포를 주둔하고 있었다. 그때 인근의
신추리 아이들은 주둔지 철조망 밖에서 미군을 향해 “기부미 초콜릿!”
하고 소리를 치면 미군이 초콜릿을 주곤 했다. 또한 국민학교 시절 겨
울방학 때면 친구들과 만중벌판에 가서 옆으로 줄느런히 가면서, 북한
에서 보낸 뼈라를 100여 장씩 주워와 지서(支署)에 가서 공책이랑 바꿔
오곤 했다.

2) 청미천을 읊은 한시(漢詩)

청미천과 관련한 시들은 많다. 다만 여기에서는 울면 내에 살았던 인
물에 한정하여 소개하기로 하겠다. 이에 울면 신추2리 속칭 ‘조제(釣堤)’
에서 태어나 마지막 훈장을 지낸 안인순(安麟淳, 1895~1975)의 시를 소개
하기로 한다.

그는 『현운집(軒雲集)』(1987)에 「조제팔경(釣堤八景)」을 남겼는데, 제
5경에서 “백 리나 흐르는 청미천은 옥대형(玉帶形)이 분명하니 문무관
이 많이 나올 것이요(百里流水清漢川玉帶形分明文武官多出)”라고 하였고, 제
8경에서는 “넓은 들판 동쪽으로 탁 트인 만중벌은 이천 농향(農鄉)에서
제일이니, 거부장자가 많이 나올 것이라네(大野東栎萬種坪利川農鄉第一巨
富長者多出)”라고 하였다. 그리고 청미천에서 성은(星隱) 이용회(李龍會)와

더불어 탁족놀이를 하면서 시를 남겼다. 감상하기 바란다.

청미천에서 밭 씻음(濯足清漢川)

向溪濯足過灰橋 시냇물에서 밭 씻고 횟다리를 지나니
磯上無人久寂寥 낚시터엔 고요하니 사람이 없구나
細鱗獵得來曾夕 천렵에 고기 잡아 이른 저녁때 오고
綠蟻謀傾坐月宵 술잔을 기울이면서 달밤에 앉았네라
瓢絮入簾降點雪 벌들개지가 밭에 들면 눈송이 같고
宿禽越嶺出重霄 자던 새가 산을 넘어 하늘 높이 솟았네라
市遠酒遲懷積積 장터가 멀어서 술이 더디어 회포가 쌓이니
空然引竹暫消愁 공연히 담뱃대 잡고 시름을 잊어보누나

橋邊楊柳柳邊橋 다리가에 벌들이오 벌들가에 다리려니
隨鷺看魚未寂寥 백로 따라 고기 보니 심심하지 않구려
來燕去鴻如昨日 오는 제비 가는 기러기 어제 같거늘
黃梅明月又今宵 매화꽃 밝은 달 다시 오늘 밤이로구나
走線能通千里路 기차는 천리 길을 잘 달리고
飛車卽入一雲霄 비행기는 구름 속 하늘로 들어가누나
諸君携我驪壇上 자네들이 나를 시단(詩壇) 위로 이끄니
慢使詩愁終未消 부질없이 시 걱정이 가시지 않누나

- 성은(星隱) 이용회(李龍會)

春日紅欄夏翠欄 봄날에는 붉은 난간이오 여름에는 푸른
난간이려니
岸芝郁郁又汀蘭 언덕에는 아름다운 지초요 물가에는 난초라네
肴香適性多行著 안주 맛이 좋아 젓가락이 자주 가고
酒力過分半棄盤 술이 과하여 반쯤 흘렸다네

門楊日暖鶯歌滑
 문 옆 버들에 날이 따스하니 피꼬리 재잘대고
 沙畔風微鷺夢安
 모래밭에 바람 잔잔하니 백로의 꿈이
 편하네라
 芳草綠陰如許可
 꽃다운 풀 우거진 숲이 이렇게 좋나니
 莫嘆巖下笑花殘
 바위 밑에 꽃 쟁다고 한탄하지 마시게나

壬耕再到是芳隣
 임경(壬耕)이 이 마을에 다시 찾아오니
 朝夕相尋知己人
 아침저녁으로 서로 만나는 막연한 친구라오
 欲禁誼譁涎渴口
 시끄런 잡담 말리랴 입에 침이 마르고
 不關遊戲眼迷塵
 장난에는 관심 없으니 눈이 침침하구나
 時進勸勉吾本性
 시간마다 부지런함은 내 본성인데
 日來無缺爾天真
 나날이 그대의 천진함은 결함이 없구려
 笑語鬪爭皆樂觀
 우스개 싸움도 모두 즐거움으로 보나니
 未知奚暇日斜辰
 어느새 해가 쟁는지 모르겠구려

柳絮飄飄煖似綿
 펄펄 나부끼는 버들개지 따뜻하기 솜 같고
 遙看芳草艸如烟
 멀리 풀밭을 바라보니 연기가 어리었네
 麥熟野田凌白米
 들밭에 보리 익으니 백미(白米)를 업신여기고
 萍浮漂水大青錢
 부평초 물에 뜨니 돈 케짝보다 크구나
 每因酒氣忘年月
 매번 술 취하면 날짜도 잊어버리고
 且惱詩愁睡午眠
 또는 시 지을 걱정에 시달려 낮잠 자누나
 漁樵耕稼鄉里樂
 고기 잡고 나무 베고 밭가는 향리의 낙이거니
 羨兮星隱獨爲專
 부럽구나! 성은(星隱)이 오로지 독차지하였네

또한 1943년 중국, 인도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최악의 가뭄이
 들었을 때 우리나라로도 마찬가지로 큰 가뭄을 겪었는데, 안인순은 당시
 의 상황을 시로 읊었다.

큰 가뭄(亢旱)
 -6월 24일-

19 풍겸(豐歎) : 농사가 잘된 해와
 잘되지 않은 해

自春旱魃力農何
 봄부터 오랜 가뭄에 농사를 어찌할거나
 豐歉分量昨歲過
 흥풍(凶豊)¹⁹의 가뭄이 작년에 지나갔네.
 潛寂龍吟滄海遠
 숨어버린 용의 자취 바다가 멀었고
 峻山勢火炎多
 험준한 산세는 불덩이 같이 달았구나.
 蒼天恨晚秀蓂
 하늘도 달력풀이 늦게 필까 걱정일 텐데
 大壠稀聞插秧歌
 큰 들판에는 모내기 소리 들을 수 없다네.
 依杖更看田水落
 지팡이 짚고 논물 마를까 걱정하는데
 潤流潺潺也無波
 시냇물은 잔잔 물결이 없구나.

라고 바싹 마른 청미천의 모습을 그렸다. 수량이 대단히 풍부했던 청
 미천도 어쩔 수 없었던 모양이다.

3) 원미제(遠渼堤)

하천의 범람은 농사꾼에게는 치명적이다. 특히 수마(水魔)가 한 번 논밭
 을 훑쓸고 지나가면, 모래밭이나 자갈밭이 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치수
 (治水)는 상고시대부터 위정자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다. 그런데 월포
 3리, 속칭 ‘골문이(洞門里)’ 사람들은 청미천의 범람을 막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약 350m의 둑을 쌓았다. 중장비가 없던 시절을 감안하면
 아무나 엄두도 못 냈을 대단히 큰 공사였을 것이다.

마을 분들이 쌓은 제방이 바로 원미제(遠渼堤)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1957년 원미제비(遠渼堤碑)를 세웠다. 다만 왜 ‘원미(遠渼)’라고 명명했는지는 미상이나 둑을 쌓은 연유가 청미천의 범람을 막기 위함이므로, 청미천의 범람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의미로 ‘멀원(遠)’ 자를 넣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 기념비석은 마을 길가에 있다고 하였다.

비석을 찾으러 월포3리로 내려갔다. 쉽게 찾을 줄 알았다. 그런데 뜻밖으로 아무리 찾아도 비석도 안 보이고, 한낮인데도 코로나19 때문에 마을회관마저 굳게 잠겨 있고, 마을은 적막감만이 사르르 감돌 뿐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었다.

물어볼 사람이 없고 하는 수 없이 배영중학교 2년 후배인 월포2리 박화양(1965년생) 이장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곧장 월포3리 마을회관 앞으로 왔다. 이장에게 내려온 목적을 말하니 월포3리 이장을 전화로 부른다. 잠시 뒤 박병덕(1960년생) 이장이 트럭을 몰고 도착했는데 알고 보니 중학교 3년 선배였다.

그가 곧바로 나를 따라오라고 하여 가보니 제방 위에서 뜯금없이 무성한 풀숲을 발로 헤치고는 이게 비석이라며 보여준다. 반은 흙에 묻혀 있고 그나마도 비석이 위낙 작아서 풀숲에 덮여 있어서 백날을 지나가도 마을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비석이었다.

이렇게 훌륭한 비석이 의미를 잃은 채 땅 속에 묻혀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주변을 넓게 시멘트로 다져서 더 이상은 땅에 묻히지 않게 하였으면 한다. 근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많은 비석이기에 더욱 그렇다. 또한 비석이 본래 자리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있으나 마나 하듯이 존재한다면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마을회관 앞으로 이전하여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龜鑑)을 주는 자료로 삼았으면 한다.

이장님에 의하면 본래 제방에 있다가 마을 입구 월포리 327-4번지 도로 변으로 옮겼다가, 도로 확장을 하면서 다시 본래 자리인 제방으로 옮겼다고 하였다. 이에 동생(양승원)이 수차례 삽질을 하여 비석을 파내려 가니 글자가 선연하게 드러났다. 원미제비(遠渼堤碑)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앞면 : 遠渼堤
 - 뒷면 : 檀紀四二九〇年歲次丁酉五月辛丑
- 朔二十一日辛酉白史朴濬培命堤名并書

2020년 6월 27일.
파묻힌 원미제비 (遠渼堤碑)를
동생이 삽으로 파내는 모습



- 우측면 : 相役 朴遇成 朴經九
- 좌측면 : 送辭

清渼一曲從此別 청미천 굽이진 이곳에서 이별하려니
淚水零零潤洞頭 하염없이 떨구는 눈물이 동네 어귀를 적시네.
頓首問余何處居 머리를 조아리며 내게 어디 가느냐고 묻기에
笑而不答指中泣 웃으면서 말없이 가리키며 눈물만 떨구었네.

가로 16cm, 세로 68cm밖에 안 되는 작은 비석의 앞면은 원미제(遠渼堤)이고, 뒷면은 단기 4290년(1957) 5월 21일 백사(白史) 박준배(朴濬培)가 제방 이름을 명명하고 아울러 글씨를 썼다는 내용이고, 우측면은 제방 축조에 공을 세운 박우성(朴遇成)과 박경구(朴經九)를 새겨 넣었고, 좌측면은 칠언절구(七言絕句)로 쓴 한시(漢詩) 송사(送辭)를 새겨 넣었다. 시비(詩碑)는 분명 아닌데 시가 워낙 좋아서 그런가 시비 같은 특이한 비석이다.

『고령박씨대동보』(1987)를 보니 박준배(1898~1963)는 고령박씨 무숙공파(武肅公派) 31세손으로 호는 백사(白史) 또는 미당(渼堂)으로 서기

관을 지낸 인물이다. 당시 제방 축조에 공을 세웠던 박우성(1879~1949)은 고령 박씨 무숙공파 32세손이고, 박경구(1888~1946)는 고령 박씨 무숙공파 33세손이다. 따라서 박우성과 박경구의 생존 연대로 보아 1930~40년대에 제방을 쌓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4) 청미천을 넣은 교가(校歌)

강(江)이 없는 율면 지역에서 청미천은 미지(未知)의 세계를 꿈꾸는 희망을 상징하는 하천이다. 어릴 적에는 이 하천이 어디로 흘러 바다로 가는지 몰랐다. 그저 어디론가 끊임없이 흘러가는 미지의 대상일 뿐이다. 따라서 청미천을 도약의 발판 삼아 더 큰 세상으로 멀리 뻗어나가기를 기원하면서 청미천 인근의 학교들은 대개 청미천을 넣어 교가를 지었다.

필자가 다녔던 율면 본죽국민학교 교가도 “높이 솟은 마이산의 정기를 타고 / 유유한 청미천을 바라보면서”로 시작한다. 또한 인근의 율면초등학교·율면중학교, 장호원중학교·장호원고등학교·이황초등학교·나래초등학교, 충북 음성군 감곡면 원당초등학교·매괴여자중학교 등 청미천 주변의 학교들은 어김없이 청미천을 넣어 가사를 지었다.

또한 인근의 여주시 점동면 점동초등학교 역시도 청미천이 교가에 들어가 있다. 청미천을 따라 조사해 보면 이보다 더 많을 것이나 여기에서는 지면 관계상 이로 마친다.

2. 석원천(石院川)

1) 석원천의 지명 유래

석원천은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쌍곡리 우등산(262.8m)에서 발원하여 구계저수지를 이루어 흘러 내려온 물과, 금왕읍 내곡리 밤계저수지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능산삼거리에서 합류하여 북쪽으로 흘러간다. 호산리

를 지나 이천시 율면 한복판인 석산리·산양리·오성리·북두리·신추리·고당리 한복판을 지나 청미천에 합류하는 약 11km의 작은 하천이다.

지류로는 안성시 일죽면 금산리 매봉(247.4m)에서 발원한 약 4.9km의 금산천이 율면 본죽리 별판을 지나 석원천과 합류하고, 율면 월포리 임오산(339.1m)에서 발원한 약 4km의 전천(前川)이 고당리를 지나 석원천과 합류한다.

석원천의 지류로는 신추리저수지에서 흘러가는 작은 도랑이 합류하고, 산성리에서 흘러가는 작은 도랑이 합류하고, 석산저수지에서 흘러가는 작은 도랑이 합류하고, 산양리저수지에서 흘러가는 작은 개울(小川)이 북두리를 지나 합류하고, 오성리에서 흘러가는 작은 도랑이 합류한다. 어떤 것은 천(川)으로 불러도 되지만, 대개는 ‘큰 도랑(溝)’ 수준이다.

20 국립건설소 도엽번호 6725 III
장호원 1:50,000

석원천(石院川)은 1956년 지도에도 나타나지 않다가 1963년 지도²⁰에서야 비로소 나타나고 있다. 하천 규모로 보면 그렇게 작은 것 같지는 않은데 명칭을 부여 받지 못하고, 이 즈음에서야 비로소 석원천으로 명명한 것으로 보인다.

석원천의 지명 유래는 무극역에 딸린 ‘석원(石院)’ 또는 ‘돌원(復院)’에서 연유한다. 돌원(復院)이 언제 생겼는지 미상이나, 무극역(無極驛)이 고려시대 광주도 15개역 중 하나로 설치된 것을 감안하면 이른 시기에 생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동국여지승람』(1481) 충주목조에 “석원(石院)은 주 서쪽 85리에 있다”는 것이 최초의 기록이다. 음죽군은 본래 충청도 충주목 관할이었다.

석원(石院)은 무극역에 딸린 역원(驛院)으로 유명하였다. 『동국문헌비고』(1770)에 ‘돌원장시(復院場市)’로 기록하였고, 신경준의 『도로고』(1770)에서는 ‘석원(石院)’으로 기록하였고, 『1872년 지방지도』『음죽현지도』에는 돌원장시(復院場市)로 표기하였고, 1915년 지도에는 ‘石院’ 옆에 고유지명을 가타가나로 ‘トル ヲノ(돌원)’으로 별도로 표기하였다.

이로 보면 순 고유지명은 ‘돌원’으로 여겨진다. 어쨌든 인근에서 제

일 유명한 지명이 바로 돌원(石院·夏院)이었다. 그래서 ‘石院川’으로 기록한 듯싶다. 돌원은 본래 경기도 음죽군 상율면 팔성리(八星里)이다. 그런데 『음죽현읍지』(1842)에 보면 팔성리(八星里)를 ‘돌원(夏院)이라 칭한다’고 하였고, 『음죽군읍지』(1899.5)에는 팔성리를 밀어내고 석원동(石院洞)으로 개칭되어 있다. 곧 돌원장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 본래의 지명을 밀어내고 개칭한 것으로 보인다.

2) 1969년 8월 12일 석원천 교량 가설 준공식 축문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다리가 없었다. 북두리와 본죽리로 들어가는 나무다리와 산양리로 들어가는 나무다리, 그리고 신추리로 들어가는 외나무다리가 있었을 뿐이다. 예전에는 장마만 지면 다리가 떠내려 가기 일쑤여서 다리 건너에 있는 배영중학교를 가려던 학생들이 발만 동동 구르다가 결석을 해야만 했다. 어린아이들은 개울에 발을 적시지 않고 외나무다리를 건너려면 겁내하면서도 기우뚱기우뚱 건너야만 했다. 마차가 지나가면 얼른 올라타고 건너기도 했다.

그러다가 1960년대 후반에 다리가 생겼다. 필자가 여섯 살 무렵 조부(祖父)께서 신추교 공사 일을 마치고 다 저녁에 들어오곤 했던 기억이 난다. 이 다리가 1969년 새로 놓은 신추교다. 안인순(安麟淳, 1895~1975)의 『헌운집(軒雲集)』(1987)에 보면 당시 준공식 축문이 실려 있다. 아래에서 참고하기 바란다.

己酉八月十二日 石院川 橋梁 架設 竣工式 祝文

기유(1969년) 8월 12일 석원천 교량 가설 준공식 축문

維歲次己酉八月庚寅朔十二日辛丑秋分栗面長金元煥面民
代表敢昭告于(유세자 기유(1969) 8월 경 인삭(寅朔) 12일, 신축 추분 날
율면장 김원한(金元煥)과 면민 대표는 감히 밝게 고하나이다)

21 추내평(楸內坪)의 오기(誤記)이다. 신추리(新楸里) 내에 있는 추내들(楸內坪)을 말한다.

春和坪石院川水紳之靈

춘화평(春和坪)²¹ 석원천 수신(水神)의 영령(英靈)이시여!

春夏秋冬 四時之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절(四時節)에

春秋冷節 嚴冬雪冰

봄가을은 추운 계절로 엄동에는 눈과 얼음이요

夏節潦霖 洪水之重

여름철에는 장마로 홍수가 거듭나면

男負女戴 來人去客

남부여대하고 왕래하는 사람들이

跋涉之艱 遲緩之苦

물 건너는 어려움과 지체되는 괴로움으로

愁之悶之 面長告郡

근심하고 걱정하던 면장이 군(郡)에 고하고

郡守告上 通過國會

군수가 상부에 고하여 국회에 통과하여

快得許可 國庫傾財

허가를 쾌히 얻어 국고의 재물을 기울여서

架設橋梁 萬歲遺傳

교량을 가설하니 만세에 전하리이다

鄉黨州閭 咸蒙大澤

여러 마을이 모두 큰 혜택을 입었사오니

感之德之 樂之無窮

감지덕지로 즐거움이 무궁하겠으니

豈不美哉 豈不安哉

어찌 아름답지 않고 어찌 편안치 안으리까

如此事業 天佑神助

이런 사업은 하늘의 신령께서 도움을

一盃清酌 一楪脯肉

주셨으니

奠于水神 神其靈矣

한 잔의 맑은 술과 한 접시 포육으로

告之即應 淚洽降臨

수신(水神)께 드리오니 신은 영험하시므로

工事之中 倏無小艱

고하면 응하시어 흡족하게 강림하실

切冀懇望 淚洽尙饗

것이니

切冀懇望 淚洽尙饗

간절하게 바라오니 흡족하게 흠향

하시옵소서

3) 석원천을 읊은 한시와 천변문화

1969년 시멘트 다리가 놓이고 나자 여름철이면 다리 문화가 새로 생



2020년 6월 27일
신추교(新楸橋) 모습

기게 되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아이들은 다리 밑 넓은 모래밭에서 신발로 골대를 만들어 놓고 공을 차거나, 다리 난간 밖에서 오래 매달리기 내기를 하거나, 담력 시험을 한다고 다리 밑으로 펼쩍 뛰어내리곤 했다. 그러다가 개울가 자갈밭에 넣은 꼬마물떼새 알을 발견하면 어미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고 어둑해질 때까지 기다리곤 하였다.

이장을 비롯한 어른들은 여름철이면 기생들을 데려다가 천렵(川獵)을 하곤 하였다. 장구치고 노래하는 기생에게 100원짜리 파란 지폐에 침을 트고! 하고 묻혀서는 저고리 안쪽 깊숙이 쑤! 넣어주곤 했다. 한 편에서는 불거지·피래미·미꾸라지·모래무지 등을 잡은 물고기를 양은 솔에 넣고 매운탕을 끓이느라, 매캐한 연기가 나곤 했지만 어른들의 놀이 (?)를 시시덕거리며 구경하곤 했다.

아이들은 멱을 감고 싶으면 ‘한내개울’로 갔다. 어른 키가 훌쩍 넘는 깊은 웅덩이에서는 멱을 감을 수가 없으니 한내개울이 제격이었다. 석원천에서 가장 넓고 깊었다. 이곳에 보(洑)를 막았으니 당연히 개울이 깊고 넓었다. 이런 연유로 속칭 ‘한내개울(漢川川)’이라 불렸다. 이곳에서

제방 밑으로 수명(水桶)을 내어 봇물을 본죽리 들판과 신추3리 ‘벌덕지’를 지나 ‘추내들’을 지나 만중평야까지 물을 대어 농사를 지었다.

논바닥이 쪽쪽 갈라지듯 가뭄이 들면 봇물 때문에 싸움이 자주 벌어지곤 한다. 자정이 가까운 11시 무렵 삽을 들고 나가 봇도랑을 꽉 막고 자기 논에 물을 댄다. 소위 봇물 훔치기다. 이렇게 한 시간쯤 지나면 저 아래에서 누군가 ‘웬 놈이 물길을 막았느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봇도랑을 따라 올라온다. 기어이 자정에 봇물 싸움이 벌어지고 만다.

또한 한내개울은 아이들의 목욕탕 역할을 하곤 했다. 본죽국민학교 다닐 때 여름철이면 담임선생님은 반 학생들을 ‘한내개울’로 데리고 가서 놀게 하였다. 몸에 잔뜩 긴 때를 닦아내려는 게 목적이었다. 한참 놀게 한 뒤 선생님이 일일이 때 검사를 하여 합격을 해야만 학교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 목욕탕이 없는 시골이다 보니 아이들이 여름이고 겨울이고 때를 밀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라도 선생님은 아이들의 더러운 몸을 깨끗하게 씻기고자 했던 것이다.

좀 운치 있는 어른들은 이곳 ‘한내개울’에서 한가로이 해질녘까지 낚시를 하곤 했던 모양이다. 안인순(安麟淳, 1895~1975)은 『현운집(軒雲集)』(1987)에서 「율리팔경(栗里八景)」 중 제2경으로 이곳을 읊었다. 감상하기 바란다.

한천 어부의 피리소리(漢川漁笛)

長竿短笠下前川
긴 낚싯대 짧은 삿갓 쓰고 앞 냇가에 가니
細雨斜風又暮煙
 细雨斜风又暮烟 보슬비 산들바람에 저녁연기로구나.
鳥白沙明山水綠
 鸟白沙明山水綠 새도 모래도 모두 흰데 산천은 맑고 푸르고
曲終人倚夕陽天
 曲終人倚夕陽天 피리 곡조 끝나니 저녁노을이구나.

4) 설화

경기도 이천시 울면 석산3리 속칭, 석교촌(石橋村)과 산양리(山陽里) 속

청, 양아리(陽阿里) 사이를 흐르는 석원천(石院川)에 오래된 돌다리가 놓여 있었다. 석교촌(石橋村)이 『호구총수』(1789)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 아주 오래 전에 석교를 놓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 돌다리는 이미 오래 전에 무너져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나마 동네 사람들이 석교 잔해를 주워와 징검다리로 쓰던 것도 놓지 정리로 사라졌다.

그러나 옛날에는 충청도·경상도 방면에서 한양을 가려면 이곳을 반드시 거쳐 가야만 하는 중요한 길목이었다. 이 길이 곧 조선시대 한양을 출발하여 과천-용인-죽산-음죽무극역-음성-연풍-괴산에서 조령을 넘어 동래(東萊)까지 이어지는 장장 950리 동래대로인데, 대개 영남대로라고 부른다. 그런데 석원천에 놓인 석교(石橋)와 관련하여 전설 두 개가 전해진다.

첫 번째는 1955년에 발행한 『京畿道誌』 중, 「명승고적편, 이천군」을 보면 <석교동(石橋洞) 유래>에 대한 설화가 실려 있다. 아래에서 참고하기 바란다.

① 석교동(石橋洞) 유래

“본군(本郡) 최남단 울면에 팔성산(八聖山)이 있다. 그 산하에 부암동(傅岩洞)과 석교동(石橋洞)이라는 농촌이 있다. 지금은 동구(洞口) 앞에 이른바 문전옥답의 평야가 있어 울면의 곡창이라 할 만한 농촌이 되어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에는 교통이 불편한 산간벽지였다. 이 부암동(傅岩洞)과 석교(石橋)에 전해 나려오는 비화(祕話)가 있다.”

<석교(石橋)>

이천과 장호원 간을 질주하는 신작로(新作路)가 생기어 전에는 본 울면의 용산동(龍山洞), 석교(石橋), 음성의 관촌(館村)으로 통하는 길이 영남(嶺南)에서 서울로 가는 대로였다. 그러나 길이 좁고 험한데다가



징검다리로 쓰고 있는
석교(石橋) 잔해,
『설봉문화』(이천문화원, 1993)
제9호 「석산리 석교」

내(川)가 있어서 우계(雨季)면 통로가
말이 아니어서 교통이 두절되는 일이
많았다. 이것을 본 피씨문중(皮氏門中)의
모 피씨가 부암(傅岩), 뜬 돌을 날라다
다리 하나를 놓아서 세인(世人)의 칭송이
자자했다. 이 석교(石橋)는 길이가
十五米나 되는 대교(大橋)로서 후에 그
가교자(架橋者) 피씨(皮氏)의 공덕을 오래
전기 위하여 동민(洞民)들이 비(碑)를 세워

사기(事記)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그 각자(刻字)는 거의 알아볼 수
없이 되어 버렸다. 석교동(石橋洞)의 동명(洞名)도 이 석교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설봉문화』(1993) 제9호 「석산리 석교」에서는

“이곳에는 석원교가 놓여 있는데 그 아래 200m 지점에 석산리
석교가 놓여 있다. 지금은 본래의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우나
지금도 징검다리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공적으로 다듬어진 장방형
석주(長方形石柱)들이 흩어져 있다. 이 다리를 통하는 소로가
옛날에는 충청도 남부에서 용인을 거쳐 한양에 이르는 중요한
길목이었다고 한다……(중략) 이 마을에 살던 피씨 성을 가진 사람이
영남에서 한양으로 과거를 보려 다니는 사람들을 위하여 건립한
것이라고 한다. 후에 그 일로 인하여 그에게 찰방 벼슬이 주어져
피찰방(皮察訪)이라고 불리웠다고 한다.”

라는 매우 객관적인 이야기가 실려 있다. 이에 문헌 조사를 해보니 1913년 토지조사부에 음죽군 상율면 하산동(下山洞)에 거주했던 피씨는 피석배(皮錫培)·피원오(皮元五)·피원규(皮元奎)·피건배(皮建培)·피원협

(皮元協)·피원여(皮元汝)를 포함 6가구가 살고 있었다. 지금은 피씨들이 석교촌에 단 한 사람도 살고 있지는 않지만, 1913년 즈음까지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어떤 인물이 다리를 놓았는지 알고 싶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단양 피씨·홍천 피씨 족보를 찾아보았으나 상기 6명의 인물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괴산 피씨 족보는 아쉽게도 도서관 어디에도 없었다. 더욱이 전국에 6천여 명 남짓한 아주 작은 성씨이다 보니 문중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 인터넷에서 겨우 한 사람을 찾아내서 이메일로 문의를 했는데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차후 반드시 족보를 찾아서 고증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는 『이천군 향토문화자료총람』(1984.7) 「제3집 지명 유래편」, 『利川郡誌』(1984.12), 『이천시 율면 문화유적·민속조사보고서』(1997), 『利川市誌』(2001)에 「안장사(安壯士)와 석교(石橋) 전설」이 실려 있다. 아래에서 참고하기 바란다.

② 안장사(安壯士)와 석교(石橋) 전설

“옛날 이 마을에 안씨(安氏) 성을 가진 장사가 살았는데, 그 어머니가 청상과부로서 양아리에 사는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 밤이면 아들 몰래 내(川)를 건너 양아리를 찾아가곤 했다. 열다섯 된 아들이 이 사실을 눈치 채고, 어머니가 추운 겨울에 밭을 벗고 내(川)를 건너는 것을 안타까워하여, 며칠을 두고서 돌을 날라두었다가 어머니가 내를 건너간 사이를 틈타 하룻밤 만에 다리를 놓은 것이 이 석교(石橋)이며, 그 뒤로 사람들이 다리 이름을 ‘안장사다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석원천 건너 양아리와 북두리 일대에 충주 안씨(忠州安氏)들이 세거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전설은 후대에 이야기를 만든 것으로

로 여겨진다. 이천문화원에서 발행하는 『설봉문화』(2002) 제28호에 이충섭(1939~)이 「꽁트로 엮은 율면의 전설」로 재구성하여 실리기도 하였다.

3. 응천(鷹川), 속칭 수리내

응천은 음성군 금왕읍 백야리에서 발원하여 금왕읍 중앙을 관통하여, 생극면 도신리·병암리·신양리·팔성리·송곡리를 지나, 이천시 율면 총곡리와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 사이를 흐르다가, 백족산(百足山, 402m) 앞에서 청미천과 합류하는 총 연장 18km의 하천이다. 응천을 음성군 생극면에서는 속칭 ‘무기개울(無極川)’이라고도 부른다.

이천(利川)의 변방이 율면(栗面)이라면 율면의 변방은 총곡리(叢谷里)다. 더욱이 예전에 이 마을 아이들은 율면 관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 있는 원당국민학교를 다녔다. 마을에서 응천(鷹川)만 건너면 1.5km 남짓한 코앞에 학교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해 율면 오성리 소재 율면국민학교는 6km나 되는 먼 거리였다. 이것이 도(道)가 다른 충북으로 학교를 다니게 된 연유이다. 아이들은 1962년 3월 7일 옆 마을 월포리에 율면국민학교 월포분교가 인가되고 나서도, 일부는 월포국민학교를 다니지 않고 원당국민학교를 다녔다. 그러다보니 율면에 친구가 없게 되고 자연스레 낯선 이방인(異邦人)처럼 되어버린 마을이다.

1) 지명 유래

응천(鷹川)이 마을 끝자락을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흐르다보니, 이천에서는 청미천의 지류인 응천에 대하여 언급조차도 하지 않았다. 율면 사람들 또한 이런 개울이 있느냐고 오히려 반문할 정도로 이방인처럼 슬그머니 흘러간다. 다만, 『이천시 율면 문화유적·민속조사보고서』(1997)에서야 비로소 아래처럼 기록한 것이 전부다.

- 수리내다리 - 응천교(鷹川橋), 취천교(鷺川橋) : 포기실에 있는 다리
- 양수합개비 - 응천과 청미천이 합수되는 곳
- 응수합수머리 - 양수합개비

따라서 무엇보다도 급선무는 지명 유래부터 밝혀둘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충북 음성군 쪽에서는 어떻게 기록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디지털음성문화대전을 보면, “응천의 명칭 유래는 일명 수리내라고 하는데, 수리내를 한자로 표기하면 응천(鷹川)이 된다.”라고 한 것이 전부다.

이로써 응천의 고유지명이 ‘수리내’인 것을 알았고 한자 명칭 또한 응천(鷹川)과 취천(鷺川) 두 개가 쓰여 지고 있음을 알았다. 그렇다면 ‘취천’과 ‘응천’ 중에 무엇이 옳은 한자 지명일까. 문헌을 살펴보니 『조선지지자료』(1911)에 ‘鷺川 수리내’로 기록하였고, 1915년 지도에는 ‘鷹川 스리 ��(수리내)’로 별도 표기하였다. 이로써 1915년 즈음에 ‘취천’에서 ‘응천’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천에서는 여전히 ‘수리내다리(鷺川橋)’로 부르고 총곡리 마을회관에 걸려 있는 총곡팔경(叢谷八景) 중 제8경 역시도 「줄줄 흘러 가는 수리내(鷺川細柳流)」이고, 총곡팔경 중 제2경은 「돌소(石沼)의 밤고기 잡는 횃불(石沼漁火)」로 예전에 백중날이면 마을 사람들은 ‘수리내’에서 천렵을 하면서 놀았다고 한다. 이로보아 총곡팔경이 쓰인 시점은 구한말로 여겨진다.

응천의 지명 유래는 충북 음성군 생극면 차곡리 소재 수레의산 (679m)에서 연유한다. ‘수리’, 곧 독수리나 날아다닐 정도로 이 지역에서는 산이 높다고 하여 하늘 높이 나는 독수리를 비유해 고유어로 수리산이라 부른 것이다.

『여지도서』(1757~1765), 『충주군읍지』(1870), 『충주목지도』(1872), 『음성지명지』(1998)에는 고유지명을 발음 나는 그대로 ‘수리산(愁離山)’으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동역도(東域圖)』(1700년대), 『팔도군현지도』(1872),

『조선지도』(조선후기)에는 ‘취산(鷺山)’으로 기록하였다. 또한 『구한말한반도지형도』(1895)에는 ‘차의산(車依山)’으로 표기하고 옆에 고유지명을 가타카나로 ‘スリサ(수리산)’으로 별도로 표기하였고, 산 아래 들판의 경우에는 발음 나는 그대로 새김을 차훈(借訓)하여 ‘수리평(水理坪)’으로 표기하였다.

『조선지지자료』(1911)에서도 수리산 아래에 있는 음성군 생극면 차곡리(車谷里) 밑에 한글로 ‘수리울’로 기록하였고, 1915년 지도에도 ‘車谷里 スリオルリ一(수리울리)’로 별도 표기하였고, ‘車依山’ 역시 가타카나로 ‘スリイ サソ(수리산)’을 별도 표기하였다. 『조선환여승람』(1934) 음성군에는 ‘차의산(車儀山)’으로도 기록되어 있다.

이후 1956년 지도에도 여전히 차의산(車依山)으로 표기하더니 1963년 지도부터는 순 고유지명인 ‘수레의산’²²으로만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鷺山·愁離山·車依山·車儀山’은 모두 한자의 뜻하고는 무관한 고유지명 ‘수리산’을 표기한 차훈(借訓) 또는 차자지명(借字地名)일 뿐이다. 고유지명 ‘수리산’을 원형으로 하는 지명의 변천은 아래와 같다.

수리산(愁離山) → 취산(鷺山) → 차의산(車依山) → 수레의산

²² 1963년 국립건설소
1:50,000 도엽번호 6725 III
장호원

1971년 국립건설소
1:50,000 도엽번호 6725 III
장호원

1974년 국립지리원
1:50,000 도엽번호 NJ 52-9-
28 장호원

여기에서 ‘수레의산’은 고유어 ‘수리’에서 음운변화로 변이된 지명이고 ‘수리산(愁離山)’은 고유어 ‘수리’를 한자의 뜻하고는 무관하게 표기한 차훈지명(借訓地名)일 뿐이다. 그런데 지난 2018년 충북 음성군 생극면에서는 ‘수레의산’을 ‘수리산(愁離山)’으로 옛 지명을 되찾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이왕 되찾을 바에야 고유지명 그대로 ‘수리산’으로 원천 복원하는 게 더욱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다. 이 지역 선대들이 비교적 최근까지도 부르고 썼던 고유지명인만큼 자연스레 ‘응천(鷹川)’도 ‘수리내’로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어쨌든 고유지명 ‘수리산’에 한자 의미를 부여하여 ‘수리산(愁離山)’

아산·평택 거북놀이로 본 백제건국세력의 남하흔적

임종삼

I. 머리말

II. 문헌 탐색

1. 거북놀이의 전승 양상
2. 용인 할미산성 설화
3. 백제 건국의 정설과 이설
4. 백제 건국 초기의 역사

III. 거북놀이의 발생 연원 추적

1. 아산만 지역의 거북놀이
2. 연가부구(連葭浮龜)와 현무(玄武)
3. 용인 할미산성 설화의 구조
4. 삼국시대 漢山과 河南의 영역
5. 비류와 온조 일행이 남하한 서해 뱃길

IV. 맷음말

1. 아산·평택거북놀이는 백제건국세력의 남하 흔적
2. 용인 할미산성 설화의 마고선인은 소서노를 상징
3. 경기도 거북놀이의 발생 유래

으로 윤색한 지명이 그럴듯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사족(蛇足)일 뿐이다. 이는 서울이란 고유어를 두고도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는 ‘서울(徐菀)’이란 한자를 굳이 만든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III. 나가는 말

청미천(淸渼川)은 유명한 하천이다. 유장(流長) 64km의 긴 하천이다 보니 곳곳에 서린 문화가 많을 수밖에 없다. 다만 여기에서는 율면 지역에 한하여 다루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많다. 그러나 그동안 이천에서 청미천에 대하여 개략적인 것만 다루었지, 지명 유래나 천변(川邊) 문화에 대해서 다룬 적이 없었다. 미약하나마 이렇게 거론한 것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석원천(石院川)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어디에서 발원하여 어디로 합류하여 흘러간다는 개략적인 자료만 있었을 뿐이다. 석원천은 지금 예전 아이들이 멱 감고 고기 잡던 하천이 아니다. ‘한내개울보(漢川洑)’도 사라지고 없다. 1990년대 중반, 율면 일대 농지를 바둑판처럼 정리를하면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물론 봇도랑도 사라졌다. 그 맑던 개울물도 인근의 많은 우사(牛舍)로 인하여 시커먼 물로 변해 버렸고, 모래밭도 사라지고 물고기가 뛰놀지 못하는 죽은 하천이 되고 말았다.

율면에서 응천(鷹川)은 참으로 낯선 하천이다. 율면 사람 대개는 이런 개울이 있는지도 모른다. 율면의 변방 총곡리 앞으로 잠깐 흐르다가 청미천에 합류하다 보니 더욱 그렇다. 바로 이웃한 음성군 생극면에서는 2008년부터 해마다 ‘응천 십 리 벚꽃길 걷기 대회’를 하는데, 이천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개울을 사이에 두고 도(道)를 달리하지만 학교를 같이 다녔던 만큼 이런 행사는 같이 해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미흡하지만 이상으로 마친다.

I. 머리말

거북놀이는 경기도 남부와 충청도 북서부에 전래한다. 아산만에 딸린 삼교천, 안성천, 진위천, 황구지천 지역에 집중한다. 경기도 이천거북놀이와 평택거북놀이는 전국적인 민속놀이로 자리 잡았다.

거북놀이의 발생 유래에 대하여 밝혀진 바는 없다. 거북놀이가 왜 시작되었는지, 거북놀이의 주체가 왜 청소년인지, 놀이 거북을 왜 수수 잎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없다. 그런데 아산, 평택거북놀이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포착된다. 또 용인 할미산성 설화에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실마리가 발견된다. 그것은 거북놀이가 고구려에서 남하한 백제 건국세력의 흔적이라는 것이다.

아산거북놀이 사설에는 고구려의 중심 무대였던 압록강이 등장한다. ‘이 거북이가 압록강에서 아산까지 오느라고 배가 고파 허기졌소. 먹을 것이 있거들랑 먹을 것을 좀 주시오’라는 구절 행위가 수반된다. 또 용인 할미산성 설화에는 9년 가뭄의 어려움, 성 쌓기 내기에 실패하여 죽은 아들, 석성산의 산신이 된 마고할미 등이 등장한다. 아산거북놀이 사설과 용인 할미산성 설화는 백제 건국의 역사와 동일한 서사 구조를 가진다.

이에 본고는 두 자료를 분석하여 경기도에 전승하는 거북놀이의 발생 유래를 밝혀보았다.

천안거북놀이



II. 문헌 탐색

1. 거북놀이의 전승 양상

1 김종대,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2 『경기도 거북놀이의 전승 양상』, 경기도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민속원, 2015

김종대¹는 『경기도 거북놀이의 전승 양상』²의 머리말을 다음과 같이 썼다.

a-1. 이 책은 경기도에서 전승되는 거북놀이에 대한 조사보고서다. 현장을 조사한 곳도 있지만, 문헌조사 만으로 다룬 곳도 있다. 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왜 거북놀이를 한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다. 또한 이 놀이를 왜 경기도의 남부와 충청도의 북부 지역에서만 행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런 의문은 조사를 끝낸 지금도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가슴이 답답하다. 조사를 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고 믿는다. 이것은 우리 민속문화를 온전하게 조사하고 기록하지 못한 우리 책임이 분명하다.

거북놀이는 흥미롭게도 북청사자놀이처럼 동물 가장의례의 하나이다. 북청사자놀이는 정월 보름에 행해지기 때문에 벽사진경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보여준다. 하지만 거북놀이는 추석에 행하기 때문에 수확 의례적 속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수확 의례로만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놀이의 주체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이다. 이들에 의해서 주도된 거북놀이의 속성은 풍요를 얻음에 대한 감사 표현도 들어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의 수명장수를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의 경우 어린이들이 이른 시기에 많이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백일이나 돌잔치 때 수수떡을 해서 먹었다는 것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수수잎으로 거북이를 만든 것은 바로 거북이가 장수하는

동물이며 그 동물을 만든 것이 수수라는 점은 바로 수명장수를 상징한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음식을 거둬서 같이 나누어 먹는다는 호혜의식(互惠意識)까지도 담겨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거북놀이를 통해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는 거북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솟잎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수수는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재배하는 밭작물이다. 즉 거북놀이의 전승 지역은 지금과는 달리 그루거리를 하는 밭농사 권역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특징을 지닌 거북놀이는 점차 농악과 결합하면서 연희적인 속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전승의 변화를 살피고자 한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다.

자료 a-1)에서 김종대는 거북놀이를 왜 한 것일까, 이 놀이를 왜 경기도와 충청도에서만 행하였는가, 이 놀이를 연희하는 주체들이 왜 청소년인가에 대한 의문을 풀 수 없어 답답하다고 하였다.

2. 용인 할미산성 설화

1) 할미산성(豁未山城)

3 이인영, 「내 고장 용인 문화유산총람」 저자, 용인문화원장 역임

4 할미산성(豁未山城), 「내 고장 용인 문화유산총람」, 이인영 저, 용인문화원, 1997, 115~118쪽

b-1. 이 성은 구성면 동백리와 포곡면 마성리 중간에 위치한다. 해발은 349.9m이며 타원형을 이루는데 도면상으로는 말머리 형태와 유사한 모양이다. 이 성은 마고선인(魔姑仙人)이라는 할머니가 쌓은 성이라는 유래가 있어 일명 노고성(老姑城), 할미성, 마성 또는 할미산성(豁未山城, 대동야승 제8권, 541쪽)이라고 호칭된다. 전설에 의하면 고려 때 '마고선인'이라는 할머니가 나타나서 만나는

사람마다 불들고 곧 난리가 날 터이니 이곳에 성을 쌓으라고 외쳤으나 아무도 말을 믿으려 하지 않자 할머니 혼자서 성을 쌓았다. 축성 방식, 성의 형태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성은 삼국시대에 고구려나 백제 쪽에서 축성했을 것이 가장 유력하다. 필자가 어거지 같은 소리를 해 본다면 이 성은 온조시대에 축성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미 김성호(金星昊) 씨가 주장한 (拂流百濟와 日本의 國家起源, 1982) 바와 같이 온조(溫祚)가 남래(南來)하여 등정했다는 부아악이 용인의 부아산이라고 전제할 때, BC 11년 온조가 '그 북쪽에 마수성(馬首城)을 축조하고 병산책(瓶山柵)을 세웠다'는 삼국사기의 내용을 이곳 부아산에 대입시키면 그 북쪽의 마수성은 곧 지금의 할미성이 된다. 아직도 용인시 삼가동에는 궁촌, 궁말이라는 지명이 전존하고 있는 것도 우연치 않은 일이며 학계에서는 아직 마수성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가 현지를 답사했을 때는 물론이고 한양대에서 실측한 경기도 백제 유적지 할미성 실측도에서도 이 성이 말머리 모양과 같은 형태를 갖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마수성이 마성(馬城·麻城) 또는 마고선인(魔姑仙人)이 쌓았다는 전설에 따라 이것이 의역되어 할미성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자료 b-1)에서 이인영은 용인 할미산성을 고구려나 백제가 축성했을 것으로 주장하였다. 또 온조가 남하하여 오른 한산 부아악을 용인 부아산으로 보았다.

장수왕 대 이후 고구려의 국명은 고려(高麗)였다. 중원고구려비에도 고려태왕(高麗太王)이라는 두 음절의 국명으로 쓰였다. 속칭 '고릿적' 이란 말은 고구려 또는 고려를 가리킨다.

석성산의 산신이 된 마고선인은 백제의 시조모 연소서노에 비정된다. 소서노는 해빈 미추홀과 하남 위례성의 중간인 용인 할미성에서 두 왕자의 통합을 꾀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석담마을 적석총

5 적석총,『용인시의 문화유적』
-용인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최몽룡·이현종·오세
연, 서울대학교박물관, 용인시,
1996, 34쪽

6 할미당 설화,『용인군지』, 용인
군사편찬위원회, 1990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석담(石潭)으로 불리는 적석총(積石冢)⁵이 있다.
이 돌무더기에 할미당 설화⁶가 전래한다.

b-2. 마평동 적석총, 용인읍 마평동 574번지에 위치하며 가까운
하천변의 돌을 이용해 방형의 봉분을 쌓은 것인데, 이는 보존
상태가 양호한 서남쪽의 모서리가 직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알 수
있다. 주변의 인가로 인하여 많이 훼손되고 있으며, 길이는 25~30m,
폭 10~15m, 높이 3m 정도다.

b-3. 옛날에 석성산 북쪽에 할미성을 쌓을 때의 일이다. 이 할미성을
쌓기 위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마을의 모든 사람이 부역하였다.
특히 아낙네들은 행주치마로 돌을 싸서 매일같이 날랐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나와서, “할미성을 다 쌓았으니 돌을 안 날라도
된다”고 하였다. 그러자 돌을 나르던 여인들이 그 자리에 돌을
내던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때부터 그곳을 돌무더기가 담처럼
쌓인 곳이라고 하여 석담마을로 부르게 되었다.
일설에는 석담마을의 돌무더기는 할미성을 쌓던 마고할미가 밤새
돌을 나르다가 이곳에서 잠시 쉬다 흘린 것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마을 사람들은 돌무더기가 있는 곳에 할미당을 세우고 마고할미를
위하여 매년 정월 보름에 제사를 지냈다. 만약 할미당에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재앙이 오기 때문에 지금도 거르지 않는다고 한다.

자료 b-2), b-3)에서 용인 경안천변에 축조된 돌무더기는 적석총이
다. 고구려 통구하 산성자 고분군의 허물어진 적석총의 형태와 유사하
다. 마을 촌노들에 의하면 일제 강점기에 이 돌무더기가 도굴되었는데,
금으로 만든 물병이 나왔다는 풍문도 전한다. 물병은 백제 병산책의
병산(瓶山)에 소통된다.

석담(적석총)은 마고할미의 무덤으로 추정되며 할미당의 마고할미
는 백제의 시조모 소서노로 추정된다.

3) 용인 할미산성 설화

7 할미성, 용인군지(龍仁郡誌),
용인군사편찬위원회, 1990,
115쪽

8 용인군지(龍仁郡誌), 용인군사
편찬위원회, 1990

9 용인할미산성설화, 유성관, 용
인할미성대동굿전수자

할미성은 마고선인(摩姑仙人)이라는 할머니가 쌓은 것이라 하여 할미성
또는 노고성(老姑城)이라고 한다. 이 성을 어느 때 어떤 목적으로 쌓았
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 다만 대동야승 제8권 54호에 ‘이 성
은 할미성인데 구전하는 설화가 있다’는 간단한 기록이 있을 뿐이다.⁷

할미산성 설화는 용인군지(龍仁郡誌)⁸, 구성면지(駒城面誌), 포곡면지
(蒲谷面誌) 등에 실렸다. 구전 채록에 의한 기록으로 그 내용은 구술자
마다 마을마다 조금씩 다르다. 할미성대동굿 전수자인 유성관이 구술
하는 용인 할미산성 설화⁹는 다음과 같다.

b-4. 옛날 아주 옛날에 슬하에 남매를 둔 노부부가 있었다.
노부부는 아홉 해나 가뭄이 들어 슬하의 자식 한 명을 죽여야 하는
형편에 놓였다. 이에 노부부는 아들과 딸을 불러놓고 내기를 걸었다.
하룻밤 사이에 아들은 성을 쌓고 딸은 나막신을 신고 한양을
다녀오는 내기였다. 그리고 내기에 지는 사람의 목을 베기로 하였다.
노부부는 내심 아들보다는 딸이 내기에 져서 죽기를 바라면서
아들을 도와 성을 쌓기 시작하였다. 아들이 남쪽에서 성을 쌓기
시작하자 할머니는 북쪽에서 성을 쌓았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딸이
돌아오는 길목을 지키면서 초조한 마음에 흙을 한 줌씩 쥐었다
놓았다. 할아버지가 쥐었다 놓은 흙이 산봉우리가 되어 아흔아홉
봉우리가 될 때 동쪽에 해가 떠오르고 딸이 돌아와 버렸다.
이때 아들은 약속한 성을 다 쌓지 못하였다. 할머니는 북쪽의
성을 다 쌓았으나 아들은 남쪽의 성을 다 쌓지 못하였다. 그래서
노부부는 내기에 진 아들을 죽이게 되었다. 아들의 목을 베자
천둥 번개가 치며 9년 가뭄 해소의 장마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 할아버지와 딸도 벼락을 맞아 죽었다. 한꺼번에 아들과 딸과 할아버지를 잃고 혼자 남아 애통하게 살던 할머니는 죽은 후에 산신이 되었다. 용인의 진산인 성주산(聖住山) 수호신이 되어 용인 지역의 상산 신령이 되었다.

자료 b-4)에서 아홉 해의 가뭄은 백제 건국 9년의 어려움에 비교된다. 남쪽 성과 북쪽 성 쌓기 내기는 비류가 세운 해빈 미추홀과 온조가 세운 하남 위례성에 비교된다. 성 쌓기 내기에 진 아들의 목을 벤 것은 미추홀에 도읍을 세우려다 실패하여 죽은 비류에 비교된다. 혼자 남아 애통하게 살다 죽어서 산신이 된 할머니는 오호(五虎)에게 시해된 백제의 시조모 소서노에 비교된다.

용인 할미산성 설화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드러낸다. 그 하나는 할미산성 설화가 백제 건국의 역사와 플롯이 같다는 점이다. 그 둘은 할미산성의 마고선인이 고구려에서 남하한 소서노일 가능성이라는 것이다. 그 셋은 고구려에서 망명한 온조 일행이 올랐다는 부아산(負兒岳)이 용인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4) 할미성대동굿

유성관¹⁰은 할미성대동굿¹¹을 다음과 같이 구술하였다.

b-5. 할미성대동굿은 정월과 백종 전후에 이루어진다. 먼저 횃불을 만들고 소를 잡아 산신제를 올리며 산신제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산신제에는 네 귀가 달린 떡시루와 작은 모형의 무쇠 말 3개 또는 9개를 놓는다. 할미성대동굿은 풍년을 기원하고 홍수를 막는 보막이 줄다리기로 끝을 맺는다. 보막이 줄다리기에 쓰인 줄 한 가닥은 마고선인이 거주하는 성주산(석성산) 마가실 서낭의 당나무에 돌리는 것이 이 굿의 특징이다.

¹² 김응호, 죽전전통문화보존회장

¹³ 죽전줄보맥이, 경기도메모리(Gyeonggi-do-Memory), 죽전 전통문화 활성화 심포지엄

¹⁴ 홍순석, 강남대학교 명예교수, 국문학 전공

¹⁵ 할미성 대동굿의 연원,『용인 할미성 대동굿』, 홍순석 著, 민속원, 2016, 108쪽

김응호¹²는 죽전줄보맥이를 다음과 같이 재현하였다.

b-6. 죽전줄보맥이는 죽전전통문화보존회가 활성화시켰다. 죽전줄보맥이의 가장 큰 특징은 줄다리기 행사가 모두 끝난 후에 있다. 죽전 주민들은 풍년농사를 기원하며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줄다리기 줄을 따로 보관하고 매년 다시 쓰는 것과 큰 차이다. 보를 막은 줄다리기 줄은 보통 3년을 버텼다고 전해진다. 죽전줄보맥이¹³는 2009년 제17회 경기도민속예술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홍순석¹⁴은 할미성대동굿의 연원¹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b-7. 할미성대동굿이 용인 지역의 대표적인 굿으로 인식되면서도 그 연원은 고증할 길이 없다. 구전 자료에도 언제 누가 할미산성의 신적 존재를 신앙의 대상으로 제의(祭儀)를 행하였는지 전하는 바가 없다.

자료 b-5)에서 유승관은 할미성대동굿 산신제에 네 귀가 달린 떡시루와 작은 모형의 무쇠 말 3개 또는 9개를 놓는다고 하였다. 네 귀가

용인할미성대동굿



달린 떡시루는 고구려 토기의 전형이며 무쇠 말(馬)을 놓는 것은 할미산성이 백제 마수성(馬首城)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할미성대동굿의 출보맥이는 풍년을 비는 농경 의식으로 식량 확보를 위한 마을 주민의 집단 행위이다.

자료 b-6)에서 김응호는 죽전출보맥이는 풍년농사를 기원하며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출다리기였다고 고증하였다.

자료 b-7)에서 홍순석은 할미성대동굿이 고릿적 일이어서 연원을 고증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용인 할미산성 설화, 할미성 대동굿, 아산거북놀이, 백제 건국의 역사를 비교 분석하여 할미성대동굿의 연원을 밝힐 수 있다고 판단한다.

3. 백제 건국의 정설과 이설

1) 백제 건국의 정설

16 백제 건국의 정설,『삼국사기(하)』, 김부식 지음, 이병도 역주, 을유문화사, 1996, 10~11쪽

삼국사기는 백제 건국의 정설¹⁶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c-1. 마침내 오간, 마려 등 열 명의 신하와 함께 남행(南行)하였는데, 따라오는 백성이 많았다. 드디어 한산(漢山)에 이르러 부아악(負兒岳)에 올라 가히 살만한 곳을 살펴보았다. 비류는 해변에 살기를 원하였으나 열 명의 신하가 이렇게 간하였다.
“생각하건대 이 하남(河南)의 땅은 북은 한수(漢水)를 두르고, 동은 고악(高岳)에 의지하였으며, 남은 옥택(沃澤)을 바라보고, 서로는 대해(大海)를 격하였으니 그 천험지리(天險地利)를 얻기 어려운 지세라 여기에 도읍(都邑)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비류는 따라온 백성을 반으로 나누어 해빈(海濱) 미추흘(彌鄒忽)로 가서 살았다. 이에 온조는 하남(河南) 위례성(慰禮城)에 도읍을 정하고 열 신하로 보좌를 삼아 국호를

십제(十濟)라 하였다.

2) 백제 건국의 이설¹⁷

17 백제 건국의 이설, 상계서, 10~11쪽

삼국사기는 백제 건국의 이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c-2. 시조는 비류왕으로서 아버지는 우태(優台)이니 북부여왕 해부루(解扶婁)의 서손이고, 어머니는 소서노(召西奴)이니 출본인 연타발(延陀勃)의 딸이다. 소서노가 처음에 우태에게 시집가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장자는 비류요, 차자는 온조였다. 우태가 죽자 소서노는 출본으로 돌아와서 과부로 지냈다. 그 뒤 주몽(朱蒙)이 남으로 출본에 이르러 도읍을 세워 국호를 고구려(高句麗)라 하고 소서노를 취하여 왕비로 삼았다.

처음 소서노는 주몽의 건국에 내조가 많아 총애가 특히 두터웠고 비류와 온조도 자기 친아들 같이 대우하였다. 그런데 주몽이 북부여에 있을 때 예씨에게서 낳은 유류(孺留)가 오자 그를 태자로 삼고 왕위를 잇게 하였다. 이에 비류가 온조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처음 대왕이 부여에서 난을 피하여 여기로 도망하여 오자 우리 어머니께서 가재를 기울여서 도와 방업을 이룩해 그 근로가 많았다. 이제 나라는 유류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한갓 혹과 같이 답답할 뿐이다. 차라리 어머니를 모시고 떠나 남쪽의 복된 땅을 얻어 도읍을 여는 것만 같지 못하다.”

마침내 비류는 아우 온조와 함께 무리를 이끌고 패수(渾水)와 대수(帶水)를 건너 미추흘(彌鄒忽)에 정착했다.

자료 c-1), c-2)에서 백제 건국의 정설은 온조가 중심이고 이설은 소서노와 비류가 중심이다. 비류와 온조 일행이 도폐대이수(渡渾帶二水) 하였다는 것은 배로 남하하였음을 가리킨다.

4. 백제 건국 초기의 역사

백제 건국 초기의 역사는 한국인명대사전¹⁸의 연표를 참고하였다.

연대	간지	국명		역사
		고구려	백제	
BC19	임인	유리왕 01	-	9월, 고구려 동명왕이 승천하고 아들 유리가 즉위함 동명왕의 차자 비류(沸流), 온조(溫照) 형제 남하함
18	계묘	온조왕 02	01	온조는 10臣과 왕모(王母) 소서노의 도움으로 하남(河南) 위례성(慰禮城)을 세우고 도읍함. 동명왕묘(東明王廟)를 세움. 비류는 미추홀에 도읍을 세우다 실패함
17	갑진	03	02	3월, 말갈(靺鞨)의 침범을 경계하여 병기(兵器)를 수선하고 양곡(糧穀)을 비축함
16	을사	04	03	9월, 말갈(靺鞨)이 북쪽 토경을 습격함
15	병오	05	04	낙랑(樂浪)에 사신을 보내어 수교함
				2월, 말갈이 대부현(大斧峴)의 백제 군사를 격파하고 도성 하남 위례성을 포위함
11	경술	09	08	7월, 위례성의 북쪽에 마수성(馬首城)을 쌓고 병산책(瓶山柵)을 세워 낙랑과 불화(不和)함
09	임자	11	10	10월, 말갈이 북쪽 토경을 습격함
08	계축	12	11	4월, 낙랑이 말갈을 시켜 병산책을 습격케 함 7월, 독산(禿山), 구천(狗川)에 책(柵)을 세워 낙랑의 통로를 막음
06	을묘	14	13	5월, 왕모(王母) 소서노가 5호(虎)에게 시해됨 7월, 한산(漢山)에 책(柵)을 세우고 위례성의 민호(民戶)를 옮김
05	병진	15	14	1월, 국도(國都)를 하남(河南)에서 한산(漢山)으로 옮김 7월, 강서북에 축성하고 한성(漢城)의 민호(民戶)를 옮김
04	정사	16	15	1월, 궁실(宮室)을 세움
02	기미	15	17	1월, 낙랑이 위례성을 불태움 4월, 국모 소서노의 묘(廟, 사당)를 세움
01	경신	17	18	10월, 말갈을 칠중하(七重河)에서 격퇴하고 말갈 추장(酋長)을 사로잡음

<표 1> 백제 건국의 역사 연표

<표 1>에서 백제 건국의 역사는 말갈, 낙랑과의 투쟁이었다. BC 18년
에 온조는 하남에 위례성을 세우고 도읍하였다. BC 6년에 왕모 소서노
가 시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온조는 한산에 책을 세우고 위례성의 민

호를 옮겼다. 온조가 위례성의 민호를 한산으로 옮긴 것은 오호(五虎)로
불리는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행동으로 판단된다.

III. 거북놀이의 발생 연원 추적

1. 아산만 지역의 거북놀이

1) 아산거북놀이 사설

아산거북놀이 사설에는 압록강에서 해상으로 남하한 북방 세력의 흔
적이 등장한다. 압록강(鴨綠江)은 고구려의 중심 영역이다. 아산거북놀
이¹⁹ 마당놀이 사설은 다음과 같다.

19 아산거북놀이, 은양아산민속
(1집 집단민속놀이), 은양문화원
홈페이지

주인! 주인! 문 여시오 수명장수 들어가오
주인! 주인! 문 여시오 만석 거북이 들어가오
주인! 주인! 문 여시오 문 안 열면 난 갈라오
이 거북이가 압록강(鴨綠江)을 건너 여기까지 오느라고
배가 고파 허기졌소
아산 땅에 오느라고 배가 고파 쓰러졌소
먹을 것이 있거들랑 먹을 것을 좀 주시오
술도 좋고 밥도 좋소 곡식일랑 담아 주소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뼉석 거북아! 놀아라!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천석 거북아! 놀아라!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만석 거북아! 놀아라!

2) 직산거북놀이 사설

아산만에 인접한 직산거북놀이 사설에도 해상으로 남하한 북방 세력

²⁰ 직산거북놀이, 「경기도 거북놀이의 전승양상」, 김종대 외, 민속원, 2014, 23쪽

²¹ 평택거북놀이, 상계서, 22쪽

²² 광개토왕비 쌍구가목본(雙鈞加墨本), 酒勾景信, 1909년

의 흔적이 등장한다. 압록강과 백두산은 고구려의 중심 영역이다. 직산거북놀이²⁰ 마당놀이 사설은 다음과 같다.

우리 거북이가 압록강을 건너서 백두산을 넘어 이곳까지 오느라
배가 고파 쓰러졌으니 먹을 것 좀 주십시오.

3) 평택거북놀이 사설

아산만에 위치한 평택거북놀이 사설에도 해상으로 남하한 북방 세력의 흔적이 등장한다. 평택거북놀이²¹의 마당놀이 사설은 다음과 같다.

거북이들이 서해바다를 건너 먼 길 걸어 이 집까지 오복만곱을 태산
같이 짊어지고 왔소이다.

2. 연가부구(連葭浮龜)와 현무(玄武)

1) 광개토왕비문의 연가부구(連葭浮龜)

연가부구(連葭浮龜)는 광개토왕비문²² 제1면 1~3행의 기록이다. ‘시조 추모왕이 남부여(南夫餘)의 엄리대수(奄利大水)에 이르러, 나를 위하여 나무다리를 놓고 갈대를 띄우라고 하였다. 그랬더니 거북이 응대하여 갈대를 잊고 거북을 띠워 왕을 도왔다’는 내용이다.

이 기록의 거북(龜)은 고구려의 근거지인 남부여를 가리킨다. 백제 왕 가의 본류가 남부여에서 왔다는 것은 백제 성왕(聖王)의 치세에서도 드러난다.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한 성왕은 백제의 국호를 남부여로 개칭하였다. 백제가 고구려와 한가지로 남부여에서 비롯하였음을 상기시킨다.

2) 강서대묘의 현무(玄武)

현무(玄武)는 강서대묘(江西大墓)²³의 사신도(四神圖)에 등장한다. 강서대

²³ 강서대묘(江西大墓), 四神圖,
Daum백과

묘는 평안남도 강서군에 있는 고분으로 강서삼묘 중 가장 큰 벽화고분이다. 널방 남벽의 입구 주변에는 인동·당초무늬를 그려 장식하고, 좌우의 좁은 벽에는 주작(朱雀)을 한 마리씩 그렸으며, 동벽에는 청룡(靑龍), 서벽에는 백호(白虎), 북벽에는 현무(玄武), 천장 중앙의 덮개돌에는 황룡(黃龍)을 각각 그렸다. 강서대묘의 북벽에 그려진 현무(玄武)는 곧 신구(神龜)이다.

3. 용인 할미산성 설화의 구조

백제 건국 초기의 역사와 용인 할미산성 설화를 비교하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된다. 용인 할미산성 설화가 백제 건국의 역사를 그대로 닮고 있다는 점이다.

4. 삼국시대 한산(漢山)과 하남(河南)의 영역

내용	할미성(老姑城) 설화(소서노의 입장)	백제 건국 초기의 역사(비류와 온조의 입장)
발단	가뭄으로 겪은 9년간의 어려움	고구려를 떠나 도읍을 세우기까지 겪은 9년간의 어려움
	두 성을 서로 이어 쌓지 못한 아쉬움	비류와 온조는 의견 차이로 따라온 백성을 나누어 미추홀과 위례성으로 갈림
전개	성 쌓는 내기의 결과에 따라 살고 죽는 아들과 딸	나이 어린 온조는 어머니 소서노의 도읍으로 도읍 하남 위례성을 세움
	아들이 쌓은 남쪽의 허술한 책(柵)과 어미가 쌓은 북쪽의 튼튼한 성(城)	나이 많은 비류는 해빈 미추홀에 도읍을 세우려다 실패함
절정	아들의 목을 베자 천동번개가 치며 9년 가뭄 해소 의 장마가 시작됐고, 그 와중에 할아버지와 딸도 번개에 맞아 죽음	온조는 한산(漢山)에 책(柵)을 세우고 위례성의 민호(民戶)를 옮김. 국도를 하남(河南)에서 한산(漢山)으로 옮김
	애통하게 살던 할머니도 죽어 성주산(聖住山)의 산신 마고선인(魔姑仙人)이 됨	강서북에 축성하고 한성(漢城)의 민호(民戶)를 옮기고, 궁궐을 세움
결말	王母 소서노가 5虎에게 시해 당함	온조는 어머니 소서노를 시조모로 모시고 사당(廟)을 세움

1) 한산(漢山)과 한수(漢水)

한산(漢山)은 한주(漢州)의 영역이다. 신라구주군현총도(新羅九州郡縣總圖)에 표기된 한주(漢州)²⁴는 지금의 경기도다. 북으로 개성(開城), 남으로

²⁴ 한주(漢州), 신라구주군현총도(新羅九州郡縣總圖), 청구도, 국립중앙도서관, 지리자료실

²⁵ 하팔현(河八縣), 신라구주군현총도(新羅九州郡縣總圖), 청구도, 국립중앙도서관, 지리자료실

2) 하남(河南)과 하북(河北)

고구려에서 남하한 온조가 처음 세운 도읍은 하남(河南) 위례성(慰禮城)이었다. 하남(河南) 위례성(慰禮城)의 위치는 어디였을까? 신라구주군현총도의 하팔현(河八縣)과 고려시대의 사창 하양창(河量倉)을 근거로 하남 위례성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고증한다.

① 하팔현(河八縣)

하팔현(河八縣)²⁵은 한주(漢州)에 딸린 군현(郡縣)이다. 신라구주군현총도의 하팔현(河八縣), 차성현(車城縣), 진위현(振威縣)이 지금의 평택이었다.

평택시 중부에 위치한 하팔현(河八縣)의 하팔(河八)은 이 지역에 흐르는 8개의 하천을 가리킨다. 하팔현의 팔하(八河)는 황구지천, 오산천, 진위천, 안성천, 한천, 청룡천, 입장천, 성환천이다. 이들 8개 하천은 평택호에 합류하여 아산만으로 흘러나간다.

평택시 서부에 위치한 차성현(車城縣)은 평택시 안중읍과 포승읍을 가리킨다. 필자는 차성현(車城縣)을 ‘구르마현’ 또는 ‘수레현’으로 읽는다. 신라 경덕왕이 이 고장의 이름을 수레현으로 정한 까닭이 무엇일까? 세곡(稅穀) 운반의 해운(海運) 조창(漕倉)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평택시 북부에 위치한 진위현(振威縣)은 평택시 송탄읍과 진위면을 가리킨다. 지금도 신라시대의 행정 지명 그대로다. 그런데 진위현의 보통명사가 하북(河北)이다. 한강의 북쪽은 강북(江北)이고 한강의 남쪽은

강남(江南)으로 불리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안성천의 북쪽인 오산 평택은 하북(河北)이고, 안성천의 남쪽인 아산 직산은 하남(河南)이다.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에 그 근거가 남았다.

② 하양창(河陽倉)

하양창(河陽倉)은 아산만에 두었던 고려시대 조창(漕倉)의 이름이다. 이곳에는 쌀 800석을 싣는 15척의 대형 초마선(哨馬船)이 항시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세곡을 실어 나르던 수레(牛馬車)도 무척 많았던 것이다.

아산만에 들어선 국제무역항 평택항은 대중국무역의 전초기지이다. 이곳에 고려시대의 조창 하양창과 조선시대의 조창 공진창이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무역선에 싣고 내릴 물자를 실어 나르는 것은 수레다. 대외 수출품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21세기의 수레는 트레일러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남양만과 아산만에 면한 진위현, 차성현, 하팔현은 바다로 나가고 들어오는 해문(海門)이었다.

안성천의 북쪽인 경기도 평택의 보통명사는 하북(河北)이다. 안양과 평택을 잇는 300번 시외버스의 노선에도 ‘안양범계’와 ‘오산하북’으로 그 명칭이 살아 있다. 그렇다면 안성천의 남쪽인 충청남도 직산의 보통명사는 하남(河南)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온조가 세운 백제의 초도 하남 위례성은 지금의 천안시 직산읍(稷山邑)이 맞는 것이다.

3) 마수성(馬首城)과 병산책(瓶山柵)

온조왕 8년, 왕은 ‘하남 위례성의 북쪽에 마수성(馬首城)과 병산책(瓶山柵)을 세워 낙랑과 불화하였다.’ 성과 책을 세워 낙랑과 불화하였다는 것은 마수성과 병산책의 위치가 낙랑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인영은 용인군지에서 백제 마수성을 용인시 구성면 마성리의 할미성에 비정하였다. 산성의 형태가 말머리를 닮았다는 한양대 발굴조사팀의 발굴 결과와 고구려 구성현(駒城縣)의 지명을 잇는 구성면(駒城面), 마성지(馬城池), 마가지(馬駕池), 마성리(馬城里) 등에 근거하였다.

할미성을 거느린 석성산(=보개산) 봉우리 또한 연꽃 봉오리를 닮았다. 조선시대의 이름 보개산(寶蓋山)을 백제 병산책(瓶山柵)의 병산(瓶山)으로 보는 까닭이다.

4) 독산책(禿山柵)과 구천책(狗川柵)의 위치

온조왕 11년, 왕은 ‘낙랑의 침공을 대비하여 독산책(禿山柵)과 구천책(狗川柵)을 세웠다.’ 온조왕이 세운 독산책은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에 위치하는 독산성(禿山城)²⁶으로 알려진다. 최초 백제의 토성이었으며 이후 고구려, 신라의 토경으로 바뀌었다. 고려시대에는 몽고군의 침입에 대응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을 극복한 국난극복의 성지였다.

구천책의 구천(狗川)은 경기도 수원시를 지나는 개천의 이름이다. 본디 구천(狗川)이었으나 정조대왕의 화산릉 행차가 지나면서 황구지천(皇口之川, 黃狗之川)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구천(狗川)의 상류인 수원시 고색동에 오래된 토성이 존재한다. 고색동(古塞洞)의 이름이 고색인 바, 고색(古塞)은 ‘오래된(古) 요새(要塞)’를 지칭한다. 중국 고사 새옹지마(塞翁之馬)의 의미에 소통한다. 구천을 해자로 삼아 낙랑과 말갈의 교통을 막았던 백제의 성책으로 판단된다.

5. 비류와 온조 일행이 남하한 서해 뱃길

1) 패수(渾水)와 대수(帶水)

이병도는 온조 일행이 건너 패수(渾水)를 예성강, 대수(帶水)를 임진강으로 보았다. 설명을 덧붙이면 대수는 예성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강화도 북부 해안을 의미한다. 삼국시대 임진강 중상류는 칠중하로 불렸다.

고구려의 초도 홀본(홀본)을 떠난 온조 일행은 압록강을 따라 서해로 들어섰다. 이어 낙랑의 영역인 대방고지(帶方故地)에 도읍을 세우려고 하였으나 낙랑태수가 싫어하므로 패수와 대수를 건너 남하하였다

고 판단한다.

2) 용유도(龍遊島)의 왕산포(王山浦)

인천광역시 용유도(龍遊島)²⁷에 왕산포(王山浦)²⁸와 마시안(馬示安)²⁹이 있다. 섬의 모양이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길게 이루어져 멀리서 볼 때, 용이 물에서 놀고 있는 듯하여 용유도라 했다고 한다. 용유도 왕산포에는 왕이 머물러 갔다는 설화가 전래한다.

용(龍)이 놀던 섬이라니? 용(龍)은 왕(王)을 가리킨다. 왕의 얼굴은 용안이고 왕의 자리는 용상이며 왕의 옷은 곤룡포이다. 왕산포는 ‘이 곳에 왕이 와서 살았다는 포구’이고 마시안은 ‘말을 보았다’는 해안이다. 어느 시대 어느 왕이었는지를 아는 이는 없다. 지금도 말 훈련장이 있어 조련사가 말을 타고 마시안 해변을 달리기도 한다. 고구려에서 남하한 온조 일행이 왕산포와 마시안에 머물렀다고 판단한다.



왕산포



마시안

3) 대이작(大伊作島)도 부아산(負兒山)

대이작도(大伊作島)에도 부아산(負兒山)이 있다. 대이작도는 고대부터 서해상 교통의 요지였다. 현재도 인천여객터미널과 대부도방아머리항에서 하루에도 수십 척의 배가 오고 간다. 서해를 지키는 해군기지 또한 이곳에 위치한다. 인천광역시가 세운 안내판은 대이작도와 부아산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대이작도 부아산



부아산 봉수대

이작(伊作)-왕도(王都)를 만들기 위해 세운 섬
 부아산(負兒山)-백성을 품어 나라를 세우고 아이를 갖게 하는 산
 ① 예부터 인천 경기 충청 황해도 해상의 요충지로 봉화대가
 설치되었던 장소다.
 ② 아이를 갖게 해준다는 영험한 명산이다.
 ③ 예부터 백성을 품어 왕도의 터로 일컬어왔다.

대이작도는 ‘王都를 만들기 위해 세운 섬’이라는 전설이다. 주봉은 부아산(負兒山)이고 이곳에 ‘봉화대터’, ‘아기 업은 재’, ‘삼신할미약수터’, ‘삼신할머니상’이 위치한다.

‘아기 업은 재’는 ‘아기를 등에 업고 왕도를 세울 만한 터’를 찾은 고개다. ‘삼신할미약수터’는 이 샘물을 마시면 아기를 점지해준다는 샘터다. ‘삼신할머니상’은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다.

먼 항해에서 쌀보다 중요한 것은 물이었다. 삼신할머니는 곧 소서 노이고 삼신할미약수터는 신선한 물을 공급받는 샘터라는 설명이다. 왕산포를 떠난 온조 일행이 대이작도에 머물러 간 것으로 판단한다.

4) 왕모대(王母臺)와 왕지물(王至沕)

경기도 남양만에 왕모대와 왕지물이 위치한다. 화성시 서신면 용두리



삼신할미약수터



삼신할머니상

에 위치하는 왕모대와 서신면 제부리에 위치하는 왕지물은 고대 서해 뱃길의 포구이다. 신라 사신 김춘추가 나·당연합군을 결성코자 당(唐)으로 건너간 당은포(唐恩浦)의 영역이다.

왕모대(王母臺) 주변에는 궁평리(宮坪里), 고두섬, 왕지물(王至沕)이 있어 그 옛날의 일을 신화처럼 되살린다.

① 왕모대(王母臺)

왕모대(王母臺)는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용두리(龍頭里)에 위치한다. 왕모대는 고대 해안 포구(浦口)이자 마을의 이름이다. 화성군지는 왕모대 전설³⁰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³⁰ 왕모대(王母臺), 화성군지, 화성군사편찬위원회, 제3장 지명 유래, 1990, 995쪽

옛날 경관이 아름다운 이곳에서 왕이 춤을 추며 놀았다고 해서 왕무대(王舞臺)라 불리기도 했고, 왕이 이곳에 한때 머물러 있던 왕모(王母)를 배알하러 다닌 곳이라 하여 왕모대(王母臺)라 부르게 되었다.

³¹ 왕지물(王至沕, 王津沕),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³² 제부도(濟扶島), Daum백과사전 브리태니커

② 왕지물(王至沕)

왕지물(王至沕, 王津沕)³¹은 고대 어느 왕이 머물러 갔다는 전설의 섬이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濟扶島)³²에 딸린 항구다. 제부도와 누에



왕지물(王至沕,王津沕)

섬(蠶島) 사이를 깊고 빠르게 흐르는 바다를 가리킨다. 세계요트경기장으로 조성된 전곡항마리너의 맞은편이다.

제부도는 일명 모세의 기적이 나타나는 섬이다. 하루 두 차례 바닷길이 열리는 육계도다. 바닷길이 열리면 하루 수백 대의 차량이 제부도를 드나든다. 1980년대 서신초등학교 제부분교장으로 근무한 이승규³³는 왕지물 설화를 다음과 같이 구술한다. 그 내용이 아주 재미있고 신선하다.

33 이승규,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출생, 서정리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임

34 고두섬, 경기도 화성시 시신면 제부리

옛날 어느 왕이 배를 타고 제부도에 왔다. 섬의 산봉우리에 오른 왕이 신하에게 물었다.“육지로 나가는 길은 어느 쪽으로 열리느냐?” 신하가 주변의 섬들을 가리키며 대답하였다.“저 섬은 누에섬(蠶島)입니다. 뽕잎 먹는 누에를 닮아 그렇게 부릅니다. 저 섬은 숯무루(炭島)입니다. 숯을 굽는 섬이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육지로 나가는 길은 이 앞의 작은 섬 쪽으로 열립니다. 섬의 이름은 아직 없습니다.” 신하의 말을 들은 왕이 껌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것두 섬이냐?” 이후 왕이 머문 포구의 이름은 왕지물이 되었고, 신하의 말에 왕이 웃은 섬은 고두섬³⁴이 되었다.

대이작도를 떠난 온조 일행은 제부도의 왕지물이와 용두리의 왕모



왕모대(王母臺)

대에서 머물러 갔다고 판단한다.

5) 아산만(牙山灣)

왕지물과 왕모대를 떠난 소서노 일행은 아산만에 이르렀다. 아산만은 경기만 남부 해안에 위치한다. 내륙으로 깊숙이 이어지는 안성천과 삽교천이 고대로부터 매우 유용한 해운 뱃길이었다.

아산거북놀이 사설에는 온조 일행이 도착한 상황이 눈에 보이는 듯 전개된다. ‘이 거북이가 압록강(鴨綠江)을 건너 여기까지 오느라고 배가 고파 허기졌소. 아산 땅에 오느라고 배가 고파 쓰러졌소. 먹을 것이 있거들랑 먹을 것 좀 주시오. 술도 좋고 밥도 좋소. 곡식일랑 담아 주소.’

6) 하팔현(河八縣)

아산만을 떠난 온조 일행은 안성천을 따라 하팔현(平택시)에 들어섰다. 하팔현은 지금의 평택시다. 평택호와 안성천의 영역이다. 평택거북놀이 사설에는 ‘이 거북이가 서해바다를 건너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평택거북놀이에 소도구로 등장하는 것은 독(禿)과 우물(井)이다. 먼 뱃길에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을 구걸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장면이다.

7) 모수성(牟水城)의 독산(禿山)

하팔현을 떠난 온조 일행은 항구지천을 거슬러 모수성(牟水城, 옛 수원)에 이르렀다. 모수성은 마한 백제의 지명이며 독산은 오산시 지곶동에 위치하는 산으로 삼국시대의 지명이다. 온조왕 11년 7월에 왕이 '독산(禿山), 구천(狗川)에 책(柵)을 구축하여 낙랑과의 통로를 막았다'라는 문장에서의 독산으로 판단한다.

독산(禿山)은 쌀독의 독산이다. 용주사의 말사 보적사의 연혁에 의하면 독산성은 삼국시대 아래 쌀을 비축하던 사창의 장소였다. 또 임진왜란 때에 권율 장군은 말을 쌀로 씻는 세마병법으로 왜군을 물리쳤다. 독산성이 쌀을 보관하던 창고였다는 사실이다.

독산 아래의 오산 금암동거북놀이 사설은 매우 흥미롭다. 이제까지의 저자세로 구걸하던 행태에서 벗어난다. 길라잡이가 나무떡메로 대청마루를 내리치며 먹을 것을 내놓으라 오히려 협박한다. 모수성의 곡식 창고였던 독산(禿山)에서 더 많은 식량을 얻으려는 행위로 판단된다.

8) 용인 부아산(負兒山)

모수성을 떠난 온조 일행은 신갈천을 거슬러 모로성(滅烏, 駒城, 용인)의 부아악에 이르렀다. 부아산은 용인대학교 유도대학 뒷산으로 소서노가 '나이 어린(兒) 온조를 등(負)에 업고 오른 산'이라는 전설의 산이다.

부아산 서쪽에서 발원하는 신갈천은 오산 평택을 거쳐 아산만으로 흐른다. 부아산 동쪽에서 발원하는 경안천은 용인 성남을 거쳐 한수(漢水)에 합류한다. 그러므로 '하남(河南)의 땅은 북으로 한수(漢水)를 두르고 남으로 옥택(玉澤)을 바라본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에 일치한다.

용인 부아산 서쪽 지명이 흥미롭다. 신갈, 구갈, 상갈, 하갈이다. 경부고

용인 부아산



속국도와 영동고속국도가 사통팔달로 갈라지는 갈래길이다. 또 다른 의미로는 비류와 온조가 갈라선 길, 한수(漢水)와 팔하(八河)를 가르는 산마루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추정한다.

9) 직산(稷山) 위례산성(慰禮山城)

용인 부아산을 내려온 비류와 온조는 갈라섰다. 비류는 따라온 백성을 반으로 나누어 해빈 미추홀로 가고, 온조는 열 명의 신하와 따라온 백성을 데리고 하남 위례성으로 갔다. 이때 소서노는 부아산 아래의 삼가동의 궁촌(宮闈)에 머무른 것으로 추정된다. 비류가 도읍을 세운 해빈 미추홀과 온조가 도읍을 세운 하남 위례성의 중간 지점이었다. 이곳에 머물러 비류와 온조의 통합을 꾀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오호(五虎)로 불리는 강경파에 시해되어 용인 마평동 석담(적석총)에 묻힌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태조 왕건이 '온조왕사당(溫祚王祠堂)'을 세운 곳은 직산읍 군서리였다. 이후 조선 세종 이도가 쇠락한 '온조왕사당'을 다시 세웠다. 왕건과 세종이 '온조왕사당'을 세워 백제의 사직(社稷)을 기렸다는 것은 충청남도 직산읍이 백제 하남 위례성이라는 확실한 근거다.

온조왕 14년 1월, 왕이 한산(漢山)으로 국도(國都)를 옮겼다. 7월에는 강서북에 축성하고 한성(漢城)의 민호(民戶)를 그리로 옮겼다. 온조왕이 하남(직산)을 버리고 한산(한산)으로 도읍을 옮긴 것은 두 가지 사건에 기인하였다고 판단한다. 그 하나는 왕모 소서노가 오호(五虎)로 불리는 강경파에 의해 시해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 둘은 한산이 말갈과 낙랑의 침공을 방어하기에 유리한 지형이었기 때문이었다. 하남의 팔하(八河)보다 한산의 한수(漢水)를 이용한 물류 교통이 유리하였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하남(河南)은 한수(漢水)의 남쪽이 아니다. 한수의 남쪽이면 그 지명은 한남(漢南)이어야 하는 것이다. 경기도 수원의 조선시대의 별칭이 한남(漢南)이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또 신경준이 쓴 산경표에



직산 온조왕사당

도 남한산은 한남지맥(漢南支脈), 북한산은 한북지맥(漢北支脈)에 속한다.

천안시 북구 입장면에 위례산과 위례산성이 존재한다. 백제 온조왕이 비상시에 거주하던 산성으로 판단된다. 산성 내에 온조우물로 불리는 연못과 하늘에 제례를 올리던 흔적으로 추정되는 팔각천단의 석축이 뚜렷하다. 고구려의 초도였던 홀본 오녀산성과 동일한 구조의 산성과 우물이다. 백제 건국 초기 말갈과 낙랑의 침입에 대피하던 산성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위례성(慰禮城, 위예성)은 ‘하늘을 위로하여 제례하는 성’, ‘산 위에 있는 성’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하남(직산) 위례성과 한산(한산) 위례성의 위치 비정에 학계의 재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V. 맷음말

1. 아산·평택거북놀이는 백제건국세력의 남하 흔적

아산, 직산, 평택거북놀이 사설에는 백두산과 압록강이 등장한다. 고구려에서 해상으로 남하한 백제 건국 세력의 흔적이 발견된다. 놀이 거북을 만드는 재료인 수수잎은 고구려의 영토였던 만주 지방의 주요 빨작물이다.

아산거북놀이는 아산이 고향인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에 연결된다. 놀이 거북을 만드는 재료 수수잎은 중국 영화감독 장예모가 제작한 영화 <붉은 수수밭>에 연결된다.

거북놀이를 유희하는 주체는 10여 세의 청소년이다. 고구려에서 남하한 비류와 온조왕자를 가리킨다고 판단한다. 거북놀이는 백제 건국세력이 남긴 향토 문화로 판단한다.

2. 용인 할미산성 설화의 마고선인은 소서노를 상징

용인할미성대동굿은 용인 할미산성 설화에 바탕한다. 용인시와 용인문화원, 할미성대동굿 전수자인 유성관에 의하여 해마다 재현되었다.

용인 할미성대동굿은 백제의 건국설화와 일치하는 모티브를 갖고 있다. 가뭄 9년으로 농사 짓기의 어려움과 고구려를 떠나 백제를 세우기까지 9년간의 어려움, 성 쌓기 내기에 실패하여 죽은 아들과 도읍 세우기 내기에 실패하여 죽은 아들 비류, 북쪽과 남쪽의 두 성을 이어 쌓지 못한 아쉬움과 비류와 온조가 갈려 통합하지 못한 아쉬움, 죽어서 성주산(석성산)의 산신이 된 마고할미와 죽어서 백제의 시조모가 된 소서노 등이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갖는 구조로 되어 있다.

군포 덕고개 당숲의 역사적 유래와

조경철

용인 할미산성 설화의 마고선인이 백제의 시조모 소서노(召西奴)를 상징한다고 판단한다.

3. 경기도 거북놀이의 발생 유래

거북놀이는 백제 건국 세력의 발자취에서 비롯되었다고 정리한다. 고구려에서 남하한 비류와 온조, 소서노 일가의 흔적으로 판단한다.

국명 백제(百濟)는 백가제해(百家濟海)에서 왔다고 정리한다. 압록강을 따라 서해를 건너 아산만에 상륙한 남부여 1백가(百家)의 규모는 얼마나 아팠을까? 일가의 인원을 10~20명으로 보아 1000~2000명 내외가 아니었을까? 추정한다.

거북놀이의 발생 유래, 하남 위례성과 한산 위례성의 위치 비정에 학계의 재고를 요청한다.

참고 문헌

- 『경기도 거북놀이의 전승 양상』, 김종대 외, 경기문화재연구원, 민속원, 2014
『용인 할미성 대동굿』, 홍순석, 민속원, 2015
『삼국사기(상,하)』, 김부식 지음, 이병도 역주, 을유문화사, 1996
『광개토호태왕비 연구 100년』(상, 중, 하), 고구려연구회, 1996
『오산학연구 제1집』, 오산향토문화연구소, 오산문화원, 2015
『신라구주군현총도(新羅九州郡縣總圖)』, 『청구도』, 국립중앙도서관
지리자료실
『용인군지』, 용인군사편찬위원회, 1990
『오산군지』, 오산군사편찬위원회, 1990

I. 머리말

II. 본론

1. 덕고개 당숲의 역사적 유래
 - 1) 숙정공주
 - 2) 정재륜
2. 덕고개 당숲과 군웅제

III. 맺음말

당숲이면서 군웅술, 당숲의 활용

I. 머리말



당숲은 현 군포시 속달동 덕고개(덕현德峴)에 위치하고 있다[그림 1]. 당숲은 2002년 산림청, 생명의 숲, 유한킴벌리 등이 주최한 제3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아름다운 마을 숲’으로 우수상을 받은 적도 있다. 2004년에는 수리산 태을봉, 수리사, 반월호수, 덕고개 당숲, 군포 벚꽃길, 철쭉동산, 밤바위, 산본중심상가 야경 등 군포 8경 가운데 군포 4경으로 지정 되기도 하였다. 근래 당숲의 명칭을 군옹숲이라고 해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있다. 군옹숲이란 이곳에서 군옹제사가 열려 지어진 이름이다. 이 글에서는 당숲이라 불리게 된 배경과 왜 나중에 당숲이 군옹제와도 연결되었는지 고찰해 볼 예정이다.

[그림 1]
군포시 속달동 덕고개 당숲

II. 본론

1. 덕고개 당숲의 역사적 유래

덕고개 당숲은 말 그대로 ‘당이 있는 숲’이다. 당에서는 ‘당제(堂祭)’란 제사를 지내므로 ‘당이란 제사를 지내는 숲’이란 뜻이다. 당제는 마을 공동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한 의례로 당제 또는 당산제·당고사·당마제 등으로 불린다. 당고개, 사당, 당동 등 당이 들어간 지명도 모두 당제와 관련이 있다. 제의의 시기는 정월 초순이나 10월 보름 등으로 일정하지는 않지만 주로 정월 대보름날 자시(子時, 23:00~01:00)에

행해진다. 군포 당숲의 당제(군옹제)는 음력 10월 1일에 열리고 있다.

덕고개 당숲에 가면 지금도 당제와 관련된 터주가리가 세워져 있다[그림2]. 터주는 집을 지키는 신을 말한다. 가리는 짚가리를 말한다. 당숲이란 이름은 언제부터인가 이 숲에서 당제를 지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언제부터 당숲이라 불렸는지 알 수 없지만 숲이 조성된 시기는 추정이 가능하다.

당숲 근처에는 조선 효종의 딸인 숙정공주와 그의 남편 동평위 정재륜의 묘와 둘 사이에서 낳은 정효선의 묘가 있다. 덕고개 당숲의 유래는 이들과 관련이 깊다. 먼저 이들과 당숲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 2]
군포시 속달동 덕고개
당숲 터주가리

1) 숙정공주(1645¹~1668)

¹ 위키백과 ‘숙정공주’ 항목에는 1645에 태어났다고 하였고, 위키백과 ‘효종’ 항목에는 1646에 태어났다고 하였다.

숙정공주(淑靜公主)는 효종과 인선왕후 사이에서 낳은 다섯 째 딸이다. 효종은 슬하에 6녀 1남을 두었다. 숙신공주, 숙안공주, 숙명공주, 현종대왕, 숙희공주, 숙정공주, 숙경공주다. 숙정공주는 다섯 째 공주지만 숙신공주(1635~1637)가 3살 때 일찍 죽어 다섯 째 숙정공주를 넷째 공주라고 부르기도 한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넷째 공주로 나온다.

숙정공주는 1645년 태어나서 1668년 24살의 한창 나이에 죽었다. 1636년 병자호란 이후 1637년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은 볼모로 청나라에 끌려갔다. 숙정공주의 큰 언니 숙신공주는 청나라 가는 길에 죽었다. 소현과 봉림은 8년간 있다가 1645년 2월 소현세자가 먼저 귀국했는데 4월 갑자기 죽자 봉림대군도 5월에 돌아왔다. 1645년 태어난 숙정공주가 청나라에서 태어났는지 귀국해서 태어났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둘째 아들 봉림대군이 인조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형 소현세자가 죽음으로써 다음 왕위는 봉림대군에게 넘어갔고 나중에 효종이 되었다. 숙정공주도 처음부터 공주가 될 운명은 아니었지만 아버지 봉림대군이 왕이 됨으로써 자신도 공주가 되었다.

2 효종의 부마로 첫째가 숙안 공주의 익평위 흥득기, 숙명 공주의 청평위 심의현, 숙휘 공주의 인평위 정제현, 숙경 공주의 동평위 정재륜, 숙경 공주의 흥평위 원몽린 등이 있다.
효종은 왕위에 오른 지 3년째인 효종 3년(1652) 넷째 공주를 숙정공주에 봉하였다. 이때 숙정공주의 나이 8살 때였다. 4년 뒤인 효종 7년(1656) 12살 때 영의정 정태화의 아들 정재륜(鄭載崙)과 혼인하였다. 공주와 혼인하는 것을 '상(尙)'이라고 하는데 실록에 '상숙정공주(尙淑靜公主)'라고 되어있다. 왕의 사위에게 '위(尉)'를 붙이는데 정재륜은 동평위²로 불렸다.

병자호란을 겪고 청나라에 볼모로 가서 귀국하여 형 소현세자를 대신해 왕위에 올라 북벌을 내세웠던 효종도 1659년 41살의 창창한 나이에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했다. 침을 잘못 맞아 과다출혈로 죽었다고 한다. 숙정공주 15살 때였다. 효종의 뒤를 이은 효종은 숙정공주의 오빠인 현종(1641~1674, 재위 1659~1674)이다. 현종은 19살 때 즉위하였다. 조선시대는 전왕이 죽은 해를 즉위년이라 하고 그 다음 해를 1년이라고 한다. 효종이 1659년에 죽었으므로 현종은 1659년에 즉위했고 현종 1년은 1660년이 된다. 아버지를 여읜 남매들은 어느 누구보다 사이가 좋았고 왕의 권력 못지않게 공주의 권세도 상당했으리라 추정된다.

현종 3년 숙정과 그의 언니 숙안(淑安) 두 공주가 나라 일이라고 꽁

계를 대면서 황해도의 신천, 재령, 평산 등지의 민전(民田)을 탈취하였다. 평산부사 윤겸은 이를 바로 잡기는커녕 민전을 궁가(宮家)의 소속으로 만들어 백성의 원성이 자자하였다. 이때 황해도 감사 홍처윤이 이 일을 중앙에 보고하였다.

현종 4년에는 평산의 조원이란 사람이 들판을 주인 없는 땅이라고 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숙정공주 집에서 이를 알고 주인 없는 들판과 주변의 민전(民田)까지 포함하여 공주 집의 땅(장庄)으로 만들었다. 이 또한 백성들의 원성이 드높자 조원은 들판 땅이 원래 주인이 있는 땅이라는 것을 실토했었다. 조원은 곤장을 맞고 유배형에 처해졌다. 현종 7년에는 동평위 정재륜 집안의 가노가 병조의 증명서를 가지고 국경을 넘어 사냥하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숙정공주는 몇 번 땅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를 늘리려고 했지만 자기 목숨을 길게 하자는 못했다. 현종 9년(1668) 5월 5일 24살의 꽃다운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오빠 현종은 누이동생의 죽음을 매우 슬퍼했다. 3일 동안 조정을 파하고 애도의 절차를 엄중하게 하라고 했다. 10여 일 뒤인 5월 20일, 궁중에서는 숙정공주의 상중에 있는데 숙녀옹주가 두역(痘疫)을 앓았으며 숙안공주도 병이 위중했고 그 두 아들들도 두역(痘疫)을 앓았다. 숙녀옹주는 효종과 안빈 이씨의 딸로 1668년 두역(痘疫)으로 20살 생을 마감했다.

현종은 숙정공주의 묘를 쓰는데 일꾼을 300명으로 하였다. 묘를 쓸 때 일하는 일꾼을 조묘군(造墓軍)이라고 한다. 대군의 경우 300명, 공주의 경우 250명이었는데 공주임에도 대군의 예에 따랐다. 또 장생전(長生殿)의 외관판(外棺版) 1부와 석회(石灰) 300석을 실어 보내라고 명하였다.

숙정공주의 묘는 당시 광주에 있었다. 숙종 14년(1688) 관원을 보내어 명선(明善)·명혜(明惠)·명안(明安)·숙정(淑靜) 네 공주의 묘와 영창 대군의 묘에 제사를 지내게 하였는데, 모두 광주(廣州) 지역에 있다고 하였다.

정조 3년(1779) 영창대군·명선(明善)공주·명혜(明惠)공주·명안(明安)

[그림 3]
현종실록, 9년, 5월 5일



공주·숙정(淑靜)공주·숙경(淑敬)공주의 묘에 치제(致祭)하였다. 순조 23년(1823) 각 응주방과 공주방의 결수를 언급하였는데 숙정공주 방은 유토·무토 출세는 1백 48결 영(有無土出稅一百四十八結零)이라고 하였다.

고종 17년(1880) 숙정 공주 내외의 사판(祠版)에 예관(禮官)을 보내어서 치제(致祭)하도록 하였다.

고종 25년(1888) 광평대군의 사손(祀孫)과 숙정 공주의 사손, 정숙 옹주의 사손, 정안 옹주의 사손,

은전군의 종손이 소과 초시의 방목 중에 있다고 하니, 특별히 회시(會試)의 방목 끝에 붙이도록 하라고 하였다. 숙정공주의 사손은 숙정공주의 제사를 받들어주는 사손 조병순을 말하는 듯하다.³

이상 숙정공주의 일대기와 죽은 이후 관련된 사실을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숙정공주는 12세에 영의정 정태화의 아들 정재륜(1648~1723)과 혼인을 했지만 24세의 꽃다운 나이에 병이 들어 생을 마감했다. 숙정공주가 죽은 때는 현종 9년(1668) 5월 5월 (양력 6.13)이다[그림3]. 현종(1641~1674, 재위 1659~1674)은 숙정공주가 죽자 여동생의 장례를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주의 예가 아닌 대군의 예에 따라 성대하게 치렀다. 묘소는 경기도 광주였다. 숙정공주의 묘소 주변 숲도 이때 조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 그 숲은 광주에 있는 숲을 말한다. 그런데 이 글에서 다루는 당숲은 군포시 속달동에 있는 덕고개 당숲을 말한다. 광주에 있던 숙종공주의 묘는 지금 현재 군포시 속달동 덕고개 당숲 부근에 있다. 덕고개 당숲이 생긴 때는 공주의 묘가 옮겨진 이후다. 기록에 따르면 숙정공주의 묘는 1668년에도

³ 숙정공주의 동평위 정재륜 사이에 아들이 있었지만 일찍 죽어 나중에 그의 종손 정석오(鄭錫五)를 양자로 들었다. 숙정공주의 사손이라면 정석오의 후손 즉 정씨라야 하는데 실록에는 조병순으로 나와 있다.

광주에 있었으므로 그 이후가 된다.

그런데 숙정공주묘가 이장되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기록에는 광주에 있다고 하였고 현재 군포시 속달동에 묘가 있기 때문에 이장되었다고 보는 경우도 많다.

숙정공주: 당시 묘소는 경기도 광주(廣州)에 마련되었다. 현재 그녀의 묘소는 경기도 군포시 속달동에 있다. (위키백과)

숙정공주: 묘지는 본래 경기도 광주시에 마련되었으나, 현재는 군포시에 있다. (나무위키)



[그림 4]
군포시 속달동 덕고개 당숲과 숙정공주, 정재륜, 정효선 묘역

위키백과나 나무위키의 서술을 보면 숙정공주 묘가 마치 군포시 속달동으로 이전한 것처럼 오해하기 쉽게 되어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숙정공주 묘는 처음부터 현 군포시 속달동에 있었다. 조선시대 광주목은 큰 지방 행정기구로 관할 구역도 넓었다. 광주목의 관할은 수리산까지 걸쳐 있다. 예를 하나 듣다면 군포 수리사도 그렇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광주목(불우) 수리사, 수리산에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수리산 수리사가 광주 수리산에 위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언뜻 생각하면 광주에 수리산이 있고 군포에 수리산이 있어 수리산이 2곳인 것처럼 보이지만 수리산은 하나다. 수리산이 옮겨질 수 없는 것이고 수리사 또한 위치를 옮긴 적이 없다. 수리사도 현재 군포시 속달동

4 조경철, 2019, <군포 수리산 수리사의 역사와 그 가치>, 『경기학광장』2(가을호), 경기문화재단

에 위치하고 있다.⁴ 따라서 현재 군포 속달동에 위치한 숙정공주 묘는 처음부터 그 자리였다. 행정구역이 조선시대에는 광주였다가 현재 군포시 속달동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따라서 군포시 속달동 덕고개 숲도 숙종공주가 묻힌 1668년 이후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하는 말로 숙종이 이곳에 들어 군옹제를 지냈다고 해서 군옹숲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믿기 어렵다.

“숙종 14년(1688) 관원(官員)을 보내어

명선(明善)·명혜(明惠)·명안(明安)·숙정(淑靜) 네 공주(公主)의 묘(墓)와 영창대군(永昌大君)의 묘에 제사를 지내게 하였는데 임금이 명선·명혜 두 묘가 길 곁에서 가장 가까우므로 두루 보고 싶다고 여러 신하들에게 물으니, 모두 아뢰기를, “군주는 사묘(私墓)에 친히 가서 보는 일이 없으며, 길도 험하고 좁아서 행차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드디어 중지하였다.” (숙종실록)

숙종 14년(1688) 여러 공주의 묘에 제사를 지내고 명선, 명혜 두 묘가 길옆에 있어 가고자 했지만 사묘(私墓)에 가는 것은 예가 아니고 길도 험하고 좁아서 행차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군포시 속달동의 숙정공주 묘는 거리도 멀고 길도 더 험하기 때문에 숙종이 숙정공주 묘 옆 당숲에 와서 군옹제사를 드렸다고 볼 수 없다. 아마도 숙종 때 여러 공주의 묘에 직접 가고 싶다는 숙종의 말이 와전되어 숙종이 당숲까지 와서 군옹제를 지낸 것처럼 잘못 알려진 것으로 생각된다.

덕고개 숲이 1668년 조성되었다고 하더라고 이곳에서 언제부터 당제를 지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숙정공주가 24세의 한창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그녀의 원혼을 달래기 위한 제사가 열렸을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가 묘 근처의 숲에서 열렸을 수도 있다. 덕고개 숲이 당제를 지내는 당숲의 의미를 띠게 된 데에는 숙정공주와 더불어 그의 남편 동평위 정재륜과도 관련이 있는 듯하다.

5 동평위(東平尉) 정재륜(鄭載峴)은 영의정 정태화(鄭太和)의 아들이고, 청평위(淸平尉) 심익현(沈益顯)은 좌의정 심지원(沈之源)의 아들이고, 흥평위(興平尉) 원몽린(元夢麟)은 우의정 원두표(元斗杓)의 손자였다.

6 정재륜의 생부 정태화는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을 역임했다. 동래 정씨로 영의정 정광필의 5대손이다. 아버지는 형조판서

정광성이었다. 정재륜의 양부 정치화는 우의정, 좌의정을 역임했다. 삼공의 자리에 있을 때 자의대비의 복상 문제로 서인이 축출되는 사태가 빚어졌지만, 중도적 노선을 견지했기 때문에 화를 면할 수 있었다고 한다.

7 부마(駙馬)가 다시 장가를 수 없게 하는 법을 정하였다. 사헌부에서 정재륜의 일로 인하여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지(稟旨)하여 법을 정하도록 주청하여 윤허를 받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부마가 다시 장가드는 것은 국조(國朝)에서 없었던 일이고, 또 사사건건 편리하지 않은 단서가 있으며, 다시 장가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고 그 내력도 이미 오래 되니, 영갑(令甲, 법령)과 같이 되었습니다. 강자순·정현조의 일이 비록 한때의 임시 변통에서 나온 허락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끌어태어 증거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부마로서 자식이 없는 자는 동종(同宗)의 지자(支子)를 후사로 세우며, 자식이 있어 이미 장가들었다가 죽은 경우는 그 자식을 위하여 후사를 세워 공주(公主)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고, 다시 장가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법(法)과 예(禮)에 당연합니다. 청컨대 이것을 법으로 정하여 준용(遵用)하며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숙종실록 12권, 숙종 7년 7월 26일)

8 1708년 정행원이 쓴 발문에 의하면 정재륜이 초고를 주면서 “내 40년 동안의 한거만록 인데… 네가 나를 위하여 정리 하라”라고 하였다. 직접 견문을 기록한 것이라 야사로서 귀중한 사료가 된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2) 정재륜(1648~1723)

정재륜(鄭載峴)은 영의정 정태화의 막내아들로 효종의 넷째 공주 숙정공주에게 장가들었다. 다른 공주의 부마들 집안도 관직이 매우 높았다.⁵ 정재륜은 동평위에 봉해졌다.

정재륜이 장가든 때는 숙정공주보다 3살 적은 9살 때였다. 정재륜은 1648년 태어났는데 정태화의 동생 좌의정 정치화가 아들이 없어 그의 양자로 들어갔다.⁶ 현종 9년(1666) 동평위가 21살 때 숙정공주가 불행히도 24살로 생을 마감했다. 둘 사이에 아들 정효선과 딸을 두었다.

정재륜은 총 세 번 청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왔다. 현종 11년(1670) 동평위 정재륜을 사은정사(謝恩正使)로, 이원정을 부사(副使)로, 조세환을 서장관(書狀官)으로 삼았다. 6월 7일 청나라로 가서 같은 해 10월 20일 귀국하였다.

아들 정효선은 1663년에 태어나 1680년 18살의 나이에 요절했다. 동평위는 아내 숙정공주가 저 세상으로 간 지 10여 년이 지났고 아들 정효선도 죽자 다시 장가들도록 해달라고 상소를 올렸으나 대신의 반대로 거절당했다. 이후 부마는 재혼하지 못한다는 부마재혼금지 법이 제정되었다.⁷ 1705년, 1711년에도 중국에 사신으로 다녀왔다. 숙종 10년 동평위를 비롯한 여러 부마들에게 음식과 옷감을 내려 주었다. 숙종 14년 대궐에서 유직(留直)하도록 허락하였다. 숙종 15년 동평위의 사위인 김도연도 물의를 일으켜 죽을죄를 지었다. 김도연은 음독 자살을 하였는데 동평위가 일이 여의치 않음을 알고 음독을 권유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도연의 죄는 무고로 밝혀져 억울함을 풀었다. 숙종 24년 세조에게 쫓겨나 위호를 받지 못하고 아직까지 노산군으로 있던 단종의 위호를 복원하자는 논의에 정재륜도 참여하였다.

정재륜은 『열성지장통기』, 『공사견문록』, 『한거만록』, 『동평기문』, 『감이록』 등의 여러 저술을 남겼다. 『공사견문록』의 서문에서 정재륜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서문은 1701년 정지현이 썼다.⁸

“내 일가 조카인 동평위 정재륜 공은 아홉 살에 왕실의 사위가 되었는데, 그 때가 효종 병신년(1656)이었다. 그 다음 해에 혼례를 행하였다. 여러 공자와 더불어 궁궐을 출입하면서 임금의 모범을 보이는 것을 직접 보고, 친히 가르침을 받기도 했다. 곁에서 늙은 내시나 늙은 궁녀들이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듣기도 했다. 또한 선배와 장로들과 더불어 조정의 반열에 있는 지도 50여 년이었다. 그동안 들은 아름다운 말과 훌륭한 의논이 참으로 많았다. 겸하여 집안에서 들은 것들도 있었다. 이들을 모아 두 권의 책으로 만들고, 그것에 『공사견문록』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비록 천한 노비나 천한 아낙네들의 말이지만, 세상을 경계하는 데에 관계된 것이라면 반드시 수록하였다. 그러나 사람의 악행이나 숨겨진 일과 같은 것은 수록하지 않았다. 대개 구양수의 『귀전록』의 전례를 따른 것이다.

정재륜은 친아버지가 영의정 정태화였다. 정태화의 동생 정치화가 아들이 없어 정재륜은 정치화의 양자로 들어갔다. 양아버지는 좌의정이었다. 정재륜의 두 아버지가 영의정 좌의정이니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집안의 자식이었다. 그러나 친아버지를 떠나 양아버지 밑에서 사는 일은 인간적으로 기쁜 일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정재륜은 9살의 나이

[그림 6]
군포시 속달동의 숙정공주와 정재륜의 쌍묘



❾ 3남 2녀를 낳았으나 어려서 모두 죽고 1남 1녀만 남았다.

에 12살 숙정공주와 결혼하여 왕위 사위, 곧 동평위가 되었다. 아들 정효선과 딸도 낳았다.^❾ 정재륜은 이제 부러울 것이 없었다.

그러나 상황은 급전했다. 1666년 아내 숙정공주가 24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정재륜은 21살 이었고 1163년에 태어난 정효선은 4살 아기였다. 그런데 정효선도 1680년 18살의 나이로 요절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정재륜의 사위 김도연(1664~1689)이 1689년 26세 때 음독자살하였다. 정재륜은 72세 장수를 누렸지만 아내도 잃고 자식도 잃고 사위도 잃고 가족사의 많은 비극을 안고 살았다. 숙정공주가 먼저 묻히고 아들 정효선이 묻히고 나중에 정재륜도 공주 옆에 나란히 묻혔다. 지금 군포 속달동에는 숙정공주, 재륜의 쌍묘와 아래쪽 정효선의 묘가 위치해 있다.

숙정공주와 정재륜의 기구한 운명을 보았을 때 이들의 원혼을 달래줄 민간제사가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묘 옆에 위치한 당숲에서도 당제가 열렸을 가능성이 높다. 정재륜이 시작했을 수도 있다.

앞서 숙종 때인 1688년 영창대군과 숙정공주를 비롯한 4공주의 묘에 제사를 지내도록 했고, 정조 3년(1779), 고종 9년(1872), 고종 17년(1880)에도 나라에서 제사를 지냈다. 여러 차례 나라에서 지내는 제사 외에 물론 민간에서도 비공식적인 한풀이 제사인 당제가 치러졌을 것

[그림 7]
군포시 속달동 숙정공주와 정재륜 쌍묘 옆에 있는 아들 정효선의 묘



당-숲 【마을】 경남-밀양-청도-구기- →당림동.
 당-숲 【숲】 경남-양산-정관-예림- 반송정이 남쪽에 있는 숲.
 당-숲 【숲】 경북-영천-고경-청정- 청경 동쪽에 있는 숲. 정월 보름
 날 동제를 지낸.
 당-숲 【성황립】 【숲】 강원-원주-신립-성남- 성남리에 있는 숲. 높이
 50m의 전나무가 있고, 그 밑에 굴피로 지붕을 한 성황당이 있으
 며, 그 둘레에 단풍나무 등 큰 나무가 울창하게 서 있어서 기이한
 새들이 사철 모여 살므로, 천연기념물 제 93 호로 지정되고, 앞에
 는 맑은 시내, 뒤에는 약수가 있어서, 경치가 매우 아름다움.
 당-숲 【나무】 강원-원주-신립-용암- 사립 앞에 있는 숲. 시무나무
 (스무나무) 가을 창한 곳. 성황당이 있었음.
 당-숲 【마을】 강원-춘성-서-덕두원-당림- →당림리.
 당-숲 【숲】 강원-횡성-우천-하궁- 당상과 당하 사이에 있는 숲. 서
 낭당이 있음.
 당숲-보 【보】 경북-경주-산내-외월- 당숲보들에 있는 보.
 당숲보-들 【들】 경북-경주-산내-외월- 웃자리 앞에 있는 들.
 당숲-서낭당 【당】 강원-영월-북-공기- 안공기 서쪽에 있는 서낭당.
 숲이 많음.
 당숲-안 【마을】 강원-춘성-서-덕두원-당림- →당림리.
 당숲-약수 【약】 강원-원주-신립-성남- 성황당 옆에 있는 약수.

[그림 8]
『한국땅이름사전』(1991), 당숲

정재륜은 남긴 저술 가운데 왕실과 관련된 내용이 많다. 자신의 신분이 왕의 부마였기 때문에 궁궐에 드나들기도 편하고 왕실 여성들과 접할 기회도 많았다. 정재륜은 효종이 죽을 때의 모습을 『공사견문록』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기해년(己亥年 1659, 효종 10) 5월 초4일에 효종이 빈종(腫) 때문에 침을 맞으려고 하므로 내가 새벽에 대궐에 들어갔더니, 진시(辰時 오전 7~9시)에 임금이 신가귀(申可貴)로 하여금 침을 놓게 하였는데, 침을 빼자마자 피가 쏟아지듯이 흘렀다. 지혈제를 많이 썼으나 끝내 그치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의관(醫官) 유후성 조징규·신가귀를 용상 아래에 불러 하교하기를, “피가 이렇게 흐르니, 무엇으로써 그치게 하려는가?” 하니, 유후성이 울면서 대답하기를, “천년 묵은 재를 구하면 몇개 할 수 있습니다” 하므로, 내국(內局) 내의원에서 즉시 이 약을 드렸으나 흐르는 피는 그치지 않았다. 오시(午時)에 이르러 기운이 점점 미약해지며 입 속의 말씀으로, “대신을 보고 싶다” 하였다.

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덕고개 당숲’이란 정식 이름을 얻게 된 때는 21세기 이후로 여겨진다. 1991년 한글학회에서 나온 『한국땅이름큰사전』에는 전국의 ‘당숲’이 12개(충북 포함) 보이는데 속달동 당숲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그림8]. 특히 2002년 아름다운 마을 숲 우수 상으로 뽑히게 되면서 ‘덕고개 당숲’은 고유명사처럼 널리 불리게 되었다.

2. 덕고개 당숲과 군옹제

당숲이 ‘당제가 열리는 숲’이라면 군옹숲은 ‘군옹제’가 열리는 숲을 말한다. 당제나 군옹제나 모두 제사의 일종인데 당제가 군옹제보다 더 포괄적이다.

군옹은 한자로 군웅(軍雄)으로 표기되어 처음에는 장군신이 아니었다가 군옹의 원래 성격이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무속의 궁에서 군옹 관련 무가 사설에는 “술안전 할안전 흘각양가 가로백이 만하 대전 상살바더 오신 군옹 길아래 삼천군사 길우에 오천병마 진을 늘여 오신 군옹 대활네로 놀으소사”라고 되어 있다. 경기도궁에서도 을지문덕, 관운장, 마초 같은 장군이 죽어 군옹이 되는 것이라며 군옹의 차림새와 이끌고 오는 부대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동해안궁에서도 군옹은 김유신과 조자룡 같은 여러 장군을 “군옹아 장수야 장수야 군옹아”라고 칭한다. 황해도궁에서도 군옹거리에서 칼로 목을 찌르는 흉내를 내면서 허리를 뒤로 젖히는 장군놀음을 한다. 이런 점에서 군옹신은 군사를 거느리는 힘 있는 장군의 성격을 지닌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군옹신이 힘 있는 장군신이라는 것은 동해안궁에서 군옹을 노는 놋동우 또는 장수거리에서 무당이 무거운 놋동이를 맨입으로 무는 행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¹⁰

10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군옹

군옹신이 겉으로는 장군복을 입어 장군신의 모습을 띠었지만 실제의 목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먼저 조상신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궁과 경기도궁의 “강남은 홍씨군옹 우리나라 이씨군옹”이라는 무가 사설을 통해 알 수 있다. 여기서 ‘이씨군옹’은 이씨라는 성씨 집단과 관련된 군옹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서울 지역 궁의 대감거리에서 그 집의 조상 가운데 벼슬한 대감을 군옹대감이라 하며, 경기도궁에서 군옹청배를 조상청배라고 한다. 화성 지역 자료에서는 조상거리의 ‘조상님 모시구 다니는 군옹님’이라는 구절에서 군옹이 나온다. 제주도 지역에서도 군옹은 어떤 집안이나 씨족에 오랫동안 모셔

져 내려오면서 그 집안 내지 씨족을 수호해 주는 신으로 인식된다. 이런 점에서 군웅은 무장(武將)의 이미지와 함께 조상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는 신이다.¹¹

11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군웅

12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군웅

조상신의 성격과 관련하여 동래 정씨 정재륜의 집안이 주목된다. 정재륜의 아내, 아들, 사위가 모두 젊은 나이로 죽었기 때문에 조상신에 대한 기원을 담아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가 군웅제였을 가능성도 있다. 아내 숙정공주 집안도 순조롭지 않았다. 자신도 일찍 죽었고 나중에 아들도 요절했다. 숙정공주의 큰 언니 숙신공주는 1637년 아버지 봉림대군이 청나라에 인질로 가는 도중 말 그대로 객사하였다. 둘째 언니 숙안공주는 1650년 청나라의 구혼을 피하기 위하여 혼인을 서둘렀지만 남편 익평위 흥득기가 먼저 죽고 아들 흥치상은 교령을 당했다.

군웅신의 조상신적 성격은 확장되어 그 마을의 수호신의 역할도 한다. 자손이 잘되려면 조상신을 섬겨야 하지만 무엇보다 마을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군웅은 화살을 가지고 일정한 삶의 영역이나 집단을 해롭게 하는 액(厄)과 살(煞)을 물리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군웅신의 역할은 굿에서 사방으로 활을 쏘는 행위로 나타난다. 서울굿의 '사살(射煞)군웅'이란 표현은 군웅신의 이러한 역할을 잘 나타낸다.¹²

마을의 수호는 전염병의 수호와도 관련이 있다. 숙정공주의 상종에 있을 때 숙녕옹주가 두역(痘疫, 천연두)에 걸려 죽었고 숙안공주와 그녀의 아들들도 천연두를 앓았다고 한다. 아마 숙정공주도 천연두로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 천연두는 전염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마을 전체가 천연두에 걸리기 않기 위해 당제를 지내거나 군웅제를 지냈을 가능성도 있다.

마을신의 역할을 하는 군웅은 마을의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변형된다. 예를 들어 서울굿에는 상산별군웅(上山別軍雄)이 있는데 이는 개성 덕물산 장군당에 소속되어 있는 군웅신이다. 마을 도당의 도당군웅은 한 지역의 살과 액을 몰아낸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역할이 한 집

13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군웅

안에 한정되는 군웅은 성주군웅이다. 즉 성주군웅은 한 집안의 액과 살을 물리치고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¹³

동래 정씨 정재륜의 경우 아내도 죽고, 아들도 죽고, 사위도 제명에 살지 못하고 요절하거나 음독자살하였다. 정씨 집안의 액과 살을 물리치기 위해 군웅제, 특히 성주군웅을 지내기도 하였을 것이다.

군웅신의 여러 기능 가운데 매우 특별한 기능이 외국으로 나가는 사신을 보호하는 신 사신군웅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중국이나 외국에 사신으로 나간다는 것은 당시에는 육지의 산적이나 바다의 풍랑 등으로 인해 죽음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다. 안전한 사행 길을 빌었을 것이다. 조상신에게도 빌고 마을신에게도 빌고 했을 것이다. 군웅신의 여러 역할 가운데 좀처럼 추정하기 어려운 사신군웅이 있었다는 것은 군웅신의 기원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매우 주목된다.

[그림 9]
『무당내력』(19세기)의 구릉.
한손에는 부채, 한손에는
방울을 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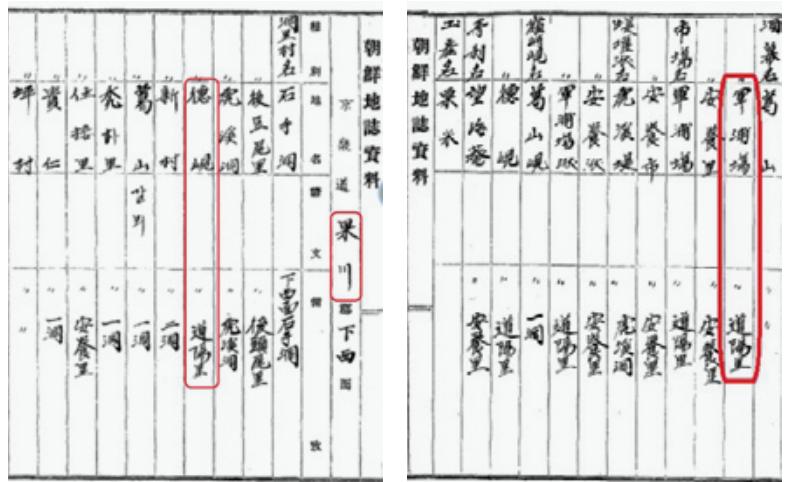
사신군웅의 경우 정재륜과 연결을 맺을 수는 있다. 정재륜은 1670년, 1705년, 1711년 총 세 번 중국 청나라에 사신을 다녀왔다. 정재륜 집안에서는 중국 사행의 무사귀환을 위하여 여러 굿을 했을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군웅제였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군웅은 군웅굿이라고 굿판의 이름 가운데 하나다. 군웅거리라고도 한다. 군웅은 구릉, 군웅(軍雄), 군웅(君雄), 군왕(君王) 등의 한자어로 쓰이고 불렸다. 19세기 난곡(蘭谷)이란 이름 모를 사람에 의해 편찬된 『무당내력(巫堂來歷)』에는 '구릉'이라고 한글로만 나와 있다[그림9]. 1927년에 나온 이능화의 『조선무속고』에는 군왕(君王)이 맞다고 하였다. 1932년에 나온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의 『조선의무격』에서는 군웅(軍雄)이라고 하였다. 아마도 우리말 '구릉'이 한자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여러 한자 말이 나온 것 같다. 여러 한자 이름 가운데 현재 군웅(軍雄)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덕고개 당숲에서도 군웅제(군웅굿)가 열리기 시작했고, 지금도 군웅제가 매년 열리고 있다. 당숲에서 군웅제가 열리므로 당숲은 군웅제가 열리는 숲, 즉 군웅숲으로도 불리게 되었다.

당숲의 숲은 1668년 숙정공주의 죽음과 함께 조성되었고 당제도 지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당제를 지내는 ‘당숲’의 출발도 이때부터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때부터 ‘당숲’이란 고유 이름이 생겼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또한 당제를 지냈다고 하더라도 무슨 당제를 지냈는지는 알 수 없다. 당숲의 당제가 군웅제였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당숲에서 군웅제를 지낸 기록은 근래에 확인된다. 아무리 소급해도 100년을 소급할 수 없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980년대 이후라고 생각한다.

좌) [그림 10]
『조선지지자료』경기 과천
덕현(도양리 소재)
우) [그림 11]
『조선지지자료』경기 과천
군포장(도양리 소재)



옛 과천군 도양리의 일부는 안양과 군포로 나뉘어졌다. 1911년 일제강점기에 편찬된 『조선지지자료』에 의하면 경기 과천 도양리에 덕현(德峴)과 군포장(軍浦場)이 있었다.[그림10, 11] 과천 덕고개는 나중에 안양시 호계로 편입되고 군포장은 군포시로 편입되었다. 과천 덕현이나 안양 덕현은 군웅산으로도 불렸는데 바로 이곳에서 군웅굿이 열렸기 때문이다.[그림 12] 호계의 군웅제는 1980년대 이후 지내지 않았다. 호계 덕고개 군웅굿은 나중에 현 속달동 덕고개 군웅굿으로 계승되었을 수도 있다.

[그림 12]
조선시대전자문화시스템,
덕현 군웅제
[http://www.atlaskorea.org/
historymap.web/](http://www.atlaskorea.org/historymap.web/)
IdxMap.do?method=MG#



속달동 덕고개 군웅굿의 기원은 아무리 소급해도 1900년대 이상 소급할 수 없다. 물론 1668년부터 군웅굿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군웅굿이 아닌 다른 굿이 열렸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668년부터 불렸을 당숲을 군웅숲으로 부르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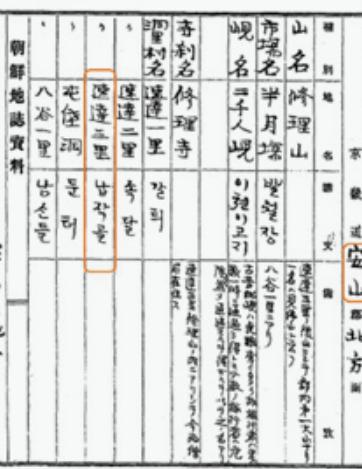
14 물론 정재륜이 중국에 3번 사신을 다녀왔기 때문에 군웅제의 한 형태인 사신군웅의 유래가 정재륜 때부터 행해졌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15 조선시대 광주/ 1895년 안산/ 1914년 수원 반월/ 1949 화성 반월/ 1994 군포 편입

한편 속달동 덕고개 군웅제는 구릉제라고 하는데 ‘군옹’과 ‘구릉’을 연관시키기도 한다. 그런데 구릉이 ‘고개’를 의미하는 말이라면 덕고개 군웅제는 덕고개와도 관련이 있다. 속달동 덕고개는 1911년 당

시에는 안산에 속했다.¹⁵ 『조선지지자료』의 경기 과천에서는 덕현을 언급하면서, 안산에서는 덕현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보면 속달동의 덕고개(덕현)란 이름은 해방 이후 생긴 이름일 가능성이 높다. 1991년 한글학회의 『한국땅이름 큰사전』에는 호계의 덕고개와 속달의 덕고개 두 개가 모두 보인다. 따라서 ‘덕고개 군웅제’도 해방

[그림 13]
『경지지지자료』안산
속달3리(남작골)



이후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조선지지자료』에 보이는 지명 가운데 납작골이 보인다[그림 13]. 지금은 납작골, 납덕골 등으로 불린다. 현재 마을 입구 돌에는 '살기 좋은 납덕골'이라고 되어 있다. 『한국땅이름큰사전』에는 전국의 '납덕O'가 6개 보이고, 전국의 '납작O'가 44곳이 보인다. 이미 1911년 『조선지지자료』에 납작골이 보이고 납덕보다 납작의 용례가 많은 것으로 볼 때 속달동은 납덕골이 아니라 납작골이 맞는 것 같다. 어쩌면 덕고개를 지나 납작골이 나오므로 덕고개 때문에 납덕골로 이름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III. 맷음말 : 당숲이면서 군옹숲, 당숲의 활용

당숲은 단순히 당제가 열리는 당숲이라는 의미의 보통명사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곳에 당숲이 있다. 따라서 덕고개 당숲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따로 고유의 이름을 짓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언제부턴가 아무리 그것이 근래라 하더라도 당숲에서 군옹제를 지냈다고 한다면 당숲이 아니라 새롭게 군옹숲으로 특화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림 14]
군포시 덕고개 당숲 군옹제
모습(2018). 사진군포시민신문



1991년 『한국땅이름큰사전』에도 군옹숲은 보이지 않는다. 물론 마을 사람들이 당숲의 고유하고 신성한 의미를 살려 군옹숲으로 이름을 바꾸자고 하는 말에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런데 이름을 바꾸는 것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아직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 숲이 언제부터 당숲으로 불렸고 숲에서 언제부터 군옹굿이 열렸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덕고개 당숲의 '덕고개'라는 이름의 유래도 살펴보아야 한다.

둘째, 친근성이다. 전국적으로 '당숲'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군옹숲'으로 바꾼다면 생소하고 오히려 당숲의 아름다움이 잊힐 염려가 있다.

셋째, 보편성이다. 당숲에서는 17세기 이래 여러 형태의 당제가 열렸을 것이다. 그런데 당제를 '군옹제'로 한정하면 여러 당제의 보편적 모습을 담을 수 없다. 또한 군옹숲으로 의미를 좁힌다면 '숲'에 중점을 둔 당숲의 폭넓은 이해에도 방해가 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아직은 당숲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물론 그렇다고 군옹숲이란 이름을 쓰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당숲의 '당'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당제라는 민간제사가 열린 숲이라고 하고, 무슨 제사냐고 물으면 군옹굿이라고 대답하면 된다. 당숲과 군옹숲은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관계인 것이다.

당숲에서 어떤 당제가 열렸든 당제에서 바라던 소원은 무엇이었고 앞으로 어떤 소원을 빌면 좋을까 제안해 본다.

첫째, 숙정공주와 그의 아들 정효선의 개인적 원혼을 달래는 일이다. 어린 나이에 죽은 모든 사람에게는 한이 남을 수밖에 없다.

둘째, 마을의 안녕이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원을 달래는 당제로 시작했으나 점차 마을의 안녕과 복을 비는 당제로 변해 갔을 것이다.

셋째, 올해 코로나19가 널리 퍼져 온 나라가 걱정이다. 군포도 감염자가 나왔다. 숙정공주가 병에 걸려 죽었고 같은 날에 숙녕옹주는 두 역으로 생을 마감했다. 둘 다 전염병에 의해 죽은 것 같다. 무엇보다 당숲의 당제는 병으로부터 마을과 나라를 지키는 소원을 담았을 것이다.

군포의 당숲은 숲 자체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군포를 지켜주는 소중한 숲이다.

마지막으로 당숲의 활용에 대한 제안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현재 당숲의 역사적 유래를 주로 숙정공주와 연결시키고 있다. 24살 젊은 나이에 죽었고 나중에 자신의 아들과 사위가 요절했으니 원혼이 깊었을 것이다. 그래서 당숲에서 숙정공주의 원혼을 달랠 당제나 군웅제를 지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듯하다. 그런데 숙정공주는 백성의 토지를 강탈하여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했다. 이런 의미에서 당숲을 숙정공주와 연결시켜 마냥 알릴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당숲은 숙정공주보다 동평위 정재륜과 관련을 맺는 게 좋을 것 같다. 덕고개 당숲 주변은 동래 정씨 집성촌이기도 하고 정재륜 또한 일생의 한이 많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재륜은 『공사견문록』, 『감이록』등의 저술을 남겼는데 『감이록』은 귀신에 관한 이야기다. 귀신이야기는 당숲 또는 군웅제의 성격과 잘 연결된다. 군웅의 경우 여러 역사적 장군들의 가면을 쓰고 장군가면축제를 열어도 좋을 듯하다.

참고 문헌

- 위키백과, 나무위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민속신앙사전』
조선시대전자문화시스템, <http://www.atlaskorea.org/historymap.web/IdxMap.do?method=MG#>
난곡(蘭谷), 을유중춘(乙酉仲春), 『무당내력(巫堂來歷)』(서대석 해제, 2005(영인본), 민속원)
조선총독부, 1911, 『조선지지자료』(경기문화재단, 2008, 『조선지지자료(경기편)』)
이능화, 1927, 『조선무속고』(서영대 옮김, 2008, 창비)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 1932, 『조선의 무격』(최길성 박호원 옮김, 2014, 민속원)
아카마스 지조(赤松智城), 아키바 다카시(秋輝隆), 1938, 『조선무속의 연구(상하)』(심우성 역, 1991, 동문선)
한글학회, 1991, 『한국땅이름큰사전(상중하)』
홍태한, 2006, <군웅의 의미와 지역별 망자천도굿의 구조 비교>, 『비교무속학회』32
신종원 외, 2010, 『필사본 조선지지자료 경기도편 연구』, 경인문화사
군포시, 2010, 『군포시사』
김기림, 2012, 「공사견문록」의 여성유형과 여성생활사 측면에서 본
의의, 『동양고전연구』48
김형근, 2015, 「하나의 이름 다양한 얼굴, 한국무속신 군웅」,
『한국무속학』30
신상필, 2016, 「정재륜의 감이록을 통해 본 조선전기 필기의 전개
양상과 새로운 지표」, 『코기토』80,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조경철, 2019, 「군포 수리산 수리사의 역사와 그 가치」,
『경기학광장』2(가을호), 경기문화재단

포천 창옥병에 관한 문헌적 연구

정기선

I. 서론

II. 본론

- 포천 창옥병의 자연환경
- 포천 창옥병에 관한 한문 및 국문 작품

III. 결론

I. 서론

포천의 창옥병은 뛰어난 경치로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공간이다. 우리 선인들은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자연스레 그에 대한 감상과 자신의 소회를 문학작품으로 남겼다. 창옥병도 예외가 아니었다. 조선시대 많은 문인들이 창옥병과 관련한 문학작품을 남겼는데 이들 작품은 대부분 한문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문과 비교해 한문이 문화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던 조선시대에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런데 창옥병은 인근의 금수정과 관련해 우리말로 된 문학작품인 시조로 창작되었다.¹ 한문으로 된 작품과 비교해 비록 그 수는 적지만 국문으로 된 문학작품이 남아있다는 사실은 매우 특별하다.

창옥병에 관한 많은 문학작품이 남아 있다는 사실은 창옥병을 여타의 유적지와 달리 문학관광을 위한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뜻한다. 최근의 관광객들은 보존된 유적이나 자연경관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관광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텔링과 같은 문화콘텐츠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능동적 관광을 원하고 있다. 창옥병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들은 문학관광을 위한 관광지로 개발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옥병을 문학관광을 위한 관광지로 개발하는 일은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창옥병과 관련한 문학작품 전반을 조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성격의 작업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창옥병에 관한 문학작품을 수록한 조선시대 문헌들을 조사하여 창옥병의 문학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작품 목록을 작성하고자 한다. 이 작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창옥병의 자연환경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창옥병과 관련된 문학작품(운문과 산문에 국한하여)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창옥병에 관한 기록이 수록된 문헌들을 조사하여 예로부터 이름난 창옥병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¹ 금수정에 관한 문학작품은 포천에 거주한 문인들과 그렇지 않은 문인들로 구별하여 정리한 성과로 정홍모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정홍모, 「포천 <금수정>을 중심으로 한 누정문화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31,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5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차후 창옥병을 문학관광을 위한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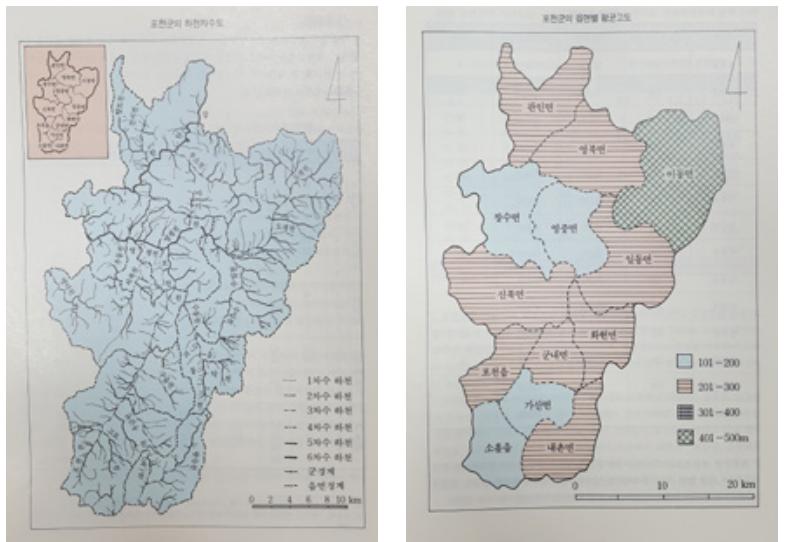
1. 포천 창옥병의 자연환경

창옥병의 자연환경을 검토하는 데 우선 살펴야 할 것은 창옥병이 있는 포천의 지리적 특성이다. 2003년 이전까지 포천군이었지만 2003년 이후 도농복합시가 된 포천시는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다. 경도 및 위도를 보면, 남단 북위 37° 36'에서 북단 북위 38° 11'에 걸쳐 있고, 서단 동경 127° 05'에서 동단 동경 127° 27'에 걸쳐 있다. 남북의 연장이 47km이고 동서의 연장이 30.8km이며 시청 소재는 위도상으로 북위 37° 53', 경도상으로는 동경 127° 12'이다. 동쪽은 광주산맥의 주축을 이루는 백운산(940m), 국망봉(1168m), 강씨봉(830m), 현등산(935m), 주금산(813m)의 연봉을 경계로 강원도 화천군 및 경기도 가평군에 접해 있다. 북쪽은 광덕산(1046m), 명성산(923m), 금학산(947m)의 연봉을 경계로 강원도 철원군과 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지장봉(877m), 종현산(588m)을 잇는 연봉으로 연천군과 동두천시와 경계를 이루고 천보산맥을 경계로 양주군과 접해 있다. 남쪽으로는 축석령, 운악산(936m)을 경계로 의정부시, 남양주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어 8개 시군에 둘러싸여 있다.

경기도 북단에 위치한 포천시는 1개의 읍(소흘읍)과 2개 동(포천동·선단동)과 11개의 면(군내면·내촌면·가산면·신북면·창수면·영중면·일동면·이동면·영북면·관인면·화현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인 창옥병은 창수면에 위치하고 있다.

포천시 창수면은 조선시대에는 영평현(永平縣) 남면(南面)이었다. 조선 전기에 편찬된 대표적인 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포천현과 영평현은 양주목에 속해 있었다. 이 당시 양주목에는 파주(坡州), 고양(高陽), 영평, 포천, 적성(積城), 교하(交河), 가평(加平)이 속해 있었다. 이 중에서 포천현과 영평현은 서로 이웃한 고을로 1618년(광해군 10)에 합쳐졌다가 1623년(인조 1)에는 분리되기도 했다. 이처럼 두 고을은 때에 따라 합쳐졌다가 분리되기를 거듭했다. 1895년(고종 32) 지방관제가 개정되었을 때 영평현은 포천군에 병합되었는데 이듬해 1896년(고종 33) 분리되어 다시 영평군 소속이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부·군·면을 폐합하게 되면서 영평군의 서면, 남면, 하리면을 병합하여 포천군 창수면이 되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더불어 창수면 일부 지역이 38선 이북에 위치하여 북한통치 하에 들어갔으나 휴전 이후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조치법에 따라 행정권이 회복되어 창수면 전역을 회복하게 되었다. 창수면이라는 명칭은 남면에 서면과 하리면을 합치면서 영평천의 푸르고 맑은 물이 면의 중앙인 창옥병 연안으로 흐른다고 하여 명명되었다.² 행정구역의 명칭을 결정하는 데 영평천과 창옥병이 크게 작용했다는

² 포천군지편찬위원회 편, 『포천시지』상, 포천군, 1997, 20~21면 참조



좌) [그림 1]
포천 하천차수도³
우) [그림 2]
포천 평균고도도⁴

사실은 명승지로서 창옥병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며 나아가 자연환경으로서의 영평천을 제대로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영평천의 지리적 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포천시 최대의 하천인 영평천은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백운산에서 근원하여 서쪽으로 흘러 영중면 풍혈산 북쪽 기슭을 지나 영중면 성동리에 이르러 포천천과 합류한 뒤 한탄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포천시에서 영평천이 발원한 이동면은 이동막걸리와 이동갈비 같은 먹거리로도 유명하지만 명승지인 백운계곡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이동면은 포천시에서 제일 고도가 높은 곳으로 이곳에서 발원한 영평천은 포천시에서 제일 고도가 낮은 영중면과 창수면을 지나간다. 이들 지형의 특징은 [그림 2] 포천 평균고도도에서도 확인된다. 영평천 상류인 이동면은 평균고도가 411.56m이며 그 하류인 영중면과 창수면의 평균고도는 각각 148.43m와 150.09m이다. 영평천은 산악지대에서 흐르는 물이라 맑기로 이름이 높고 담수어족이 많고 신선하여 물을 즐기는 이의 발길이 잦은 곳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더불어 수량(水量)이 풍부하여 유역(流域) 곳곳에 명승과 유원지가 산재해 있기도 하다. 한편 포천시는 산지가 발달하여 평야의 발달은 미약한 편인데 영평천으로 인하여 영중면과 창수면 지역은 평야가 발달할 수 있었다. 영평천은 이동면 일대와 일동면 북부지대, 영중면 북부, 창수면 북부 지역의 농업용수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하천이라고 할 수 있다.⁵

³ 옆의 책, 65면

⁴ 옆의 책, 51면

⁵ 옆의 책, 47~71면 참조

⁶ 한탄강지질공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식 명칭은 한탄강국가지질공원(제7호)으로, 지정 면적은 1,164.74km²(포천시 493.3, 연천군 273.3, 철원군 398.06)이며 지질 명소는 총 24개소(포천시 11개소, 연천군 9개소, 철원군 4개소), 지질분포시대는 선캄브리아기, 고생대, 중생대(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신생대 제4기라고 한다. 한탄강지질공원 홈페이지 참조 http://www.hantangeopark.kr/bbs/content.php?co_id=intro_01_02

⁷ 앞의 책, 70면

⁸ 국가지질공원사무국, 「한국의 지질공원」, 북센스, 2017, 99면

⁹ 여기에서는 “중생대 쥐라기 화강암으로 약 1억 5000년에서 2억 년 전 형성되었으며, 단층 면에 형성된 단층점토면을 따라서 발달함”이라고 되어 있다.

(백악기)~신생대 초기(고제3기)의 화산암과 퇴적암 등도 일부 지역에 분포 한다. 이 암석 위를 신생대 제4기의 한탄강 용암이 뒤덮었다. 옛 한탄강이 흐르던 자리의 대부분과 계곡, 낮은 평야지대를 한탄강 용암이 메워 넓은 용암지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한탄강 용암대지가 만들어진 후 다시 오랜 세월 풍화와 침식 작용이 일어나 새롭게 운반된 퇴적물과 토양이 이 용암대지를 덮었다.⁸ 이러한 활동 결과 한탄강 지형은 독특한 자연경관을 이루게 되었다.

한편 창옥병암가문 안내문에 따르면 영평천 일대의 지형이 중생대 쥐라기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⁹ 영평천이 백운산에 발원했다는 사실은 앞서 말한 바 있다. 한탄강지질공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백운산 기슭의 백운계곡에서 주로 관찰되는 암석이 중생대 쥐라기 화강암이라고 밝히고 있다.¹⁰ 이는 창옥병이 중생대 쥐라기 화강암과 영평천의 침식 작용으로 형성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실제로 옥병서원 앞에 있

¹⁰ 한탄강지질공원 홈페이지
참조 http://www.hantan.geopark.kr/bbs/content.php?co_id=sight_02_08

옥병서원 앞의 영평천



금수정 앞의 영평천



는 금수정 인근 바위도 용암 유출로 형성된 한탄강의 현무암과는 다른 화강암으로 확인된다. 아래의 사진에서 옥병서원과 금수정 주변에 있는 암석은 매우 유사해 보인다.

이어서 창옥병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984년에 편찬된 『포천군지』에서는 포천의 명승지로 포천팔경(구 영평팔경)을 소개하면서 창옥병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창옥병(蒼玉屏)

창수면 오가리에 있는 기승(奇勝)이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기승이니 명승, 절승해야 이 창옥병의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풍경(風景)보다 더 좋은 곳은 없을 것 같다. 창옥병(蒼玉屏)이란 글자가 말하듯이 기암괴석으로 된 병풍으로 연상하면 될 것이다. 병풍을 펴서 세운 듯한 암산(岩山)은 반달모양으로 둘러쳐져 있다. 이 창옥병의 폭(幅)이 수마 정이요. 높이가 4, 50자에서 백수십자라고 상상해 보라. 깎은 듯한 절벽이라 해도 굴곡이 있고 고저(高低)가 있고 암혈(岩穴)이 있는가 하면 가진 형태의 동물 모양이 되어 돌출한 바위도 있다. 이 단애에 수단화(水丹花)도 필 수 있고 낙락장송(落落長松)이 가지를 늘어뜨리기도 하고 오목조목 한 틈새에 작은 솔나무가 거꾸로 매어달려 있는 오묘한 풍경을 자아낸다. 이 바위 병풍은 우리의 상상 그대로다. 반달처럼 펼쳐진 바위 병풍만으로 이 일대(一帶)의 전수량(全水量)을 모아 가지고 보장산과 일대(一大) 충돌을 하는 첫 접전면(接戰面)이 바로 이 병풍 속인 것이다. 아무리 물의 위력이 크다 해도 이곳은 종이 몇 장으로 붙여 만든 병풍이 아니다. 수천, 수만 년의 비바람에도 깎이지 않고 오히려 보장산을 지켜온 바위 병풍이다. 물은 부서지고 물거품은 비산한다. 실로 장관(壯觀)이고, 기관(奇觀)이다. 아니, 그 실제 경치는 처참한 느낌마저 일으키게 하는 절경이다. 이 암산의 절벽으로 해서 영중면과 전곡 사이의 교통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던 것을 1931년 이 암벽을 깎아서 3등 도로를 내고 터널을 뚫어 직통하도록 만들었다. 이 암벽의 신작로를 걸

¹¹ 포천군지편찬위원회 편,『포천시지』, 포천군, 1984

어가노라면 복주의 더위도 잊을 수 있다. 아무튼 이 창옥병은 영경팔경(永平八景) 중에서도 1, 2위를 다투는 절경이다.¹¹

여기에서는 창옥병과 관련하여 그 외양을 인상적으로 묘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창옥병의 특징을 ‘절벽’과 ‘바위 병풍’ 등의 ‘기암괴석’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은 포천시 홈페이지에서 창옥병을 검색한 결과로, 창수면 사무소 홈페이지의 우리고장소개의 하위 항목인 문화관광 항목에 있는 내용이다.

포천시 창수면 홈페이지

창옥봉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 영평천변에 있는 바랑이다. 영평8경 중 3경이다. 창옥병이란 이름이 말하듯이 기암괴석으로 된 병풍이다.『해동지도』에 “창옥병(蒼玉屏)은 영평천(永平川)가의 바랑으로 푸른 바위가 목병풍처럼 벌여 있어 생간 이름이며 영평팔경의 하나이다.”고 기록되어 있다.『대동지지』에 “창옥병은 영평현 서쪽 10리에 있다.”고 되어 있다. 창옥 병의 폭이 수마정이요 높이가 40~50자에서 백수십자로 깎은 듯한 철벽으로 절벽에는 굽곡이 있고 고저가 있고 암ホール 있는가 하면 갖가지 형태의 둑을 모양이 되어 들풀한 바위도 있다. 1931년에 이 암벽을 깎아서 터널을 뚫어 도로를 만들며 통행하였으나 최근에 우회도로가 생겨 현재는 일부 차량만 통행하고 있다. 맞은 편에 옥병서원(창수면 주원리)이 있었는데 1658년(효종 9)에 창건하였다.『여지도』에는 “창옥병에 박사암서원(朴思菴書院)이 있다.”고 표기되어 있다.『팔도군현지도』에는 옥병(玉屏)으로 표시되어 있다.

[참고자료]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일러두기 및 ‘우리나라의 지명’ 총론 복자

여기에서도 창옥병의 특징을 ‘벼랑’과 ‘기암괴석으로 된 병풍’으로 규정한다. 그러면서 『해동지도』, 『대동지지』, 『여지도』, 『팔도군현지도』 등의 고지도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이외의 내용은 앞서 제시한 1984년에 편찬된 『포천군지』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창수면 홈페이지에서는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지명』의 내용을 참고했다고 한다. 실제로 창수면 홈페이지는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지명』의 내용을 그대로 싣고 있다.¹² 1984년에 편찬된 『포천군지』와 2008년에 작성된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지명』은 창수면 홈페이지에 제시된 창수면 오가리 석벽을 창옥병으로 비정하고 있다.

¹²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지명』은 네이버지식백과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확인 결과, 창수면 홈페이지에 실린 것은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과 동일한 내용이다. 네이버지식백과 설명주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65010&cid=43740&cateGoryId=44178>

¹³ “잘못 알려진 창옥병의 위치”, http://m.blog.daum.net/ybm0913/2563?np_nil_a=2

¹⁴ 노재현·박주성·최종희,『창옥병(蒼玉屏)의 위치 비정(比定) 및 사암(思菴) 박순(朴淳)의 정원유적 연구』,『한국전통조경학회지』34권 4호, 한국전통조경학회, 2016

¹⁵ 최동원,『조선후기 경기북부 경승지의 현황과 인식 변화 - 영평팔경을 중심으로』,『한국학논총』48,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164면

그런데 개인 블로그¹³와 노재현·박주성·최종희¹⁴ 등은 창옥병의 실제 위치가 오가리 석벽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창옥병의 위치를 자세히 검증한 노재현·박주성·최종희는 창옥병의 실제 위치가 옥병서원 앞의 공간이라고 본다. 창옥병의 실제 위치가 옥병서원 앞의 공간이라고 보는 주요한 근거는 여러 고지도에서 옥병서원과 창옥병을 하나의 공간으로 일체감 있게 그리고 있다는 점과 오가리 석벽에서는 암각문이 전혀 발견되지 않지만 옥병서원 앞의 공간에서는 창옥병과 관련된 암각문이 다수 발견된다는 점이다. 이에 관해서 최동원은 “창옥병과 관련해서는 위치에 대한 논의가 최근까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옛 이양정 일대인 현 창옥병 암각문으로 파악하는 의견과 옥병서원과 창옥병 암각문, 영평천가를 모두 아우르는 광의의 범위에서 창옥병의 위치를 비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려실기술』에는 창옥병과 주변 경승들을 구분하고 있으며 『대동지지』에 기록된 창옥병의 규모와 근현대 자료이긴 하지만 1940년 동아일보에 게재된 창옥병의 사진을 참고했을 때 이양정과 배경과가 바라보이는 영평천가의 30~40미터 높이의 암벽 노두를 창옥병이라 불렀던 것으로 파악된다”¹⁵라고 보기도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이 창옥병의 위치를 비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다. 다만 창옥병과 밀접히 관련한 박순(朴淳, 1523~1589)이 생존했을 당시 창옥병의 실제 위치는 노재현·박주성·최종희의 주장처럼 창옥병 암각문이 있는 옥병서원 앞의 공간이었고, 박순 사후 최동원의 주장처럼 창옥병의 범위가 점차 확장되었을 가능성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앞의 연구에서 언급된 자료들에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먼저 『연려실기술』은 이긍익(李肯翊, 1736~1806)이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야사(野史)이다. 창옥병과 관련해서는 “병술년(1586)에 벼슬길에서 물러나 영평(永平)에서 살았는데 거처에 배견와(拜鶴窩)·이양정(二養亭)·백운계(白雲溪)·청랭담(淸冷潭)·토운상(吐雲床)·창옥병(蒼玉屏)·산금대(散衿臺)·청학대(淸鶴臺)·백학대(白鶴臺) 등이 있었다. 시사를 절대로 논하는

¹⁶ “丙戌退處永平, 所居有拜鵠窩‘二養亭’白雲溪‘清冷潭’吐雲牀‘蒼玉屏及散襟’青鶴白鶴臺。絕口不道時事, 與野老對飲, 或一馬一僮, 放跡山水漫遊, 金剛白雲等諸山, 傲然忘歸。”

¹⁷ “時先生永辭京輦, 題詩扇面以見志。因卜築于縣之白雲溪上, 絶口不道時事, 蕪然有出塵之想。日事釣探, 間以吟嘯, 村氓野老, 樊檻相就, 欣然對飲, 若將爭席, 學子來講, 輒忘寒暑。所居有拜鵠窩, 二養亭, 白雲溪, 清冷潭, 吐雲牀, 蒼玉屏及散襟, 青鶴, 白鶴臺等名號。”「領議政贈謚文忠公思菴朴先生行狀」『사암집』부록

¹⁸ 박순에 관한 행장으로는 박순 생전에 박순과 함께 조정에 있었던 이항복(李恒福, 1556~1618)이 지은 것도 있다. 창옥병에 관해서는 이항복이 지은 행장도 이선이 지은 행장의 내용과 대체로 유사하다.

¹⁹ 박순의 별장으로 알려진 ‘배견와’는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배견와(拜鵠窩)>라는 제목의 한시가『사암집』권2에 있다.『사암집』권2

²⁰ 박순이 거닐었던 정자인 이양정을 소재로 한 <제이양정벽(題二養亭壁)>이라는 한시가『사암집』권20에, 이양정에 관한 기문(紀文)인『이양정기(二養亭記)』가『사암집』권5에 있다.

²¹ 창옥병에 관한 작품 목록은 부록에서 제시하도록 하겠다.

이들 행장에서 공히 언급된 명칭 중『사암집』에서 문학작품의 제목으로 등장하는 곳은 배견와¹⁹.이양정²⁰.창옥병²¹이 유일하다. 나머지 명칭들은 제목으로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은 배견와·이양정·창옥병은 충분히 문학작품의 소재가 될 수 있는 장소였지만 나머지 장소는 그렇지 못한 성격의 장소였기 때문일 것이다.

옥병서원 앞의 공간이 창옥병의 위치라고 주장한 노재현·박주성·최종희는 현지 조사를 통해 옥병서원 앞의 공간에 산재해 있는 암각문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여기에 따르면 송균절조 수월정신(松筠節操水月精神), 산금대(散衿臺), 수경대(水鏡臺), 토운상(吐雲床), 청학대(青鶴臺), 백학대(白鶴臺), 청령담(淸冷潭), 와준(崖尊), 이양정(二養亭), 제이양정벽(題二養亭壁), 와옹증유심제시(窩翁贈有心齋詩), 장란(障闌), 평양동문(平陽洞門), 천하일가광피사표(天下一家光被四表) 등의 4개 암각문은 박순 사후에 가탁된 것으로 파악했다.²² 고지도의 내용과 더불어 암각문의 내용을 근거로 노재현·박주성·최종희는 옥병서원 앞의 공간이 창옥병이었고, 창옥병은 삼금대·수경대·청학대·백학대 이렇게 네 개의 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²² 노재현·박주성·최종희, 46~47면 참조

²³ 앞서 살펴본 것처럼 창수면은 조선시대에는 본래 영평군에 속해 있었다. 영평군에 관한 읍지로는 같은 제목의 읍지 2종이 전하는데 석각에 관한 기록은 현종 8년 (1842)에 편찬된『경기지(京畿誌)』(奎12178)에 실린『영평읍지(永平邑誌)』를 일제시대에 그대로 필사한『영평군읍지』(奎17360)에 수록되어 있다.

²⁴ “在郡西十里 院前十一石刻字 皆石峰筆而思菴命名 詳見思菴二養亭記 牛頭淵 有思菴故基 拜鵠窩‘二養亭只有基址 溪邊清令潭’ 吐雲床‘白雲溪·青鶴·白鶴臺’鳴玉淵‘散襟·水鏡·窪尊 皆公命名石刻’, 『누정제영(樓亭題詠)』, 『영평군읍지(永平郡邑誌)』

²⁵ 이와 관련해 노재현·박주성·최종희는 박순이 본인이 조성하고 경영한 원림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증표로 바위에 경물을 새겨 그 명칭과 경관 의미가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갈구했던 것으로 해석했다. 노재현·박주성·최종희, 44면 참조

²⁶ “蒼玉屏 西十里 西去楊州大灘二十里 東去金水亭數里 水邊奇岩壁立千尺 石色蒼翠 南有青鶴白鶴兩臺 上有千株茂松 白雲川經其中”, 『대동지지』, 2책

공간에서 확인된다고 한다. 이중 와옹증유심제시(窩翁贈有心齋詩), 장란(障闌), 평양동문(平陽洞門), 천하일가광피사표(天下一家光被四表) 등의 4개 암각문은 박순 사후에 가탁된 것으로 파악했다.²² 고지도의 내용과 더불어 암각문의 내용을 근거로 노재현·박주성·최종희는 옥병서원 앞의 공간이 창옥병이었고, 창옥병은 삼금대·수경대·청학대·백학대 이렇게 네 개의 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암각문과 관련해 노재현·박주성·최종희는『영평군읍지』에 암각문에 관한 기록이 있다고 언급했다.『영평군읍지』²³를 확인해보면 “옥병서원은 군 서쪽으로 10리에 있다. 서원 앞에 11개의 석각이 있는데 글자는 모두 석봉 한호가 쓰고, 사암 박순이 명명한 것으로 사암의 이양정기를 상세히 보면 우두연 위에 사암의 옛터인 배견와, 이양정이 터만 남아 있고 물가에는 청령담, 토운상, 백운계, 청학·백학대, 명옥연, 산금·수경·와준이 있으니 모두 공이 이름을 붙이고 석각한 것이다”²⁴라고 되어 있다. 이를 통해 박순의 옛 집터인 배견와와 이양정은 실제로 공간이었고, 나머지 명칭의 공간들은 박순이 이름 지어 옥병서원 앞에 석각해 놓은, 자신만의 공간임을 알 수 있다.²⁵

창옥병의 규모가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대동지지』는『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金正浩, ?~?)가 편찬한 것으로 알려진 지리지이다.『대동지지』에는 창옥병과 관련해 “창옥병은 (영평현) 서쪽 10리에 있다. 서쪽으로 가면 양주대탄까지 20리이고, 동쪽으로 가면 금수정까지 수리이고, 물가에는 기암절벽이 1000척이고 바위 색이 푸르다. 남쪽에는 청학·백학 양대가 있다. 위로는 천 그루의 나무가 있고 소나무로 무성하다. 백운천이 그 가운데를 지난다”²⁶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언급된 기암절벽의 규모는 언뜻 오가리 석벽과 유사해 보인다. 그런데 이것이 창옥병의 외양을 설명한 것인지, 창옥병 근처 물가에 있는 기암절벽을 설명한 것인지 다소 모호하다. 한편 김정호의 생몰을 정확히 알 수 없기에『대동지지』의 편찬 시기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적어도 19세기 후반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창옥병에 관한『대동지

일이 없었고 시골 노인들과 더불어 술을 마시고 혹은 한 필의 말과 한 명의 아이 종을 데리고 산수를 방랑하였는데 금강산(金剛山)·백운산(白雲山) 등 여러 산을 마음껏 유람하면서 돌아갈 줄을 몰랐다”¹⁶라고 되어 있다.『연려실기술』에서는 행장 즉 박순의 행적을 기록한 글에서 이를 인용했다고 했는데 박순의 문집인『사암집』에 수록된 행장의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선(李選, 1632~1692)이 찬한「영의정증시문충공사암박선생행장(領議政贈謚文忠公思菴朴先生行狀)」에는 창옥병과 관련하여 “때에 선생이 도성과 영원히 사직하여 부채에 시를 지어 뜻을 보이고, (영평)현의 백운계 위에 집을 지으시고 시사를 절대로 말하지 않았고 초연히 속세를 벗어난 듯한 느낌이 있었다. 날마다 낚시질하고 약초나 캐는 것을 일삼으면서 간혹 풍월도 읊곤 하였다. 촌맹야로들이 술병을 가지고 찾아오면 흔연히 마주 앉아 마시어서 마치 전혀 서로 허물이 없는 듯하였고, 학도들이 와서 글을 강론할 적에는 매양 춥고 더운 것도 잊었다. 거쳐하는 곳에는 배견와(拜鵠窩)·이양정(二養亭)·백운계(白雲溪)·청랭담(淸冷潭)·토운상(吐雲牀)·창옥병(蒼玉屏)·산금(散襟)·청학(青鶴)·백학대(白鶴臺) 등의 이름이 있다”¹⁷라고 했다.¹⁸

이들 행장에서 공히 언급된 명칭 중『사암집』에서 문학작품의 제목으로 등장하는 곳은 배견와¹⁹.이양정²⁰.창옥병²¹이 유일하다. 나머지 명칭들은 제목으로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은 배견와·이양정·창옥병은 충분히 문학작품의 소재가 될 수 있는 장소였지만 나머지 장소는 그렇지 못한 성격의 장소였기 때문일 것이다.

옥병서원 앞의 공간이 창옥병의 위치라고 주장한 노재현·박주성·최종희는 현지 조사를 통해 옥병서원 앞의 공간에 산재해 있는 암각문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여기에 따르면 송균절조 수월정신(松筠節操水月精神), 산금대(散衿臺), 수경대(水鏡臺), 토운상(吐雲床), 청학대(青鶴臺), 백학대(白鶴臺), 청령담(淸冷潭), 와준(崖尊), 이양정(二養亭), 제이양정벽(題二養亭壁), 와옹증유심제시(窩翁贈有心齋詩), 장란(障闌), 평양동문(平陽洞門), 천하일가광피사표(天下一家光被四表) 등의 암각문이 옥병서원 앞의

²⁷ 한편 『대동지지』에는 백호천과 우두연과 관련해 창옥병이 다음과 같이 언급되고 있다. “白湖川, 南三里源出楊州祝石嶺東北流至抱川地爲高橋川含水源天寶兩山之水爲漢川過雲岳山之六松亭川至萬歲橋爲白鷺洲過白雲川西流爲牛頭淵經金水亭蒼玉屏入楊州大灘(중략) 牛頭淵淵上有金水亭下有蒼玉屏.”, 위의 책

지』의 설명은 굉장히 후대의 것이다.²⁷ 이러한 점에서 『대동지지』를 통해 창옥병의 위치를 비정하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창옥병의 위치를 비정하고 나아가 시기적으로 변모해 간 창옥병의 공간적 범위를 재구성하는 작업은 창옥병과 관련된 조선시대 여러 문헌들을 정리하는 기초적인 자료를 조사한 이후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2. 포천 창옥병에 관한 한문 및 국문 작품

여기에서는 포천 창옥병에 관한 문학작품을 한문 및 국문으로 나누어 조사하고 그 의미를 해석해보고자 한다. 이 작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검색어를 설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푸른 옥을 뜻하는 ‘창옥(蒼玉)’이나 옥으로 된 병풍을 뜻하는 ‘옥병(玉屏)’을 검색어로 설정할 수도 있는데 이들 단어는 보통명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포천에 있는 창옥병이라는 특정 장소를 찾는데 오히려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고유명사로서의 성격이 강한 ‘창옥병(蒼玉屏)’을 검색어로 설정하고자 한다.

한문으로 된 문학작품의 경우 한국고전종합DB를 자료로 활용하여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한국고전종합DB는 고전번역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한국문집총간 등 한국고전번역원의 사업 성과물을 담은 고전문헌 종합 데이터베이스로 한국학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원전자료다. 그중에서 본 연구가 참조하고자 하는 자료는 한국문집총간이다. 한국문집총간은 삼국 시대부터 구한말까지 저작된 한국인의 현존 문집 약 4,000여 종에서 주요 문집을 저자의 생년순에 의하여 만약 생년의 미상인 경우에는 저자의 활동 시기를 가늠하여 순서를 정리한 자료이다.

한국고전종합DB의 한국문집총간에서 창옥병(蒼玉屏)으로 검색하

면 133건이 집계된다. 이 중에서 검색어가 제목과 본문에서 중복되거나 한 작가의 글이 중복으로 검색된 경우를 제외하면 117건이 된다. 이들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문학작품(윤문과 산문)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도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 문인의 행적을 기록한 연보(年譜), 견문을 적은 잡지(雜識), 안부를 묻는 서신(書信), 지리적 내용에 관한 지리지(地理志) 등이 그러하다. 본 연구의 목적이 창옥병에 관한 문학작품을 조사 정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성격의 기록은 제외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창옥병에 관한 이해를 도울 수는 있을 것이다. 한문으로 된 문학작품(윤문과 산문)을 검토해보면 조선시대 문인들이 창옥병을 고유명사와 보통명사 두 가지 의미로 사용했음이 확인된다. 전자는 포천의 명승지로서, 후자는 글자 그대로 ‘푸른 옥으로 된 병풍’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후자와 관련해 대표적인 예를 들면 한국문집총간에서 창옥병이 가장 먼저 사용된 홍귀달(洪貴達, 1438~1504)의 『허백정집』에서는 포천이 아니라 강원도 고성 삼일포(三日浦) 일대의 경치를 비유하기 위해서 창옥병을 사용했다. 김상현(金尙憲, 1570~1652)의 『청음집』에서는 한양의 청풍계(淸風溪)를, 이광정(李光庭, 1674~1756)의 『눌은집』에서는 경북 안동의 녹문(鹿門) 등의 경치를 창옥병 곧 푸른 옥으로 된 병풍에 비유했다. 홍귀달, 김상현, 이광정의 글을 참조한 다른 문인들도 비유적 차원에서 창옥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창옥병을 보통명사로, 비유를 위한 표현으로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면 포천 창옥병에 관한 한문으로 된 문학작품은 모두 82건이다. 이를 목록으로 제시하도록 하겠다.

포천 창옥병에 관한 한문으로 된 문학작품 82건을 일별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정리된다.

첫째, 창옥병에 관해서 한문으로 된 문학작품을 가장 많이 남긴 인물이 신석우(申錫愚, 1805~1865)라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창옥병과 관련해 6편의 한시를 남긴 신석우는 실학파를 계승했다고 평가되는 인물이다. 박지원의 손자인 박규수(朴珪壽, 1807~1877)와 매

- ²⁸ 이관성,『해장(海藏) 신석우(申錫愚)의 생애와 문학론』,『한문학보』, 우리한문학회, 2007
- ²⁹ 한국고전종합DB 홈페이지 참조 https://db.itkc.or.kr/dir/item?grpid=hj#/dir/node?grpId=hj&itemId=MI&dataId=ITKC_MI_1209A&solrQ=query+해장집
- ³⁰ 한국고전종합DB 홈페이지 참조 https://db.itkc.or.kr/dir/item?grpid=hj#/dir/node?grpId=hj&itemId=MI&dataId=ITKC_MI_0344A&solrQ=query+기언
- 우 가깝게 지냈으며 주요한 벼슬을 역임했고 당시 문단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다.²⁸ 그런데 그는 한양에서 나고 자랐다. 지방에서 직책을 수행할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양에서 생활을 했다. 그가 왜 창옥병에 관해서 많은 작품을 남겼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다만 그의 문집인『해장집(海藏集)』의 필사본을 포천에 살았던 그의 증손 신현모(申鉉謨)가 소장하고 있었다는 설명은 차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마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²⁹
- 둘째, 창옥병에 관해서 한문으로 된 문학작품을 남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박순이다. 박순은 창옥병과 관련하여 한시 3편과 기문 1편을 남겼다. 앞서 언급한 신석우와 비교해 작품 수는 조금 부족하지만 신석우 다음으로 많은 작품을 남겼다. 특히 창옥병에 관해서 가장 많은 문학작품을 남긴 신석우가 사암(思庵) 즉 박순의 시를 차운한 시를 지었다는 사실은 창옥병이라는 공간이 박순이라는 인물을 통해 조선시대 문인들의 기억에 각인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사암집』에는 창옥병과 관련해 김창협·이재·남유용이 지은 한시 3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조선 후기 문학과 학문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다. 이 같은 대가들이 창옥병에 관한 한시를 지으면서 작품에서 직·간접적으로 박순을 언급했다는 사실은 창옥병이 박순과 불가분의 관계임을 보여준다.
- 셋째, 기행문에서 창옥병을 다루는 방식이 점차 변해갔다는 점이다. 창옥병을 기행문의 형식으로 처음 다룬 이는 허목(許穆, 1595~1682)이다. 그의 문집인『기언(記言)』에는 백운산, 감악산, 백로주, 백운계, 화적연 등 경기 북부의 명승지에 관한 다양한 기록이 있는데 이는 허목이 호란(胡亂)을 피해 여러 곳을 떠돌던 때의 기록이라고 알려져 있다.³⁰ 허목은 창옥병을 비롯한 개별 명승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런데 허목 이후의 문인들은 창옥병을 금강산 여정의 일부로 다루기 시작했다. 어유봉(魚有鳳, 1672~1744)의『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 채지홍(蔡之洪, 1683~1741)의『동정기(東征記)』, 오원(吳瑗, 1700~1740)의『유풍악일기(遊楓
- 嶽日記)』, 이서(李澈, 1662~1723)의『동유록(東遊錄)』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양상은 조선 후기 유람문학의 변화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한편 이현익(李顯益, 1678~1717)의『동유기(東遊記)』는 포천과 철원 등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한 기행문이라는 점에서 같은 시기의 기행문들과 차별적인 성격이 나타난다.
- 국문으로 된 문학작품 즉 창옥병에 관한 시조 작품을 조사하는 일과 관련하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편찬한『고시조대전』을 활용하고자 한다.³¹『고시조대전』은 시조 발생기부터 조선 말기까지 생성, 유통된 시조들을 총망라한 자료집으로 316종의 문헌을 토대로 46,431수의 시조를 싣고 있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우리말 노래인 시조와 관련해 지금까지 발견된 문집과 가집을 종합했다는 점에서 창옥병과 관련된 시조 작품을 찾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다.
- 『고시조대전』에서 ‘창옥병’을 검색해보면 이한진(李漢鎮, 1732~1815)이 편찬한 가집인『청구영언(淸丘永言)』에서 1수의 시조가 발견된다.『청구영언(淸丘永言)』의 편찬자로서 창옥병에 관한 시조를 지은 이한진은 당대에 서예와 음악적 재능으로 유명했던 인물이다. 그는 1732년 한양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외가가 명문가인 안동 김씨 가문이었기에 외가에서 학문을 익히면서 예술에 관한 소양을 쌓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김용겸, 홍대용, 성대중, 박지원, 이덕무, 김홍도, 박제가, 성해옹, 이서구 등과 꾸준한 교류를 했다. 노론의 일원으로서 활발한 정치 활동을 하고 과거에 급제하기 위한 준비를 했으나 50대 중반에 이르러서도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가 계속되었다. 이때에 이르러 친구인 홍대용이 죽고, 스승인 김용겸도 세상을 떠났으며 아내마저 죽게 되자 한양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영평, 오늘날의 포천으로 이주를 했다. 그가 포천으로의 이주를 선택하게 된 것은 포천은 그의 조부가 현령으로 재직했으며 선산이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의 외가인 안동 김문의 일족들이 여기에 은거한 것과 관련이 있다. 외고조부가 되는 김수항(金壽恒, 1629~1689)은 백운산 아래에, 외

증조부인 김창흡(金昌翕, 1653~1722)은 삼부연에 은거해 있었고, 김창업(金昌業, 1658~1721)도 영평에서 농사를 지으며 은거했다. 포천에서 생활 하던 중 한양에서 그와 교유했던 박제가(朴齊家, 1750~1805)가 1795년에 영평현령으로 오게 되면서 그는 박제가와 함께 창옥병을 비롯한 포천의 명승지에서 풍류를 즐겼으며 이 과정에서 창옥병에 관한 시조를 창작하게 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³² 이한진은 모두 7수의 시조를 남겼는데 그중에서 창옥병과 관련된 시조 1수는 아래와 같다.

32 조지형,『경산 이한진의 생애와 문예 활동』,『대동문화연구』7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33 『고시조대전』에서는 이 어구를 ‘三賢 同臨’으로 소개하고 있다. 원문은 ‘險’의 이형자인 ‘險’보다 ‘臨’의 이형자 ‘臨’과 가까워 보인다. 조지형은 ‘三賢 同臨’으로 보았고 문맥상 그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럽기에 본 연구도 ‘三賢 同臨’으로 보고자 한다.

34 조지형, 위의 논문, 211면

蒼玉屏 길흔 골의 廟門이 嚴肅호니

三賢 同臨³³이 萬古의 빛나도다

夕陽의 晚學後生이 不勝景仰호여라

이 작품에 따르면 이한진은 창옥병 근처에 있는 옥병서원도 함께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선조 때 이이를 변론하여 서인으로 지목받고 탄핵당하여 이곳에 은거한 박순, 광해군 때 이곳에 은거한 이의건(李義健, 1533~1621), 이한진의 외조부로 백운산 아래 은거했던 김수항의 위패를 모신 곳이다. 작품에 보이는 삼현이란 바로 이들 세 인물을 가리킨다. 이들은 모두 정치적인 이유로 이곳에 은거해야만 했는데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불우했던 이한진은 이들과 동질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종장의 ‘만학후생(晚學後生)’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가 아직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다.³⁴ 그런데 이한진의 『청구영언』에서 주목되는 것은 창옥병 인근에 있는 금수정에 관한 시조도 2수 남겼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된 시조는 아래와 같다.

玉簫를 손의 들고 金水亭 올나가니

銀鉤 鐵索이 石面의 빛나쏘다

至今에 楊蓬萊 업소니 놀 니 업소호노라

벼슬을 뿌리거나 전나귀로 도라오니
새 그을 金水亭의 여원 고기 솔지도다
아희야 그물 더져라 날 보내려 호노라

금수정에 관한 첫 번째 시조에서 은구철삭이라는 표현은 축자적으로는 은 같고리와 쇠줄이라는 뜻이지만 이들 시조는 위려(威麗)한 초서(草書)를 형용하는 말로 금수정 앞에 있는 바위에 새겨 놓은 양사언의 글씨를 의미한다. 서예로 이름난 이한진에게 금수정 앞에 남아 있는 양사언의 글씨는 남다른 감회를 일으켰을 것이다. 이어지는 시조는 전형적인 귀거래(歸去來) 류의 표현으로 번우한 속세를 떠나 전원으로 돌아왔음을 주제로 한다. 종장에서의 ‘새 그을’은 작자가 전원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함을 중의적으로 나타내고, ‘여원 고기’가 살지다는 것은 펼쳐질 미래의 전원생활에 대한 기대³⁶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36 정홍모, 앞의 논문, 224~225면 참조.

포천 창옥병에 관한 국문으로 된 문학작품, 즉 시조 1수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정리된다. 한문으로 된 문학작품 82건과 비교해 국문으로 된 문학작품이 1건이라는 사실은 조선시대 한문이 국문 문학이 차지하던 열악한 처지를 잘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옥병을 소재로 우리말 노래인 시조가 창작되었다는 사실은 창옥병의 의미가 남달랐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한진이 시조에서 창옥병을 옥병서원과 함께 다룬 것은 두 공간을 일체적 공간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이 고지도와 한문으로 된 문학작품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고지도에서는 창옥병과 옥병서원이 나란히 표시되어 있으며, 한문으로 된 문학작품에서도 창옥병과 옥병서원을 함께 다룬 경우가 상당하다. 한문뿐만 아니라 국문으로 된 문학작품의 존재는 창옥병의 문학적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해준다.

III. 결론

포천의 명승지 창옥병에 관한 문학작품을 한문과 국문으로 나누어 조사한 이번 연구를 통해 창옥병에 관한 다음과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문으로 된 문학작품의 경우, 창옥병에 관해서 가장 많은 문학작품을 남긴 이가 신석우라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창옥병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인물이 박순이며 기행문과 같은 유람 문학에서 창옥병이 금강산 여정의 일부로 다루어졌다는 선행 연구의 성과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경기 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행문의 존재를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차후 이 지역의 문화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문으로 된 문학작품의 경우, 창옥병·옥병서원·금수정에 관한 이한진의 시조를 알게 됨으로써 창옥병에 관한 문학작품의 목록에 새롭게 추가할 수 있었다. 음악적 재능이 출중했던 이한진이 우리말로 된 시조를 통해 자신의 정서와 경험을 노래한 것은 그만큼 창옥병이 특별한 공간이었기 때문인데, 창옥병을 찾는 현대인들에게도 우리말로 된 시조는 창옥병을 인문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포천 창옥병에 관한 집중적인 조사를 위해 ‘창옥병’을 검색어로 설정했지만 ‘창옥’이나 ‘옥병’과 같은 검색어로도 창옥병에 관한 문학작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한진이 시조에 창옥병·옥병서원·금수정 등을 담아낸 것처럼 한시에서도 창옥병·옥병서원·금수정 등을 연관하여 작품을 창작한 사례가 많다. 이러한 작업들은 모두 포천, 나아가 경기 북부 지역의 명승지를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중요한 연구 과제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 부록

조선시대 문집 가운데 포천 창옥병에 관한 문학작품을 수록하고 있는 문집은 아래와 같다. 이들 문집은 저자의 생몰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저자의 문집에 다른 사람의 작품이 중복되어 나오는 경우 최초로 수록된 문집만 제시하고 관련 내용을 비고란에 정리해 두었다.

번호	문집명	문집의 저자	제목	작품의 작자	비고
1	思菴集	朴淳(1523~1589)	蒼玉屏	朴淳	
2			白鶴		
3			雪馬		
4			二養亭記		
5			領議政贈諡文忠公思菴朴先 生行狀	李選	李選의『芝湖集』에도 수록
6			謚狀	李恒福	李恒福의『白沙集』에도 수록
7			神道碑銘	宋時烈	宋時烈의『宋子大全』에도 수록
8			蒼玉屏	金昌協	金昌協의『農巖集』에도 수록
9			訪蒼玉屏	李綽	李綽의『陶菴集』에도 수록
10			蒼玉屏	南有容	南有容의『雷淵集』에도 수록
11	松江集	鄭澈(1536~1593)	雪後登嶽		
12	竹窓遺稿	具容(1569~1601)	蒼玉屏在白雲溪下思庵卜居		
13	東州集	李敏求(1589~1670)	金水亭詩序		
14	記言	許穆(1595~1682)	白鷺洲記		
15			白雲溪記		
16			贈鄭君山水指路記		
17	東溟集	鄭斗卿(1597~1673)	登朴思庵白鶴臺蒼玉屏		
18	麒峯集	李時省(1598~1668)	蒼玉屏		
19			蒼玉屏 二首		
20	秋潭集	俞瑒(1614~1690)	過蒼玉屏有懷朴思庵		
21	聲齋集	姜錫圭(1628~1695)	辛丑北征時行至永平有山明秀 有水佳麗頗奇絕余謂此地實宜 古人所棲遲恨余之失脚紅塵 未免爲名利所驅使至有此行尙 誰咎哉路人指其地曰蒼玉屏 故相國朴思菴之別業余迺瞿然 自愧古人之不及而又喜古人之 先獲也爲製四十韻排律一篇		
22	六寓堂遺稿	李夏鎮(1628~1682)	金剛途路記		

번호	문집명	문집의 저자	제목	작품의 작자	비고
23	南溪集	朴世采(1631~1695)	閑居錄後題	俞湯	秋潭集에도 수록됨
24	醒齋遺稿	申翼相(1634~1697)	蒼玉屏弔思菴相公		
25			徘徊拜鵠窩舊基有感次牛溪先生挽思菴韵		
			寒食兄主率道實正明會于永山		
26	泛虛亭集	宋光淵(1638~1695)	奎姪先已下去矣行祭後聯鞭訪白鷺洲金水亭蒼玉屏諸名勝有作		
27	水村集	任塈(1640~1724)	送尹叔兼出宰永平		
28	農巖集	金昌協(1651~1708)	歸自山寺金君錫龜持酒來候		
29	損窩遺稿	崔錫恒(1654~1724)	蒼玉屏敬次思庵先生韵		
30	芝村集	李喜朝(1655~1724)	奉別赤谷金令丈遊永平山水序		
31	晦隱集	南鶴鳴(1654~1722)	遊四郡記		
32	寤齋集	趙正萬(1656~1739)	蒼玉屏		
33			與鄭台時偕同訪蒼玉屏金水亭		
34			蒼玉屏次梁蓬萊石刻韻		
35	茅洲集	金時保(1658~1734)	晨起		
36	鳴巖集	李海朝(1660~1711)	蒼玉屏		
37	弘道遺稿	李澈(1662~1723)	蒼玉屏		
38			東遊錄		
39	寒圃齋集	李健命(1663~1722)	歸路謁思菴書院		
40	正菴集	李顯益(1678~1717)	蒼玉屏有感		
41			東遊記		
42	杞園集	魚有鳳(1672~1744)	遊金剛山記		
43	耐齋集	洪泰猷(1672~1715)	過永平易洞精舍次贈老主人		
44	陶菴集	李緯(1680~1746)	贈蒼玉屏主人釣竿		
45	觀復菴詩稿	金崇謙(1682~1700)	邑村		
46	屏溪集	尹鳳九(1683~1767)	登金水亭		
47			書蔡君範遊海嶽日錄後		
48	鳳巖集	蔡之洪(1683~1741)	東征記		
49	櫓巢集	金信謙(1693~1738)	蒼玉屏		
50	太華子稿	南有常(1696~1728)	蒼玉屏侍家大人燕飲席上賦 詩屬主人鄭尚伯		
51	雷淵集	南有容(1698~1773)	遊洞陰華嶽記		

번호	문집명	문집의 저자	제목	작품의 작자	비고
52	月谷集	吳瑗(1700~1740)	遊楓嶽日記		
53	藥軒遺集	徐宗華(1700~1748)	望美亭記		
			通訓大夫行弘文館修撰知製 教兼經筵檢討官春秋館記事		
54	江漢集	黃景源(1709~1787)	官南學教授漢學教授世子侍 講院文學贈資憲大夫吏曹判 書徐公墓碣銘		
55	在澗集	任希聖(1712~1783)	蒼玉屏		
56	保晚齋集	徐命膺(1716~1787)	東遊山水記		
57	海嶽集	李明煥(1718~1764)	洞陰之行		
58	耳溪集	洪良浩(1724~1802)	朔方風謠		
59	青丘永言	李漢鎮(1732~1815)			국문시조 1수
60	柯汀遺稿	趙鎮寬(1739~1808)	夜投玉屏李子敬		
61	修山集	李種徽(1731~1797)	蒼玉屏		
62	錦石集	朴準源(1739~1807)	過蒼玉屏		
63	可庵遺稿	金龜柱(1740~1786)	蒼玉屏		
64	華泉集	李采(1745~1820)	蒼玉屏		
65	惕齋集	李書九(1754~1825)	蒼玉屏訪李參奉 和甫		
66	窮悟集	任天常(1754~1822)	蒼玉屏		
67	研經齋全集	成海應(1760~1839)	咏琴		
68			記洞陰山水		
69	薄庭遺藁	金璉(1766~1821)	題寧州兄弟巒李道輔刻字擬 次山有文章皇甫判官湜		
70	雲石遺稿	趙寅永(1782~1850)	蒼玉屏		
71			玉屏書院		
72	果齋集	成近默(1784~1852)	未訪蒼玉屏悵甚賦一絕		
			家人每要示北方山川風俗衣 服飲食之制長夜無眠漫成 百五十五韻寄之		
73	經山集	鄭元容(1783~1873)	金水亭		
74	海藏集	申錫愚(1805~1865)	蒼玉屏憶思庵醉睡仙家覺後 疑白雲平壑月沉時翛然步出前 林外石逕筇音宿鳥知之詩仍用 其韵		
75					

성남 탄천(炭川)의

역사와 함께한

주민들의 생활문화

윤종준

번호	문집명	문집의 저자	제목	작품의 작자	비고
76			金水亭		
77			蒼玉屏		
78			初七日發洞陰		
79			次思庵三詩		
80	重菴集	金平默(1819~1891)	觀永平金水亭至蒼玉屏		
81			玉屏影堂記		
82	嶠堂集	李象秀(1820~1882)	蒼玉屏		
83	省齋集	柳重教(1832~1893)	永平蒼玉屏同李漢儒李君敬諸人拜思庵朴先生遺像出齋中所藏文集輪誦一通仍留一日遍賞溪上諸勝臨別用宣廟御褒先生語松筠節操水月精神八字分韻余拈得神字		

I. 들어가는 말

II. 탄천의 역사와 문화적 환경

1. 탄천(炭川) 명칭 유래와 규모
2. 탄천에 형성된 문명의 역사와 사건 사고

III. 맺음말

I. 들어가는 말

머리말의 서두에 우선 밝혀둘 것은 이 글이 완전히 전문적인 논문이라기 보다는 생활 속에서 느낀 것과, 역사 기록 속에서 탄천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혼합된 것임을 밝힌다. 다만 완전히 허구적 상상으로 쓴 것은 아니다.

‘탄천문명’ - 필자는 개인적으로 탄천 주변의 눈부신 발전상을 두고 ‘탄천문명’이라고 부른다. 탄천문명이라는 용어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도 있겠지만 필자는 그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부르기로 한다. 임진왜란 때 순국한 의병장 중봉 조현(重峯 趙憲, 1544~1592)은 선지자였다. 임진왜란이 터지던 해에 옥천에서 부인이 사망하였는데 아들들이 고향인 김포에 산소를 모시려고 하자, 곧 전쟁이 나서 시신을 버리고 피난해야 할 것이니 굳이 고향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천문을 보다가 왜군이 드디어 출전하였음을 알았고, 의병을 일으켜 청주성을 탈환하는 등의 공을 세웠으나 금산전투에서 700의병과 함께 전사하였다. 조현의 시를 깊이 새겨 본다. 조현은 지인인 최희(崔禧, 1535~?)¹가 초가집 몇 칸을 지었을 때 찾아가서 서울 주변의 10가지 경치를 시로 읊었는데, 그중 <탄천추광(炭川秋光)>²이 들어 있다.

晴川蕭瑟夜風涼(청천소슬야풍랭).

푸른 하늘 소슬하니 밤바람이 서늘하고

稻熟西疇雁叫霜(도숙서주안규상).

벼익는 서쪽 밭에 기러기는 서릿발처럼 부르짖네.

大野黃雲民樂處(대야황운민락처).

너른 들판 황운은 백성들의 즐거운 곳

荻花楓葉已秋光(적화동엽이추광).

물억새꽃 단풍잎은 이미 가을이 물들었네

³ 중봉 조현은 구름 낀 삼각산, 햇살 아래의 서울 시내, 서울 남산의 저녁 봉화, 봉은사 새벽 종소리, 남한산성, 서오릉의 소나무에 내린 눈, 광진 고기잡이 불빛, 청담 빽단배, 살곶이 봄 빛, 탄천의 가을빛 등 서울 주변의 명승지 10곳을 시로 읊으면서 탄천의 풍성한 황금 들판을 언급하였다.

『중봉선생문집』권2

깊어 가는 가을의 탄천을 10경(景)³ 가운데 하나로 꼽았는데, 벼가 익어 황금 들판을 이룬 평화로운 정경과 물억새꽃과 단풍이 물드는 경경을 노래한 것이다. 이 시는 내용으로 보아 임진왜란 이전의 탄천 지역이 풍요로웠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농경시대였던 당시에 누런 황금 들판이야말로 백성들이 행복해 하는 곳이었으니 탄천 주변은 살기 좋은 곳이었다. 그런 곳이 지금은 첨단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으니 탄천문명이라 부르는 데에 부족할 것이 있을까?

탄천은 문명의 젖줄이다. 탄천은 용인에서 발원하여 크고 작은 냇물을 받아들이면서 북쪽으로 흘러 한강에 합류하는 동안 그 흐름 주변으로 오랜 역사와 문화의 현장이 되었다. 구석기시대부터 인류는 탄천 주변에 거주하면서 생활 터전으로 삼아 왔고, 불을 사용하게 된 이후로 이 고장 사람들은 다량의 숯을 구워 생계를 이어오거나 농사를 지었다. 숯을 굽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로서는 남들보다 앞서가는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농경시대의 탄천 일대는 그 당시 산업의 핵심이었던 곡창지대였고, 지금은 판교테크노밸리에서 4차 산업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탄천 주변의 발전상을 두고 탄천문명이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 상전벽해(桑田碧海)와도 같이 변해가는 모습에서 ‘한강의 기적’ 그 한 줄기에 탄천문명이 있는 것이다.

풍수지리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인류가 채집경제 생활을 하다가 농경 정착 생활을 하면서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지형에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다는 정도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세계의 유명한 문명의 발상지는 큰 강물의 물줄기 주변으로 형성되어 왔다. 나일강, 메소포타미아, 갠지스, 황하문명 등이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것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강, 낙동강, 금강, 대동강, 영산강 등등 강물을 따라 도시가 형성되고 발전되어 온 모습이 뚜렷하다. 고대의 유적만 보아도 한탄강 유역의 연천 구석기유적, 한강 암사동 선사유적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배산임수라고 하는 말은 곧 인류가 주거지를 정할 때에 산

¹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중응(仲膺). 임진왜란 당시인 1593년(선조 26)에 왜적이 선릉과 정릉을 훼손하려고 하자 즉시 달려가 통곡하며 끝까지 능을 사수하였다. 사후에 조정에 이러한 사실이 알려져 그 공로로 영의정으로 추증되었다.

² 『중봉선생문집』권2, 시

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지세(地勢)라는 뜻으로, 풍수지리설에서 주택이나 건물을 지을 때 이상적으로 여기는 배치를 일컫는 말이다.

고대인과 현대인을 막론하고, 또한 동물과 식물을 구별하지 않고 물은 생명의 절줄과도 같은 것이다. 공기와 함께 물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필수품이다. 여기에 더하여 옛날에는 물고기가 중요한 식량 자원이었다고 볼 수 있고, 농경 생활이 시작되고 벼농사가 시작되면서부터는 물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였다. 물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형태가 샘물과 냇물, 강물, 바닷물이고 그 변형된 형태가 수증기, 빗물, 눈, 얼음 등이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도 사람들은 샘물이 아래로 흘러 좀 더 큰 도랑물을 이루고 그 도랑물이 냇물을 이루고 강물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이런 물의 흐름은 다른 자연 현상과 함께 사람들을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물은 인류를 비롯한 모든 생물에게 물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생체(生體)의 주요한 성분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인체는 약 70%, 어류는 약 80%, 그 밖에 물속의 미생물은 약 95%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생물의 생명 현상도 여러 가지 물질이 물에 녹은 수용액에 의해서 일어나는 화학 변화가 복잡하게 얹힌 것이라 할 수 있다.⁴

탄천은 한강의 한 지류로서 우리 성남 지역을 관통해 흐르면서 성남의 오랜 역사와 함께 흘러왔다. 성남 지역 사람들의 농경과 삶에 있어서 중요한 삶의 근원을 제공해 왔으며, 도시화된 지금 현재에도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문화와 휴식의 공간이면서 청정한 환경의 절줄로 흐르고 있다. 탄천의 흐름 속에는 그 이름의 유래가 있고, 그 주변을 생활 터전으로 수백 년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한 시대를 뒤흔든 사건이 스며들어 있다. 탄천 주변에서 오랫동안 삶을 영위해온 세거 문중 가운데에는 경주 김씨나 한산 이씨와 같이 기록만으로도 600년이 넘게 살아온 집안이 여럿 있다. 그러므로 탄천의 오랜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찾아보는 것은 성남에서 탄천이 차지하고 있는 의미를 넘어

서 탄천문명이라 부를 만한 사유를 발견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탄천의 지명이 생성된 유래와 그 의미를 찾아보는 한편, 탄천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생활 역사를 조사해 보고, 그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한다. 인구 100만에 가까운 성남시는 불과 50여 년 만에 이렇게 변화 발전해왔다. 1960년대 말까지만 해도 한적한 시골마을이었던 곳이다. 탄천문명, 그 현장의 역사를 찾아 떠나 본다.

II. 탄천의 역사와 문화적 환경

1. 탄천(炭川) 명칭 유래와 규모

1) 탄천의 지명유래

탄천을 한자로 쓰면 ‘숯 탄(炭)’자와 ‘내 천(川)’으로 표기 된다. 순 우리 말로 하면 ‘숯내’이다. 『강희자전(康熙字典)』을 보면 <炭>은 ⑦숯, 목탄(木炭) ⑧숯불 ⑨석탄(石炭) ⑩재 ⑪탄소(炭素) ⑫먹물을 의미하는 글자로 풀이한다. <炭>자는 형성문자로서 산(山)의 언덕 동굴[민엄호밀(民嚴虎密); 굴바위, 언덕)部]에서 불을 피워(火) 나무를 태운 것이라는 데서 ‘숯’을 뜻한다고 하였다. 이 글자의 뜻은 곧 탄천이라는 지명의 유래를 밝혀주는 열쇠이다. 즉, 숯이 핵심 어원이다.

탄천의 다른 이름으로는 옛 기록을 통해 숯내(수내, 순내) 외에 주로 탄천의 상류 지역에서 검천(檢天), 협천(險川), 머내, 머흐내, 마희천(馬戲川), 천호천(穿呼川), 작천(鵠川)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어졌다. 그중에서 탄천의 지류인 분당천의 옛 이름이 수내(순내)였으며, 여기서 비롯된 순내(숯내) 탄천의 우리말 표현이고 실제로 원주민들은 지금도 숯내로 부르고 있다.

⁴ 두산 세계대백과사전

간혹 탄동(炭洞) 기원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둔촌 이집 선생의 아들인 이지직(李之直)의 호가 탄천임을 내세워 그의 호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옳지 않은 주장이다. 인물의 호나 이름을 따서 지명을 정하는 것은 현대에 와서의 일이며, 옛날에는 오히려 자신이 살고 있는 고유한 지명을 따서 개인의 호를 정하는 경우가 많았다.⁵ 특히 어른을 지칭할 때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

결론적으로 탄천은 이 지역이 숯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일반인들에게 ‘숯내’라고 부르다가 한자로 표기하면서 탄천이 된 것이다. 실제로 성남 지역은 숯을 대량으로 구워서 궁궐에 납품하던 곳이었고, 그 흔적이 옛 문헌 곳곳에 기록으로 전할 뿐 아니라, 숯을 굽던 가마터가 판교 신도시 개발 때 발굴 조사되어 다른 생활 유적과 함께 현재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되어 있다. 성남시 수정구 일대를 숯골이라 하였고 한자 표기로는 탄동(炭洞)이라 한 것도 탄천 지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2) 탄천 지명유래의 배경

탄천 지명유래와 관련해서 조선시대 군사 훈련 때 군사들이 취사 후 숯을 버린 냇물이라 하여 탄천이라고 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 주장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 숯은 귀한 자산인데 버린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탄천과 가장 현실적인 관련이 있는 지명이 <탄동(炭洞)>이다. 현재 살고 있는 이들은 아직도 숯골이라는 지명을 기억하고 있고 숯골의 한자표기가 탄동(炭洞)이다. 현재 성남시에는 수정구 태평동 일대에 <숯골>이라는 지명이 있고, 일제시대에는 <탄리(炭里)>로 기록되기도 하였다. <탄동>이라는 지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 한 수가 전한다.

炭洞新居 <洞在廣州南門外十里地>⁶

탄동의 새로운 거처 <탄동은 광주 남문 밖 10리의 땅에 있다>

⁵ 분당의 땅이름 이야기,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⁶ 霽亭先生文集 卷之一:
고려 말기의 이달충(李達衷, 1309~1385)이 남긴 문집

⁷ 걷고 벗고 건너기 : 《시경》에,
“얕으면 옷을 걷고(揭) 건너고,
깊으면 옷 벗고(厲) 건너네.” 하였다.

⁸ 菲탁(畢卓) : 진(晉) 이부랑(吏部郎) 필탁(畢卓)이 술을 몹시 즐겼는데, 옆집의 빚어 익은 술을 밤중에 독 밑에 들어가 훔쳐 마시다가 술 맡은 사람에게 불들려 결박되었다가 밝은 아침에 보니, 필이부(畢吏部)라. 그 결박을 풀고 주인을 청해 독 옆에서 잔치를 벌이고 갔다.

⁹ 취하여 타호(唾壺) 침[擊] : “진(晉) 왕돈(王敦)이 매양 취중에 장(壯)한 마음이 쉬지 않누나.”라는 구절을, 위 무제(魏武帝)의 악부(樂府)에 있는 지사(志士)가 늙은 나이에 노래를 들으면서, 타호(唾壺)를 쳐 장단을 맞추는데 타호의 가장자리가 다 이자리였다.

¹⁰ 이달충(李達衷, ?-1385)은 본관 경주, 자 지중(止中), 호 제정(霽亭), 시호 문정(文靖). 충숙왕 때 문과에 급제, 죄주(祭酒)를 거쳐 공민왕 때 전리판서(典理判書)-감찰대부(監察大夫)를 역임하였다. 1359년(공민왕 8) 호부상서로 동북면병마사가 되었다가 팔관회 때 왕의 노여움을 사서 파면, 1366년(공민왕 15) 밀작제학으로 기용되었다. 신돈의 전횡 시절에 그에게 주색을 삼가고 공석에서 직언하여 파면되었다가, 1371년 신돈이 주살된 후 다시 계림부윤이 되고 1385년(우왕 11) 계림부원군에 봉해졌다. 문집에 『제정집(霽亭集)』이 있다. 이 성계의 아버지 환조(桓祖)와 친구였는데, 사냥을 나갔다가 17세의 이성계를 보고 장차 존귀한 인물이 될 것임을 알아보고 환조가 주는 술은 서서 받아 마셨지만 이성계가 올리는 술잔은 무릎을 끊고 받아 마셨다.

¹¹ 김종직, 『점필재집』, 시집 11권

¹² 십흘: 흘(笏) 10개를 용납할 정도의 넓이를 말한 것으로, 아주 작은 면적을 뜻한다.

魚游江海鳥投林(어유강해조투림)

고기는 강해에 놀고 새는 숲에 사나니

揭厲須當適淺深(제려수당적천심)

걷고 벗고 건너기 얕고 깊음에 알맞아야 하리⁷

拂石坐苔伸脚膝(불석좌태신각슬)

돌 털고 이끼에 앓아 다리를 쭉 뻗고

尋泉掬水洗胸襟(심천국수세홍금)

샘 찾아 물을 움켜 가슴 속을 씻어내네

興來畢卓方偷酒(흥래필탁방투주)

흥이 나면 필탁⁸처럼 술도 도둑질해 먹고

老去昭文不鼓琴(로거소문불고금)

늙어가니 소문은 거문고를 타지 않네

醉擊唾壺真可笑(취격타호진가소)

취하여 타호 두드림이⁹ 진실로 우스워라

凝然嘿坐有餘音(응연묵좌유여음)

명상으로 앓아 있는 그지없는 맛이여

이 시는 이달충(李達衷)이 탄동에 새로 살게 되면서 지은 것인데 제목에 주를 달아서 탄동의 위치가 광주 남문(남한산성 남문) 밖 10리의 위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성남시 승격 직후에 숯골의 독정천이 복개되었으나, 그 이전까지는 어린이들의 놀이터가 탄천으로 흘러드는 독정천, 단대천, 대원천 등이었다. 지금도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달충의 문집에는 그의 묘소 위치가 그의 문집에 수록된 행장에서 “광주 제릉(齊陵)의 북쪽 탄동(炭洞)에 있다”고 하였다.¹⁰ 제릉은 곧 제안대군(齊安大君)의 능을 말하는 것이다. 숯골 부근에는 세종의 7자인 평원대군(平原大君)과 그의 봉사손(奉祀孫)으로 입적된 제안대군 그리고 선조의 아들인 영창대군(永昌大君), 현종의 두 딸 명선(明善)·공주와 명혜(明惠)·공주의 묘가 있었던 곳이다. 두 공주의 묘는 1936년 일본이 고양

의 서3릉 구역으로 이장하였고, 왕자들의 묘는 성남시가 만들어지던 광주대단지사업 때에 모두 다른 곳으로 이장되었다. 성남 봉국사(奉國寺)는 천연두에 걸려 3개월 사이에 죽은 명선, 명혜공주의 원찰이다.

성남 지역이 숯을 굽던 곳이었음을 보여주는 시가 또 있다. 숯을 굽는 데서 탄천의 지명유래가 되었을 것이라는 설을 강력하게 뒷받침 해주는 한시 한 편이 김종직(1431~1492)의 『점필재집』에 전해 온다.¹¹ 우선 시의 제목에서 보면 “마천에서 바라본 바를 기록한다”고 하여 지금의 송파구 마천동 부근에서 지은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시는 5언 시 20행으로 그 중 핵심 부분만 소개 한다.

馬川記所見 <마천에서 본 바를 기록하다>

(앞 4행 줄임)

禪房纔十笏(선방재십흘)¹² 중의 방은 겨우 십흘 쯤 되고
鄉號想千年(향호상천년) 마을 호칭은 천 년이나 내려온 듯

(중간 6행 줄임)

斲材谿有柳(착재계유시) 나무를 깎아서 계곡엔 자漉밥이 있고
燒炭谷生煙(소탄곡생연) 숯을 굽느라 골짜엔 연기가 나네

(뒷 부분 6행 줄임)

즉, 시의 내용 속에 “숯을 굽느라 골짜기에서는 연기가 난다”고 하였다. 남한산성을 둘러싼 주변이 숯을 굽는 곳으로 보편적으로 알려졌음을 암시하는 구절이다.

이처럼 수정구의 숯골 일대는 적어도 고려 시대 말부터 숯을 굽던 마을이고, 숯골 또는 탄동으로 불려졌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궁궐을 비롯한 관청에서 숯을 대량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를 공급하기 위한 숯 공장이 있었던 데에서 연유한 지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일 것이다.

¹³ 태조 1년 임신(1392, 흥무 25) 7월 28일(정미) 문무 백관의 관제

¹⁴ 태조 7년 무인(1398, 흥무 31) 9월 12일(갑신)

¹⁵ 홍경모, 중정남한지, 군수(軍需)

조선을 건국하고 태조는 문무백관의 관제를 정하였는데, 선공감(繕工監)은 재목(材木)·영선(營繕)·시탄(柴炭)을 지옹(支應)하는 등의 일을 관장하였다.¹³ 그런데, 선공감(繕工監)과 사수감(司水監)에 바치는 시탄(柴炭)과 사복시(司僕寺)에 바치는 곡초(穀草)는 백성이 이를 심히 괴롭게 여기니, 마땅히 맡은 관사(官司)로 하여금 다시 소비하는 것을 정하여 전일과 같은 폐단이 없게 할 것이다¹⁴ 하였다.

더구나 『산릉도감의궤(山陵都監儀軌)』 등의 기록을 보면 왕릉의 조성 등에 필요한 숯도 대량으로 필요하였으며, 산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또한 군사용 숯이 대량으로 비축되었다. 특히 남한산성에는 숯을 여러 곳에 묻어서 전시에 대비하였는데 북장대(北將臺) 앞에서부터 성 안의 각 사찰에 이르기까지 전후하여 숯을 묻은 데가 94곳이고, 숯은 24,192섬이다.¹⁵

또한 숯과 관련된 지명이 광주군 중부면 탄리(炭里) = <숯골> 외에도 파주의 탄현(炭峴), 광주시 탄벌리(炭堡里), 화성시 동탄(東炭) 등이 있다. 숯을 많이 구웠기 때문에 <숯골>이라 불렸을 것이고, 비가 많이 오면 냇물이 검게 되어서 숯내가 되고 한자로 쓰면 탄천이 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탄천의 규모

성남 지역의 주요 하천으로는 머내(동막천), 분당천, 운중천, 금토천, 상적천, 야탑천, 여수천, 대원천, 단대천, 독정천, 창곡천 등 크고 작은 하천들이 있는데 이들 하천이 탄천으로 흘러든다. 그러므로 탄천은 성남 지역 모든 하천의 어머니가 되는 셈이다.

한강의 지류인 탄천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서 발원하여 성남시와 서울 송파구, 강남구를 거쳐 한강으로 흘러든다. 전체 길이 35.6km 중 약 25km 구간이 성남시를 지나간다. 전체 유역 면적은 302km²에 이르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것이 특징이다. 1990년 대 말부터 용인 지역의 난개발로 생활하수가 유입되고 공사장 토사가

¹⁶ 네이버 백과사전에 소개된 탄천

¹⁷ 손지봉, 한국 설화의 중국인물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8. 3

유입되면서 수질이 급속도로 악화 되었다.¹⁶ 최근에는 수질도 개선되고 잉어 등 물고기가 많이 서식하고 있다.

3) 탄천과 삼천갑자 동방삭(東方朔)

언제부터인가 성남 탄천의 유래를 삼천갑자 동방삭 이야기와 결부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이 전설은 삼천갑자 동방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삼천갑자(三千甲子), 즉 18만 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월을 살다가 저승사자가 꾀를 내어 동방삭을 잡아갔다는 이야기이다. 동방삭이 18만 년 동안이나 저승사자에게 잡혀가지 않고 있었는데, 저승사자가 숯을 희게 만들려고 한다면서 씻는 것을 보고 비웃는 말을 했다가 잡혀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전설이 나름대로 흥미롭고 재미가 있기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전설은 성남의 탄천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이다. 동방삭(東方朔)은 중국 한나라 무제(武帝) 때인 BC 154년부터 BC 93년까지 실존했던 인물이며, 자는 만천(曼商)이고 출생지는 중국의 산동성 엔츠(歷次)이다. 그러나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마천은 동방삭을 기록에 남기지 않았다.

우리나라에는 전국 각지에 동방삭 설화가 퍼져 있으며, 옛날 상여에는 동방삭이 장식품으로 들어가기도 하여 사람의 죽음과 저승세계와 관련한 민간 신앙으로 유포되어 있다. 동방삭 이야기는 경기도 안성, 강원도 춘성, 양양, 영월, 단양, 충북 영동, 충남 보령, 전북 남원, 완주, 군산, 정읍, 전남 함평, 화순, 경북 월성, 상주, 대구, 선산, 예천, 거창, 울산, 울주, 북제주군 등 총 29편이 전해오는데 경기도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지 않고 오로지 안성 지역에만 전해오는 이야기이다.¹⁷

이처럼 경기도에서도 안성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방에 비해서 동방삭 설화가 채록된 건수가 매우 적은데 어떤 연유로 성남의 탄천과 이야기가 연결된 것일까? 그것은 곧 <탄천>이라는 하천의 이름에 숯 탄<炭>자가 들어 있다는 점과 동방삭 설화에서 저승사자가 숯을 씻었다는 데에 착안해서 억지로 끌어다 붙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지명 가운-

데에는 동일한 지명이 여러 곳 있는 사례가 많은데 유독 탄천은 성남이 유일하다. 충청도의 탄천은 한자표기가 灘川으로 의미가 다르다.

2. 탄천에 형성된 문명의 역사와 사건 사고

1) 교통의 중심 노선(영남대로와 경부고속도로)

탄천은 문명을 꽂피우는 절줄이었다. 옛날의 강이나 냇물은 중요한 교통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오늘날의 고속도로와 같은 기능이다. 각 지방을 이어주는 교통로로서의 기능이 있었다. 그래서 강의 흐름이 있는 인접한 곳에 성을 쌓는 경우가 많았다. 한강 주변만 해도 남한산성, 이성산성, 아차산성, 대모산성, 여주 파사산성 등이 있다. 남한산성과 양재역 부근의 대모산성 등이 있는 조선시대의 성남 일대와 한강 남쪽 및 현 경기도 하남시 일대는 군사적 훈련 장소로 자주 활용되었다.¹⁸ 탄천의 물줄기 옆으로는 양재 말죽거리를 지나 달내내고개를 거쳐 판교역과 판교원, 낙생역 등 한양에서 영남 지방으로 가는 영남대로의 노선이 형성되었다. 달내내고개(月川峴)은 천천현(穿川峴)으로 불리기도 했고, 조선 후기에는 천림령(天臨嶺)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조선 초기에 세종 때에는 이곳에 토성을 쌓고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 적도 있다. 아버지 태종 능인 현릉(獻陵)의 지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리하여 판교에는 성내미마을이 생겼다. 옛날 사람들은 성의 남쪽을 성남, 성내미라고 불렀다. 백사 이항복의 유배 일기에 용산을 성남이라고 표기하였다. 탄천 옆으로 이어진 영남대로의 판교역과 판교원은 동남아사신들과 일본의 사신들이 거쳐 갔고, 임진왜란 때에는 왜군의 포로가 되었던 임해군과 순화군이 이용하였을 뿐 아니라 세조(世祖)대왕비 정희왕후(貞熹王后, 1418~1483) 윤씨가 온양온천에서 승하하여 관을 서울로 옮길 때에도 판교를 거쳐 갔으며, 임진왜란 후에 일본과의 평화사절단인 통신사(通信使)가 이용한 길도 영남대로였다.

옛날 영남대로의 노선을 직선화한 구간이 현재의 경부고속도로이다. 영남대로는 양재, 달래내고개, 용인을 거쳐 영남으로 이어지는 노선이다. 탄천변으로 이어지던 도로 노선이 지금도 그 맥을 잇고 있는 것이다.

2) 군사 훈련과 국왕의 행차

군사 훈련 때에 조선 전기의 왕들은 탄천에서, 또는 탄천 앞 벌판에서 머무르거나 유숙하는 일이 잦았다. 군사 훈련은 짐승을 사냥하는 것으로 실전 훈련과 같이 하였다. 그런데 한 번은 사고가 났다. 조선시대의 탄천에는 흐르는 물의 양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건이다. 태종(太宗) 13년(1413) 10월 10일에 광주 판관(廣州判官) 노상신(盧尙信)을 곤장(棍杖) 80대를 때리고 파직시켰다. 노상신이 도로공사를 담당하였는데, 탄천교(炭川橋)가 꺾여져 무너지는 바람에 궁궐에 납품할 내구마(內廐馬) 3필이 물에 떨어져 1필이 즉사하였기 때문이었다.¹⁹

판교(板橋)라는 지명이 널다리가 있었기 때문인 것처럼 탄천에도 다리가 놓여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조태억(趙泰億, 1675~1728)의 문집인 『겸재집(謙齋集)』에는 “석양에 스님이 탄천교를 건넌다.(夕陽僧度炭川橋)”²⁰고 옮기도 하였다. 탄천 가까운 곳에는 궁궐에 납품하는 말을 기르는 ‘탄천 목장’이 있었다. 탄천의 긴 물줄기 가운데 정확한 곳을 짚어내기란 쉽지 않겠으나 ‘탄천목장’으로 가장 유력한 곳이 현재의 공군 비행장인 서울공항(성남공항)이 자리 잡은 둔전(屯田)리 일대가 해당될 것이다. 둔전은 곧 군용 토지이다. 지금도 용인 둔전동 등 둔전(屯田)이라는 지명이 있는 곳 대부분은 군부대가 자리 잡고 있다. 역대 임금들은 군사 훈련의 목적 외에도 현릉(獻陵:태종 능) 등 능 행차 때에도 성남 지역을 거쳐 간 것으로 확인된다. 세종임금의 탄천 유숙은 두 차례인데 이 기록을 통해서 탄천에 목장이 있었던 것이 기록상으로 확인되고 있다.

조선 전기에 행해진 군사훈련 당시 한강 남쪽 일대와 성남 지역은

군사적 강무장으로 여러 차례 활용되었으며, 낙생행궁(樂生行宮) 또는 낙생역 앞 들에서 임금이 머무르며 훈련 상황을 점검하였다. 특히 낙생행궁 기록은 성남 지역에도 임금의 임시 처소인 행궁이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 조선시대의 강무(講武)는 1년에 두 번 봄철과 가을철에 행하던 행사의 하나였다. 이 강무 행사는 장수와 군사들의 훈련 상황을 임금이 친히 열무(閱武)하고, 사냥을 통하여 실전 훈련과 같이 조련을 했다. 사자위 사대(獅子衛射隊)는 강무할 때마다 용감한 군사 100인을 뽑아 어가(御駕) 앞에 막아서 호위하여 흥악한 짐승의 충돌을 방비하게 하는 임무를 맡았기에 명칭을 사자위(獅子衛)라 하였다. 병조판서 이극배(李克培)는 광주 이씨로서 성남에 묘가 있는 둔촌 이집의 증손자이다. 둔촌의 후손들은 조선시대 가장 번성한 가문을 이루었고, 국가의 기틀을 안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문중이다. 이극배의 건의를 통하여 경안천과 탄천에 교량을 보수하고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성현(成僕)은 그의 저서 『용재총화』에서 자신의 성씨 문중을 자랑하면서도 광주 이씨가 으뜸이라고 평가하였을 정도이다.

3) 병자호란과 최진립(崔震立, 1568~1637. 1. 21) 장군

탄천의 역사에서 가장 아픈 역사가 1636년의 병자호란이다. 청나라 한(汗)이 모든 군사를 모아 탄천(炭川)에 진을 쳤는데 30만 명이라고 하였다. 황산(黃傘)을 펴고 성에 올라 동쪽으로 월봉(月峯)을 바라보고 성안을 내려다보았다.²¹ 전쟁이 나던 병자년에 눈이 많이 내려 세상이 하얗지 않은 곳이 없었는데, 청나라 군사가 진을 친 탄천 주변은 하얀 곳이 없었다. 청나라 군사가 탄천에 진을 치고 남한산성을 포위한 것은, 군사가 머무르기에 편하고 풍부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 때문이었다. 특히 청군은 기마병이 주력이어서 탄천은 많은 군사에 필요한 물 공급이 가장 안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충청감사 정세규(鄭世規, 1583~1661)가 청군과 싸웠는데 크게 패하고 말았다. 피는 냇물을 붉게 물들였다. 탄천의 상류인 험천(險川)에서

19 윤종준, 조선시대의 개발제한 정책과 하남, 하남문화대학 특강 논고, 2005

20 『겸재집』 권12, 시

21 인조 15년 정축(1637, 송정 10) 1월 1일(신축)

였다. 정세규가 벼랑에서 굴러떨어졌다는 기록으로 보아 분당 서울대 병원 주변이 격전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전투에서 공주영장 최진립은 69세의 노인으로 군사를 지휘할 체력이 안 되지만 참전하여 끝까지 싸우다 전사하였는데, 전쟁이 끝난 후 시신을 찾으려 가서 보니 적의 화살이 온몸에 박혀 고슴도치와 같았다고 하였다. 경주 최씨의 조상이다.

4) 오리뜰 들판과 오리뜰농악

분당구 구미동 일대를 오리뜰이라고 불렀다. 탄천의 물줄기를 이용해서 드넓은 벌판이 풍작을 이루었고, 들판의 나락을 먹으려고 오리 떼가 많이 날아왔다는 곳이다. 다른 지역보다 풍요롭게 사는 환경이었다. 1960년대 초에는 동막천 상류에 낙생저수지가 만들어졌다. 이 저수지를 만들 때 전주 이씨 덕양군파 문중 산의 흙이 제공되었고, 분당 신도시가 들어서기 전까지 이 물을 논에 댈 수 있었다. 오리뜰 마을 주민들은 농사를 짓는 여가에 농악놀이를 즐겼는데, 신도시가 생기면서 잠시 사라졌다. 마침 당시의 연희자들이 찍었던 사진을 통해 생존한 사람들을 찾았고, 2007년 문화관광부 전통예술복원사업으로 지정되어 성남문화원과 성남농악협회가 복원과 재현에 성공하였다. 성남 오리뜰 농악은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16호로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다.

5) 탄천의 전설 - 이무술(이매동) 마을 전설과 짐터다지는소리

탄천에는 특이한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전설(傳說)이란 한 지역 사람들의 자존심과 애향심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그 사람들의 정신적 또는 정서적인 구심점을 이루게 한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향토에 대한 사랑과 정열이 포함되었을 때, 단순한 구전설화(口傳說話)를 넘는 비범성(非凡性)을 띠는 향토사담(鄉土史談)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야기로 듣는 그 지방의 자연과 문화 및 인물에 관한 지식과, 그 지식을 결집(結集)시킨 민족 지식이며, 그 지방 사람들의 꿈과 그들이 당위와

필연으로 받아들였던 신명으로, 어떤 때는 그 믿음이 객관적 사실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할 때도 많다.

그럼 성남 ‘이매촌’의 이매(二梅)란 동명(洞名)의 연유에 관한 지명전설(地名傳說)을 알아보자. 원래 이 지방은 이무기가 승천하였다 하여 ‘이무술’이라고 불리는 자연마을이었다. 경기도 광주군 돌마면 이매리(안말,갓골, 물방아(골)거리 포함)였으며, 서쪽으로는 판교와 남쪽으로는 신갈까지였으며, 넓은 들판을 남북으로 가로질러 굽이굽이 흐르는 옛날 ‘굴옛들’이며 그 주변이 물막이 방죽이 있던 곳이다. 방죽 안쪽엔 분당 신도시가 조성되기 전까지만 해도 잉어, 메기 등 민물고기가 많았다.

전설에 따르면 안말,갓골, 물방아골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두레놀이 천렵을 즐기던 중에 한 농부가 아름드리 큰 고기 한 마리를 방접 안쪽에서 안고 나와 죽인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날 밤 모든 마을 사람들의 꿈에 죽은 고기가 나타나 1000년 만에 승천(昇天)할 이무기의 저주를 받게 되리라는 계시는 물론, 죽은 이무기의 짹이 밤마다 마을 어귀에서 소름 끼치게 울어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뜻을 모아 죽은 이무기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한 위령승천제(慰靈昇天祭)를 지냈더니 탄천에서 갑자기 광음(轟音)과 함께 불을 뿐으며 이무기 한 마리가 용으로 변해 승천하고, 제상(祭床) 주위가 온통 핏빛으로 변했다고 한다.

그날 밤에도 온 마을 사람들의 꿈에 승천한 이무기의 화신(化身)인지 백발노인이 생시(生時)같이 나타나 “승천제의 지극 정성에 보답하는 뜻으로 너희들의 식생활엔 어려움이 없게 하리라. 허나 앞으로 500년 까지는 이곳에 큰 인물이 나지 않을 것이니, 업보(業報)로 생각하고 근신 할지어다. 그러나 500년 이후에는 큰 인물이 나오고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게 될 것이다”라는 계시(啓示)를 비몽사몽 간에 들었다고 한다.

모든 사람들의 꿈이 한결같아 기이한 생각에 승천제를 지냈던 자리에 나가 보았더니 그곳에 난데없이 매화나무 두 그루가 솟아 있어 그 후부터는 마을 이름을 이무술이라고 고쳐 불렀다고 한다. 지금부터

약 500년 전의 일이고 그 후 부터는 이매리(二梅理)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 서몽(瑞夢)의 탓이었는지 오늘까지 이매마을 사람들은 생업엔 아무 걱정이 없었다. 외지에서 사글세로 전입한 사람들도 그런대로 치부(致富)하며 살고 있으나,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주변에 알려진 명사가 한 사람도 없었으며, 대학 출신자조차도 변변한 직장을 얻지 못하였다.

이무기의 승천 서몽(瑞夢) 후 500년 만에 예상 못한 한국 최대의 신도시가 이매동을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으니(1992년 구술 당시 기준) 가히 천룡(天龍)의 서몽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이 아니라! 무릇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한 마을에 모여 살게 되는 것도 숙세(宿世)의 인연일진데, 이제 우리 이매 마을의 일원(一員)이 된 자궁심으로 500년 만에 매화꽃을 다시 피울 신념과 꿈을 간직합시다. 6.25전쟁(戰爭) 때까지만 해도 돌마(突馬)면사무소, 돌마초등학교가 이곳 안말 마을에 있었으며, 파출소는 지금 청구아파트 612동 앞 부근 성남대로에 있었다고 한다.

위 내용은 1981년에 88세로 작고한 방은길 옹(방영기 조부)과 “이무술” 마을 당시 서당 훈장이었던 박승무 옹(박용만 조부), 마을 장로이셨던 김좌경 옹(김효진 부친), 김성인 옹(김현기 조부), 김순경 옹(김춘기 조부) 등이 윗대 어른들로부터 구전 받은 이야기를 구술한 전설을 1992년 3월에 기록한 것이다.

방영기(전 경기도의원, 국악인)의 증언으로는 분당 신도시가 생기기 전 태원고등학교(옆에 성남아트센터) 정문 앞에서 70걸음만 가면 탄천이었다고 한다. 현재 이무술(이매동) 마을에는 집터다지는 소리 민속놀이가 보존 전승되어 오고 있으며,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다. 이 민속놀이의 보존 전승에 방영기 국악인이 큰 역할을 하고 있고, 해마다 마을에서는 음력 9월 3일에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6) 보(洑)를 막아 가뭄과 홍수를 막은 사람, 이병철(李秉哲)과 주민들

탄천에는 일제 강점기에 주민들의 투쟁 상황을 보여주는 흔적들이 남

아 있다. 판교에는 ‘면답(面畠)들 일명 면논들’이 백현동과 삼평동, 이매동 일부 지역에 걸쳐 있다. 사송동 사람들과 이매동, 정자동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탄천의 물줄기가 바뀌면서 버려진 모래밭을 일구어 농경지를 만들었는데, 소유권이 각 면으로 되어 있어 면답들이라고 한다. 그리고 삼평동에는 ‘봇들(洑坪)마을’이 있는데, 일제 강점기에 주민들이 보를 쌓은 데서 유래한 것이다.

여수동에는 이병철 송덕비가 비각 안에 잘 보존되어 있다. 1958년 9월 10일에 여수제방공사추진위원회에서 건립하였고 마을 경로당 옆에 있다가 여수동에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공원으로 이전하였다. 비각 안에는 두 개의 현판이 안에 걸려있고, 그중 하나는 홍순천이 글을 지었는데, 일제 강점기 당시인 1920(경신년)에 큰 홍수가 나서 마을이 망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에 이병철은 보를 막아 마을 주민들의 농토를 옥토로 만들어 자연재해로부터 지켜 주었다고 기록하였다. 이병철은 광주 이씨다.

또 하나의 현판의 글은 같은 해 10월 22일 이기문이 지었는데, 중촌보(中村洑) 개수 및 탄천 호안공사 착공에 즈음하여 향토관개사업에 불후의 공적을 남긴 <고 광주이공병철선생송덕비> 앞에서 마음의 느낌을 고한다는 내용이다. 이 글에서 “왜정(倭政)하에 억압을 무릅쓰고, 민(民)은 이식위천(以食爲天)²²이라는 신념 하에 중촌보를 위시하여 탄천보 및 호안공사를 하신 분이 그 누구시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병철은 왜정 당시 토지는커녕 관개하는 보(洑)조차도 개인의 소유로서 착취를 당하던 시대에 이병철 주도하에 전 돌마면장 이근학(李根鶴), 이기영(李岐泳), 홍순석(洪淳錫) 씨 등 여러 선배의 열렬한 협력으로 ‘탄천보’라는 작인(作人)들의 보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또한 탄천 호안(護岸)공사에 들어간 비용도 거의 다 부담하였다. 다음은 비석에 새겨진 내용이다.

초속도의(超俗道義) : 도의는 세속을 초월하였고

천자인호(天資仁豪) : 하늘이 내린 인품은 어질고 빼어났다

치수개척(治水開拓) : 치수를 개척하니
비공하이(非公何爾) : 공이 아니면 어찌했으랴
항사후생(恒事厚生) : 모든 일에 사람들을 넉넉히 하는 것이
현업지일(顯業之一) : 분명이 한 일의 첫 번째였네.
공익자선(公益慈善) : 공은 더욱 선을 베풀니
유자역현(有子亦賢) : 자손 또한 어질었네
중구늑명(衆口勒銘) : 뭇 사람들의 말을 돌에 새기려니
공난매거(功難枚舉) : 공을 낱낱이 말할 수 없네
익창기덕(益彰其德) : 더욱 빛낼 그 덕은
영세불민(永世不泯) : 세상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으리

동아일보 1928년 9월 20일 기사에는 수재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구제금을 낸 사람들의 명단을 보도하였는데 그중에는 돌마면 여수리 주민들이 다수 있었다.(이근학, 이근용, 홍순석, 이기학, 이병철, 이형래, 이병태, 이봉서, 송백선, 이태선, 이현선, 이경선, 이운선, 김상면, 이한영, 이웅희, 이연구, 이석조)

이근학(李根鶴)은 돌마면장을 여러 차례 지내기도 했는데, 이매동의 농업기술센터 입구에 마을 주민들이 세운 <돌마면장 이근학 송덕비>가 세워져 있다. 이근학 면장은 해방 후 ‘돌마직물공장’을 운영하여 소창직물을 생산하였다.

1936년에 전국적으로 가뭄이 들자 주민 200여 명은 이춘영을 대표로 하여 지주 40여 명과 잔인 200여 명의 동의를 얻어 보(狀)를 허가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성남에 전기가 처음 들어온 것은 1966년 대왕면 지역이었고, 이어서 수진리가 1969년에 하천변에 신풍제지공장(현재 삼부아파트 자리)이 가동되면서 전기가 들어왔다.

한편 이무술 마을에는 저수지가 있었는데 분당신도시 개발로 사라졌다. 이매저수지는 일제 강점기에 강제 부역으로 만들었고, 약 600여 평 정도였다. 분당 신도시 건설 때 매립되어 야탑동에 있던 송

림중고등학교가 이곳으로 이전하였다.

7) 동족상잔의 비극, 6.25사변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은 성남 지역도 큰 피해를 주었다. 고등동 419번지 일대에는 세곡동에 있던 피난민수용소가 옮겨왔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 돌마면(현재 분당) 청년들은 즉각 <의사단(義死團)>을 결성하고 공산군과 싸울 준비를 하던 중에 비밀이 탄로나서 많은 청년들이 희생되었다. 이매역 옆 성남시 농업기술센터 입구에 이근학 면장 송덕비와 함께 희생자 추모비가 세워져 있다.

이 비석은 6.25전쟁 때 이 지역에서 조직된 의사단(義死團) 단원들이 이 땅을 지켜내려다가 희생된 의로움을 빛내고자 세운 추모비이다. 이 비석에는 의사단 단원 중 순명(殉命)자 28명과 생존자 12명의 명단이 새겨져 있다. 비석이 세워진 시기는 단기 4283년 11월이고 건립한 주체는 돌마면 면민들이다.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1월에 세워진 것이다.

돌마면 주민들은 6.25 전쟁 초기에 의롭게 죽을 것을 결심하고 의사단을 결성하여 북한 공산 괴뢰군을 몰아내고 우리 고장을 지키기 위해 떨쳐 일어섰다가 기밀이 누설되어 28명의 희생자를 낸 것이다. 비석의 앞면 가운데 줄에는 ‘殉命義士彰義碑’라 새기고, 양 옆으로 4자 12행, 한문으로 쓴 추모의 시가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희생자 명단과 생존자 명단을 새기고 옆면에는 비석의 건립 연월과 건립자인 돌마면면 일동이라고 새겼다. 비석 뒷면의 생존자 명단은 순명자 이름보다 작은 글씨로 새겼다. 이 비문으로 보아 의사단원은 총 40명이었음을 알 수 있다. 비석에 새겨진 추모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殉命義士倡義碑(순명의사 창의비) – 목숨을 바친 義士들의 義를
빛내고자 세운 비)
北賊猖狂(북적창광) 북쪽 적들이 미쳐 날뛰니,

到處翻覆(도처번복) 도처에서 뒤집어지고,
國民塗炭(국민도탄) 국민들이 도탄에 빠져,
幾乎全滅(기호전멸) 거의 전멸할 지경이었도다.
當此之時(당차지시) 이런 때를 당하니,
豈不寒心(기불한심) 어찌 한심치 않으리오
十八義士(28 의사) 스물여덟 의사가,
以死團結(이사단결) 죽음으로써 단결하여,
滅賊壯志(멸적장지) 적들을 물리치려는 장한 뜻이 있었으나,
機漏返殃(기루반양) 기밀이 누설되어 오히려 재앙을 당하였으니,
哀此遺恨(애차유한) 애통하구나! 이에 남은 한이,
千載不泯(천재불민) 천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으리

목숨을 바친 의사들의 꽃다운 이름(28인)

金錫振(김석진), 金点振(김점진), 李福求(이복구), 李世求(이세구),
金春植(김춘식), 韓敏會(한민회), 張一龍(장일룡), 李仁圭(이인규),
趙光彌(조광필), 李光庚(이광석), 李盛圭(이성규), 李柱明(이주명),
朴尚憲(박상현), 金萬植(김만식), 具皓模(구철모), 申敬雲(신경운),
李玗薰(이각훈), 李善珪(이선규), 南相必(남상필), 孔錫奉(공석봉),
張泰英(장태영), 孔錫杓(공석표), 金雲權(김운권), 鄭柱薰(정주훈),
崔雲瑞(최운서), 李景求(이경구), 金秉基(김병기), 金興俊(김홍준).

의사단원 중 생존자(12인)

南相舜(남상순), 李宗烈(이종렬), 姜寅秀(강인수), 柳志昌(류지창),
李鐘瓚(이종찬), 金振星(김진성), 李世烈(이세열), 李柱環(이주환),
鄭永薰(정영훈), 鄭昌鉉(정창현), 林成奎(임성규), 李容高(이용설)

단기 | 4283년 11월 일

돌마면민 일동

참고로 생존자 중에 이종찬과 김진성은 돌마면 서기였고, 류지창은 교사로 광명초등학교와 신현초등학교 교감을 지냈다. 그리고 정영훈(1932~2011. 4. 19)은 연세대 총학생회장과 동문회 수석 부회장을 지냈고 교통부 기획관리실장, 광주 하남에서 제14~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 사건의 생존자인 류지창이 쓴 회고록이 문교부에서 1976년에 발행한『6.25실증자료』 130~133쪽에 「북괴의 간교」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회고에 의하면 희생자 장태영은 당시 용산경찰서 순경이었는데, 서울이 3일 만에 북한군에게 점령되자 광주 오포면 신현리 태재마을에 있는 집으로 와서 숨어 있다가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김정남 순경이 찾아와서 이미 낙동강까지 밀린 마당에 자기는 할 수 없이 북한군에 자수를 했더니, 대우가 좋다고 하면서 북한군에 자수를 하여 같이 활동하자고 권하였다. 할 수 없이 장태영은 돌마면 분주소에 가서 부역을 하던 중 유지창에게 포섭되어 의사단원이 되었다. 그러나 밀고자가 있었고, 결국은 김정남과 장태영도 북한군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의사단원들은 방공호에 갇혀 지내다가 UN군의 북진으로 북한군이 후퇴하며 끌고 가다가 광주 까치산 기슭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당시 생존자였던 류지창 선생은 이제 고인이 되었고, 그의 제자인 서울교대 이연복 명예교수가 그의 증언을 기억하고 있다.

그 후 통일을 눈앞에 두었을 때 중공군의 인해전술로 다시 전선(戰線)은 남쪽으로 밀렸고, 중공군은 미사리 나루를 건너 일부는 퇴촌과 곤지암 방향으로, 일부는 성남 쪽으로 밀려왔다. 그때, 중공군은 판교 백현리의 방앗간을 강제 점거하고 주둔하면서 낮에는 자고 밤에는 전투를 벌였다.(원주민인 김대진 성남문화원장 증언)

이 때의 전투가 1951년 1월 하순부터 2월 20일까지 전개된 썬더볼트 작전이었다. 맥아더 장군의 뒤를 이어 부임한 리지웨이 장군은 트루먼 대통령의 한국 포기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작전을 수행하여 용인에 이어 관악산을 점령하고 서울을 되찾게 되었다. 썬더볼트 작전 때 전사한 국군 유해가 불곡산에서 발굴되었다.

8) 깨어나는 땅 모란, 그리고 모란시장

한강 남쪽 일대는 경기도 광주군에 속해 있었고, 성남 지역은 광주군의 돌마면, 낙생면과 대왕면 일부, 중부면 일부였다. 그러다가 1968년 이후 서울시의 무허가 판자촌 철거 계획에 의해 수립된 광주대단지 사업이 추진되면서 인구가 폭증하게 된 것이다. 광주대단지 사업 이전에 이 지역의 땅은 서서히 역사의 긴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1961년 예비역 대령 김창숙이 5.16 이후 잠시 광주군수를 지내다가 그만두고 광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성남 지역으로 오게 되었다. 김창숙은 예비역 청년 50여 명을 모아 '모란개척단'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미군부대에서 장비를 빌려와서 여름마다 범람하는 단대천에 제방을 쌓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모란'이라는 이름은 김창숙의 어머니가 고향인 평양 모란봉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지어진 것이다. 모란개척단의 활동은 단대천 제방 쌓는 것을 시작으로 모란중학원 건축, 모란우체국 개설, 모란시장 개설 등으로 확대되었다. 모란우체국은 체신부장관을 지내고 훗날 강원도 영월, 정선, 평창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장승태의 동생인 장승길에 의해 개설되었다. 그런데 모란중학원은 개척 단원들이 직접 벽돌을 짹으며 건축을 하던 중 완공을 못하고 고려인삼에서 인수하였고, 오늘날 풍생중고등학교로 발전하였다. 모란개척단원들이 제방을 쌓은 단대천은 1991년 12월에 복개공사가 시작되기 직전 까지 개울가에 저녁이면 포장마차가 즐비하게 하루 일과에 지친 서민들의 발길을 끌었다. 그 후 복개된 단대천에는 중앙지하상가가 들어서고, 지하철 8호선이 지나가면서 교통난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9) 광주대단지사건

광주대단지 사건은 1971년 8월 10일 주민들이 기본 생존권을 요구하며 일으킨 시위 사건이다. 서울시는 청계천변 등의 무허가 주택에 사는 주민들을 철거하기 위한 계획으로 1968년부터 서울에서 가깝고 땅값이 비싸지 않은 광주군에 '광주대단지'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때 서울시

의 계획에 편승하여 철도청에서도 '기찻길 옆 오막살이' 철거를 목적으로 서울시에 광주대단지 땅 일부를 요구하였고, 1969년 5월 10일부터 27일까지 철로변 3,057가구를 철거하였고 1969년부터 철거민들을 강제 이주시켜 인구는 순식간에 14만 명으로 불어났다. 그러나 광주대단지에는 전기와 상수도는 물론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집도 없었고, 생계를 유지할 경제활동 시설도 전혀 없었다. 이런 상태에서 1970년 12월 3일 한국일보는 얼어 죽은 사람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토지 가격은 급등하였고, 주민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서울시장과 협의하기로 했으나 양택식 서울시장이 약속된 장소에 나타나지 않자 주민들은 과격한 시위를 전개하였다. 비가 내리는 중인데도 버스가 불태워지는 등 과격한 시위는 6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결국 모든 조건을 수락하기로 함으로써 시위는 일단락되었는데, 22명은 구속기소 되었다. 그 당시 이 사건은 '난동', '폭동' 등으로 지칭되었으나, 분명한 것은 정부의 부실한 정책이 원인이었다. 주민들은 생존권의 절박함에서 시위를 전개한 것이었다. 고건(高建) 전 국무총리가 공직에 첫발을 내딛던 날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처음 맡은 업무가 이 사건의 수습을 하는 것이었다. 고건 전 총리는 회고록에서 우리나라 신도시 건설의 역사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선입주후투자'에서 '선개발후입주'로 일대 전환을 하게 되었고, 그 첫 결과가 1기 신도시(부천시 중동, 고양시 일산, 군포시 산본, 안양시 평촌, 성남시 분당)였다고 회고했다. 내년은 광주대단지 사건 50주년이 된다. 이 사건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가 된 것이다.

III. 맷음말

탄천의 지명유래는 숯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나이 든 어른들은 탄천이라는 이름보다 숯내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탄천 명칭의

유래를 삼천갑자 동방삭 설화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주장은 엄밀히 따지면 잘못된 것이다. 동방삭은 중국의 한나라 때 실존 인물로서 사마천(司馬遷)과 같은 시기에 활동했지만, 사마천은 동방삭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강태공을 비롯한 다른 여러 중국의 실존 인물과 함께 우리나라에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으나, 그것은 죽음과 관련한 민간 신앙의 차원일 뿐 역사적 사실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에는 1962년 이전에 29곳에서 동방삭 설화가 채록되기는 했으나 경기도는 안성 1곳뿐이었다.

탄천의 명칭이 숯과 관련된 것을 증명하는 지명이 숯골 또는 탄동(炭洞)이라는 지명이다. 고려말 이달충의 <炭洞新居>라는 제목의 시 제목에도 등장하고, 점필재 김종직의 시에도 송파 마천에서 성남 쪽을 바라보면서 숯 굽는 연기가 난다고 언급한 것도 있다.

성남의 수정구 태평동 일대를 숯골이라 부르고, 일제 강점기에는 한자로 탄리(炭里)라고 기록하였다. 한강 남쪽은 경기도 광주에 속해 있었고, 강남구 수서 부근 울현동에서부터 분당의 울동 공원까지는 다른 지명도 있지만 율리(栗里)로 알려져 있다. 오래된 비석에 묘의 위치를 그렇게 표시해 놓은 것이 다수 있다. 즉, 율리의 밤(栗)은 일반적인 밤이 아니라 도토리 종류를 말하는 것이다. 소나무보다 참나무가 숯을 만들기에 더 적합하다. 바로 성남 지역은 한양의 궁궐에 숯을 납품하던 지역이었다. 그리고 한양뿐만 아니라 병자호란 후에는 전시에 대비하여 남한산성 성벽 둘레에 소금과 숯을 묻었는데, 숯 24,192석을 묻었다. 숯을 구웠던 가마터가 2013년 6월에 판교에서 발굴되었고 성남시향토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됐다.

탄천에는 영육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 구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탄천 주변에서 생활하였고, 곡창지대를 형성해 생업에 종사해 왔다. 병자호란 때에는 최진립 장군의 애국충정 이야기가 스며 있고, 오리뜰농악과 같은 민속놀이가 탄천 유역에 사는 사람들의 놀이로 전승돼 오고 있다. 일본의 악랄한 착취와 홍수 등의 악조건을 이겨 낸 우리의 선

조들이 있었다. 1950년 한국전쟁 때에도 죽음을 무릅쓰고 일어선 주민들이 있었다.

탄천은 수운(水運)과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여 영남대로가 탄천변으로 이어졌었고, 오늘날에는 경부고속도로가 대신하고 있다. 탄천 주변은 곡창지대였고, 이제 탄천의 흐름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탄천에는 물고기들이 돌아와 살기 시작했고 주민들에게는 훌륭한 여가 활용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탄천변 곡창지대가 첨단 산업의 메카로 변화하여 가히 탄천문명이라고 일컫기에 부족함이 없다.

강마을, 산마을이 공존하는

양평군 서종면 마을

생활기록 연구

김재익

I. 서론: 양평군 서종면 마을 연구의 필요성

II. 본론

- 마을 소개 (마을 단위 현황: 인구 및 경제 구조, 지리적 구조)
- 마을의 생활/생태 문화 배경 조사
- 자연 지형과 마을 생활권: 마을을 관통하는 줄기, 강·하천, 산맥들
- 마을 따라 물길 따라 연결되는 규제 정책들
- 주민 갈등과 분쟁

III. 결론

강마을과 산마을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양평군 서종마을 그리고 마을 주민

참고 문헌 및 참고 사이트

I. 서론: 양평군 서종면 마을 연구의 필요성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마을 지역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인접한 곳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인근 지역은 수질보전구역, 생태관리지역으로 정책적으로 지정되어 있음)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인근 지역 중 마을주민과의 교류를 통한

문화와 예술 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곳이기도 하다.¹ 또한, 경제·생산적 인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전통적인 환경농업(산지가 주 지형으로 산더덕, 표고버섯, 잣 등을 주로 재배)이 활성화되어 있고, 무엇보다 강과 계곡 그리고 산지 지형이 마을과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다양하고 균형 있는 생활문화가 각 마을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서쪽으로는 서울권, 북쪽으로는 강원권·경기권 남쪽으로는 경기 남부로 향하는 주요 연결 지점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 인구 및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다.²

행복공동체 구성을 위한 원주민-이주민간 정책포럼', 양평일보 2017.09
1 참고 자료: 마을 디자인에 서종면 주민들 직접 나서, 뉴시스, 2012
2 두물머리 목적지 설정 횟수 전체지역 6위, SK텔레콤의 T맵, 2020.03
3 '현대판 보부상'들의 전국구 마켓, 조선일보 2019.04
4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주민들 "팔당상수원지역 무분별 난개발" 집단민원 제기, 경인일보 2017.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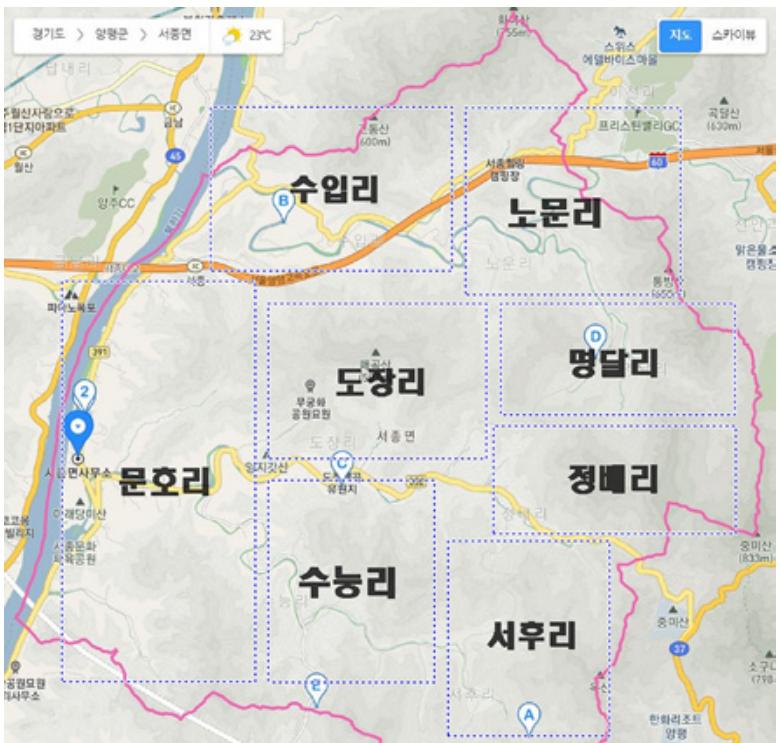
한편, 지역 내 마을 운영에 있어 주민 활동 비중이 높은 측면과 더불어 외부 공간에서의 인구 유입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기존 토착 주민과 외부주민과의 생산·문화 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곳이기도 하다.³

한편으로는 이 점 때문에 각종 정책과 분쟁(지형개발에 따른 환경보전 정책과의 충돌과 주민 간 갈등)이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서종면 마을 지역 내 역사와 생활문화 그리고 지역 내 외부 인구 유입에 따른 관광 활성화로 인한 마을을 관통하는 각종 정책 및 분쟁 이슈들도 함께 알아봄으로써, 서종면 마을의 지역 생태계와 향후 마을 성장과 발전에 미치는 영향들을 직·간접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II. 본론

1. 마을 소개 (마을 단위 현황: 인구 및 경제 구조, 지리적 구조)

마을지도 이미지
(다음지도참조)



주요 마을 수치표

서종면 주요 면적	92.84km ²
거주 인구	9,451명(4.710세대)
행정구역	8개법정리, 19개 행정리, 44개반
주요 마을	화서마을, 무너미마을, 소나기마을, 수대울마을, 무드리마을 외
주요 특산물	산더덕, 표고버섯, 잣 등
주요 공간	이향로선생 생가,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주요 계곡(벽계계곡, 수입계곡)과 등산로(통방산, 중미산, 고동산 등)

서종면 마을 지역은 북한강에 최 근접한 지역으로 동쪽으로는 강원권, 북쪽으로는 경기·수도권, 서쪽으로는 서울권에 근접한 천혜의 자연경관과 환경이 그대로 보전된 것이 특징으로 세부 지형에 따라 여러 개의 마을로 나뉜다.⁵

5 2장 각 마을 소개 참조

6 참고 자료: 10~20대 인구비율: 23% / 30~40대 인구비율: 24% / 50대 인구비율: 18% / 60세 이상: 30%. <https://gits.gg.go.kr> (경기도 정보센터 인구구조, 2019)

서종면은 오랜 역사와 주민의 생활문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마을 지역이 고루 분포되어 있고, 산지가 많기에 전통적인 환경농업을 구현하고 있다.

마을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북한강 자락이 8개법 정리(19개 행정리, 44개반) 내 모두 관통하여 하천과 계곡을 산지와 함께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각각의 동네 마을 방문 시 꼭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산지를 둘러싼 하천과 계곡이다. 또한, 구석기시대부터 수렵 생활이 가능했던 곳으로 추측되는 만큼(하단 돌무덤 관련 글 참고), 오랜 역사와 전통이 함께 깃든 곳이기도 하다. 마을별 문화예술 참여 프로그램과 전통환경농업 외 계곡과 하천을 활용한 관광산업 그리고 오일장과 리버마켓 등 정기적으로 열리는 유통시장이 함께 발달하여 있는 만큼 지역 거주민뿐 아니라 외부 마을주민의 왕래와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기도 하다.

더불어 농어촌 기반 교육 활동과 자연과 생태를 활용한 체험 학습이 잘 발달 되어 있기 때문에, 계층이 거주하며 활동하는 연령별 거주 인구 폭이 상대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⁶

2. 마을의 생활/생태 문화 배경조사

1) 현장 자료 수집: 마을의 역사

서종마을 지역은 서쪽으로는 서울 지역이 인접해 있고 경기, 수도권과 강원권을 잇는 거점 IC공간에 위치한 곳으로서 북한강과 인접하여 각 마을 내 곳곳에 하천과 계곡이 걸쳐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보전된 곳이다. 무엇보다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한 환경농업이 활성화되어 있

고, 문화와 예술이 함께 발달 되어 관광 지역의 중심지로도 알려진 곳이다.

대표 마을로는 이항로 생가가 있는 화서마을, 문학가 황순원이 활동하며 주요 소설의 장소를 담고 있는 소나기마을, 최근 활성화된 리버마켓 등, 관광지 최선에 있으며 삼일 운동 발발 시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운동이 펼쳐지기도 했던 서종 무너미마을 등이 있다. 특히 무너미마을 내 문호성당은 다산 정약용, 정약전 형제가 천주교를 전파한 장소로 무려 140년이 넘은 역사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서종마을은 크게 3가지 유형에서 커다란 영향을 받으며 지역 환경을 구성하고 있다.

첫 번째는 지리적·환경적 특성으로 보존된 생태환경(강과 하천 그리고 산지)을 중심으로 지역 활동이 통제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러한 환경적 특성으로 정책적 규제에 맞추어진 형태의 경제활동이 프레임화 되어 있으며, 세 번째로는 기관, 주민회관, 외부 주민과의 협업(주민 교류)을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따라 마을 생활문화가 발달하여 있다.⁷

7 생태환경, 정책, 지역주민 활동의 자세한 내용은 3~4장 참고

8 공식적으로는 문호리 초기지명은 물님이에서 출발한다. 물이 많아 물이 넘치는 현상에서 비롯되었고 이후 무너미로 변경 이후 무내미로 다시 변경, 그 이후 공식 지명인 문호리가 되었다. (문호리 거주, A 인터뷰 중)

2) 현장조사: 마을아카이브 자료 분석

서종면 마을 내에는 살펴보아야 할 주요 지역 공간들이 있다. 즉 모두 환경적인 지형을 바탕으로 마을 고유의 역사와 문화가 각 지역 공간을 터전 삼아 발전된 곳으로 마을 특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통적이다.

문호리마을 이야기: 서종면 문호리 안에는 여러 개 대표 마을이 있다. 그중 문호리라는 지명은 ‘더러울 문(汶)’자에 ‘호수 호(湖)’자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강과 하천이 지역을 둘러싸고 있다는 증거로서, 예부터 선비들이 많이 거주하다보니 먹을 가는 일이 잦아 호수가 더럽혀진다고 하여 지명 유래가 생겼다고 전한다.⁸ 그만큼 강과 하천을 기반으로 오랜 역사에서 비롯된 각 마을 지역은 깊은 역사가 유래한다. 기본적으로 문호리 내부에는 대략 6개(문호 1리~6리 내: 무너미 마을, 다릿골 마을,

가루개 마을, 길곡 마을, 마진배, 수대율)의 주요 마을이 존재한다. 북한강이 흐르는 자락 바로 옆에 위치하여 있고, 하천으로 흐르는 첫 자락에 있는 이 마을은 대표적으로 3·1만세운동 이후 전국으로 퍼지는 시점인 3월 10일로 지방에서 최초로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났으며 이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도서관 옆에 벽화와 조형물을 설치하여 그 의미를 기리고 있다. 또한, 140주년이 되는 문호성당은 실학자 정약용과 정약전 형제가 천주교를 전파한 곳이기도 하다.



3.1 운동 발발 기념벽화

문호성당



©김재익

문호교회



©김재익



©김재익



©김재익

리버마켓이 열리는 공터로
평소에는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김재익



©김재익

문호리 옆 강가에는 옛 문호 나루터가 있는데 이곳에는 공덕비가 있다. 조선 후기 1876년부터 3년 동안 심한 가뭄이 든 적이 있는데 이 때 관찰사가 이곳 주민을 돋고자 3년여에 걸쳐 세금을 면제한 적이 있다고 전한다. 이 은덕을 기리고자 공덕비를 세운 것이다.

문호4리 길곡마을로 넘어가면 요즘 유명한 리버마켓이 있다. 내부 주민과 외부주민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매달 열리는 리버마켓은 마을주민이 교류하는 전통 시장 유통산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 할 수 있다. 인근 테라로사라는 유명 커피 공장과 함께 이 마을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이 모여 함께 만들어내는 시장으로 유명하다. 대한민국 각지에서 찾아드는 젊은 예술가들과 직접 재배하거나 만든 자연식품이나 수공예 제품들을 한곳에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무엇보다 강이 흐르는 자연의 풍경 자락에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고 음악 소리가 함께하는 낭만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각 마을 지역 내에는 마을주민이 자체적으로 조직을 운영하여 마을을 가꾸고 주민이 운영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조직들이 있다. 대표적인 단체는 서종마을디자인 운동본부와 서종행복돌봄 추진단이다.

〈서종마을디자인 운동본부에 대한 기사 발췌〉

서종마을디자인운동본부는 ‘문호천 따라 흐르는 문호마을 정원’으로 1억 5,000만 원(도비·군비 약 7,000만 원, 자부담 1,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서종면의 면소재지인 문호리는 귀촌에 따른 인구 증가로 건물과 상가가 들어서며 여유 공간이 사라지고 있어 주민이 소통하고 공동체 활동을 할 공간이 부족해졌다. 주민들이 머리를 맞댄 결과 문호천 주변 하천부지(875m²)를 마을 정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게 됐다.

이곳은 중심상권과 멀지 않아 주민들이 손쉽게 모여 마을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이고, 조망이 트인 것은 물론 하천을 접하고 있어 친수공간으로 활용 가능성도 높다. 또 별도의 개발계획에 저촉

되거나 개발 가능성이 없는 하천부지이면서도 범람가능성은 없는 장점이 있다.

주민들이 함께 필요성 및 위치 선정, 설계계획 등을 논의했고, 면사무소가 나서 부지 매입을 추진한 결과 올해 예산이 배정된 상태다.

사업은 공모를 주도한 서종마을디자인운동본부가 중심이 되고 서종면주민자치위원회, 해당 마을 이장, 면사무소 공무원, 마을의 미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진행한다. 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전문자문단과 함께 마을의 조경전문가 풀도 구성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사업이 완료되면 수목과 돌, 벤치, 정자, 예술조각품, 하천데크가 어우러진 편안한 주민 휴식과 소통 공간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평시민의 소리>(2018.02.11)

서종행복돌봄추진단 소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양평군이 12개 읍면 행복돌봄추진단 운영(단원 332명)당연직 위원에는 주민자치위원장, 이장협의회장, 남녀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노인회, 우체국 배달원, 보건진료소장이 포함됨
설립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민간 복지 연대망을 구축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민간의 복지 참여를 넓히기 위함(2014년 초에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과 사회안전망 부실 성토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탄생)
사업 분야(서종)	아동문화체험사업, 취약계층지원사업(저소득가구, 노인)
역사(서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2014 양평군 각 읍면에 설립2015 어르신 집 고치기(청년회, 주민자치위원회, 학생 협작)2016 어르신 집 고치기(청년회, 민간단체, 서종중학교 봉사단 협작)2017 초등4년생 뮤지컬 캐츠 관람/곤충 박람회 관람, 저소득가구 주방용품 전달, 57가구에 쌀 전달, 저소득 신입생 학용품 전달,경로당 이용 어르신 문화프로그램2018 저소득가구 명절음식 전달, 초등신입생 입학선물 전달, 초등4년생 도자기 체험, 중학생 공연 난타 관람, 양평군 2018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 대상 수상(민관협력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참고: <근교 농촌 마을의 생활권 변화 실태 조사, 한국농촌연구원, 2018>

이처럼 기관 중심이 아닌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콘텐츠 개발이 확산하고 있다.

한편, 문호6리에 위치한 수대울마을은 백두대간에서 갈려져 나와 설악산 오대산을 거쳐 용문산 유명산 서쪽으로 흘러내리다 북한강 라인 인근에 형성된 지형이다. 특이한 점은 외지인이 90% 이상 차지할 정도로, 다른 지형보다 도시에서 귀촌한 주민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을 자체 커뮤니티 시스템이 잘 발달하여 있는 곳으로, 분기별로 마을 정기총회를 거쳐 책자로 문서화하고, 주민에게 보급하고 있다. 또한, 별도의 분쟁화해조정규정을 만들어 마을 곳곳에서 일어나는 생활 민원이나 주민 다툼을 화해와 조정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수대울 마을회관
(다음지도 참조)

[참조]

이장조사에서 보고된 면 단위 사회활동조직

사회조직	빈도	비율	역사
동호회 등 여가활동 조직	13	36.1%	배드민턴, 작은도서관 활동 동아리
자원봉사 조직	10	27.8%	농협 봉사단, 서종면 행복돌봄추진단
지역가꾸기 등 지역개발 조직	10	27.8%	새마을회(3), 마을만들기(2), 부녀회(2), 행복 공동체 지역만들기, 이장협의회, 생활개선회, 주민자치위원회, 서종마을디자인운동본부
귀농귀촌연합회	00	0.0%	
모름	03	8.3%	
합계	36	100.0%	

자료: 이장조사 결과

주요 면 단위 사회활동조직

분야	설립 주체	
	행정	민간
지역개발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 지도자협의회(남성), 새마을부녀회(여성)	서종마을디자인운동본부
치안·교통	자율방범 기동순찰대(청년회)	-
자원봉사	서종 행복돌봄추진단	-
문화	-	서종사람들(음악 모임)

자료: 서울대 연구진 직접 작성

참고: <근교 농촌 마을의 생활권 변화 실태 조사, 한국농촌연구원, 2018>

수능1리 마을은 대표적으로 황순원 소설가의 대표 작품인 「소나기」를 체험해볼 수 있는 마을로 알려진 소나기마을과 황순원 문학관 그리고 임실치즈마을 등이 유명하다. 수능리 노루고개에 있는 소나기 마을은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의 주요 배경을 재현한 공간으로 황순원의 주요 소설 속 배경이 된 곳이다. 수능리뿐 아니라 서종면 마을 곳곳에 소설 속 주인공들이 활동했던 마을 공간들이 있어 이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소나기마을 내부에는 황순원 선생의 삶과 문학 정

소나기마을(소설 속 주인공들이 함께 걸었던 길)



©김재익

황순원 문학관

황순원 문학관은 소나기마을을 중심으로 황순원 선생의 활동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다. 이 마을에서 우리나라 역사에 길이 남을 훌륭한 문학작품이 탄생하였고, 이 장소들은 주요 작품의 배경이 되는 뜻깊은 곳이다.



©김재익

신을 기리기 위하여 경희대학교와 양평군이 함께 조성한 문학관이 함께 자리 잡고 있다. 시 104편, 단편소설 104편, 중편 1편, 장편 7편으로 우리 문학 역사에 커다란 인물이라 할 수 있는 황순원 선생님의 발자취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황순원을 기리기 위한
추모 공간



©김재익

도장리 마을: 징검다리



애틋한 추억이 묻어 있는 소설
『소나기』 속 주인공들이 활동
배경이 된 공간들:
도장리 마을



©김재익

수능리 마을과 함께 황순원 선생의 소설 속 배경이 되는 곳은 도장리 마을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도장교와 도장리계곡, 그리고 도장리 징검다리는 소설 「소나기」에서 흐르는 냇가와 개울의 징검다리에 앉아 물장난을 치던 소녀의 모습이 비치던 공간들로, 소년과 소녀가 처음 만나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된 소설 속 풍경들을 품은 곳이기도 하다.

수능리 공간의 지형적 특징은 북한강이 문호리로 이어지는 하천이 수능리를 들어서 총 7km를 거쳐 길게 지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하천과 계곡을 중심으로 4~500미터 높이의 작은 산들과 함께 어우러진 이곳이 소설 속 배경이 되었던 점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앞서 이야기한대로 서종마을의 주요 특징을 나타내는 기나긴 하천과 계곡은 구석기시대부터 수렵 활동이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오랜 역사와 환경을 토대로 형성된 서종면 그리고 수능리마을에서의 다양한 문화예술적 환경 조성은 인위적인 것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생태적 삶과 일상을 엿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수능리를 넘어 서종면 끝 쪽에 위치한 서후리는 1km의 짧은 계곡이 있지만 깊숙한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다양한 숲속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는 마을이 조성되어 있다.

서종면을 중심으로 다수의
구석기 돌무덤 터가 발견되었다.
양서면 흔적으로 대체, 그러나
서종면 수능리에 위치한 또
다른 돌무덤 흔적은 현재
사유지에 있어 활영을 하지
못하여 양서면 흔적으로
대체했다.



©김재익



©김재익



©김재익

서후리, 서종면 끝 쪽 계곡

지점 (북한강 자락이 끝나는 지점)



©김재익

서종면 마을의 끝인 서후리 마을과 함께 정배리 마을에는 정배리의 구 정배초등학교 공간과 새로 이전한 현 정배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 학습활동과 가족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지고 있다.

구 정배초등학교 폐교 공간은 현재 캠핑장과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폐교 공간 곳곳에는 오래전 산 속 깊숙이 있었던 초등학교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활동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고, 빛바랜 조형물들은 정배초등학교의 과거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산촌생태마을과 서후리 숲
(좌 양평일보, 우 경기관광포털 참조)



현 정배초등학교는 정배리 초입에 자리 잡고 있는데, 새롭게 단장한 건물과 주변을 둘러싼 산지와의 조화는 마을주민과 아이들이 자연을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산속 깊숙한 곳에 있으므로, 아이들은 학부모들의 자가용을 이용해 통학하고 있다.

정배리 역시 초입부터 서종면이 끝나는 지점까지 약 2~3km의 계곡이 흐르고 있다. 학교를 중심으로 계곡과 산지는 아이들의 다양한 학습체험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학교와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현 정배초등학교



©김재익

구 정배초등학교. 49년 개교 이후 폐교가 된 94년까지의 학교 공간을 살펴볼 수 있다.



정배리 마을회관



정배리에는 솔비마을이 있는데 이곳은 주로 산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농토가 작은 편이다. 즉 거주 인구에 비해 작은 농토로 인하여 산지에서 생산되는 잣나무 재배 수입을 통해 경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배리 건너편에 위치하는 서후리와 명달리는 몇 개의 산지가 이루어진다. 정배리의 깃대봉을 중심으로 마을 양쪽으로 유명산과 중미산이 있고, 명달리에 있는 가마봉과 매곡산은 500m가 넘는 산들이 있어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코스다.

서종면 마을의 또 다른 끝 지점인 명달리 역시 산속 깊숙이 있지만 역시 2~3km에 걸친 길고 짧은 계곡들이 존재한다.

서종면 마을 동쪽 끝 쪽에 자리 잡고 있는 명달리마을은 강-하천-계곡이 끝나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기나긴 계곡과 높은 산지로 이루어진 지형이 특징이다. 평균 지대가 400에서 450m 고지이고, 높은 산은 7~800m이므로 서종면 마을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고을이라 할 수 있다. 높은 마을 위치상 햇빛도 먼저 받기 때문에 이곳 지명도 밝을 명(明)에 통달 달(達)을 사용하여 밝음을 통달한다는 의미로 ‘명달리’라고 하고 있다고 전한다. (명달리마을 주민 B 씨 인터뷰 중). 따라서 높은 산지를 중심을 관통하는 계곡의 라인은 무려 4km나 될 만큼 산지와 계곡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산을 둘러싼 정배리 계곡이
끝나는 곳에서(북한강 자락이
끝나는 지점) 물이 두 갈래로
갈라지다 합쳐지는 지점으로,
십자수 기도원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서종면의 끝 지점 명달리
계곡(북한강 자락이 끝나는 지점)



화서마을 입구



명달리마을 못 가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마을이 노문리다. 이곳에는 화서마을이라는 유명한 곳이 있는데, 이향로 선생님의 호안 ‘화서’를 가지고 와 화서마을로 통칭하고 있다. 화서마을 안 이향로 생가는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05로 지정될 만큼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하다.

경기도 시도기념물 제43호로 지정된 노산사지는 이향로 생가 터와 같은 위치에 있는 곳으로 화서 이향로 선생의 학문과 뜻을 기리기 위해 영정을 봉안한 사당으로 시도기념물이다. 건물은 1985년 보수하였으며 현재 주희와 송시열의 초상화와 위패를 함께 모시고 있고 매년 제사를 지내고 있다. (위키백과)

9 국립생태원 nie.re.kr
조사자료

이향로 생가. 이향로는
조선 후기(순종) 학자로
위정척사론의 사상적 기초를
닦은 학자로 유명하다.

이곳 화서마을이 있는 노문리는 명달리 계곡으로 가기 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계곡보다는 하천 위주로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무려 1급수에 해당하는 맑기로 무지갯빛이 나는 쉬리가 서식하고 있고, 크기가 10~15cm가량 되는 산골메기가 서식 중이다. 그 밖에 벼들치, 산천어, 꺽지, 통가리 등 다양한 생태 어종이 서식하는 곳이기도 하다. 총 40여 가지의 어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⁹

깨끗한 환경에서만 서식하는 개똥벌레까지 볼 수 있는 이곳 노문리





노산사지

©김재익

는 그만큼 청정 지역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다.

수입리마을은 계곡보다 깊은 지형으로 기나긴 하천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입리는 문호리와 함께 북한강이 가장 근접해 있고, 무려 7km가 넘는 하천 지형을 가지고 있다. 근처 강과 하천이 산지와 함께 이루어져 있어 관광산업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오랜 과거에는 강 가와 가까운 위치로 물이 범람하는 경우가 잦았고 육지에서 물이 차면 마을 안쪽까지 배가 들어가는 곳이기도 했다. 현재는 다양한 펜션과 피서지로 여름만 되면 많은 외부 지역인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하다.

수입리에는 무드리마을이 있는데 ‘마을 내 물이 자주 차고, 빈번하게 들어오고 나감’을 반복했기 때문에 무드리 마을이라 불리었다고 한다. (수입리 주민 B모씨 인터뷰 중)

현재는 청평댐과 팔당댐으로 인하여 수위 조절이 되고 있고, 과거 만큼 물의 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주로 깊고 기나긴 하천 지형을 이루고 있다.

굽이굽이 하천이 많은 이곳 중 벽계천과 벽계구곡은 서종면을 대표하는 하천이다. 이항로 선생님의 성도 벽진 이씨로, 현재 있는 벽계천과 함께 개천의 9곳을 정해 이름 붙인 벽계구곡은 이항로 선생이 직접 명칭을 붙인 곳이기도 하다. 깊고 기나긴 하천 지형을 가지고 있어 여름

화서마을 하천



©김재익

하천과 피서지 활용공간



©김재익

벽계천



©김재익



하천과 피서지 활용공간

에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무당소 이야기가 있는 수입리 마을은 농업과 관광업 모두가 발달되어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무당소 이야기

어느 무당이 와 하천에서 목욕을 하다 빠져 죽은 이곳을
'무당소'라고 불렀는데, 이곳은 지금도 가물더라도 물이 가슴까지 찰
정도로 마르지 않는 곳으로 '무당천'이라고도 한다.¹⁰

¹⁰ 『서종마을 이야기』, 2019 서종 초등학교 출판

마을 아카이브 정리

서종면 마을의 가장 큰 특징은 강마을과 산마을이 고루 발전되어 있다는 것이다. 길게 이어지는 강과 하천 그리고 계곡의 길이가 서종면 마을 면적 92.84km² 전반에 분포되고 어우러져 있는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다. 또한 초등학교(서종초, 수입초, 정배초)와 각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마을 내 주민 활동(체험, 교육활동, 오일장 등)이 여전히 활발한 이곳은 오랜 역사와 문화가 함께 깃든 마을이자 생태환경 그 자체일 것이다.

3. 자연지형과 마을 생활권: 마을을 관통하는 줄기, 강·하천, 산맥들

1) 물과 산맥 그리고 마을 생활권 분석

8개의 법정리를 구성하고 있는 서종마을 지역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북한강이 흐르는 줄기가 마을 내에 들어와 하천을 이루고 마을 깊숙한 곳까지 계곡과 하천을 구성하는 것이다. 즉 8개의 법정리 모두에서 하천과 계곡을 볼 수 있으며 여러 개의 산맥을 끼고 있어 산림농업이 함께 발달되어 있다. 또한, 곳곳에서 쉽게 물가와 접해 있기에 이곳을 터전으로 생활한 마을 터전의 역사는 면 단위 지역의 소규모 마을이지만 비교적 오랜 역사를 통해 이어온 주민의 생활사를 살펴볼 수가 있다.

이것은 청동기시대 집터와 고무덤·돌무지무덤 관련 복합 유적들을 서종면 마을 내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는 이유로 이어진다. 즉 다양한 돌무덤들이 있는 바 이곳이 오랜 생활 터전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 '양평'이라는 지역이라고 하면 군부대가 많고 역사적으로도 6.25전쟁 시 중요 거점이었던 곳으로는 인식되어 있지만, '생활' 그리고 '역사와 터전'이라는 측면에서는 간과된 면도 없지 않다.

앞서 돌무덤은 문호리, 수능리 등의 지역 공간에서 발굴되었는데, 총 8곳에서 청동기 지석묘군이 발견되었다.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소재지가 불분명한 상자포리 고인돌을 제외하고도 향토유적 제32호로 지정된 대석리 7번지 지석묘군을 비롯 강상면 병산리 578-1, 강하면 전수리 1118, 양서면 대심리 263-1, 서종면 수능리 158-3, 개군면 양덕리 31-9, 양평읍 회현리 71, 양서면 양수리 고인돌 등이 발견되었다.¹¹

¹¹ 출처: 양평백운신문(<http://www.ypnews.kr>)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BC 2325년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고인돌 중의 하나로 조사돼 보전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



마을 지역 내 고인돌 발굴 흔적

하고 있다. 이것들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서종마을 지역 특유의 지리적 위치와 연관된 것으로 강줄기를 따라 형성된 하천과 계곡 물줄기를 중심으로 펼쳐진 산자락들에서의 주민 생활 사는 인류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이유다.

최근에는 이러한 물줄기를 따라

관광 지역이 활성화되고 있다. 하천과 계곡을 따라 형성된 펜션과 관광 시설들은 많은 외부 관광객을 사계절 내내 유입하고 있고, 기존 느티나무와 황포돛배, 물안개, 연꽃과 함께 서종마을 지역의 특색 있는 공간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리버마켓과 같은 마켓 유통 공간이 물줄기와 IC를 따라 매달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어 외부 주민의 유입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비록 마을의 역사를 징표하는 역사적 표식이나 중요 거점을 나타내는 중요한 스페이스나 공간적 사물은 부족할지 모르나 강과 하천 그리고 계곡이 산맥들과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 공간, 그 자체로서 마을의 특징을 관통하는 중요 요소로서 마을의 특색을 어필하고 있는 것

각 마을 지역의 하천과 계곡이 끝나는 지점. 서종면 마을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각 법정리 장소에서 모두 하천과 계곡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곳을 중심으로 마을의 관광산업 그리고 농업이 발달하여 있어, 지역 주민의 생활과 경제 생태계를 직·간접적으로 염불 수 있다.



©김재익



©김재익

은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또한, 다음 장에 설명할 자연보호 규제 정책과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 오랜 역사 동안 환경 생태계가 보존된 이곳의 생활 모습은 ‘보존’과 ‘변화’라는 중간 지점에서 향후 어떠한 모습이 나타날지 기대감을 준다.

2) 자연환경과 경제-생태계

앞서 언급한 자연환경을 토대로 지역 마을주민의 경제생활은 크게 3~4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기존 산과 하천이 형성된 공간을 중심으로 산림농업을 발달시켜 생활 터전을 구축한 사례이고 (다음 장 규제와 마을의 생활문화에서 언급), 두 번째는 오일장과 같은 유통 시장이 시내에 상



수입리 마을회관



서종면사무소



서종초등학교

시적으로 유치되고 있어 생산-판매망을 통해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며, 세 번째는 물과 하천 그리고 산맥을 활용한 주요 관광지 활성화를 통한 경제 생태계 구축이다. 이것은 주로 이항로 생가나, 소나기 마을과 같은 마을 지역의 역사를 활용한 관광지 구축과 자연을 활용한 펜션이나 소매 공간 구축에 따른 관광 시장을 형성한 케이스다. 마지막으로 외부지역 주민 활동과의 협업으로 마켓 유통시장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공간 거점 경제시장이다. 대표적으로 오일장과 리버마켓이 있으며 매달 정기적으로 지역 내 주민의 참여와 외부주민 모두가 참여하여 소비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3) 물과 규제정책 그리고 마을의 생활문화

서종면 마을은 지자체와 중앙정부부처로부터의 각종 규제에 의해 보호 받는 지역이기에 공장을 통한 생산과 제조가 불가능하고, 개발 이슈로 인한 건설산업 확산이 어렵기 때문에, 주로 자연과 환경생태계 그리고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관광 지역 활성화와 지형을 활용한 산지 농업활성화 위주로 마을 생활경제가 발달되어 있으며, 각 마을 내 위치한 초등학교와 마을회관 그리고 노인회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생활문화들이 확산하고 있다.

문화예술관련 활동 이미지



대표적 세 가지 사례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주로 각 지역 마을 예술인들이 주최하는 음악회, 전시회, 공방 체험 등이 있고, 두 번째는 마을 내 기관들(지역 미술관, 박물관, 면사무소 등)이 중심이 되어 유치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초청을 통해 지역주민 생활 활동을 다양화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지역 사립 공간이나 지역인 단체를 중심으로 참여 농업, 즉 텃밭 가꾸기 체험 농사공간을 활용한 지역주민과 외부주민과의 협업 활동이 지역 생활 문화 형성에 중심에 서 있다.

4. 마을 따라 물길 따라 연결되는 규제 정책들

1) 마을과 물길 따라 적용되는 주요 규제 정책

서종면 마을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환경정책 기본법에 따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 지정고시(1999년)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수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수도법 및 상수원 관리 규칙에 따라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일부 지역에 걸쳐 규제 정책이 형성되어 있다.

주요 규제 정책 현황

지자체규제현황	양평군환경기본조례(2011), 양평군 상수도 조례 제6조(2017), 양평군 도시개발 조례 제11조(201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2011),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양평군 도시계획(2011) 외
---------	---

중앙부처규제현황: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특별대책지역지정, 1990) :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경기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수도법, 200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7)
-----------	---

양평군은 전체 면적인 877.81km²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고 수질 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69.9%인 613.3km², 수변보호구역으로



©김재익

서종면 마을의 초입으로 해당 지역은 수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3.8%인 33.159km², 상수원보호구역 3.0% 26.2km², 재발제한구역 2% 17.1km²,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21.43km²가 지정돼 토지 이용 규제를 받고 있다. 서종면 마을 지역은 92.77km²로 양평군 전체 면적의 1/10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서종마을 지역은 대부분은 도시계획구역 지역이 아닌 비도시 지역으로, 보전관리 지역 170,988,597m², 농림 지역 485,885,785m²로 서종면 마을 전체 면적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양평군청 참고)

¹²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군 전체면적인 877.81km²가 지정된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대기업의 신·증설이 금지되고 1000m이내의 공해없는 중소기업의 신·증설 가능, 개발사업 및 공업용지·관광지 조성사업 택지조성은 3만m²~6만m² 미만이 신의 허용될 수 있다. 대학은 신설금지를 원칙으로 입학 정원 50인이내 대학을 신의 허용할 수 있다.(경기도청)

2) 규제정책과 마을의 생활

규제 정책과 마을의 생활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될 것이다. 환경 관련 각종 규제 정책 이슈로 주택 개발이나 상권 개발(대학교, 공장, 대형 상권 등)¹² 유치가 불가능한 관계로 환경농업 즉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의 생산을 지속가능한 농업 형태로 생태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관광과 농업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다.

서종면 마을 지역 대표 환경농업 농산물로 느타리/표고/팽이/

영지버섯/산더덕/잣 등이 있다. 출하될 때까지 무균 처리를 유지하는 버섯 재배 지역은 서종면 마을 지역 내 총 22,960평(서종면 노문리, 수능리, 수입리, 서후리, 정배리)에 걸쳐 재배되고 있고, 산더덕은 약 100만 평 규모의 재배 지역(서종면 도장1.2리, 문호3.4리, 정배1리, 노문리)을 갖추고 있다. (출처: 양평군청)

한편 서종면 노문리, 수능리, 수입리, 서후리, 정배리, 명달리 내 약 1,000ha 규모에서 잣이 재배되고 있다. 무엇보다 대량의 환경농업 생산이 가능한 이유는 서종면 마을 지역 특유의 지형과도 연관이 있다. 임야-산맥-시냇가-하천-강가로 지형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종면 경제활동 조직 현황

조직명	소재지	사업내용
용문산더덕 영농조합법인	서종면 문호리	산더덕 재배 및 캐기 행사(도장리, 문호3·4리, 정배1리, 노문리, 지평면 지평리, 월산리, 파주시)
서종면 표고버섯작목반	서종면	표고버섯 생산(노문리, 수능리, 수입리, 서후리, 정배리)
광명 협동조합	서종면 문호리	농작물 체험 및 효소 사업
양평풀뿌리 협동조합	서종면 도장리	홍보, 농산물(복숭아, 배) 판매
간판장인 협동조합	서종면 문호리	간판 제작 및 디자인

자료: 양평군 홈페이지

3) 정책과 마을 경제

지자체 및 환경 정책으로 인하여 마을 생활과 경제는 크게 두 가지 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팔당 수질 대책 1권역인 서종면 일대가 난개발로 인하여 산림이 훼손되고 이것이 상수원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지점에서 우선 살펴 볼 수 있다. 즉, 개발 허가 제한 조치에 따른 주민 생활의 안정화 조치와 하천 및 계곡 정비 사업에 따른 불법시설 철거와 동시에 지역 마을

주민과 상인들을 위한 생계 대책을 함께 마련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가 함께 논의되고 있다.

즉 합법적인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그 속에서 지역인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 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전자는 지역인을 둘러싼 환경보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후자는 환경보전과 더불어 실질적인 생계 대책 방안 마련을 함께 모색하여 지역 환경 보존과 경제 활성화를 복원하자는 정책적 논의가 함께 펼쳐지고 있다.

<정책규제와 발전 사이의 연대기 관련 뉴스 기사>

‘합법적 난개발’ 팔당 상수원지역 몸살, 동아일보 2000

경기도, 팔당지역에 워터파크 등 친환경사업 추진, 연합뉴스 2004

서종면 마을 주민들 “팔당상수원지역 무분별 난개발” 집단민원 제기, 경인일보 2017

양평친농연, 양평군수와 친환경농업정책 간담회, 한국농정신문, 2019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 SOC 지원사업 논의, 뉴시스, 2020

마을 경제활동 이미지
(농업과 관광)



서종면 마을 지역은 대부분 산지와 하천 그리고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보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상충 지점이 함께 내포된 것이 큰 특징이다.

지속적인 주민 설명회 유치와 마을 커뮤니티 및 지자체가 함께 자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을 함께 안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4) 정책과 주민의 의견

앞서 소개한 정책이 마을 개선과 함께 어우러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정책개선사업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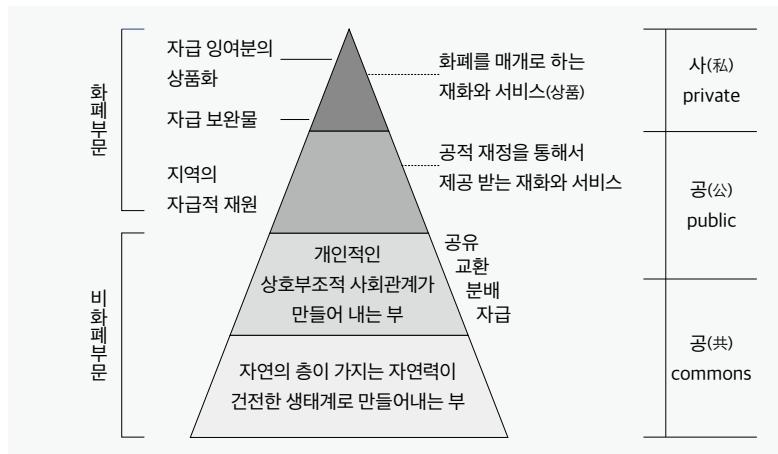
1. 정책의 전면개편에 따른 마을경제활성화에 초점: 환경농업/산림농업외 사업 종목 완화를 통한 외부관광객을 유치한다.
2. 전면금지를 유지하고 보다 환경과 생태계에 초점을 맞춘 다목적 농업을 확산한다.
3. 부분적으로 완화하여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여기에는 지역 환경 보존과 경제 활성화를 절충한 새로운 정책과 문화생활 확충 방안들이 있다.

*최근 서종마을 개선 사례 ‘명달리의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

최근 대두되고 있는 국토 불균형 발전과 반환경적 개발이슈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충돌을 낳고 있으며, 공동체 조화로 인하여 영역이 붕괴하는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작은 행복을 추구하고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한다는 관점으로 시작하여 명달리 생태 산촌 만들기 계획을 수립했다. 주민들이 고안한 계획으로 명달리는 앞서 소개한 대로 지형의 전체 면적 중 90%가 산과 숲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산촌마을’로 통용된다. 양평군 산림 비전 21에 맞춰 명달리는 생태 산촌마을로 조성하고자 하

는 계획이 일어났다. 이에 서종면녹색산촌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당해 2001년 12월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올해 2월에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자연생태 보존우수마을’로 지정되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산림청의 산촌종합개발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다(2008~2017). 산촌진흥 기본계획은 산림청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개설된 ‘CEO환경경영포럼’
발췌



5) 북한강과 남한강 그리고 하천을 따라 생성되는 마을 관광

서종면 내 관광산업은 앞서 소개한 대로 주로 마을 자체에서 진행하는 마을 활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거나, 소나기마을이나 화서마을처럼 지역의 역사성에 기반한 기념관 위주의 관광산업이 발달하여 있다. 앞서 소개한 규제와 정책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수질 보전대책 지역의 규제로 인하여 자연환경 그대로의 생태와 관광을 염두에 두고 수목원 사업이나 자연환경 테마파크가 현재 조성되고 있고, 그 외 나머지는 주로 농지나 산지를 활용한 펜션 활용이 주된 마을의 관광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다.

최근 들어서는 북한강 산책로를 중심으로 리버마켓이 조성되어 정기적으로 유통마켓이 활성화되고 있고 이곳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관광 체험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관광산업은 지역 내부주민과 외

북한강과 마을관광산업
(경기관광포털 참조)



¹³ 기사 참조. ‘5년 이내 전입자, 양평주민 절반 수준… 문제 공유한 첫 포럼’, 양평일보 2017.12

통계상으로도 마을 거주인들과 실제 주소지가 대부분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평군,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 재분류…17년’ 매일일보 기사 발췌

부 유입인들의 활동과 조화로 활성화되는 만큼 다음 장에 소개될 주민 간 분쟁과도 연관되어 있다. 다른 지역보다 마을 유동객이 많은 이곳은¹³ 주민 참여를 통해 마을을 개선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활성화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공동체 조성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다.

자연을 보전하며 동시에 개발을 통한 관광 인프라 조성 및 체험관광코스와 같은 관광산업의 확충은 결국 마을의 발전과 생계로 직결되어 있고, 이것이 마을의 오랜 정체성과 주민 화합에 따른 공동체 조성, 발전과 함께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의 성장과 관광산업은 상당히 중요한 연계 요소일 것이다. 최근에는 각 마을을 중심으로 농촌관광플래너를 육성하여 지역의 농촌관광협의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관광체험상품 및 관광코스 개발을 통해 지역 개발을 활성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도 하다.

6) 향후 전망

서종면 마을은 타 지역 마을과 비교해도 특색이 강한 곳이다. 강과 하천 그리고 계곡과 산지가 모두 함께 있는 지형적 특징 속에서 자연과 생태환경을 활용하여, 각 마을 지역 주민이 직접 마을 조성 프로젝트

에 개입하고 공동체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해결 지점이 ‘마을’이라는 장소와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주민교육, 방문객 관리, 교육과 체험, 관광, 지역 자원 관리 프로그램들을 구성하여 지역 내부 주민과 외부 주민과의 화합을 모색하고 있고, 이는 마을의 자연환경을 가꾸고 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는 또 다른 원동력이 되고 있다(이는 지역의 산업 및 경제적 효과로도 이어져 마을을 지탱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

5. 주민 갈등과 분쟁

1) 지역 내·외부 주민 간의 갈등과 분쟁: 원인

앞서 언급한 지형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으로 인하여 서종마을 지역 대부분은 환경농업이나 지역 생태를 활용한 관광산업에 집중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최근 들어와서는 외부 지역에서 환경농업을 생산하는 지역 주민을 초대하고 기존 주민과의 교류 활동을 통해 외부 관광객과 내부 주민이 함께하는 리버마켓이 들어서게 되면서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는 탄력을 받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외부 주민 유입에 따른 토속 경제활동의 악화 혹은 지역 환경생태계 악화라는 양면의 모습들이 새롭게 발생하고 있다.

우선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이전보다 많은 외부 관광객이 유입됨에 따라 소비 활성화에 따른 지역 내 산업(음식점, 숙박, 지역 내 환경농업 토산물 등)이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문호리 거주 주민 A씨는 말한다.

반면 외부 지역 인구 유입뿐 아니라 동시에 (리버마켓 유치에 따른) 기존 마을 지역 내 유사 업종들 (중복되는 환경농업 토산물이나 주변 지역 음식점이 마켓 내 업종과의 중복 문제)이 외부에서 유입됨에 따라 외부와 내부 주민 간의 경영 이권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는 입장(명달리 거주 주민 B씨 인

터뷰 중)도 있다.

하지만 지역 외부 유입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는 마을 전체에서 보았을 때는, 경제적 행위로 인한 매출 파이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에, 사회적 문제이기보다는 장점이 더 부각되는 측면도 없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외부 주민과 지역 내 주민과의 협업에 따른 특정 공간에서의 이벤트 유치는 앞으로도 마을 경제 성장의 좋은 본보기가 되리라 사료된다. 최근에는 지역 마을에서 사설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테마마크 사업 유치와 국가 기관에서 조성하는 생태공원 사업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의 마을 활동과 성장 전망을 함께 알 수 있는 지표가 될지도 모른다.

2) 지역 내·외부 주민 간의 갈등과 분쟁: 결과

주민 간의 갈등과 분쟁은 아직 현재 진행 중이다. 군청의 조정이 필요 하지만, 일부 개인 사유지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다수이고 지역 내 거주 주소지를 실제 가지고 있지 않은 주민이 거주하며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의 분쟁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외부 방문유입량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과 충동에 따른 해결 지점은 아직은 눈에 띄지 않는다. 결국, 지역 내 자체적으로 주민 간 이슈와 정책 및 분쟁을 협의해가며 조정을 진행 중인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¹⁴

¹⁴ 기사 참고. 5년 이내 전입자, 양평주민 절반 수준… 문제 공유 한 첫 포럼, 양평일보 2017.12

3) 주요 갈등 현황

- 1) 수질보전정책과 개발이슈: 주택공급과 환경보호 정책의 충돌
- 2) 리버마켓 등 외부 주민과의 협업 이벤트에 따른 분쟁: 중복되는 업종/종목에서의 업주들과의 마찰
- 3) 마을 내 외부 주민과 내부 주민과의 마찰: 이 마을 지역 내 활동하는 주민들의 일정 비율 이상은 실제 서울이나 외과 지역에 거주 주소지를 두고, 즉 전입은 하지 않고 거주만 하는 주민들이 다수이거나 (전원주택이 많은 이유로) 혹은 아이들 교육(농어촌 입시 전형)으로 인하여

임시로 거주하는 가족 계층도 다수 존재하고 있어 생각보다 많은 활동 인구가 지역 내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토착 주민과 유입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즉 거주지역 공간 내 활동(소유) 경계 문제나 주택개발에 따른 주민 마찰: 전원주택을 지어 거주하려는 지역 외주민과 기존 주민과의 마찰 그밖에 소음, 도로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 문제를 관통하는 지형적 지점: 이 모든 부분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마을 지역 고유의 생태계: 남한강-북한강-하천-시냇가-산 맥이 한곳에 어우러져 있는 지형 구조와 서울이나 기타 지역보다 면적 이 넓은 마을 지역 (서울시 면적: 605.2km², 양평군 면적: 877.79km², 국토부 자료)으로 인하여 개발 이슈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 기인할 것이다.
- 문제를 관통하는 정책적 지점: 수질보전지역/산개발 규제 보존/규제정책으로 인하여 아파트 개발 산업 육성이 불가능한 이 지역에 최근 들어 전원주택 개발과 외부 주민 유입에 따른 이벤트 유치 활성화 정책으로 인하여 주민 간 마찰 분쟁이 가시화되고 있다.

III. 결론: 강마을과 산마을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양평군 서종마을 그리고 마을주민

강마을과 산마을이 하천과 계곡을 중심으로 다양한 생활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서종마을은 개발과 변화라는 이슈로 접근하기보다는 자연과 환경 그대로의 삶과 문화를 생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소개한 여러 개의 마을 소개와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와 주민의 생활은 서울 도심에서 찾아보기 힘든 공동체 문화와 적극적인 주민 참여로 마을의 발전이 지속해서 변화되는 양상을 볼 수 있

는 곳이기도 하다. 강물과 하천을 따라 생성된 마을의 생활문화와 경제, 그리고 이와 충돌되는 규제 및 정책 시행과 그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갈등 및 해결 지점들은 모두 서종마을이라는 한 곳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서 주민 스스로가 나서서 행동하는 환경 조성이 마을을 뒷받침하는 중요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함께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그곳에는 자연과 역사 그리고 사람들이 어우러져 마을을 조성하고 삶과 문화를 주민의 땀과 노력으로 일구어왔다는 의미에서 '서종마을생활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경기도 정보센터 인구구조, 2019
근교 농촌 마을의 생활권 변화 실태 조사, 한국농촌연구원, 2018
서종마을이미야기, 서종초등학교 출판, 2019
환경교육과 경영교육의 접점, 환경영경교육의 현황과 과제, 윤순진외,
서울대학교, 2012
도시 근교 농촌마을 경제활동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의 사례, 김태연, 단국대학교, 2019

주요 참고 사이트

- 통계청: www.kostat.go.kr
산림청: www.forest.go.kr
양평군청: www.yp21.go.kr

의절(義節)의

역사 담고 흐르는

석곡천

그리고 양동면

허행윤

I. 들어가며

II. 양동면 역사와 동계8경 이야기

- 백제의 저항정신을 계승… 을미의병의 발상지
- 대한제국 군대 해산에 또 다시 불붙은 정미의병
- 들풀처럼 활활 타오른 3·1만세운동
- 동계8경, 그 단아한 풍광 속으로
- 언덕이 끊어진 곳에 세워진 조적대
- 가마소 같은 자연못, 부연
- 야트막한 동산, 건지산
- 물속 바위 위에 소나무 한 그루, 송석정
- 물소리도 합쳐지는 양계합금처
- 서쪽 가장 높은 곳, 조봉 석벽
- 깊은 중 못, 승담
- 오색빛깔 새들의 향연, 구암

III. 맺으며

I. 들어가며

내놓고 크게 자랑할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세상만사, 그 엄정한 무게에 비겁하게 침묵만 지키면서 살아오지는 않은 고장. 양평군 양동면이 꼭 그런 고을이다. 양동면 한복판으로는 석곡천이 흐른다. 이 하천은 흘러 흘러 송강 정철 선생이 옮겼던 강원도 원주 섬강으로 들어가 남한강과 만난다. 지금은 야트막한 둔치 아래로 조용히 엎드려 있지만, 한때는 백성들의 절규와 아픔과 고통 등을 온몸으로 담고 흐르던 가람이었다. 그 한편으로는 외세의 압제에도 분연히 떨쳐 일어섰던 민중의 역사도 오롯이 녹여져 있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돌아가면 탄식과 함성이 고을 가득 들려올 듯싶다.

“양동면은 경기도 동쪽의 끝자락이고, 양평군의 끝자락이기도 합니다. 서너 걸음만 옮기면 강원도 원주이고, 횡성이고 홍천입니다. 서쪽을 제외하고 북쪽, 동쪽, 남쪽이 온통 강원도입니다. 한마디로 행정 지역만 경기도일 뿐, 생활권은 강원도인 셈입니다.” 양평군 용문읍 쪽에서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 들어오다 양동면 초입인 금왕리에서 만난 한 어르신(81)의 설명이 명쾌했다.

양평군 양동면 양동도서관
앞거리. 느티나무 한 그루만
외롭게 서 있다.



양동면은 산세도 강원도를 닮고, 정서도 강원도와 비슷하다. 신작로 옆에서 뜨겁게 작열하는 태양을 온몸으로 받고 쑥쑥 키가 크고 있는 옥수수 밭이 즐비한 풍광도 그렇다. 맑은 날씨에는 하늘도 유난히 쪽빛이고, 나뭇잎들도 푸르다 못해 군청색이다. 위성 사진을 통해 전체로 넓혀서 보면 양동면은 한반도의 복판이다. 산세도 유난히 험하다. 크고 작은 산들 가운데 해발 614m의 저두산이 면소재지를 에워싸고 있다. 저두산은 양동의 으뜸 산인 종산(宗山)이다. 그 주위로 건지산과 과모산, 구락산, 금왕산, 노기산, 대월산 등 이름조차 모두 헤아리기 어려운 뇌들이 이방인들을 맞는다. 그 험한 준령을 끼고 흐르는 석곡천은 그래서 더 늠름하다.

고개를 조금만 젖혀도 눈에 들어오는 풍광들은 하늘을 빼놓고는 온통 산이고 물이다. 나무들도 울창하다. 금강산에서나 볼 수 있는 잘 생긴 소나무들도 즐비하고 추운 나라에서나 산다는 자작나무들도 제법 많다. 산세가 험준한 까닭에 대해 이곳에서 7대째 살고 있다는 주민(56)에게 물었다. “양동면의 산줄기는 백두대간의 줄기인 성지지맥(聖地枝脈)입니다. 남쪽으로는 구룡분맥(九龍分脈)과 이어집니다.” 그의 해박한 지리적인 설명을 종합하면, 성지지맥은 강원도와 경기도의 경계가 되는 금물산에서 시작되는 한강기맥(漢江岐脈)과는 정반대 방향에 솟은 성지지맥을 서남쪽으로 타고 이어지는 셈이다. 성지지맥은 한강기맥의 금물산에서 서남쪽으로 가지를 쳐 성지봉과 덕갈고개, 도덕고개 등을 지나 저두산과 몰운고개, 벗고개, 턱걸이고개 등지를 통과해 여주시 강천면으로 이어진다. 구룡산맥은 저두산 도토리봉에서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강원도 원주 쪽으로 남진하며 계정리와 횡성군 지정면과의 경계를 이룬 뒤 거슬치 고개와 스무 나리 고개 등을 지난다. 강원도 한복판 어느 곳에 옮겨 놓아도 빠지지 않는 준령과 계곡들을 품은 산세다.



양평군 양동면 양동역
앞 대낮인데도 지나가는
발길이 뜸하다.

II. 양동면 역사와 동계8경 이야기

1. 백제의 저항정신을 계승… 을미의병의 발상지

역사적으로 이 땅은 600여 년 동안 백제의 영토였다.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강 이남 초입에 위치했던 양동면은 고구려 장수왕의 남하정책과 백제 개로왕의 북진정책이 충돌했던 격전의 고장이었다. 나라를 빼앗긴 백제의 후예들은 이후 통일신라시대에 이르기까지 저항을 포기하지 않았다. 1400여 년의 시공이 흐른 뒤에도 계속 이어졌다. 19세기 후반 일제의 노골적인 침략 야욕에 제일 먼저 깃발을 들고 일어선 고장 가운데 한 곳이 양동면이었기 때문이다. 명성황후 시해사건으로 촉발됐던 의병 봉기를 역사는 ‘을미의병’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박대식 양동면장의 기억을 소환해보자. “이 시기는 한국사에 있어 전통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가는 격변기이기도 했습니다. 동양적인 성리학적 질서에 안주해 있던 조선은 바야흐로 봉건적 신분체제 해

체로도 이어졌지만, 동시에 일본을 비롯한 외세의 침략이 노골화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전개된 민족적 저항운동은 위정척사운동과 함께 의병운동과 자연스럽게 접목됐습니다. 그 한복판에 양동면의 의병운동이 있었습니다.”

1894년 여름 지평에서 안승우 선생이 전국 최초로 항일의병을 모집했다가 동학농민군으로 오해 받을 것으로 우려해 해산한 뒤 다시 집결해 400여 명의 의병들이 집결했다. 이처럼 양동에서 궐기한 의병은 1896년 전국으로 확산됐다. 을미의병의 시작이었다. 일제에 대한 저항은 인근 원주로 이어졌고 충북 제천을 점령하고 단양 장회협 전투에서 승리한 뒤 충주성을 함락시키고 수안보와 가흥 등지로 이어졌다.

최근 발간된 『양동면지』는 당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일제는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로 조선을 병탄하려고 국권을 농락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마침내 1895년 을미년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단발령을 강제로 시행하는 등 조국과 민족을 강점해 식민지화하려는 야욕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이에 의분을 참지 못한 퇴양 안종웅 의사가 동지들과 거의(學義)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하사 안승우 의사의 친구인 석곡리 목골 출신인 괴은 이춘영 의사가 의병을 일으키기로 결심하고 안종웅 의사 찾아와 계책을 논의했다. 이춘영 의사의 청운면으로 가서 김백선 의사와 만나 궐기하기로 결의하고 의병 400여 명을 모아 원주 안창으로 집결시켰다. 안종웅 의사와 제천에 있는 안승우 의사에게 화서 이항로 선생의 제자인 의암 류인석 선생에게 의병 참여와 계책을 문의한 뒤 안창으로 오라고 명령을 내렸다. 안승우 의사가 명령을 수행, 일행과 함께 만수암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이춘영 의사와 김백선 의사, 김사정 의사 등이 창의호국투쟁을 결의하고 안창역에서 이춘영 의사가 단상에 올라 깃발을 높이 드니 전국에서 가장 먼저였다. 의병들은 원주를 점령하고 충북 제천으로 진격해 류인석 선생을 대장으로 추대했다. 류인석 대장은 의병진을 재편하고 장기 항전에 들어가 연합의진으로 발전, 충주성을 빼앗으려고 항전했으나 실

패했다. 류인석 대장은 재기를 다짐하면서 의병들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넜으나 1896년 7월 31일(음력) 회인현 사첨자 파저강변에서 의병을 창의한 지 8개월 만에 무장이 해제돼 해산됐다. 하지만, 가장 방대하고 가장 치열하고 장기화된 독립항쟁으로 이어졌다.”

양동면에서 일어난 의병들을 지휘한 장수들은 화서 이항로 선생의 제자 출신인 선비와 유생들이었다. 1000년 이상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저항 정신의 귀결이었다. 을미의병은 외세에 무기력한 조정의 현실을 방관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다는 충성심에서 일어났다. 주체 세력은 선비와 유생과 농민과 포수들이었다. 이 중에서도 주도 세력은 선비와 유생들이었다. 유생은 지방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의리에 밝아 전통과 예의를 높이고 사사로운 이익보다는 대의를 위해 살신성인 하는 충절의 의지가 강하다.

하지만, 농민과 포수 등이 가세하지 않았다면 의병운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더구나 민중의 근간을 이루는 농민들의 비분강개하

양평군 양동면 석곡리에
위치한 양동을미의병 묘역



는 용기는 전투의 근간이었고, 화력을 뒷받침했던 포수들의 활약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물론, 이 와중에서 당시 집권층에 대한 무능과 부패 등에 상당수 백성들이 분노했지만, 공통분모인 외세침략이라는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로 결집할 수 있었다.

양동면 석곡리 사이실 355번지는 을미의병의 발상지다. 양평군 용문면에서 양동면으로 들어오는 초입인 이곳은 퇴양 안종웅 의사, 하사 안승우 의사, 우하 안기영 의사 등 3대의 고향이다. 이곳에서 오솔길을 따라 1.2km 남짓 들어가면 양동을미의병 묘역이 있다. 추모비에는 일제에 의한 명성황후 시해사건과 단발령 공포 후 화서 이항로 선생의 화서학파 문인인 안종웅 의사의 주도로 이춘영 의사와 안승우 의사 등을 비롯해 김백선 의사 등을 주축으로 하는 포수 400여 명이 전국 최초로 의병을 거의(舉義)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양동을미의병은 원주와 단양전투에서 큰 공을 올리는 등 인근 강원지방과 충북지방의 병봉기의 도화선이 된 대표적인 척사의병이다. 이후 양동을미의병의 창의정신은 1907년 후기 의병과 3·1만세운동과 독립운동으로 이어졌다. 이 묘역은 1997년 문화유산의 해에 양평문화원과 의정부 보훈지청의 지원을 받고 후손들의 후원금으로 추모제를 세워 봉양하다 양동을미의병 성역화사업 추진위원회가 지난 2007년 8월 조성했다.

2. 대한제국 군대 해산에 또 다시 불붙은 정미의병

양동의병은 1907년 정미년으로 이어진다. 그해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됐다. 이후 대한제국 군인 출신들에 의한 의병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그 중심에도 양동의병이 있었다. 전국적으로 10만여 명에 이르는 의병이 들풀처럼 일어났다. 정미년 의병의 배경은 고종황제 강제 퇴위와 정미7조약 체결, 군대 해산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향토사학자인 이복재 전 양동농협 조합장은 정미의병에 대해 이

렇게 설명했다. “양동면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의병운동의 시초는 조인환 의사였습니다. 그는 양주 출신인 권득수 의사와 함께 연합전선을 펼쳤습니다. 1907년 조인환 의사가 지휘하는 의병이 일본군을 공격하자 일제는 의병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상원사와 용문사 등을 소각했고 사나사도 이듬해 불태웠습니다. 일제의 만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민가 수백 호를 소각하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병은 강원도 인제로 옮겨 민궁호 대장이 이끌던 부대와 합류, 13도 연합의진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강원도에서 이구체 위병부대와 합세해 일본군과 10여 차례 교전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양평 출신인 김춘수 의사는 강원도 홍천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김 의사는 의병 200여 명을 이끌고 광주와 가평, 홍천 등지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최대령 의사도 의병 300여 명을 인솔하고 양평을 주 무대로 인근 지역을 넘나들면서 일본군을 공격했다. 양동면의 정미의병 본대는 주로 삼산리 원삼산 마을에 주둔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삼산리는 양동면의 남쪽에 위치, 강원도 원주와 경계를 이룬다. 관동대로의 끝이다. 마을 중심으로 흘러내리는 삼산천 남쪽으로 험한 산줄기가 감싸는 지형이다. 특히 운삼산과 속골, 도소리와 분터골 등은 관동대로와 가까우면서도 아득하고 넓은 골짜기이고 물이 풍부해 비상시 대피장소로 안성맞춤이었다. 이 때문에 양동면의 정미의병 본대는 많은 병력이 일본군의 움직임을 감시하며 방어하고 안전하게 주둔하면서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었다. 일본군이 구둔치를 넘어 관동대로를 따라 이곳을 공격하려면 적어도 3~4시간이 걸리는 거리였다.

3. 들풀처럼 활활 타오른 3·1만세운동

양동면의 의병운동은 1919년 3·1만세운동으로 이어졌다. 당시를 기록한 『양동면지』에 따르면 그해 양동면에서도 일제의 압제에 저항해 세계만방에 독립을 선포하는 물결이 도도하게 일어났다. 전석현 지사와 이종성 지사가 뜻있는 동지를 규합해 결의하고 격문을 작성해 각 마을에 배포했다. 이어 그해 4월 7일 새벽 양동면사무소 앞 광장에는 수많은 주민들이 모였다. 3000여 명이 넘었다. 전석현 지사가 단상에 올라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이종성 지사의 선창으로 “대한 독립 만세”를 힘차게 외쳤다. 주민들은 양동헌병주재소를 습격했다. 지나는 마을마다 남녀노소가 모두 나와 합세해 시위하고 만세를 불렀다. 일본 헌병대는 주민들을 향해 잔인무도하게 총을 난사해 숱한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많은 이들이 일본헌병에게 체포돼 모진 고문을 받고 옥고를 치러야만 했다.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전석현 지사와 이종성 지사는 경성지방법원에서 3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이 밖에도 수십 명이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양평군 양동면 석곡리에
조성된 양동만세공원



양동면에서 3·1만세운동에 참가했던 주민들은 이후 일제의 탄압을 받아야만 했다. 대규모 토지조사를 시작으로 옥토도 빼앗겨야만 했다. 이 사업은 전국의 토지를 측량해 소유권과 가격 및 지적을 확정한다는 게 명목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주체가 일본 관헌과 조선인 지주들이었다. 이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일제가 조선의 토지를 강탈하겠다는 음모였음을 명백했다. 전통적인 농촌경제 체제가 붕괴되고 있었다. 일제의 강제 공출도 시작됐다. 쌀은 물론 놋그릇과 놋수저 등이 일제에 의해 수탈 당하고 있었다. 일제의 압제로 인해 주민들은 고향을 떠나 만주 등지로 떠나야만 했다. 당시 양동면 주민들도 수천 명이 만주 등지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양동면지』는 당시의 처참했던 양동면 주민들의 생활상을 이렇게 적고 있다. “일제의 수탈로 끼니조차 이을 수 없었던 주민들은 대를 이어 살아온 정든 고향을 버리고 낯설고 물 설은 타국으로 밭길을 재촉해야만 했다. 대표적인 곳이 북간도였다. 단편적이긴 하지만, 북간도행 열차를 탈 수 있는 경성 청량리역과 왕십리역 등지에서 기차를 이용해 가족 단위로 북간도로 떠나는 고송리를 비롯한 양동면 주민들의 이야기를 당시 신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양동면지』는 3·1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양동면의 주요 지사들을 기록하고 있다. 전석현 지사와 이종성 지사 이외에도 이종철 지사, 심원각 지사, 박철현 지사, 정호철 지사, 이섭 지사, 이백석 지사, 박성근 지사, 이성섭 지사 등이 옥고를 치렀다. 이 밖에도 3·1만세운동을 이끌었던 지사로 나상필 지사, 박성근 지사, 이백석 지사, 임호연 지사, 정경시 지사, 정호철 지사 등이 있다.

양평군 용문읍에서 양동면으로 들어오다 보면 석곡리 423의 10번지에 양동만세공원이 조성돼 있다. 오래된 느티나무 사이로 들여다보이는 야트막한 언덕을 끼고 100여 년 전 양동면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던 선열들의 기상을 기리기 위해 후손들이 조성한 공간이다. 중앙에는 양동기미독립만세운동 기념비가 우뚝 서 있고, 원쪽으로는 국기

게양대가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들고 있다. 오른쪽으로는 양동만세공원 조성 취지문이 새겨진 비석이 서 있고, 을미의병 발상지를 알리는 표지석도 함께 있다. 원쪽 끄트머리에는 양평 석곡리 석조약사여래좌상도 앉아 있다.

1919년 4월 7일 양동면 주민 3000여 명이 석곡리 섬실 양동면사무소 앞에 모여 독립만세 시위를 벌였던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을 선양하고 후손들에게 애국 충절과 겨레 사랑의 정신을 전승하기 위해 조성된 양동만세공원은 그래서 늘 자랑스럽다.

지난 2013년 양동역사마을만들기 사업추진위원회가 양동기미독립만세운동 기념비를 건립하고 다음 해 포장과 조경공사를 진행했다. 이곳을 지나다 보면 그날의 우렁찼던 함성이 귓가를 맴돈다. 하늘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선열들의 늄름한 기상이 오롯이 느껴진다. 그래서 웃깃을 여미게 된다.

양평군 양동면 석곡리
면사무소 뒤편을 흐르는 석곡천



4. 동계8경, 그 단아한 풍광 속으로

“양동면에는 유난히 가람(옛 강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많은 편입니다. 물론 남한강 같은 큰 강은 아니지만, 개울보다는 수량이 많은 하천들이 유유히 흐르는 고장입니다. 어렸을 적, 초등학교 친구들의 집을 놀러 가면 그곳에도 늘 도랑보다는 큰 개천이 흘렀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마을만 벗어나면 개울이 흘렀던 고장이었습니다.”

양동면은 하천의 고장이다. 그 가운데 길이 12.4km의 석곡천이 으뜸이다. 저두산에서 시작해 양동면을 동서로 가로 지르면서 흘러내려 하류에서 삼산천과 합쳐 섬강과 만난다. 합수머리에서 석곡천으로 합류하는 계정천도 빼놓을 수 없다. 이 밖에도 단석리에서 발원해 단석리와 쌍하리를 지나 석곡천에 합류하는 단석천이 있고 매월리를 출발해 석곡천으로 흘러 들어오는 매월천도 있다.

석곡천은 예로부터 고즈넉하지만, 풍광이 빼어났던 개울이었다. ‘아름다웠다’라는 과거완료형 시제의 수식어를 쓰는 까닭은 지금은 많은 세월의 풍상을 거쳐 그 고왔던 풍광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한 탓이다. 이 고장 어르신들은 석곡천만의 절경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물론, 이 고장도 산업화라는 거대한 물결을 피할 순 없었다. 하지만 나름 최소한 분량의 순수함은 지키고 보존하려는 노력은 늘 한 결같았다. 그런데도 석곡천 풍광은 옛날보다는 많이 달라지고 변했다.

석곡천의 절경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동쪽의 개울이란 뜻의 수려한 풍광을 뜻하는 동계팔경(東溪八景)은 곧 양동을 대표하는 아이콘이다. 그만큼 석곡천 주변에는 예로부터 선비들의 시선을 빼앗을 만큼의 풍광들이 펼쳐져 있었다는 얘기다.

원래 동계팔경이라는 표현은 이 고장의 선비인 택당 이식 선생(1584~1647년)의 문집『택당집』에서 처음 유래됐다. 택당 선생은 자신의 문집의 「동계기」를 통해 자신의 고향인 양동면의 석곡천을 따라 이어



양평군 양동면 쌍학 안골2리
택풍당. 택당 이식 선생을
기리는 사당이다.

진 절경들을 소개했다. 택당 선생은 자신이 살았던 백아곡(白鶴谷)에서 남과 북쪽을 따라 종단하는 석곡천 물소리를 들으면서 산보를 즐겼을 것으로 보인다. 백아곡은 양평군 양동면 쌍학2리 안골마을이다. 택당 선생은 백아곡에 아버지를 비롯한 조상의 묘소를 모시고 택풍당을 건립해 노후를 보냈다. 택당 선생은 택풍당을 짓기까지의 과정과 백아곡의 위치, 지형, 산세, 선대묘 등에 관한 내용들을 『택풍당지(澤風堂志)』에 모아 정리했다.

택당 선생은 물소리라는 청각적인 개념과 자신의 눈을 통해 펼쳐지는 아름다운 계곡의 모습을 늘 잊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고향 산천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은 당시 도화원 화가였던 이신흠의 화폭에 고스란히 담겼다. 그렇게 탄생된 작품이 실경도인 동계팔경도(東溪八景圖)이다. 동계팔경의 내용이 들어 있는 「동계기(東溪記)」는 동계(東溪) 20여 리 중 노닐어 볼 만한 곳들을 기록해 놓은 글이다.

택풍당에서 동쪽의 말미산을 넘으면 패나 넓은 들판이 나타나고

들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석곡천이 흘러내리니 이 시내가 「동계기」(東溪記)의 대상이 된 동계이다. 제1경은 조적대(釣寂臺), 제2경은 부연(釜淵), 제3경은 건지산(寢芝山), 제4경은 송석정(松石亭), 제5경은 양금합류처(兩襟合流處), 제6경은 조봉(鷗峯)석벽(石壁), 제7경은 승담(僧潭), 제8경은 구암(鳩巖) 등이다.



동계8경 중 제1경인
조적대가 있었던 터

5. 언덕이 끊어진 곳에 세워진 조적대

동계8경 중 제1경은 조적대다. 「동계기」는 조적대의 풍광을 이렇게 적고 있다. “조적대는 산 뒤의 물굽이에 위치해 있다. 언덕이 끊어져 바윗돌이 튀어나와 있고 물이 돌아 흘러 작은 연못의 형태를 이루고 나무가 그늘을 드리워 주고 있다. 골짜기 어귀 들판에 또 작은 구릉이 하나 있어 연못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으므로, 여기에다 경한(耕閒)이라는 이름의 정자를 지어 이곳과 마주보게 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택풍당의 동쪽인 말미산을 넘으면 언덕이 튀어나와 있는 물굽이가 있었을 바위를 쉽게 찾아 낼 수 있고 이곳이 조적대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양동면 소재지였던 쌍학1리를 우회하는 외곽도로가 나면서 건설된 을미의병교 서단에서 북쪽으로 300m쯤 떨어진 곳이다. 조적대의 앞까지 당시의 물길을 다른 곳으로 돌려 막아 둑을 쌓고 그 안쪽은 흙을 메워 논이나 밭 등 경작지로 쓰고 있고 제법 깊은 물굽이가 있었을 바로 앞도 흙으로 메워져 수로와 농로가 됐다. 흙이 덜 메워진 산쪽을 살펴보면 옛날 깊던 물속까지 박혀 있을 몇 길 됨직한 바위가 조금 드러나 보이고 위쪽의 산도 잡목이 우거지긴 했으나 평평해 택풍당에서 산을 넘어와 그 평평하고 바위가 튀어 나온 곳에 앉아 바위 아래 물굽이가 만든 깊은 물속에다 낚시 줄을 내리고 낚시질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다.



동계8경의 제2경인
부연이 있었던 터

6. 가마소 같은 자연못, 부연

동계8경 중 제2경은 부연이다. 부연은 ‘가마소’와 같은 뜻으로 산골의 개울에는 흔히 만들어 지는 자연 못이어서 부연 또는 가마소란 소의 이름은 흔하다. 이곳의 부연은 ‘현연(玄淵)’으로도 불렸다는 기록이 있

다. 소 전체가 검게 보여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동계기에 나오는 부연으로 인해 후에 이 마을이 ‘부연리’라는 지명으로까지 불리었고, 후일에는 그 이름이 ‘귀거연(歸去淵)’으로도 불렸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택당 선생의 위패를 모셨던 부연사라는 사당도 있었다. 부연에 관한 동계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류의 동쪽이 바로 부연이다. 부연은 넓이가 10여 묘쯤 되는데, 층암을 휘돌아 감싸고 있다. 층암 위로 올라가면 땅이 평평한데 점유한 위치가 치우치지 않아 멀리 바라보면 유장한 느낌이 든다. 담(潭)의 서쪽에는 쌍석이 대치하고 있는데, 그 모양이 마치 규(珪)를 꽂아 놓은 것과 같으며, 그 터진 틈 사이로 화훼가 가득 채워져 있다.”

층암을 휘돌아 감쌌던 부연은 흙으로 메워져 높고 평평한 밭이 됐다. 부연 서쪽에 있는 쌍석바위 바로 위쪽에 쌍학교가 개울을 가로질러 놓여졌고 다리 동단 교각이 기점으로 쌍석바위를 거쳐 부연의 물길 쪽 층암까지 직선으로 둑이 쌓였다. 다만 층암 위의 평평하고 치우치지 않아 정자를 지었다는 땅은 밭으로 개간돼 경작되고 있고 층암과 밭 사이에만 잡목들이 우거져 있으며 귀퉁이 바위틈에 뿌리를 박은 오래된 전나무 한 그루가 10여 년 전쯤 벼락을 맞아 위는 파편이 돼 날아갔다.



동계8경의 제3경인
건지산

267m의 야트막하고 동그란 산으로 비교적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면의 북부인 금왕리 이북과 남부인 석곡리 이남을 가르며 솟아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새우개(조현)마을에서 정월 보름에 산제를 올렸고 가뭄이 극심하면 이 산 정상에서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다. 산의 모양이 사발을 엎어 놓은 듯 특별히 지금도 양동면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 건지산은 고려 태조 왕건이 강원도 문막 건등산에 올라 멀리 보이나 유난히도 동그랗게 보여 눈에 띠는 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 산이 무슨 산이냐”고 물었다는 데서 붙여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옛날 어느 장수가 큰 장마로 떠내려 오는 산을 손가락으로 건져 놓은 산이어서 이렇게 불렸다는 전설도 있다.

택당 선생은 건지산과 부근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계류를 따라 위로 5~6리쯤 올라가면, 봉우리 하나가 둥글게 솟아 있는데, 토박이들은 이것을 건지산이라고 부른다. 산 밑에 암지가 있는데, 위는 평평하고 아래는 단애이다. 계류 북쪽으로 창벽이 우뚝 솟구쳤다. 옛날에는 여기에 패공원이 있었으니, 이는 서화현이 험준해서 도적을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동계8경의 제4경인
송석정 터

8. 물속 바위 위에 소나무 한 그루, 송석정

동계8경의 제4경은 송석정이다. 송석정은 현재 양동면 단석2리의 한 마을 지명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금의 송석정 마을은 동계(석곡천)와 서화현 사이에 있는 마을로 동계와는 동떨어져 있다. 그 이름으로 인해 정자로 알고 헤맬 뻔했다. 그러나 「동계기」에서 송석정과 주변을 자세히 묘사한 기록은 정자가 아닌 것을 먼저 확인할 수 있었다.

「동계기」의 송석정에 관한 내용부터 살펴보자. “바위섬 하나가 계류 한복판에 놓여 있다. 그 위에 고송이 우뚝 높이 서는 바위를 감싸고 뿌리를 감고 있는데, 바람과 물에도 뽑히지 않고 산불에도 끄떡없다. 물이 그 좌우를 휘돌아 흘러가는데, 그 위에 술잔을 띄우고 수계하며 마실 만하다. 그 이름을 송석정이라고 했으니, 이는 ‘차가운 물속 바위 위의 한 그루 소나무(寒流石上一株松)’라는 당나라 사람의 시구를 취한 것이다.”

송석정은 시냇물 한복판에 있는 바위섬이고 그 위에 오래된 소나무가 우뚝 서 있는데 뿌리가 바위를 감싸고 있다. 시냇물 가운데 있으니 말미산에 산불이 나도 끄떡없고 뿌리가 높고 튼튼한 바위를 감싸고 있으니 폭우가 내려 물이 아무리 많이 나가거나 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불어도 뽑히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더구나 시냇물이 바위섬 좌우를 흘러 그 위에다 술잔을 띄우고 수계하며 마시고 놀만하다고도 했다. 거기에다 송석정이란 물 속 바위 위의 한 그루 소나무라는 어느 당나라 사람의 시구에서 따왔다는 설명까지 덧붙이고 있다.

송석정은 조적대에서 석곡천 시냇물을 따라 건지산 쪽으로 약 500m 올라간 논 한가운데 있다. 늙은 소나무가 우뚝 서 있었을 법한 자리에는 제법 큰 아카시아 나무가 한 그루 자라고 있고 바위섬은 상단의 3m 정도만 모습을 드러내놓고 있어 이것이 그 아름답던 송석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만해도 석곡천의 본래 물 흐르는 방향을



동계8경의 제5경인
양계합금처

인위적으로 돌려놓아 송석정으로 직접 물이 흐르지는 않았지만 이 바위의 모습이 거의 드러나 있었고 주위에는 사람이 사는 집도 한 채 있었다. 지금은 높이가 5~6m 되는 둑을 쌓고 흙을 메워 경지 정리까지 한 논이 됐으니 송석정의 전체 높이는 10m는 족히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9. 물소리도 합쳐지는 양계합금처

동계8경의 제5경은 양계합금처다. 양계는 지금의 석곡천과 단석천이니 두 개울이 합쳐 만나는 곳으로 두 개울의 합수점으로 이해하면 된다. 「동계기」는 이 합수점을 ‘웃깃 금(襟)’자를 써 두 개울의 웃깃이 합하는 곳이라고 멋들어지게 명명하고는 다음과 같이 썼다. “계류를 따라 남쪽으로 방향을 돌리면 두 계곡물이 합류하는 곳에 이른다. 이곳에는 송림과 반석이 있으니, 일찍이 두세 명의 사우와 함께 연구를 지었던 곳이다. 여기서 남쪽 이하로는 뒷 계곡물이 한데 합쳐 하나의 시내를 이루게 되니, 양쪽 산골의 물들이 여기에 모두 귀속된다.”

5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두 개울의 합류점에는 넓은 반석과 뒤의

평평하게 내려오며 경사를 이룬 산이 어울려 이곳의 경치는 수려했다. 양동~원주 간 도로 확포장으로 산허리가 잘리고 도로로 잘린 곳부터 반석까지는 흙을 메워 밭으로 개간되더니 지금은 아예 높은 곳의 흙을 밀어 반석을 덮어 평지밭이 되고 말았다. 구릉의 맨 끝부분인 물가에 사람 하나가 겨우 밭을 올려놓을 만한 반석의 작은 부분만이 노출됐을 뿐이다. 개발로 반석과 소나무 숲으로 무척이나 아름다워 두세 명의 글동무들이 한 사람이 한 구씩 불러 한 수를 이룬 시인 연구(聯句)를 지으며 풍류를 즐기던 이곳은 완전히 흙 속에 묻혔다.

“가파른 산봉우리와 깎아지른 석벽들이 수려하고 기이한 자태를 경쟁하는 가운데, 물이 그 밑바닥을 뚫고 지나가면서 어떤 때는 고요히 잠겨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격동하며 흘러가기도 하는데, 급한 여울과 조용한 뜯들이 서로 뒤섞이면서 굽이마다 기이한 형상을 빛내고 있다.”

동계8경의 제3경인
건지산



동계8경의 제5경인 양계합금처로부터 제6경인 조봉 석벽까지의 형상을 기록한 것으로 지금도 이글의 표현에서 빼고 더할 것도 없이 깨끗하고 아름답다. 다만 낮아 범람하기 쉬운 곳에는 인공의 둑이 생기고, 도로로 쓰이는 곳도 있으며 주변의 평평한 땅은 모두 전답으로 이용되고 있다.

10. 서쪽 가장 높은 곳, 조봉 석벽

동계8경 중 제6경은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에 위치한 조봉 석벽이다. 택당 선생은 조봉 석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그 서쪽으로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조봉이다. 조봉 아래로는 천 길의 석벽이 서 있고, 그

밑바닥은 낚시터나 누대의 위치로도 적격인데, 문뜩 모래밭에 앉아 위를 쳐다보면 매우 장쾌한 기분이 우러난다.”

조봉 석벽을 확인하는데도 꽤나 많은 수고가 필요했다. 천길의 석벽이 있다는 내용 외에 더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여기서 ‘천길’은 매우 높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삼산천변에는 높은 석벽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이다. 옥편에서 ‘鷗’자를 찾아보니 ‘수리’ 조였다. 그렇다면 직감적으로 수리봉이나 수리산 등을 찾으면 될 것 같았다. 수리봉은 존재했고 주변에서 제일 높은 이 산에는 높은 석벽도 속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즘 사람들은 이 석벽을 ‘쏘다지기’라고 부른다. 쏘다지기는 바위가 깎아지른 듯이 높고 넓어 웅장할 뿐 아니라 물쪽으로의 경사도가 90도를 넘어 금방 넘어져 쏟아질 것 같다고 해서 붙여졌다.

택당 선생은 쏘다지기 아래가 누대의 위치로도 적격이라고 했지만 누대가 있었다는 이야기나 지었던 흔적도 없다. 지금은 석벽의 건너편에 2010년 흙을 높이 매립해 주변 지형의 변화가 약간 있고, 하류 쪽에 새로운 교량이 건설되는 등 주변의 모습이 달라졌다. 특히 겨울에는 양수기로 물을 끌어올려 인공빙벽을 만들어 빙벽 등반장으로 활용한다. 국내 인공빙벽으로는 제일 높다는 100m코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조봉석벽 높이가 대략 드러난 셈이다.

동계8경의 제7경 승담



11. 깊은 중 뜻, 승담

동계8경 중 제7경은 승담이다. ‘깊은 중 뜻’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택당 선생은 “거기에서 또 방향을 바꿔 몇 리 쯤 가노라면 승담이 나타나고 이 부근의 뜻 중에서는 가장 넓은 곳인데, 물가의 언덕이 조금은 평평해 정사를 용납할 만하다”라고 적었다. 다른 팔경에 비해 설명이 짧다. 그런데도 위치를 확인하는 데 가장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조봉석벽에서 몇 리를 내려가면서 보면 뜻의 형태를 띤 곳이 여러 군데이고 뜻은 물굽이와 바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모양이 서로 비슷하다. 뜻의 크기도 가장 넓다고 썼는데 이 부근은 하천과 들이 다른 곳보다 넓은 지형을 이뤄 논이 많은 편이고 하천을 따라 중앙선 폐철로가 놓여 있어 지형이 바뀐 곳도 많다. 그래서 원문대로 정자나 집을 지을 만한 평평한 언덕이 있는 곳을 찾자니 그마저도 어려웠다. 8경 중의 마지막인 구암(鳩巖)과 「동계기」의 끝부분 등을 연계시켜 찾아보았다. 승담에서 구암까지 거리는 1리쯤 된다고 적혀 있으니 구암을 우선 찾기로 했고 찾은 구암에서 거꾸로 1리쯤의 거리에 있는 뜻을 찾는 방법을 썼다.

이런 방법으로 찾은 곳은 조봉석벽에서 남쪽으로 1km 정도 거리이고 아래쪽에 보를 막아서인지 뜻의 크기도 가장 넓은 곳이다. 이곳이 승담임을 확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문의 ‘가용정사(可容亭舍): 정사를 용납할만하다’라는 대목 때문이다. 정자야 바위나 벼랑 위에 지어도 무방하지만, 집은 아니기 때문이다. 집을 지을 만한 평평한 터가 있는지를 확인해보기로 했다. 이곳 외에는 집터가 될 만한 곳이 없었다. 이곳은 중앙선 폐철로가 지나가 토막이 나긴 했지만 철도를 빼고 연결해 보니 집 몇 채는 들어설 만한 터가 나올 만큼 널찍했다. 산 쪽으로부터 승담 쪽으로 돌출된 바위가 물과 어울려 꽈나 아름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지금은 폐철로가 된 예의 중앙선 철도가 그 바위를 뚫고 두 개의 터널이 생겼다.

12. 오색빛깔 새들의 향연, 구암

동계8경의 마지막인 제8경은 구암이다. 「동계기」는 “승담에서 1리쯤에 있고 시내의 동쪽에 있다”며 “여기에서 발길을 돌려 1리쯤 가다 보면 구암이 나타나는데, 시내 동쪽에 있다. 석봉이 일천척의 높이로 우뚝 서 있는데, 그 한쪽 면이 움푹 패어져 있는 가운데 아래로 깊은 뜻 속에 꽂혀 있다. 이 속에다 오색 빛깔의 새들이 등지를 틀고 새끼들을 기르고 있으니, 사람들로서는 그 속을 도저히 엿볼 수가 없다. 그 뜻의 서쪽으로는 백사장과 청송이 있고 그 사이에 꽃나무들이 뒤섞여 있는데, 나란히 앉아 조망하기에 괜찮은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말 찾아 놓고도 확신을 갖지 못한 곳이 마지막 8경이다. 이곳은 부근이 거의 다 돌과 바위로 이뤄진 지형이고 산이 곧추섰고 절벽도 높아 동계8경 중 원형을 가장 잘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동계기」 내용과 부합되지 않아 보이는 부분이 한 군데 있다. “석봉이 일천척의 높이로 우뚝 서 있는데, 그 한쪽 면이 움푹 패어져 있는 가운데 아래로 깊은 뜻 속에 꽂혀 있다”는 점과 “이 속에다 오색 빛깔의 새들이 등지를 틀고 새끼들을 기르고 있으니 사람들로서는 그 속을 도저히 엿볼 수가 없다”는 대목을 요약하면 돌로 이뤄진 봉우리의 높이는 천척(300m)이고 그 한 면은 움푹 패어져 있으며 깊은 뜻과 붙어 있다. 승담에서 1리쯤 거리에 비둘기 머리를 닮은 바위가 있고 시내의 동쪽이라

동계8경의 제7경 승담



는 것과 한 면이 움푹 파였고 깊은 뜻과 붙어 있다는 점이 「동계기」 내용과 일치하는 것 같지만 천척 높이의 석봉만은 확신하기가 어려웠다.

동계8경 흔적을 탐사했던 이 복재 전 양동농협조합장으로부터 당시의 경험을 들어봤다. “동

계8경 가운데 마지막 8경인 석봉에 대해선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분석해보겠습니다. 양동면에서는 석봉을 제외하고도 꽤 험준한 산들이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 봉우리 중 300m정도 높이의 산이 2개 있었습니다. 해발 343m 소금산(간현암) 등이 그것입니다.”

그의 기억은 계속된다. “그러나 세 가지 항목 중에 두 가지나 일치하는 쪽은 소금산이었습니다. 소금산에 올라 보면 의문이 풀릴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몇 해 전에 수직에 가까운 소금산 등산로의 404개의 철계단을 하나하나 밟으면서 걸어서 소금산을 올라가 보았습니다. 턱에 차는 숨은 고사하고 30도에 가까운 폭염 속에 땀범벅이 된 등산 이었습니다. 택당 선생은 삼산천에서 올려다보며 그저 높은 석봉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썼을 뿐 실제로는 이 산에 오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절벽에 가까운 바위산에 철계단을 놓아 정상과 연결시킨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을 테니 말입니다.”

소금산에 올랐던 김회가 더욱 궁금했다. “소금산에 등산로를 조성한 건 삼산천 협곡이 수태극(水太極)을 이루면서 간현의 섬강으로 흘러드는 경치 등 정상까지 오르는 동안에 전망되는 주변이 정말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등산로를 오르면서 보니 비둘기를 닮은 바위가 이 산의 귀퉁이 쪽에 붙어 예쁘게 내려다 보였습니다. 정상에 올라 종합해 보니 천적 높이로 우뚝 서 있는 석봉은 소금산임이 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대로 구암은 비둘기머리를 닮은 바위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확신도 갖게 됐습니다.”

실제로 구암은 일천척이나 되는 석봉 아래 시내에 붙어 있어 이 산의 일부를 이뤘던 것으로 추정된다. 택당 선생의 기록과 이복재 전 양동농협조합장의 분석에 따르면 ‘구암은 한 면이 움푹 패였으며 깊은 못과 붙어 있다’는 의미였던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이복재 전 양동농협조합장의 견해를 더 들어보자.

“택당 선생의 구암에 대한 설명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헤맨 꼴이 됐습니다. 소금산의 구암 뒤쪽으로는 위의 동계8경 가운데 제7경에서 말한 중앙선 폐철로가 이어져 짧은 터널 하나를 뚫어놓았고 구암의 움푹 팬 부분 3~4m 앞까지 모래자갈이 쌓여 패인 곳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암의 서쪽에 서 있으면서 푸름을 자랑하던 청송(青松)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정도만이 달라진 점입니다.”

택당 선생도 「동계기」를 맷으면서 비슷한 견해를 내비쳤다. “아곡에서 벗들과 함께 술병을 들고 아침에 찾아왔다가 저녁에 돌아 갈만한 거리에 있는데, 물고기와 새를 잡고 꽃과 과일을 따는 일을 마치 원지(園池)에서처럼 하며 즐길 수가 있다. 동계의 경치를 서술하는 일은 이 정도로 끝낼까 한다.”

2020년 7월 4일
석곡천에서 펼쳐졌던
리버마켓



어제와 오늘의 찬우물마을의

이병권

동계8경이 병풍처럼 둘러섰던 석곡천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가 석곡천 리버마켓 개장이다. 리버마켓은 시민들이 주축으로 몇 년 전부터 북한강이 흐르는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다. 회원이 4만 명이 넘을 정도로 외연이 넓다. 디지털시대 콘셉트에 맞춰진 성격의 리버마켓이 최근 석곡천에서 오일장을 개최했다. 2020년 7월 4일이었다. 이날 열린 리버마켓에 참가했던 한 주민은 “리버마켓 양동 입구를 들어가자마자 쌀빵을 판매하는 셀러도 있어 깜짝 놀랐다. 천막도 세련되고 매대와 셀러 모자, 앞치마 등이 모두 예쁘고 깔끔했다. 보통 시장에 가면 채소나 과일 같은 농산물이 대부분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겨 있는데, 이곳에서는 나무로 만든 통이나 나무 바구니 등에 담겨 있어 참신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석곡천에서 펼쳐졌던 리버마켓에는 하루 동안 수천 명의 발길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입소문을 타고 인근 원주 등지에서도 고객들이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동면을 흔히 험한 산들에 둘러싸인 꽉 막힌 내륙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유구한 사람이 흐르는 물의 고장이다. 석곡천이 그렇고, 계정천이 그렇다. 인류 문명이 강을 중심으로 발전했듯이, 양동면도 석곡천을 중심으로 한땀 한땀 소중한 역사를 만들어 오고 있는 고을이다. 그 틈실했던 삶의 역정은 오늘도 이 고장의 유품 가람인 석곡천으로 유유히 흐르고 있다.

I. 서론: 화성시 '삼괴(三槐)'지역

II. 본론

1. 찬우물마을의 시작과 변화
2. 찬우물마을의 전통

III. 맺음말

1 삼고 지역의 주산인 쌍봉산(雙峯山, 쌍부산, 제일 높은 남쪽 봉우리 해발 117.4m)은 마치 낙타들과 같다고 하여 불여진 지명이다. 그래서 전근대 지역을 쌍부현, 쌍부촌, 쌍부리 등으로 불렀고 각종 문헌에도 쌍부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최초 쌍봉산 기록은 고려 현종 9년(1018) 수원군에 속한 기록이다. 조선 중기 산에 잣나무가 많아서 백산(柏山)이라고 하였다.(이정구의 아들 이명한의 신도비에 쌍부촌 쌍고백산이라 함) 근대에는 두 봉우리 가운데가 쑥 들어가 말안장과 같다 고 마안산(馬鞍山)으로도 불렸다. 쌍봉산은 지역의 상징이다. 평坦한 지역에 높이 솟은 쌍봉산은 주산으로서의 역할을 특히 하였다. 지금도 쌍봉산 정상에 오르면 지역이 한눈에 들어오고 멀리 충청남도 당진군과 경기도 평택시의 평택항, 북쪽의 화성시 남양, 수원시 등이 조망된다. 쌍봉산은 우정을 조암리, 멱우리, 운평리, 한각리 등에 걸쳐져 있다.

2 사헌부에서 상언(上言)하였다. “쌍부감무(雙阜監務) 백천우(白天祐)가 글자를 알지 못하여서 그 직무에 맞지 않으므로 안렴사(按廉使) 조박(趙璞)에게 내쫓겼습니다. 청하옵건대, 그를 천거한 사람 예조 의랑(禮曹議郎) 김저(金祇)를 파면시켜 뒷세상 사람을 경계하소서” 하니 이를 윤히하였다. -『태조실록(太祖實錄)』권2, 태조 1년 (1392), 11월 11일(무자)

3 좌도(左道) 처인(處仁)의 겸관(兼官)인 쌍부현을 혁파하여 도로 수원부에 붙였다. -『정종실록(定宗實錄)』권1, 정종 1년 (1399), 1월 19일(경인) 이렇게 쌍부현은 국초부터 치현과 폐현을 거듭하였다.

I. 서론: 화성시 ‘삼고(三槐)’ 지역

화성시는 서해안에 위치한다. 그러나 화성시가 서해안에 인접한 도시라는 인식이 깊은 편이다. 전근대부터 꾸준히 이어온 간척사업 때문에 연안이 육지화가 되었던 자연 지리적 변화 때문이다. 화성시 장안면 독정1리 찬우물마을은 화성시의 서해안 연변에서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민 생활의 중요 자원인 식수를 매개로 형성된 자연 마을이다. 한천(淸)의 발견으로 수성 최씨 중심 세거 집성촌인 찬우물마을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겠다.

화성시는 서해안 연변의 경기만에 속하여 전근대 북부는 남양, 나머지는 수원에 속한 지역이다. 찬우물마을이 위치한 장안면은 우정읍과 더불어 고대 마한 54개국 중 상외국(桑外國), 백제 육포(六浦), 고려 쌍부현(雙阜縣)이 성립되었다. 최근 고고학 조사에서 장안면 장안리, 우정읍 화산리, 운평리, 한각리에서 토성과 고분, 백제토기 산포지 등이 나와 육포 지역에서 해상 교역 등 해상을 기반으로 한 세력이 일찍부터 형성된 것을 보여준다. 지금은 논들이 펼쳐진 곳이지만 바다로 열린 곳이다. 앞으로 더 조사가 필요하지만 상외국과 이후 한성백제시대 육포, 그리고 쌍부현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변천의 중요한 고리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쌍부는 ‘두 쌍(雙)’자에 ‘언덕 부(阜)’자로 두 개의 산봉우리를 표현한 것이다. 쌍봉산¹ 때문에 장안면과 우정읍 지역은 쌍부로 일컬어졌다. 고려 때 처음 현이 설치되면서 쌍부현이 되었다. 조선 태조 때는 감무가 파견²되기도 하나 폐현되어 수원부에 합쳐져³ 화방면(禾方面), 수류면(水流面), 마정면(馬井面), 초장면(草長面), 사정면(奢井面), 팔라곶면(八羅串面), 압장면(鴨長面) 삼고 7면(三槐 7面)이 되었다. 19세기 장안면(長安面), 우정면(雨井面), 초장면, 압정면(鴨汀面)이 되었다. 1906년 지방행정 구역 개편에서 수원군 초장면, 압정면이 남양군으로 편입되었다가 이후 1914년 군면 통폐합 때 수원군에 편입되어 초장면과 장안면을 합

쳐 장안면이 되고, 우정면(雨汀面)과 압정면을 합쳐 우정면이 되었다.

이러한 장안면과 우정읍은 하나의 지리, 사회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쌍부라는 오래된 행정지명 외, ‘삼고(三歸)’ 또는 ‘삼고(三槐)’로 불렸다. 예전에는 지역 사람을 삼귀대, 삼귀할아버지라고 하였다. 현재는 삼귀보다 삼고라는 지명이 널리 쓰인다.⁴ 고대 상외국이 있어서 상외국-상외-삼귀-삼고로 변천했다는 설도 있다.⁵ 삼귀나 삼고는 모두 한자식 명사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뜻한다. 주(周)나라에서 “괴목(槐木) 세 그루를 외조(外祖)에 심어 삼공(三公)이 나무를 향하여 앉은 일에 있어 삼고(三槐)를 삼공의 위계 뜻으로 쓴다”라고 하여 지역과 연이 닿는 조선시대 좌의정 이정구(李廷龜, 1564~1635)⁶와 영의정 정태화(鄭太和, 1602~1673)⁷, 김상로(金尙魯, 1702~1766) 세 사람의 ‘삼정승(三政丞)설’로 만 들어졌다.

삼정승설은 최근의 연구에서 이들 세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삼고의 일반적인 뜻으로 이해된다. 지역과 연고를 맺었던 이정구의 아들 이명한이 이조판서, 그 아들 이일상은 우의정에 추증되었다. 정태화의 할아버지 정창연은 좌의정, 아버지 정광성은 형조판서, 동생 정치화는 좌의정, 사촌 정치화(平經의 아들)도 좌의정이다. 김상로의 형 김취로는 이조판서다. 이밖에도 영의정에 추증된 이기조 등 정승판서를 역임한 많은 인물들이 지역과 인연을 맺었다. 따라서 이들이 재상의 반열에 있다가 낙향하여 머물렀던 사실이 삼고 이전에 삼귀(三歸)라고 불린 것이다. 삼귀는 ‘제나라 재상 관중이 늙어서 살았던 땅이 삼귀’였다는 『안자춘추』의 고사로, 위의 인물들이 쌍부에 머물렀다는 역사성이 삼귀로 불리는 계기였다고 추정한다. 삼귀가 근대에 이르러 일제 침략에 맞서 민족·민중운동과 교육운동이 활발한 가운데 지역의 애향애족의 정신을 살린 이야기로 ‘삼정승설’이 만들어지고 ‘삼고’라는 지명도 이들 삼공들을 더욱 명확하게 해주는 명사인 ‘삼고’로 굳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삼정승 중에서 자취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김상로

4 1895년 한말 지도에 삼고로 기록되고, 1900년 양안에 삼귀, 1904년 양안에는 삼고로 기록되었다.

5 화산리 해풍 김씨 남양쌍부파의 재실이 쌍고재(雙槐齋)로 되어 있어 삼고 어원의 또 다른 변형이 확인된다.

6 “수원의 쌍부는 부친 이정구가 휴가를 얻어 가끔 들르던 전장(농장)이 있던 곳이다.” - 이종록, 2006 「격물치지의 공간 이단상의 정관재」, 『조선의 문화 공간 3 - 조선중기-나아김과 물려남』, 421쪽. ‘대부인이 병으로 인해 죽자 상여를 받들고 와 임시로 수원의 쌍부리(雙阜里)에 장사 지냈다.’ - 김상현, 「이조 판서 백주 이공 명한의 신도비명 병서(吏曹判書白洲李公神道碑銘 幷序)」, 『청음집(淸陰集)』 권27, 비명

7 정창연이 우정을 흡곡리에 들어와 은거하여 ‘백년이나 머물 수 있는 곳’이라는 지명인 ‘백년거지’가 유래하였으며, 이곳에서 죽었다. 정태화의 아들 정재승의 무덤이 우정읍 주곡1리 구슬에 있으며, 주곡리와 장안면 석포리 일대에 장원을 소유하였다. - 김선진, 1996 「왜, 우정, 장안면을 삼고라 부르는가」, 『향토사료집1 화성의 얼』(화성문화원), 1996

⁸ “수원(水原)의 쌍부창(雙阜倉)은 그 유래가 오래 되었습니다. 승지(勝地)로 이름났기 때문에 종전에 권귀(權貴)의 집에서 군침을 흘리지 않음이 없었으나, 국초부터 창고를 설치한 땅을 감히 옮기지 못한 것은 진실로 국법을 두려워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이조참판 김상로가 스스로 권세를 믿고 감히 점유할 계책을 내어 은밀하게 지방 수령에게 부탁하고 이익으로 시골 백성을 꼬드겨서 민원(民願)을 기탁(假托)하여 억지로 하소연하도록 하였습니다. 60여 칸의 창해(倉廩)를 하루아침에 허물어 버리고 이어서 입장(入葬)하니...”『영조실록(英祖實錄)』 권66, 영조 23년(1747), 12월 22일(무인)

⁹ 김상로의 묘관련 역사적 기록은 영조대 지평(持平) 임명주(任命周)의 상소다. 『실록』에는 1747년(영조 23)에 이조참판 김상로가 수원부사 정휘량에게 쌍부현에 있던 쌍창을 옮기고 쌍부산을 장지로 삼았다. 이에 김취로가 1740년에 죽자 이장한다. 묘비 대신 상석에 피장자를 밝히고(석봉체집자) 둘레석과 석양, 망주석 한 쌍을 갖춘 영·정조 시기 유행한 형식의 묘이다. 김상로의 묘는 둘레석만 둘렀었다. - 이병권, 「김상로 이야기」, 『문화의 뜻』 86(화성 문화원), 2019, 10~15쪽

¹⁰ ‘지역향토사 흥천산봉수’ (<http://blog.daum.net/ilovepk/6>)

였다. 쌍봉산은 이름난 승지⁸로 남쪽 구릉에는 일찍이 김상로의 형 김취로의 묘가 있고, 나중에 김상로가 원쪽 구릉에 묻혔다. 현재는 김취로와 증손 김숙연 묘(아래), 김상로와 아들 김치양, 치영의 묘⁹ 등이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왕림마을에 있는 아버지 김유 묘역으로 이장(2017.6.17)되었다.

또 다른 삼괴의 유래는 ‘괴’자의 뜻인 느티나무로 ‘세 그루의 괴목’ 설이다. 지역에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장안면 어은리(3·1운동 당시 장안면사무소 위치)와 금의리, 우정읍 화산리(3·1운동 당시 우정면사무소 위치)에 있어서 삼괴라고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령 500년이 넘은 느티나무가 금의리(255-2 / 경기-화성-24)와 독정리 찬우물에 400년 넘은 느티나무(1148 / 경기-화성-27)와 노진리에 500년이 넘은 느티나무(97-2 / 경기-화성-25)가 있다.

지역의 중요한 관방유적은 옛 쌍부현의 폐 관아지로 추정되는 조암리의 낡은 아실이 있고 김상로가 옮긴 조창인 쌍부창(쌍창)이 멱우리 창말로 전한다. 이러한 유래와 달리 실제 눈으로 확인되는 관방유적은 흥천산봉수(興天山烽燧)이다. 우정읍 화산리의 야트막한 산이 있는데, 원래는 흥천산이지만 봉수가 있어서 주민들이 봉화가 있는 산이라고 하여 봉화산이다. 현재 두레자연중고등학교로 해서 완만한 봉화산을 오르면 중심부에 6기의 크고 작은 연대(망루 겸함)와 연조(불 피워 신호하는 시설)가 남아 있다.¹⁰ 이 밖에 지역에는 다양한 동족촌이 있다. 1957년도 발간된 『경기도지』 집성촌 조사에 따르면 우정읍 청주 한씨(운평



쌍봉산 전경. 오른쪽 봉우리 아래에 김상로의 묘다.

리 176호), 여산 송씨(화수리 140호), 전주 이씨(매향리 137호), 탐진 최씨(석천리 69호), 장안면 경주 이씨(어은리 74), 남평 문씨(노진리 63호) 등 대성뿐 아니라 지역 속성이자 토착화한 수성 최씨(장안면 독정리 36호, 우정읍 조암리 95호), 해풍 김씨(우정읍 화산리 79호), 수원 백씨(장안면 수촌리 24호, 우정읍 석천리 26호) 등이 대표적이다.

삼괴 지역은 지형적으로 서해안에 돌출된 반도다. 북쪽이 지금은 화홍방조제로 막혀 있는 만이고 남쪽은 간척된 어은천의 하구로 우정읍 운평리와 한각리에서 조암리에 이르렀던 만과 발안천의 하구로, 1974년 완공된 분향만의 남양호(남양방조제)가 있다. 삼괴 지역은 3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서 삼괴반도, 화수반도, 조암반도 등 시기에 따라 지명을 달리했다. 이러한 자연적 조건으로 일찍부터 어살 같은 정치어업(定置漁業)과 전통 염업이 발달하였다.

“부 서쪽에 있는 문판현(文板峴)을 지나 서쪽으로 바닷가에서 그쳤다. 충청도 당진(唐津)과의 사이에 작은 바다가 있을 뿐이어서 매우 가까우며 밀물 썰물이 통한다. 지세는 좌우로 개와 포구를 끼고서 곧바로 바다로 들어간다. 수백 호나 되는 소금 굽는 집이 남북 바닷가에 별처럼 팔려 있다.” – 『택리지(擇里志)』 수원부¹¹

¹¹ 이문종, 『이종환과 택리지』 (도서출판 아라), 2014, 261~262쪽

¹² 도량 내고 밭 옮겨서 방조제를 쌓으면 소금기 줄어들어 벼가 자라 풍성하리. 새로 취락 조성하여 주거를 정돈하고, 농기구를 활용하면 잡초 걱정 없으리. 그 누가 이 산천에 남김없이 이익 주어 풀 무성한 저 평원 버리지 않게 할까. 푸른 바다 뽕밭으로 쉬 바꿀 수 있나니, 백성에게 좋은 계책 말해 주려 하노라.(穿渠移圃築防潮 鹹減禾生盡 沃饒 聚落仍成居井井 鋤耰何患莠驕驕 誰教山澤無遺利 可見平蕪免浪拋 碧海桑田容易變 良謀輸與訪芻蕘) – 『성호전집(星湖全集)』 권4, 시(詩) 화포잡영(花浦雜詠) 17수(首)

별처럼 묘사된 지역의 염업은 서해안의 보편적인 제염 과정인 전오제염(煎熬製鹽)이다. 바닷물을 끓여서 만드는 전오염, 화염(火鹽), 혹은 자염(煮鹽)이라 부른다. 자염은 일제에 의해 천일염전이 조성되기 전까지 생산되던 전래소금이다. 염전이 별처럼 깔린 지역에서 커다란 변화가 시작된 것은 조선 후기부터 이루어진 간척 때문이다. 이웃한 안산 첨성촌(瞻星村)의 실학자 이익(李灝, 1681~1763)은 「해거방축(海居防築)」 이란 시를 써서 간척사업을 통한 농지 확장을 노래하였듯¹² 삼괴 지역에서도 간사지 개간이 활발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조선 후기 편찬된 『수원군읍지』와 『화성지』에는 우정면에 손항제와 여외지제라

¹³ 손항제(孫項堤) 부의 남쪽 80리 우정면에 있다. 김관 1인, 감고 1명이 있다. 길이 367척, 넓이 327척, 높이 3척, 두께 3척, 수심 1척6촌, 수문 2곳, 몽리답(蒙利畠) 15석락(石落)지기이다. 여외지제(如外池堤) 부의 남쪽 80리 우정면에 있다. 김관 1인, 감고 1명이 있다. 길이 543척, 넓이 274척, 높이 3척, 두께 3척, 수심 2척5촌, 수문 2곳, 몽리답 12석락 지기이다. -화성시, 「국역 수원부(군)·남양부(군)읍지」, 「화성시역사자료총서』1(화성시), 2006, 31,153쪽

¹⁴ 화성시, 「뿌리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 흔들리니」, 『화성시의 고문헌』Ⅶ(화성시), 2013, 69쪽

는 제언이 확인된다.¹³ 그리고 삼정승 이정구는 이화리, 정태화는 호곡리, 김상로는 조암리에 각각 전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전장은 현재는 주변 지역이 오래전에 간척이 이루어져 해안가 풍경을 상상하기 어렵지만 실제로는 조수간만의 차가 큰 경기만에 면한 서해안의 궁벽한 해변이었다.

찬우물마을은 조선시대까지 바닷물이 마을 맞은 편 염장산(鹽鄭山, 덕다리) 안쪽까지 들어왔고 점차 간척을 통해 농경지가 되었다. 염장산의 이름도 수성 최씨 조상들이 바다막이를 예상하고 '짠물을 막는다'는 의미로 지었다고 전한다. 1895년에 제작된 한말 지도와 1914년 일제 강점기에 편찬된 지도에는 마을 안쪽이 간척된 지 오래라는 것이 확인된다. 아직은 막지 않아 간사지로 펼쳐진 분향만 안쪽으로 해안가를 따라 방죽을 쌓아 만든 농경지가 즐비하다. 간척과 개간이 활발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만든 논을 '방죽논' 또는 '해답(海沓)'이라 하는데, 찬우물마을 주변 논의 이름이 지금도 '시논(신연新堰)', '독정개' 등으로 불린다. '시논'은 새로 만든 물막이 방죽이고, '독정개'는 독정리에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개흙이 농경지로 변하여 불린 이름이다. 찬우물마을 수성 최씨 입향조인 최함(崔涵, 1531~?)의 정착과 한풍군 최옹일(崔應一)의 사패(賜牌)는 일찍부터 마을 가까이 있는 간사지들이 이 집안을 통해서 개간된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조선 후기에는 벼슬이 막



삼괴 지역 1895년 한말 지도



1914년 일제강점기 지도¹⁴

한 사대부들까지도 해안가 진전 개발에 적극 나섰다. 간척은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 더욱 활발하여 특히 민원(民怨)이 적지 않아 결국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원인도 되었다. 주민들이 일제의 강압으로 삶터인 간사지로 메우고 농토를 만들었지만 대부분은 일제 부호의 차지로 주민들은 소작농이 되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자작농이 되며 형편이 나아져 100호까지 늘었다.

염장산 아래 최함 종가



II. 본론

1. 찬우물마을의 시작과 변화

1) 찬우물마을의 유래

찬우물이 속한 독정리는 여러 자연 마을을 묶은 행정리로 유래는 '독쟁'이다. '독'자는 '항아리 독(篤)'으로 수성 최씨 최함이 이주하기 전에 구(求)씨들이 독을 구우며 처음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정(井)'은 최함이 발견한 찬우물(한천, 寒泉)에서 유래한 것이다. 1600년경에 발간된 『수성 최씨 대동보』에는 독정리(篤井里)로 표기되었고, 이후 약 400년 이상



근너(건너)말에서 본
찬우물마을

된 느티나무가 큰 정자를 이루어 1774년(영조39년) 수원부 수류면 독정리(篤亭里)로 바꾸게 되었다. 1895년(고종32년) 남양군 장안면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독쟁이(한천), 벼섭말(신촌, 薪村), 이천 서씨 집성촌, 거목골(감북, 甘墨), 단양 우씨 집성촌을 합쳐 수원군 장안면 독정리가 되었다. 2010년 새 주소를 지을 때 독정1리 찬우물마을 내 도로명 주소를 한천(찬우물)1.2.3.4길로 바꾸어 한천이 새 주소가 되었다.

본격적으로 마을이 형성되는 것은 조선 중기 수성 최씨 최함이 찬우물을 발견하면서부터다. 최함은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독지골에서 태어나 1567년(선조 즉위) 37세 때 생원(3등 16위)이 되고 통정대부 형조 참의에 올랐다. 한양서 살다가 찬우물로 이주하면서 호도 샘 이름을 따서 한천으로 지었다. 이때부터 수성 최씨의 세거가 이루어졌다. 여기에 1740년(영조16년)경에 박식한 청송 심씨 안효공파 심인수(沈仁壽)가 처가 입향하여 수많은 후학을 길러내었다. 근너말 느티나무 옆 구릉에 묘와 재실(선산)이 있다. 1800년대 말에는 전주 이씨, 해주 오씨 등이 들어왔다.



심인수 묘

전통 마을이 입지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식수인 '물'의 확보다.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마을의 이름에 물을 뜻하는 이름이 흔하다. 독정리 찬우물은 한자로 한천(寒泉)으로 쓰는데, 수도권 찬우물마을은 대개는 샘 '천(泉)'이 아닌 우물 '정(井)'을 쓰고 있다. 고양시 갈현동의 찬우물, 과천시 갈현동, 시흥시의 은행동, 안양시 안양5동, 강화도의 찬우물 등 많다. 사실 샘이나 우물을 뜻하는 한자를 쓰는 것(음차)이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독정리 찬우물은 샘을 뜻하는 한자를 쓰는 마을이다. 찬우물은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고, 오히려 샘이 너무 솟구쳐서 모래가 올라와 물을 먹을 수 없어 돌로 샘구멍을 약간 막았다는 설도 있다. 이렇게 중요한 자원인 찬우물은 상수도가 보급되기 전까지 중요 식수원이자 공동 빨래터로 이용되었다. 세시풍속으로 우물고사도 지냈다. 이후 상수도의 확대로 외면되다 최근에 다시 관리되고 있다. 그래도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것과 농업용수나 가끔 우물고사를 하는 것은 우물 관리에서 뚜렷이 차이가 난다. 우리네 한옥도 사람이 살아야 집이 윤기 나고 튼튼하듯 우물도 사람의

15 조선시대 인구를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매 호(戸) 단위로 제출되는 호구단자를 기초로 호구 대장을 작성했다. 호주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유력한 가문에서는 마을의 담당자에게 대신 작성해 하거나 글을 모르는 사람은 서사원에게 돈을 주고 대신 쓰게 했다. 특히 과거에 보거나 소송을 위해 신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에 증빙을 요청하는데, 이때 관에서 보관돼 있는 호구 대장을 베껴 발급해 주는 문서가 준호구이다. 준호구의 구성은 발급시기(중국 연호), 발급기관, 대조한 호적 대장, 호주의 정보, 가족의 정보, 노비 명단, 발급기관장의 직임 및 사인이 기재, 발급기관의 관인, 주협무개인(0 부분에 수정한 글자 수를 기재), 호주의 정보(거주지 면, 리, 퉁, 호, 지역 유학, 한량, 관직명 등, 이름, 나이, 생년, 본관, 4조와 외조의 직역과 이를 기재), 가족 정보(어머니 성씨, 나이, 생년, 본관, 부인 성씨, 나이, 생년, 본관, 4조, 동생과 자식들 이름, 나이, 생년 기록), 노비 명단(술노비, 외거노비, 도망노비 이름, 나이, 생년, 부모 신분과 이름 기재), 문서의 내용이 끝나는 곳에 발급 책임자의 직임을 쓰고 밑에 발급 책임자의 사인이 기재된다. 사인은 직접 하기도 하지만 도장에 사인의 모양을 새겨 찍기도 한다.- 화성시,『기분 좋은 변화 행복화성』1월호(화성시청), 2020.01, 10쪽

숨결로 보존되는 것이다.

2) 찬우물마을의 수성 최씨

찬우물마을은 수성 최씨가 주요 성씨인 동족 마을이다. 최근 화성시 조사에서 준호구(準戶口)¹⁵를 정리하면서 수성 최씨의 사회경제적 변화 과정이 상세히 파악되었다. 화성시는 수성 최씨의 본향으로 시조 묘가 화성시 매송면에 있다. 시조 최영규 이래 700년을 내려온 수성 최씨는 『세종실록』 지리지 수원도호부의 토성에서 ‘원최(原崔)’, ‘본최(本崔)’로 불린 효자 최루백을 배출한 수원 최씨와 구분되는 ‘내최(來崔)’이다. 원래 김씨로 최씨를 사성받았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 『화성지』 인물 조에는 최영규가 신라 경순왕의 후예로 고려 현종의 외손인데 수성백에 봉해지고 최씨 성을 받아 수원 최씨의 비조로 나온다. 이후 3세 종부령공파로 분파하고 이어 6세 최이기(崔李起)를 파조로 하는 한림공파가 삼고 지역에서 집성촌을 이루어 세거한다. 특히 최이기는 공양왕 때 사헌부 지평을 역임한 이원집(인천 이씨)의 딸과 혼인하여 하령(遐齡), 억령(億齡), 만령(萬齡), 천령(千齡), 백령(百齡), 영령(永齡), 석령(碩齡), 익령(益齡) 등 8명의 아들과 감사 흥행로에 출가한 딸 1명을 두어 번창하였다. 막내 익령이 진사를 지낸 진사공으로 삼고 지역의 중손인 10세 최순(崔淳)을 시조로 하는 마산종중(우정읍)과 찬우물마을은 동생 최함을 파조로 하는 ‘수성 최씨 한천공파 독정종중’이다. 독정종중은 14세에서 소종중인 ‘대원공파독정종중’, ‘건관공파독정종중’, ‘통정공파독정종중’, ‘정공파독정종중’으로 나뉜다.

찬우물 북동쪽 큰동산(대원산)에 독정종중 종손가(대원공파) 파조 최진(崔璡, 1630~1710)의 묘가 가장 위에 자리한다. 그는 강희 48년(1709) 9월 30일 나이 80세가 되자 상언하여 문반 독정종중 세계도¹⁶ 정3품 당하관에 임명(고신)될 정도로 장수하였다. 묘 아래 세대에 맞춰 후손들의 묘가 자리하고 있다. 독정종중 종손가는 최함 이래 11세 최경직의 증손 14세 최진과 최숙(崔淑, 1659~1698)부터 21세 최창래(崔昌來,



독정종중 세계도
화성시, 「뿌리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 흔들리니」,
『화성시의 고문현』VII(화성시),
2013, 57쪽



최진 묘

1844~1909)에 이르기까지의 집안 내력과 경제력 등을 밝힌 오늘날 주민 등록등본과 같은 준호구를 남겨 집안의 200년 변화상을 알려준다. 제일 오래된 준호구는 최진의 동생 최숙의 준호구이다. 최창래에 이르기까지의 준호구는 최진의 후손들이다. 최진부터는 과거 급제를 못하지만 경제적 기반으로 향반으로서 가세를 이어간 것을 알 수 있다. 준호구 모두를 다루지는 못하고 최진과 최형래의 준호구를 살펴본다.

16 재질: 종이 - 저지
크기: 가로 62cm, 세로 55cm
소장품번호 화성향토박물관 1538

최진의 준호구¹⁶는 현재까지 화성시에서 발굴된 가장 오래된 준호구인 최숙의 준호구보다 늦지만 종중에서 가장 어른인 최진의 첫 번째 준호구이다. 이러한 고문서 15건은 2019년 10월 화성시 유형문화재 제19호로 지정되었다. 대부분이 준호구로 관찬사료에 없고 족보 외에는 확인할 수 없는 인물들의 가족 관계와 노비 소유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지역사에서 매우 유익한 자료다. 최진의 준호구는 앞 부분이 떨어져 나가 발급 시기와 호주에 대한 정보가 없지만 생년이 신사생, 즉 인조 19년(1641)인 부인 안씨의 나이가 38세인 것에서 최진이 숙종 4년(1678)에 발급받은 준호구임을 알 수 있다. 호주 최진(49세, 경오생)의 4조 중에서 부의 기록은 떨어졌고 조부인 계공랑 예빈시 직장 기, 증조 통



최진 준호구



최형래 준호구

훈대부(군자감)첨정 경직, 외조 충의위 박흔(본 금성)이 확인된다. 가족으로는 부인 죽산 안씨(4조 기록)와 아들 태준(12세, 정미생), 차준(6세, 계축생)이 함께 산다. 노비질은 솔노비 노 3구와 비 5구, 외거노비로 수원에 사는 노 8구와 비 2구와 매득한 비 1구 및 그녀의 아들 3구, 딸 1구, 용인에 사는 노 1구, 수원읍내에 사는 비 1구, 용인에 사는 노 5구와 비 6구 등 총 36구와 도망비 3구가 기재되어 있다. 행도호부사의 서압과 관인 11과가 담인되어 있으며 5개의 글자를 고쳤다는 표시로 주협오자개인이 찍혀 있다.

¹⁷ 재질: 종이 - 저지
크기: 가로 44cm, 세로 46cm
소장품번호 화성향토박물관
1546

최형래의 준호구¹⁷는 동치 10년(1871)에 수원부 장안면에 거주하고 27세 갑진생, 유학이다. 부 학생 두영, 조 양진, 증조 경증, 외조 안정감(본 안홍)과 부인 음성 박씨(26세, 을묘생) 및 박씨의 4조가 기록되어 있으며 노비질은 없다. 유수와 판관의 서압과 관인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초안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1676년(숙종2)부터 1871년(고종8)에 이르기까지 준호구에는 종손가의 다음과 같은 특성이 나타난다. 종손가는 결혼한 형제 및 조카까지 함께 사는 대가족이었다. 아들 내외는 물론 출가한 딸과 사위(최진의 사

위 통덕랑 임최(任最), 31세, 을묘생, 본 장홍)도 같이 살았고 동생 내외(최수태 동생 최태화, 죽산 박씨)가 죽었지만 결혼한 조카 내외(최건, 전주 최씨)와 함께 살았다. 그리고 세 차례 거주지도 옮겨, 1690년(숙종16) 이후 수류면(水流面), 지금의 장안면에 살다가 최안석이 1804년(순조4) 장족면 매단리(長足面梅吞里, 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로 이사하고 최안석의 아들 최두영은 화성 유수부를 떠나 1849년(현종15) 광주부 돌마면 하동(突馬面下洞, 현 성남시 분당구)으로 이사하였다가 아들 최형래가 1871년(고종8)에 다시 장안면으로 돌아왔다.

또한 집안에는 많은 노비를 보유하였다. 1678년 36구였던 노비는 1705년 96구까지 늘었다. 함께 사는 솔노비가 10구인데 수원, 지평, 이산, 정산, 청주, 합천, 남포 등 각지에 거주하는 외거노비가 86구에 달했다. 1705년을 기점으로 노비의 수가 점차 감소하다가 1864년 비 1구를 끝으로 1871년에는 노비가 없다. 조선 후기에는 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상승하면서 조선 전기에 비해 노비의 가치가 많이 하락하고, 많은 도망노비들이 발생하는 등 각지에 흩어져 있는 노비의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¹⁸ 최진의 준호구에도 도망노비가 3구에 달한다.

¹⁸ 화성시,『기분 좋은 변화 행 복화성』1월호(화성시청), 2020.01 10~11쪽

2. 찬우물마을의 전통

1) 마을 조직과 찬우물, 느티나무 고사

마을의 중요한 전통은 마을 대동회(대동회)와 의무계, 그리고 우물고사 및 느티나무 고사다. 대동회는 리세 혹은 이장세를 견어 이장에게 한 해 수고비를 주는 마을회다. 의무계는 사촌 또는 사춘계로 불린 상계(喪契)로 해방 이후 결성되었다. 마을에서 과거 느티나무 고사는 대개 소 한 마리를 잡았다. 고사의 형식은 특별한 것이 없이 제물을 올려놓고 남자들이 제사를 지낸다. 그리고 나서 고기를 집집마다 나누어 먹었다. 소를 잡으면 찬우물에도 함께 고사를 지냈다. 찬우물은 유일한

식수이자 생활 용수였기에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곳이고 수성 죄씨 주민들에게는 입향조와 관련된 장소이기 때문이다. 보통 우물고사는 음력 칠석 즈음에 지내는데 경기도 일대에 전래한 일반적인 풍습이다. 마을에 수도가 들어오고 우물의 쓰임이 줄면서 우물고사를 지내지 않다가 2012년 정화사업으로 우물 주변을 새로 단장하고 쉼터로 꾸미면서 한동안 단절되었던 우물고사와 느티나무 고사를 지낸다.

느티나무(산283번지)



찬우물(한천, 894번지)



2) 진무공신(振武功臣) 최응일(崔應一)

화성 지역에는 저마다 특성을 가진 대족이 있는데, 남양을 본관으로 하는 홍씨 당홍과 토흥의 명문과 아울러 매송면 야목리를 근거지로 하는 애국지사 조문기를 배출한 ‘들목 조씨(張氏)’, 어천리의 정조대 실학자 우하영을 배출한 단양 우씨 등 선비의 전통을 잇는 가문도 있지만 화성시는 오랫동안 수원에 속한 지역으로 수원 사람의 속성은 다음과 같다.

“수원은 본디 무향이다.(水原本武鄉)” –『효종실록(孝宗實錄)』

효종4년 2월 23일“농사에 열심이며 활쏘기에 능하다.”

–『동국여지지(東國輿地誌)』 수원도 호부 편

“무예를 좋아하고 인심은 질박하며 글이 짧고 밭농사를 주로 한다(好武技人心多質小文而好田作)” –『수원부읍지(水原府邑誌)』 풍속 편¹⁹

¹⁹ 『수원부읍지』는 편찬 시기 미상이나 부사선생안 “부사 이경무(李敬懋) 무반 임자 정조 16, 1792 정월 일 제배. 계축 정조 17, 1793 정월 일 형조판서로 이배”가 나와 시기를 정조대로 추정한다.

이러한 수원의 속성을 대표하는 우정, 장안면을 본거지로 하는 가문은 해풍 김씨 남양쌍부파와 연안 차씨, 그리고 수성 죄씨이다. 해풍 김씨 남양쌍부파는 우정읍 화산리 일원동에 세거한다. 특히 조선 중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무반에 진출하였는데 삼괴 지역 3·1운동 순절자인 김연방(金然昉, 1881~1919) 지사의 직계 조상인 선조대 여진정벌 선봉장 북우후 김우추가 7대조, 5대조 김영(金煥, 1772~1850)은 현종대 포도대장을 역임했고 향남 지역에서 그의 묘가 일명 '장군총'이라고 불러 종가는 '김대장댁', '김대감댁'으로 불렸다. 김연방도 선전관으로 대한제국 시종원 시정분시경(시어)이 되어 광무황제를 보좌하였다. 연안 차씨는 3·1운동을 주도한 차희식, 차병혁, 차병한, 차인범, 차경규 지사의 가문으로 세조 때 이시애의 난으로 순절하여 삼강행실 도에도 실린 차운혁의 묘가 있는 석포리 '벼들 차씨'이다.(정남면 패랑리 '남산밀 차씨' 일족)

이러한 쟁쟁한 집안들 사이에서 찬우물 수성 최씨를 대표하는 무신은 바로 진무공신으로 한풍군에 진봉된 최응일(崔應一, 1578~1651)이다. 자는 여순(汝純). 가계는 수성 최씨 시조 최영규의 6세손 한림공파의 시조 최이기(崔李起)의 여덟 아들 중 문과 급제자인 7자 석령(碩齡)을 소조로 그 아들이 고조부 림(林, 진사로 우봉현감 역임), 증조부 수손(守孫), 조부 곤(坤), 아버지 경립(敬立)으로 이어진다. 최응일의 묘가 있는 독정리는 수성 최씨 한림공파 진사공파의 오랜 세거지다. 일찍이 익령(장안)에 어운리 남산에 묘가 있음)이 후사를 뜻이어 석령의 둘째 아들 최표(標)를 계자로 보냈다. 최응일이 정림(正林, 정남면의 옛 지명)종중에 속하나 찬우물의 익령의 후손들은 조부 석령의 혈손들이다. 정림종중은 석령가 후손들이 이곳에서 살다 14세 최두추가 정남면 제기리에 선영을 만들고 살면서 꾸려졌다. 그리고 한림공파에서 최서(5자 백령[百齡]의 차자)와 함께 첫 번째 문과 급제자인 최석령의 묘는 최응일 묘 서쪽 구릉에 있다.

1624년(인조2) 이괄이 인조반정에 대한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키자 평안도 강동현감 최응일이 평양으로 가서 향도장(響導將)을 맡아 무악재 전투에서 중견사(中堅使)로 전투에 참여하였다. 정충신, 유효걸, 이희건, 김경운, 조시준, 신경원 등과 고개 위에 먼저 진을 치고 역당들을 진압하며, 공을 세운다. 이로 인해 인조 2년 3월 진무공신 3등, 한 자급이 오르는 상을 받았다.²⁰ 1628년 특명으로 가자되어 종 2품 가선대부가 되고²¹ 그해 11월 한풍군(漢豐君)에 봉해졌다. 이후 효종대 『승정원일기』에 금송에 대한 상소(1649), 반숙마 1필을 하사 받는(1650) 등 조정 중심으로 국정에 꾸준히 참여하였다. 현달한 최응일이 지역에서 존중되면서 전설이 전하는데, 병자호란이 나자 인조를 호종하여 남한산성에 피신하다 적당에 팔이 잘리어 죽게 되자 효종이 감사의 표시로 마을을 방문하여 ‘정상머리’라 불리는 곳에서 장례를 지켜보고 묘가 있는 곳을 ‘능우산(능머루)’으로 부르게 했다는 전설이다. 효종대 죽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나 그의 무훈이 돋보이는 전설이다.

이러한 최응일에 대한 중요 포털 검색에서는 수성 최씨가 아니라

전주 최씨로 소개되고 있다. 내용 출처는 전라북도 『임실군사』이다. 여러 사료를 살펴보니 임실의 최응일은 문과 전통의 전주 최씨로 무과로 입신한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찬우물 최응일은 무과로 입신하여 외직에서 난리통에 공을 세워 공신이 된 사람이다. 아마도 『임실군사』를 정리할 때, 공신조서에 본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없어서 임실의 최응일의 공적으로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최응일은 수원을 본관으로 하는 수성 최씨로 수원 사람이자 수원에서 살았다. 현재 독정리 908번지가 아버지와 그가 살았던 곳이라고 전하며 묘도 수원부였던 화성시 장안면 독정1리 능우산(능머루)에 있다. 더욱이 『수원부읍지』 인물 조에 수원의 인물이자 무과급제자로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응일에 대한 인터넷 인물 검색 내용 등은 문과인 전주 최씨 최응일을 진무공신과 한풍군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하루 속히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한풍군 최응일 묘



3) 열부 최경증 처 경주 정씨(慶州 鄭氏)

경주 정씨는 통덕랑 정경장(鄭綱章)의 막내딸로 조(祖)는 증 호참(贈戶參) 정유성(鄭惟聖), 증조는 참찬관을 지낸 정자경(鄭自慶), 외조(外祖)는 원시혁(元時赫, 본 원주)이다. 영조 34년(1758) 종손인 최경증(崔景曾, 1739~1770, 자 백효(伯孝)과 혼인하였다. 최경증이 병이 들자 정성스레 간병을 하지

²⁰ 『인조실록』 권5, 인조 2년(1624) 3월 8일 임술, 「교갈성분위진무공신통장대부 행강동현감최응일서(敎噶誠奮威振武功臣通政大夫行江東縣監崔應一書)」

²¹ 『인조실록』 권19, 인조 6년(1628) 9월 26일 계미

만 끝내 사망하자 정씨는 며칠 동안 아무 것도 먹지 않고 남편을 따라 죽으려하였다. 시아버지 최도원(崔道源, 1723~1789)은 젖먹이 손녀를 안고 타이르길

“이 아이를 보거라. 네 남편의 분신이다. 네가 죽는다면 이 아이는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것이니, 제가 죽는 것이 어찌 살아서 이 아이를 돌보아 너의 죽은 남편이 세상에 자신의 분신을 남길 수 있게 하는 것과 같겠느냐? 죽은 사람의 넋이 구원에서 이 사실을 안다면 반드시 너에게 바라는 것이 있을 것이니 너는 그것을 생각하거라.”

라고 설득하자 정씨가 슬퍼하면서도 감동하여 울며,

“존엄하신 아버님께서 말씀을 이와 같이 간곡하게 거듭하시고, 죽은 남편을 위해 후손을 남기는 것은, 대의로 보면 남녀가 비록 같지 않으나, 감히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 아이로 하여금 모진 목숨을 힘겹게 이어가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곧바로 물을 가져와 억지로 마셨다. 이렇게 최도원의 만류로 자결을 포기하였지만 영조 50년(1774) 4월, 딸아이마저 병이 들어 죽고 말았다.

“슬프구나, 아가야. 나의 박절한 명이 하늘에 죄를 얻고서도 경인년 네 아버지가 죽던 날에 차마 죽지 못한 것은 너를 보살펴 죽은 네 아버지의 분신이라도 남기기를 바라서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돌보지 못함을 일찌감치 알았다면 무엇 하러 지금까지 살아서 네 아버지가 저승의 외로운 넋이 되게 하였겠느냐? 네가 이제 죽었으니 나도 너의 아버지를 따라 가련다.”

하고는 경주 정씨가 약을 마시고 자결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수원부의 이식(李植), 홍술행(洪述行) 등 유학(幼學) 24명과 김희설(金希說) 등 진사(進士) 38명, 총 62명의 유림들은 10월에 연명(聯名)하여 수원부사에게 정씨 부인의 열행(烈行)에 대한 포상을 내려 달라는 청원서를 올렸다. 그러나 문중이나 마을에 정려(旌閭) 관련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끝내 국가로부터 포상을 받지 못하였다. 경주 정씨 묘는 최경증과 합장되어 장안면 대로리곡(大老里谷, 현 독정리 대원산)에 있다. 유물로 위 유림들의 연명 단자(單子) 1건이 남아 있다.²²

열부 최경증 처 경주 정씨
(慶州 鄭氏)



4) 3·1운동에 나선 독정리 주민들과 구장 최건환

“4월 3일, 폭민 약 1000명이 장안·우정 양면사무소를 파괴해 서류 전부를 소각, 폐기해 면장을 데리고 갔다. 한층 더 그 수가 증가해 약 2000명이 되어 화수경찰관주재소(내지인 순경 1명, 조선인 순경보 3명)(수원 서남쪽 8리)를 덮쳐, 가와바타 순경이 발포해 항거했지만, 총알이 떨어져 마지막에는 참살되어 그 순경의 시체는 51개소의 흉터를 남겨, 이비(귀와 코)를 깎아 음구(陰具)를 절단하는 등, 잔혹을 가해 게다가 주재소에 방화 병기를 탈취해 그 지역을 떠났다.”²³

1919년 4월 3일 아침부터 각 동리 구장들은 마을 사환을 시켜 주

23 「경기도 수원 안성지방 특별검 거반의 행동」,『독립운동가자료 기타보고서』, 대정(大正) 8년 (1919년 9월)

민을 동원하고 봉동이를 준비시켜 공세적 시위 계획으로 시위에 들어간다. 주곡리의 차희식, 김홍식, 장소진, 장순명 등이 오전 8시경 “각 집집마다 1명 이상씩 나오라. 만약 나오지 않으면 집에는 방화하고 가족은 타살한다”고 외쳤다. 석포리 구장 차병한은 엄성구를 시켜 “주곡리의 차봉습(희식)이 많은 동민을 데리고 장안면사무소로 몰려간다”, “자기 마을에서도 가기로 하였으니 각 동민에게 빠짐없이 전달해 달라”고 하여 사환이 북을 쳐 주민을 모았다. 수촌리에서는 구장 백낙렬이 사환 이원준과 정형영을, 금의리 구장 이해진은 김백천을, 장안리 구장 김준식은 박복룡을 시켜 주민들이 시위에 참여하라고 전달했다. 특히 독정리 구장 최건환은 사환 이고두쇠를 시켜 장안리 구장에게 면사무소와 주재소를 때려 부수니 봉동이를 들고 오도록 전달했다. 수촌리와 석포리, 주곡리에서 출발한 시위대가 오전 10시경에 장안면사무소에 도착했을 때는 가는 길에 주민이 더해져 200여 명이었다. 차병한, 차병혁이 장안면장 김현묵에게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선두에 서게 하여 만세를 불렀다. 다시 시위대가 쌍봉산으로 이동하고 남은 시위대가 장안면사무소와 문서, 집기류 등을 파괴, 불태웠다. 이어 쌍봉산에서 모여 만세를 부르고 화수리로 몰려가 화수리 주재소를 불태우고 주임순사 가와바타를 쳐단한 주민들은 일단 해산한 후 저녁을 먹고 남산에 모여 군대와의 회전에 대하여 상의하였다.²⁴ 이렇듯 삼파 지역 3·1운동에 독정리 구장 최건환과 주민들이 참여한 사실을 독정리 사환인 이고두쇠(李古斗釗)의 법정 진술로 알 수 있다.²⁵

²⁴ 국사편찬위원회,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9, 20, 1994

²⁵ 국사편찬위원회,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20, 1994, 「이고두쇠(李古斗釗) 증인조서」, 227쪽

이후 일제는 하세베(長谷部) 대위를 중심으로 특별검거반(현병경찰 9, 보병 5)을 편성하여 대규모 체포 및 소탕 작전을 벌여 1차로 수촌리를 방화하고 주민을 잡아갔으며, 4월 9일 대규모 시위 첨보에 따라 츠무라(津村憲美) 헌병특무조장(憲兵特務曹長)을 책임자로 하사 이하 6명, 경찰관 4명과 후루야(古屋) 수원경찰서장 이하 7명과 보병 15명 협력 아래 3개 반을 편성하여 오산과 우정·장안면이 있는 화수반도 일대에서 대대적인 검거를 벌였다. 이때 우정·장안면내 독정리 등 25개 마을을

²⁶ 수원군 우정·장안면 등지의 2천여 ‘폭민’들이 화수(花樹)리 순사(巡査) 주재소(駐在所)를 습격, 순사부장 가와바타 토요타로(川端豊太郎)을 살해한 것을 발단으로 일본군 안성(安城) 수비대장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제암(鐵岩)리로 가서 주민 20여 명을 살상하고 촌락 대부분을 불 질렀다.-일본육군성, 『조선(朝鮮)騷擾 경과(經過) 개요(概要)』, 대정(大正) 8년 (1919년 9월) : 연합뉴스기사, 1995년 2월 28일

²⁷ 2012년 - 나의독쟁이(<http://dokjangee.com/>)

포위하고, 204명의 시위 주민들이 체포되었다. 당시 검거반은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머리 상투와 상투를 뛰어 한 줄로 끌고 갔다. 특히 최중철(1931년생)은 선조인 최건환이 구장으로 항일 운동에 가담한 일로 일본 순사가 집에 들이닥쳐 불을 질렀다고 한다. 이후 일제는 제암리와 고주리에 아리타 도시오(有田俊夫)가 이끄는 분대 11명을 파견하여 학살을 이어갔다.²⁶

5) 마을지명 ‘독쟁이 한천(寒泉)마을의 소(小)지명 유래와 뜻’

주민 최원담(1949년생)의 조사 기록이다.²⁷ 최원담은 원로인 심상철, 최종옥, 최중철, 최충균, 최원호, 최효균, 최장균, 최덕균, 최봉균, 이재우, 이재창의 고증을 받았다. 찬우물 지명은 조상의 얼과 생활상과 애환,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 등 종합적인 지역 연구의 계기가 마련되길 바라며 조사한 자료다. 원 자료(음 등)를 최대한 살려서 아래 표로 정리하였다.

지명	위치	내용
아랫아림말(하촌下村)	898~915번지 일대	마을 제일 아래쪽 아랫말
큰말, 대기동(大基洞)	914~918번지 일대	가구가 제일 많은 반(집이 제일 많은 곳)
간다. 간덴. 가운데말, 중말(중촌中村)	919~923번지 일대	동내 가운데 중심에 있는 마을
사타. 새터말(신기동新基洞)	930~947번지 일대	새로 터를 잡아 살기 시작한 작은 마을
볶음. 복음말(복음동福音洞)	950~960번지 일대 교회가 있는 곳부터 봇당굴 까지	문현에 볶음, 복기동으로 기록되어 실제로 볶음말이란 교회를 뜻함 교회를 가리켜 볶음의 소리라고 함 (1947년 교회 생김)
문학, 문억-문어귀 (문어구門於口)	볶음말 위쪽부터 원뎅이 가는 길(950번지 일대)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 문턱 문어귀
봇당·불당굴(佛堂谷)	볶음말 위 골짜기에서 광고판 아래(949번지 일대)	불상을 모시던 당집이 있었음
광구·광고판(廣告阪)	독쟁이에서 버설말로 넘어가는 고개마루 독정리 삼거리(산32)	옛날 장안리, 독정리, 덕다리, 사랑리 사람들이 이곳으로 한양(서울) 가는 길이라 이곳에 방을 써 붙여 널리 알리는 곳
옹목골(龍目谷)	볶음말에서 문학을 지나면서 장안 가는 길 건너기전 오른쪽 (950-3-4번지 일대)	골짜기 생긴 형상이 용의 눈갈 같음

호랑바위, 호암(虎岩)	공동묘지 서쪽 장안 가는 길 옆	호랑이가 앓아 있는 모습과 흡사한 바위
원뎅이, 원데이, 원당곡 (院堂谷)	공동묘지 앞 골자기(340번지 일대)	무당이 살던 곳(당집)
독골(禿谷)	원뎅이 넘어 당골쪽	독을 굽는 곳. 돌이 많은 곳
고리장굴, 고려장골(高麗葬谷)	원뎅이 뒷산 공동묘지 동쪽 되박산 아래 골자기(370번지 일대)	고려 시대에 부모를 생매장 하던 곳. 백회로 네모지게 틀을 만들어 부모를 그곳에 가두고 몇 일분의 양식을 넣어 뚜껑을 봉하고 버려두던 곳. 지금도 흔적이 있음
되박산(升升)	고리장골 윗산(28번지 일대) 청대골 뒷산	산 모양이 곡식을 되는 되같이 생겼음
한삼재	되박산을 오르는 능선	미상
전등·전동·증등· 전통산(箭筒山)	장명초등학교 뒷산 독정리와 장안리 경계(산261번지 일대)	기록은 전통산(한국 지리 지명 장안면 편, 삼귀 지역에서 세 번째 높은 산 해발 87m). 일설에 능머루에 한풍군 묘를 쓸 때, 효종이 와서 묘가 정동쪽에 있다 하여 정동산이라 함
어리굴(아래어리굴), 윗어리굴, 오리굴(梧里谷)	용목골부터 지금의 양수장 있는 곳 까지(100번지 일대)	골짜기에 오동나무가 많이 자생함
여우벌떼기, 우불당(隅佛堂)	시논에서 큰터굴 학교가는 쪽 산(265)	산모퉁이에 당집이 있었음. 산의 형상이 여우의 불때기처럼 생김
시논, 신원(新源), 신언(新堰)	오리굴부터 독정개 사이 (1070번지 일대)	갯벌을 막아 새로이 논을 만듦(오래전 간척사업을 함)
부엌배미, 복배미	오리굴과 시논 사이에 장안리 사람들이 장에 다니는 길(1046)	논이 부엌 같이 작다는 뜻. 복이 있는 논
장태. 장터거리, 장대(場塹)	시논에서 장안리로 건너가는 길(지금은 길 없음)	옛날 말을 사고 팔던 마장(말장)이 섰던 곳이자 장안리 사람들에게 조암장을 가는 길
빈쟁이, 빈정(濱汀)	시논에서 덕다리 쪽 안산 아래(덕다리 450번지 일대)	물이 항상 많이 끼고 수령이 많고 둑과 하천이 논보다 높아 비가 많이 오면 터지고 침수가 잦음, 둑에 베드나무 군락 이름
절굴, 절골(사곡寺谷)	독정개 염장산 아래 골짜기 (덕다리 505)	조그마한 절이 있었음
염쟁이, 염장산(廉障山)	수성 최씨 독정중 종시조 한천공이 모셔져 있는 산 (덕다리 산67-1)	짠물이 들어오는 곳을 막는다는 뜻으로 덕다리 염장산 뿌리에서 장안리 쪽으로 원뚝을 막아 논을 만든 곳이 독정개. 원뚝을 만들기 전 500년 전부터 염장산이라 부름
독정개(篤井介)	덕다리 수령개까지 갯벌	독쟁이로부터 수령개 앞 갯벌(현재 논)
수령개, 개팔(갯벌)	덕다리 문화촌 마을 입구(옛 염전)	독정개에 속하는 갯벌로 갯 수령이 많아 수령개로 부름
쌍수문(雙水門)	덕다리 안산 아래 빈쟁이와 독정개 사이에 아주 큰 둑 사이	빈쟁이 골짜기에서 내려가는 물이 워낙 많아 수문 한 개로는 감당을 못해 수문 두 개를 나란히 묻어 쌍수문이라 함

막앞(幕)	시논과 독정개 사이 큰 둑	넓은 둑에 농막을 지어 쉬던 원두막
냉밀애(冷)	빈쟁이와 한작굴 사이(덕다리30)	산 밑에 논에서 항시 찬물이 솟음
웃우물, 웃약수	냉밀과 한작굴사이(덕다리35)	산 밑 논머리에 조그마한 옹달샘이 있었는데 웃 올린 사람이 샘에 가서 씻으면 나옴
인구밖, 수무통, 밖갓(咽口)	마을 앞 열 마지기 큰 논과 냉밀 사이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수문통으로 통과하는 바깥, 수문통이 입같이 넓음
방죽(芳竹)	찬우물 아래 원쪽으로 큰 둑, 장안,	큰뚝(내뚝). 둑에 대나무가 많이 있었음
도랑원(滔浪)	덕다리에서 독정개를 가는 길	
능머루(陵)	아래어리굴과 능머루사이	물이 많이 흐르는 넓은 도랑
능우산(陵隅), 응우산	(양수장자리 1745)	
능우산 아래 양수장 가는 길		응우산의 아래쪽 언덕길
말 파묻은 데, 말무덤(마묘馬墓)	방죽길 열 마지기 쪽에 넓은 공간	언덕으로 된 산 밑의 모퉁이를 돌아감. 능과 같이 큰 무덤이 있는 산. 정조대왕의 능자리를 잡아 놓아 응우산 이라 하는 설
무랑원(武浪)	찬우물 바로 아래 골짜기 논(1744)	찬우물에서 많은 물이 흘러 나와 물살이 빠르게 흘러 내려감
듬벙논, 웅덩배미	마을 앞 골짜기 제일 아랫논(984)	물이 항상 웅덩이 모양 병벙하게 고여 있는 논을 듬벙논 이라 함
쪽다리목, 족다리(족교足橋)	건너말로 가는 논들에 있는 조그마한 다리(972)	쪽나무로 만든 다리
건너말, 근너말	앞 논들 건너편 느티나무가 있는 마을(965)	마을 건너편 느티나무가 있는 주변에 집 몇 채가 있었음
괴정골(槐亭谷)	마을 앞 개울가 찬우물가는 초입(910)	지금 있는 느티나무보다 더 크고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던 곳을 괴정골이라 함
독점, 독점(禿店)	아랫말 뒷산(산291)	독을 굽다(찌다). 지금도 밭을 파면 항아리, 기왓장 파편이 나옴. 독쟁이의 유래
정상머리, 정상우(定上隅)	아랫말 동구 밖 마을 입구 상여집이 있던 곳	임금님이 머물다(좌정) 간. 1650년경에 한풍군이 죽자 효종이 머물다 갔다는 설(병자호란 때 한풍군이 인조를 업고 피신하다 칼에 팔이 잘린 것을 치하했다는 설)
한작굴, 한 장곡(汗長谷)	웃우물 윗쪽 덕다리 새랑개로 넘어가는 길(덕다리37)	땅이 물 빠짐이 좋지 않아 항상 땅이 질죽하여 땅을 질악땅이라 함
비행장(飛行場)	이끼내 부근에 큰 논 한작굴 가는 길목	논 바닥이 워낙 크고 넓어 비행장 같다 함

비선거리, 비석거리(碑石)	뒤골 할미골 건너편산, 새랭이 앞산(335-12)	산에 해풍 김씨네 묘가 있고 비석이 있음. 묘 위는 할아버지 아래는 할머니로 묘와 묘 사이에 항상 길이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두 분이 왕래해서 길이 높였다고 함
할미골, 한미곡(漢美谷)	뒷골 넘어(산304-1)	은하수가 초여름에 북쪽에서 뜨기 시작하니 북쪽인 이 골짜기에 아름다운 은하수가 처음 뜨는 곳. 할미가 외로이 혼자 살다가 죽음. 할미꽃처럼 굽은 골짜기
국(國)고개	하낙굴 지나 독정3리 뒷산 산을 넘으면 수촌리	나라님 즉 임금님이 넘으신 고개 한풍군 장례 때 효종이 넘었다는 고개
두리봉(斗里峰)	국고개와 하낙굴 중간 지점의 산봉우리(산19)	산봉우리가 모말과 같이 생김
하낙굴, 한양골(漢陽谷)	두리봉과 구리박 사이 산(310)	옛날에는 서울 한양 가는 길이 이곳밖에는 없어 효종도 이곳으로 온 국고개 골짜기
구리박에, 구리박곡(九里朴谷)	큰동주골과 하낙골사이 (산234)	아홉 가지의 약초를 재배 하던 곳. 동구박(마을 입구). 십리가 뜻되는 짧은 거리
큰동주골, 대동자곡, 동주골(童蛛)	마을 회관 앞에서부터 은혜원까지(803)	산에 나무를 벌레(승충이)가 잡아 먹어서 벌거벗은 붉은 산(자귀 나무는 벌레가 먹지를 않음). 덩치큰 아이가 살던 곳. 큰 골짜기
작은동주골, 소동자곡	간다말 위 골자기(산241-5, 862-10)	위와 같음
씨앗곡두머리(氏兒谷頭)	광고판 아래 암니뿔 사이 (산249)	곡씨 성을 가진 아이가 우두머리노릇 하며 살던 곳
암니뿔, 암리각(岩里角)	회관 뒷산(산250-1)	지금은 없지만 짐승뿔 같은 바위가 있었음. 툭 튀어나온 산자락
큰동산, 대동산, 대원산(大圓山)	회관 맞은 편 산(862-10)	수성 최씨 종시조 대원공 묘가 있는 산 벌거벗은 조금 큰 산. 오래전에 나무가 없는 민동산
뒷굴, 후곡	독쟁이 뒷산 넘어(863)	마을 뒷동산 넘어 골짜기
복골, 복곡(伏谷)	뒷골 윗산(산300)	많은 새들이 이산에 등지를 틀고 새끼 침
감투봉	전통산 중앙 장안 9리 당골 가는 초입의 봉우리	봉우리가 선비가 쓰던 감투를 닮음
하타굴, 활터굴, 궁기동(弓基洞)	동내 앞산아래 왼쪽 평평한 곳 (981-6)	과녁을 세워 놓고 큰 말쪽에서 선비들이 여가로 활을 쏘. 활 쏘는 위치는 큰 말(914, 908) 추정 914번지는 수성 최씨 종손이 13대를 산 곳. 908번지는 한남군과 한풍군이 300년 전 살던 곳
이끼내, 태천평(苔川坪)	독정교(다리) 독정천	구래왜길(내길) 이라하는 하천이 원래는 독정천. 하천에 이끼가 많이 끼어서 태천이며 이끼내라고 함 부근의 논을 이끼 태자를 써서 태천평이라 함
말무덤, 마장골(馬葬谷)	원당곡 원쪽 아래산 골자기 산속(산51)	조선시대 장안리에 말을 사육할 때, 말이 죽으면 이곳에 묻음

애기씨골	원당산 아래 건너편 산(산2)	애기씨꽃이 많이 자생. 애기씨가 살던 곳. 애기씨 무덤이 있던 곳
토성(土城), 성까귀	능머루 능우산으로 해서 앞산 건너말산 원뎅이 뒤박산까지	장안리에 말을 방목하는데 덕다리 쪽과 버섭말 쪽은 바다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말이 나갈 염려가 없지만 독쟁이 쪽은 할 수 없이 흙으로 성을 쌓아 말이 넘는 것을 막음
원당개, 원당포(院堂捕)	독정5리 고해 백봉산 앞 갯벌	1970년대 이전에는 바다갯벌로 원당곡 앞에 있다하여 원당개라 함
열단마지기(15)	오리굴과 시논 사이 큰 논(1062)	논 한배미가 약 2,500평쯤 되는 아주 큰 논

기몽고지, 기명곡(基明谷) 장명 초등학교 서쪽(장안리3045) 미상

IV. 맷음말

찬우물마을은 수성 최씨 최합이 찬우물을 발견하여 형성된 집성촌이다. 최근 준호구가 조사되어 최씨 가의 사회경제적 변화 과정을 자세히 알 수 있었다. 화성시는 수성 최씨의 본향으로 삼고 지역에서는 주요 지파인 한림공파 전사공파가 세거, 번성하였다. 특히 찬우물은 한천공파의 세거지다. 집안의 자랑으로는 이괄의 난을 진압하고 진무공신이 된 한풍군 최응일의 묘가 있다. 그리고 정려되지 않았지만 열부 경주 정씨와 우정·장안면의 3·1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구장 최건환과 주민들의 역사가 전한다. 이밖에 찬우물과 마찬가지로 마을의 상징인 수령 4백 년이 넘는 느티나무가 있어서 한때 단절되었지만 우물고사와 나무고사를 이어간다. 그리고 마을 주민이 마을과 주변에 대한 지명 조사를 하여 후세에 알리고 있다.

오늘날 찬우물마을은 수도권 개발로 마을 내 공장들이 입지한 농산복합지구다. 2020년 현재 주민은 총 49호, 이중 최씨 25호, 심씨 8호, 이씨 4호, 오씨 1호, 기타 11호다. 주요 경제생활은 농업으로 논 농사, 고추, 참깨, 고구마, 자두, 마늘, 양파, 감자, 옥수수, 오이, 알타리

1절: 역사 깊은 정자나무 앞에
다 두고 힘차게 자라나는 독정
리 청년아. 우-리의 힘으로 터
를 닦으며 우-리의 손으로 세
워 나가세. 대한의 유품이다 자
라는 독-정 장안의 표상이다
우리의 마을

2절: 유서 깊은 찬-우물 앞에다
두고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의
동민들. 우-리의 터전을 함께
가꾸며 우리의 힘으로 키워 나
가세. 화성의 모범이다 빛나는
독-정 후손의 자랑이다 우리의
고을

3절: 우뚝 솟은 앞-산의 정기를
받아 평생을 함께하는 영원한
주민들. 사-랑과 지혜를 한데
모아서 우리의 고향을 지켜 나
가세. 화성의 모범이다 빛나는
독-정 후손의 자랑이다 우리의
고향

후렴: 독정 그 이름 영원
하리라 삼고지방 독정리 길이
빛나리 - 나의독쟁이(<http://dokjangee.com/>)

무, 마늘콩 등을 재배한다. 이러한 마을의 소소한 정보는 마을 홈페이지 ‘나의독쟁이’(201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마을의 전통을 독쟁이동가²⁸를 통해 알린다. 1963년경 마을 재건 때 최진용과 이봉산이 노랫말을 짓고 이봉산이 곡을 불인 것을 2000년에 최원답이 발굴하여 마을교회 성가대에서 부르다 2011년 6월 마을회관(노인정, 보건소) 신축 개관식에 최원답이 가사 2, 3절을 추가 작사하고 독정3리 출신 임화성이 편곡하여 남상욱이 노래하였다.

화성시는 도농복합도시이자 가장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오늘날 화성시의 변모하는 과정에 대한 인식이 떨어진다. 이러한 화성시의 변화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마을이다. 자연 마을이 시대에 따라 변화되었던 역사적 과정은 화성시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데 중요하다. 최근 화성시는 도시 재생과 마을 만들기 등으로 지속 가능한 전환마을 사업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찬우물마을 조사와 자료의 정리 등은 미래 화성시의 가치에 대해 지역학적 기반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하다.

참고 문헌

- 『태조실록(太祖實錄)』
- 『정종실록(定宗實錄)』
- 『인조실록(仁祖實錄)』
- 『효종실록(孝宗實錄)』
- 『영조실록(英祖實錄)』
- 『수원부읍지(水原府邑誌)』
- 『성호전집(星湖全集)』
- 『청음집(淸陰集)』

『교갈성분위진무공신통정대부행강동현감최응일서(教竭誠奮威振武功臣通政大夫行江東縣監崔應一書)

『경기도 수원 안성지방 특별검거반의 행동』, 『독립운동가자료 기타보고서』, 대정(大正) 8년(1919년 9월)

일본육군성, 『조선(朝鮮)騷擾 경과(經過) 개요(概要)』, 대정(大正) 8년(1919년 9월)

국사편찬위원회,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9, 20, 1994
김선진, 「왜, 우정, 장안면을 삼고리 부르는가」, 『향토사료집1 화성의

얼』(화성문화원), 1996

이문종, 『이중환과 택리지』(도서출판 아라), 2014

이병권, 「김상로 이야기」, 『문화의뜰』 86(화성문화원), 2019

이종묵, 「조선중기-나아감과 물러남」 격물치지의 공간 이단상의
정관재」, 『조선의 문화공간』 3, 2006

화성시, 『기분 좋은 변화 행복화성』 1월호(화성시청), 2020.01

화성시, 「뿌리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 흔들리니」, 『화성시의
고문헌』 VII(화성시), 2013

화성시, 「국역 수원부(군)·남양부(군)읍지」,

『화성시역사자료총서』 1(화성시), 2006

경기도메모리(<https://memory.library.kr/>)

나의독쟁이(<http://dokjangee.com/>)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https://newslibrary.naver.com/>)

달이선생(blog.daum.net/ilovepk)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곽수정

의정부 안골마을 백석천과 지역민의 개인적 영향사 연구

I. 들어가는 말

II. 본문

- 백석천의 행정적·인문학적 의미
- 백석천에 대한 시 정책의 추이
- 외국 소도시 하천의 변화 사례
- 백석천의 개인적 영향사
- 백석천과 안골마을의 유기적 변화에 따른 문화 콘텐츠 개발

III. 나가는 말

I. 들어가는 말

의정부시의 4개 권역(홍선 권역, 송산 권역, 신곡 권역, 호원 권역) 중에서 홍선 권역에 해당하는 안골마을의 백석천은 안골마을과 사패산 자락을 잇고 의정부 시내 중심부를 연결하는 주요 하천이다. 안골마을은 백석천의 지리적 조건, 천재지변, 시 정책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부침과 함께 오늘에 이르렀다. 이에 백석천에 관한 시 정책의 변천에 따른 지역민의 삶을 개인적 영향사적 측면에서 연구, 조사함으로 안골마을 백석천과 지역민의 삶에 대한 동시대성을 문화적 관점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 우선, 백석천의 행정적, 지리적 범위 및 명칭에 관하여 조사하고 2019년도 마을자원조사에서 인터뷰하였던 주민자료를 검토, 인용하고자 한다. 당시 안골마을 백석천 인근 주민으로 65세 이상 90세 미만의 30년 이상 본 고장에서 살아온 7명과의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하여 개인적 영향사를 조사한 바 있다.

백석천에서의 추억과 정서, 수해가 났을 때의 경험과 이후 삶의 변화에 관하여 공통적 구술을 중심으로 마을과 백석천의 관계, 주민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백석천을 중심으로 음식점 을 운영하는 주민의 경우, 백석천에 대한 시정책의 변화에 따라 현재 주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과거의 안골마을과 현재의 마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들의 구술에 따라 밝혀보고자 한다.

II. 본문

1. 백석천의 행정적·인문학적 의미

의정부시는 경기북부의 남양주시, 포천시, 양주시, 서울시와 접한

1 2020. 08, KOSIS(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대상지 의정부시 안골마을 백석천 지도

행정 도시로 면적은 81.54Km이고 인구는 약 45만 6,660명¹에 이른다. 4개 권역 15개 동의 행정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동쪽으로는 수락산(638m), 부용산(211m), 용암산(477m), 깃대봉(289m)이 있고 서쪽으로 도봉산(717m), 사패산(552m), 북쪽으로는 천보산(337m)이 자리하고 있다. 양주시의 주요 거점 도시로 편승되었다가 1963년도 1월 1일에 시로 승격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백석천은 홍복산(양주시 복지리 소재)에서 발원, 양주시 백석면에서 시작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중랑천과

합류, 한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으로 총 연장 5.89km의 하천이다. ‘백석’은 흰 돌이 많은 데서 유래한 이름이다. 관내의 민락천, 부용천, 중랑천, 회룡천 등과 함께 5대 하천 중의 하나로 1990년대 도시 개발 당시 획일적인 콘크리트 옹벽과 복개 주차장 설치 등으로 하천 생태 기능이 정지되어 오랫동안 시민들의 접근이 불가능하였다. 본고에서 다루는 백석천은 안골마을, 행정 지명상 호국로 1114번길 일대의 하천으로부터 시작되어 의정부동 중랑천에 이르는 하천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백석천에 대한 시 정책의 추이

백석천은 그동안 다양한 시 정책에 의하여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그 중에서 2017년도 기사하나가 유독 눈에 띄는 것을 볼 수 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후 마을 주민들 스스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해도 폐천부지로 묶여 있어 개발이 불가능하다.

2 경원일보 모바일 사이트, 김정영 경기도의원 '의정부 안골마을 백석천 폐천부지 해결 촉구' 기사 중에서, 2017. 12. 18

3 이관일 기자, 북경기신문, 2011. 9. 26, '의정부 백석천이 생태하천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기사 발췌

폐천부지가 하루 빨리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수해방지시설공사를 조속히 시행하거나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²

위 기사는 2017년도 김정영 경기도의원의 의회 발언으로 이것은 당시 안골마을 주민들의 삶의 외침에 다름 아니다. 백석천은 관의 주도 아래 여러 차례 정책의 변화를 겪었고 그때마다 주민들은 그에 따른 다양한 변화에 의해 마을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2011년 북경기신문의 기사 '의정부 백석천이 생태하천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를 살펴보면,

'20일, 의정부 시청 앞을 흐르고 있는 백석천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공식이 개최됐다. 총 사업비 495억 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을 투입하여 경민 광장 주변 백석2교부터 의정부3동 배수펌프방 중랑천까지 총 3.5km를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중략 --- 의정부시는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수질개선 및 생태기능 회복으로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 경전철을 활용한 테마 관광 코스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여가 문화 향상, 자전거 이용 저변 확대 등 선진도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원사업은 2013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이다.³

그러나 이 사업은 2009년도 4월 21일자 경기북부탑뉴스에 의하면 당시 김문원 의정부시장과 이만의 환경부장관의 협약식 기사를 통하여 이미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백석천은 600억 원(국비 420억, 지방비 18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의정부 3동 배수펌프장 주변 중랑천 합류 지점에서 경민광장

주변 백석 2교까지 3.5km 구간이며, 2010년 공사를 착공해 2012년 준공 예정이다. 현재 백석천은 지난 1991년 복개되어 공영주차장과 건설기계주차장 등 총 687대의 차량이 주차하고 있으나, 이곳의 복개 주차장을 완전 철거한 후 대체 주차장 설치와 생태호안, 실물 식재, 수제, 여울, 소 등 생태복원을 하게 된다. -- 중략 -- 생태탐방로, 탐방데크, 인도교, 벽천, 분수, 수변광장, 생태학습장,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 친수시설도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김문원 의정부시장은 백석천을 시민들이 즐겨 찾는 웰빙 하천으로 만들어 아름답고 살기 좋은 행복특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경전철 사업 준공 시기에 맞게 사업을 완료하여 중랑천 및 부용천과 연계되어 생태하천 테마관광코스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⁴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하여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백석천은 시 정책의 핵심적인 밀그림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백석천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설비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시 정책의 이미지와 시 운영 방향의 청사진이 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하천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은 지역 발전과 문화 성장, 시민들의 삶에 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과제임을 알 수 있다.

3. 외국 소도시 하천의 변화 사례

1) 독일 하천의 복원

의정부시 백석천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자 한다. 외국의 소도시 하천의 변화 사례 중에서는 독일과 일본의 하천개발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에 따라 의정부시 백석천의

친환경 복원과 향후 방향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독일 하천의 복원은 이미 30여 년 전부터 시작되고 개발되어 왔다. 1986년 11월 1일 스위스 바젤 부근 산도츠 화학공장에서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유독성 화학 성분이 20톤가량 라인강으로 흘러들어왔으며 이 화학 독극물로 인하여 이 일대의 생물체는 전멸하고 강줄기를 따라 네덜란드까지 당시 서식하던 64종의 물고기는 강에서 사라져 버린다. 라인강 상류인 스위스에서의 사고로 인하여 라인강의 모든 생물은 전멸하여 죽은 강이 되어 버린 것이다. 당시 인근 주변의 유럽국가 연합은 600억 유로의 예산을 들여 라인강 살리기 운동을 진행하였다.⁵ 그리하여 당시 강가에 살았던 식물과 생물이 모두 복원되어 다시 살아 있는 강이 되었다.

이에 유럽연합 각국은 수질보호법을 제정, 자연환경에 최대한 접근하는 정책을 실행하였다. 현재 27개의 유럽연합은 환경에 관련된 법안을 만들어 전체의 가이드라인을 완성하였으며 각 국가는 그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자국의 환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또한 독일의 각 주는 자신의 주에 맞는 환경법안과 실행 목표를 완성, 진행하고 있다. 독일에서 큰 강줄기의 관리는 연방에서, 작은 실강과 지류는 주정부에서 관리한다. 그중 지방을 지나는 실강이나 개울 등은 지방자치에서 관리 감독하게 된다.

독일의 강과 하천은 교통, 건설 도시계획부가 맡고 있으며 독일 전체의 강줄기를 관리하는 연방의 부서는 연방하천 수질관리국, 연방운하관리국, 연방수리학관리국으로 나뉘어져 있다. 친환경 복원에 관한 업무는 수리학 관리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즉 각 구역의 강과 하천, 실개천 등 세밀하게 나뉘어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각각의 부서들은 그에 맞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1949년 아래 아카이빙된 지식과 기술을 관련 기관에 공개, 제공하여 협력하고 있으며 현실에 맞는 꾸준한 연구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자료를 공유하고 협업한다는 점이 전체 자연환경의 복원과

발전에 주요한 포인트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전국의 하천을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상황 판단을 하고 하천에 관련된 모든 작은 변화를 기록, 분석하여 하천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보유한다는 것은 하천 개발과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주요한 체제가 아닐 수 없다. 전체 업무는 ‘영적인 수리학’, ‘질적인 수리학’, ‘생태’로 나누어 전국의 물줄기와 해안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며 최상의 자연 생태적 환경을 복원하는 데 업무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적 하천의 복원사업은 이미 40년 전부터 시작되어 왔다.

2) 일본 하천의 발전

일본의 경우, 1964년에 신(新) 하천법을 제정하면서 하천은 기본적으로 공공 재산이며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유수나 토지 점용, 공작물 설치, 토지 굴착, 유목 등의 목적을 위해 권리를 가지고 하천의 일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천 관리자의 허가 절차에 따라 권리 설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허가의 기준은 국토교통성이 정하며, 점유자는 지자체에 점용료를 납부하게 하였다.⁶

⁶ 이상은, 「일본의 도시·지역재생을 위한 하천 이용 활성화 정책과 시사점」,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 홈페이지 세계도시사례 해외도시 리포트 / 일본 편, 2017. 7

우리의 경우, 하천을 공공 재산이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도 그곳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고자 할 때는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이 공공을 위하여 뭔가를 추진할 수 있는 통로는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대개의 경우, 지자체의 담당부서에서 지원사업으로 뭔가를 유도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경기도의 주민제안공모사업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공동체 결성과 지속성에 목표가 맞추어져 있어 하천이나 자연환경을 대상지로 하고 있지 않기에 본고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1990년대 들어 일본은 수질정화사업과 자연형 하천 만들기 사업의 성공으로 하천의 수질과 경관이 개선되면서 하천에 대한 수요가 크게 변화하여 당시 마을 만들기 사업과 맞물려 주민들이 하천을 이용

하던 풍습, 문화, 생활상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복원하려는 요구가 급증하였다. 이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는 하천 이용을 위해 고수부지를 조성하고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1990년에 일본은 ‘포괄점용구역의 특례’를 추가하여 치수, 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면 개별 점용 행위가 아닌 일정 부지 면적에 대해 점용허가권을 통째로 제공한 뒤 해당 하천 부지 이용은 준칙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가권을 부여 받은 공적 주체가 주체적으로 판단,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이후 대도시의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하천 공간의 개방이 적극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국토교통성은 사무차관의 통지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사회 실험, 소위 ‘미즈베링 사업’으로 통용되는 특례 조치를 시행하였다.

국가는 선정한 도시재생 사업 관련 지역인 8개 하천에 대해서 민간 사업자가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광장, 이벤트 시설(음식점, 오픈 카페, 광고판, 광고 기둥, 조명·음향 시설, 바비큐장 등 포함), 차양, 선상 식사 시설, 돌출 간판 등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자체가 행정, 주민대표, 경제인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점용허가와 관련된 중요한 규칙을 결정하게 하였는데 이는 지역 특색에 맞추어 현명하게 하천을 이용하게 하려는 취지였다.⁷⁾

위에서 살펴본 바와 일본의 경우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하천의 개발이 필요하다면 지역의 ‘협의체’의 주도 아래 지자체의 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납부함으로 하천을 발전시키거나 지역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낸 두 지역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① 히로시마 교바시강과 모토야스강

히로시마의 경우, 6개의 하천이 시내 중심부를 관통하면서 도시의 중요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우선 ‘물의 도시 히로시마 추진 협의회’를 설립, 모토강, 오토야스 강과 교바시 강의 일부 구간에 대해 도시·지

역재생 이용 구역을 지정하였다. 그전에는 하천 구역에 카페나 음식점 영업을 하려 해도 조리를 하면 안 되는 규정으로 인해 간이 메뉴에 한해 단기간 가설 건축물을 이용, 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개정된 준칙에 따라 도시·지역재생 이용 구역에서 사업 공모를 한 뒤 민간 사업자가 통상적인 점포 영업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협의회를 중심으로 의사 결정, 행정 처리, 재원 수급 등이 지역 특색에 맞게 운영되었다. 히로시마의 현과 시는 각각 하천과 공원의 관리자로서의 협의회의 점용을 허가하였고 더불어 협의회의 구성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물의 도시 히로시마 추진협의회는 점용허가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사업공모를 통해 적절한 출점자를 모집, 점용료 납부 후 임여 수익을 활용, 이용 구역의 조경개선, 환경 정비, 형사유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선정된 출점자는 사업협찬금을 납부한 뒤 협의회와 입점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 행위를 하면서 녹지·보행로 관리, 청소, 이벤트 참여 등 협의회에서 주어진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협의회는 교바시강 이용 구역에서 7개 점포, 오토야스강 이용 구역에서 1개 점포를 개점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각 점포가 위치한 곳은 시민들의 휴식과 교류의 장소가 되었고 원폭 피해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 평화의 상징을 제감할 수 있도록 변화하였다. 협의회는 정수된 운영 수익 가운데 점용료를 납부하고 남은 수입을 가지고 지역 주민을 위해 다양한 활동⁸⁾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⁸⁾ 매년 봄, 가을에 평화의 공원 맞은 편 하천 부지에서 강변콘서트를 연 15회 개최, 매년 7월에는 지역 반상회와 함께 교바시강 오픈카페 부근에서 콘서트, 크루즈 체험, 공놀이 등을 포함한 경음악의 밤 행사 실시, 매년 11월에는 교바시강의 오픈 카페 인근에서 콘서트, 크루즈 체험, 음식 나누기 등 수변 크리스마스 재즈 행사를 실시, 이외에도 일루미네이션, 야외 조명, 화단, 꽃바구니 등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변화로 인해 2005년까지만 해도 하천 이용객이 약 5만 명에 불과했지만 2015년도에는 약 17만 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⁹⁾ 이상은, 앞의 자료

② 오사카 시 도톤보리강⁹⁾

2003년도에 일본은 국가, 오사카부, 오사카 시, 재계로 구성된 ‘물의 도시 오사카 재생 협의회’를 설립하고 협의안에 준하여 ‘물의 도시 오사카 재생 구상’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오사카 시 중심부를 관통하는 도톤보리강 주변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나토마치 리버플레이스(대형 이벤트 시설)와 커낼 테라스 호리에(레스토랑 밀집 건물) 설치 계획, 도톤보리 강을 매력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적극적으로 개방

한다는 것이었다.

2004년 3월에는 오사카에서 하천 부지 점용허가 준칙의 특례 조치를 시범 적용하도록 사무차관 통지가 발표되면서 사회실험을 위한 추진 체계인 '도토보리강 수변 협의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이 협의회는 '도토보리강 수변공간 활용 검토회'로 변경되었다. 구성원은 행정 기관, 지식인, 지역 대표로 이루어지고 하천 이용에 대한 지역 주민의 합의를 전제로 하천 부지에서 질서 있게 영리 활동, 카페 운영, 행사 개최 등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칙을 만들었다. 검토회는 민간 사업자에게 점용허가권을 제공한 뒤 도토보리 리버워크의 운영을 민간사업자에게 전적으로 맡기기로 결정하였다. 민간 사업자를 공모할 때는 단순 관리를 넘어 이벤트, 광고, 오픈 카페 등의 사업자 유치나 조경 개선과 같은 수변 활기 창출에 관한 업무도 부여해 스스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도토보리 리버워크를 민간 사업자에게 맡겨 운영한 이후 민간의 창의력, 영업 기술, 프로모션 능력이 크게 발휘되었다. 2010년 2개에 불과했던 오픈 카페가 2015년 말에는 22개로 급증하였다. 2004년에는 하천변 통행조차 힘들어 단 2개의 건축물만 하천변에 출입구가 있었으나 2015년에는 78개로 급증하였다. 현지 신사의 선도제, 텐진마츠리¹⁰ 등 전통 행사뿐 아니라 홍보 이벤트가 급증해 하천 이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2004년 당시 도토보리강의 이벤트는 연간 33일에 불과했지만 민간 사업자 도입 이후 2015년에는 거의 매일 이벤트가 개최되었다. 점용료와 임여 수익은 리버워크의 청소, 자원봉사 활동 등에 활용되고 있어 민간의 영리 행위 결과가 지역의 공익을 위해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

일본의 이 두 사례에서 핵심적 요지는 협력 거버넌스를 지닌 지역 협의체의 발족이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추진사업을 유치, 수행할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된 지역 협의체는 점용 주체이면서 민간의 참여와 역할을 독려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주민과 행정관료, 경

10 일본의 3대 마쓰리에 속하며 천 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지닌 여름 축제로 매년 7월 24일과 25일에 오사카 텐만구신사를 중심으로 열리는 민속 축제

제관련 주체가 함께 모여 하천개발관련에 대하여 숙의하고 협의체를 구성, 사업을 구상하고 지역의 상황과 특징에 맞게 사업을 공모, 추진하는 형태는 주체적이고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협력성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요한 점은 협의회에서 선정한 민간업체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다양한 '시도'들이다.

하천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노천카페, 시설물 설치 및 공간을 채우는 문화예술 활동을 들 수 있다. 특히 자연유산이 부족한 경우, 문화 예술 활동으로 공간을 메울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예술가, 지역의 이야기, 지역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콘텐츠 중심의 콘서트와 파티, 지역을 상징하는 상징물 건설과 그에 따른 다양한 이벤트 및 행사 유치 등 그곳을 다녀가는 연인원의 폭넓은 증가를 위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의정부시 백석천의 경우, 현재의 관주도의 행정 조치보다는 백석천의 친환경 복원과 발전을 위한 주체적 존재로서의 주민, 경제인, 공무원들의 거버넌스를 통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관련 핵심 사안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수행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실천한다면 매우 매력적인 공간으로서의 백석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극적인 대처조차 하기 어려운 현재의 체계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4. 백석천의 개인적 영향

11 파밀리에작은도서관사람들, 「마을이야기발굴단- 스토리부심」, 2019 경기도주민제안공모사업 마을조사부문 선정사업, 경기도·의정부시, 의정부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자치행정과), 2019

12 「삶을 가꾸는 스무 개의 공동체」, 2019년 의정부시 마을공동체 활동 사례집, 2019, 30쪽

필자가 대표로 있는 '파밀리에작은도서관사람들'이라는 공동체에서는 의정부시 사패산 능선아래 마을인 안골마을의 주민들과 마을에 관해서 인터뷰를 하고 마을 잔치를 하는 프로그램¹¹으로 <마을이야기발굴단 - 스토리부심>을 진행한 바 있다.¹² 2019년 8월 29일부터 10월 7일 까지 총 일곱 분의 마을 주민과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



양한 마을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백석천과 인접한 이곳 안골마을은 마을 전체가 한 명의 사유지로 이루어져 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경계로 정서적인 경계도 같이 나뉘어져 윗마을 아랫마을로 불리운다. 마을의 개울은 10여 가구의 식당 운영으로 한때 경기가 좋았으나 시에서 가드레일을 치고 개울로 내려가지 못하게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개울에 발조차 담그지 못하고 바라만 보게 되고 말았다. 물이 마르고 사람들의 발길이 현저히 줄어든 현재는 3곳의 식당만이 운영 중이다. 시에서 개울바닥공사를 하는 바람에 물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 즉 바위를 모두 깨부수어 메꾸면서 물이 고이거나 담길 수 없는 지형, 물이 지면으로 흡수되어 버리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시에서는 그때 그때 행정에 따라 마을의 자연유산을 훼손하였다. 나무를 심어 10년 이상 기른 다음에 다시 그곳에 가드레일을 세워야 하니 그 나무들을 베어버리는 식이다.

1) 카페담다 주인장 강용하 주민

첫 번째 인터뷰 대상자는 카페담다를 운영하는 강용하 주민으로 안골에 정착한 지 45년째이며 부모님이 살던 본가를 개조하여 '카페담다'를 운영하고 있다. 개울장사를 하다가 카페를 오픈하였다. 안골마을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외지인이 들어와 집을 새로 지을 수 없고 기존의 집에 살던 사람이 나가야만 새로 들어올 수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은 안골마을이 공기 좋고 깨끗하기 때문에 나가지 않고 있다고 한다. 1998년도 수해 때 어머니와 당시 세 들어 살던 아저씨가 돌아가시는 불행을 겪었다. 백석천의 '인재'로 인한 당시 수해는 마을 사람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어머니가 실종됐다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수영을 해서 나와야 될 정도였다. 폭포수가 막 쏟아져 내려왔다. 차들은 움직일 수도 없고. 차가 떠내려가기도 하고. 그때 산사태 때문에 지금 집이 무너져 어머니와 당시 세 들어 사시던 아저씨가 돌아가셨다."¹³

¹³ 인터뷰, 2019. 8. 29
강용하, 카페담다(의정부시 가 능동 581-206번지) 운영

¹⁴ 인터뷰, 2019. 9. 2
홍부산장(의정부시 호국로 1114번길 138) 운영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호야(호통불)을 써야 했던 초등학교 시절, 그 울음을 씻으러 매일 개울에 가서 닦았던 기억, 개울은 당시 가능동 사람들의 목욕탕이었고 여성들의 빨래터였으며 한여름에는 수영장이었다. 안골마을의 '작은 폭포'는 유명하다. 선녀탕처럼 아름다운 곳이었으나 지금은 보존 구역으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었다

"당시 사패산은 민둥산이었다. 그 당시에는 산에 나무가 거의 없었다. 나무가 있으면 베어다 장작으로 떼니까. 민둥산일 당시, 바위산(큰 바위)에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면 동네가 다 보였었다. 지금은 나무가 40년, 50년 동안 모두 자라 마을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예전에는 유명하던 '거북바위'도 현재는 나무가 자라 보이지 않는다."

2) 임종희·박금주 홍부산장 주인 부부

마을에서 가장 젊은 임종희, 박금주 부부¹⁴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현재 환갑이 넘은 두 부부는 이 마을에서 가장 젊다.

“이곳은 대한민국 국립공원 명산인데 입구부터가 너무 피폐하다. 젊은 사람들이나 마을 공동체가 있다면 상황이 좀 달라지겠지만 전부 어르신들만 계시다보니 뭘 할 수가 없다. 저희 부부가 가장 젊다 보니까. 그렇다. 젊은 사람들이 마을로 온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도 생각이 다르겠지.”

가게 앞 계곡의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부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나라에서 3년 전에 개울공사를 했다. 그때 위험 예방을 목적으로 700m의 가드레일을 설치했다.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여기가 고속도로도 아니고 유원지인데 이게 무슨 경관이냐. 차라리 이걸 뜯어내고 유원지에 올레길처럼 조성을 하자고 건의를 했었다. 그런데 이 가드레일을 뜯어낼 수가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가릴 요량으로 식목일에 철쭉 3,000수를 달라고 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철쭉은 안 된다더라. 그래서 벚나무 12그루를 심어 줬다. 지금 한 나무는 죽어 있다. 너무 보기가 안 좋다. 한 15년 됐나. 김기영 시장에게 얘기해서 벚나무를 250그루를 심었었다. 직접 땅을 파서 심었던 나무들이다. 그런데 이 가드레일을 설치하면서 다 베어버린 거다. 맨 처음 공청회를 할 때의 설명과 지금 해놓은 공사는 좀 다르다. 원래는 둘레길 같은 거 만든다고 했었다. 지금 보시면 돌이 이중으로 쌓여 있다.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인들이 많다 보니 상가를 못 하게 하도록 이걸 만든 거 같다. 이렇게 가드레일을 만들었으면 중간에 내려가는 길이라도 터주지... 물에 밭이라도 담그게. 여름에 소풍이라도 갈 수 있도록 가드레일을 없앴으면 좋겠다.”

안골 마을에 상수도가 들어온 것은 1986년이라고 한다. 그때 하

수도가 없어 계곡에 다 버렸고 악취가 심했는데 2005년부터 민원을 제기해서 2010년 안병용 시장 취임 직후에 하수도 공사를 했고 지금은 개울로 물이 내려가지 않으니 깨끗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바위를 다 부수어 버리는 바람에 피라미 한 마리도 살 수 없게 되었고, 외부에서 모래를 실어다가 깔고 바위를 그 위에 깔면 좋았을 텐데 다 부수고 그 위를 차가 지나가니까 이제 물이 없다고 한다. 흥부산장의 부부는 2007년 집을 지을 때, 직접 지었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라고 한다.

3) 조용호 주민

조용호 할아버지가 안골에 들어온 것은 1970년 2월로 그때 나이 40세였다.

“처음에 여섯 평도 안 되는 집이라 등기도 못 냈다. 나라에서 재산세 같이 밭을 건 다 받지만 우리가 무언가 해달라고 요청하면 무허가라 안 된다고 한다.”

“안골의 명물이 있다면 글쎄 안골 계곡? 전에는 각 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이 1년에 한 번씩 다 소풍을 왔었다. 그전에는 물도 많았다. 이제는 소풍도 다 없어졌지. 그전에는 장사하는 사람이 참 많았는데 이제는 세 집밖에 안 남았다. 이젠 개울장사를 못 하게 한다. 짐승이면 물 안 좋아하는 짐승 없다. 참새나 제비나 다 물에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안골은 거기 들어가서 밭도 못 담그게 한다. 그런 형편이다. 그래서 뭘 내놓을 게 하나도 없다. 그 계곡에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리고 들어가면 20만 원 벌금을 내야 한다. 그렇게 써 붙여 놓으니. 계곡이 없어지는 거지. 계속 물도 못 만지게 하고. 손도 못 담그고. 밭도 못 담그고. --- (중략) --- 사람이 들어가서 좀 다듬고 그래야 공존하는 거다. 그런데 이게

아주 없어져 버리니까... 장사는 다 공존하는 거다. 저 집에서도 커피 한 잔, 이 집에서도 소주 한 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지. 그래서 나는 이 규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문제로 시의원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왜 벌금을 무냐, 이 벌금 물린 건 국고로 들어간다. 시 세무과로 들어가는데, 주민이 번 돈을 왜 정부에 갖다 내야 하나.”



2019년, 안골마을
조용호 마을 주민과의
인터뷰

조용호 주민은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개울 개방. 더울 때 가서 발 담그고 있으면 얼마나 시원한가. 여기서 저 밑에까지 돌 쌓는거... 다 외국 돌이다. 쓰러지면 쓰러진 대로 놔둬야 하는 것이 국립공원 법이다. 돌도 여기 있으면 그대로 놔둬야 하는 거다. 시에서 저렇게 플랜카드 쳐 놓고. 여기 들어가면 벌금 20만 원. 안골사람들은 물 하나 보고 사는데 그걸 막아버리면 어떻게 할지... 지금은 수돗물이 있지만 그전에 가능동 이쪽은 다 여기 와서 빨래를 했다.”

4) 밤나무집 황규동 주민

2019년 9월 16일 인터뷰 당시 안골 밤나무집 황규동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1998년도 당시 수해 때 다행히 밤나무식당 앞 마당에 벽을 세워뒀었는데 그게 무너졌었다. 카페담다 주차장자리까지도 집이 있었는데 다 무너졌다. 복구 당시 기관에서 장판 말아주고 보일러 수리를 하라고 125만 원이 나왔다. 그리고 나중에 시멘트 50포를 줬다. 동네 사람들과 함께 수리했고, 군인들은 나무 치우고 그랬다. 다행히 집엔 물만 들어오고 부서지진 않았다. 그리고 이미 장사터를 잡았기에 나갈 생각은 없었다.”

“안골은 남의 땅이니까 발전을 시킬 수가 없다. 3년 전에 의정부가 땅 주인에게 밑 개울땅을 사서 물이 다 빠져서 물이 없다. 공사하면서 웅덩이가 없어졌다. 그 공사는 장사를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 시 또는 사유지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할 수가 없다. 들어와서 발전시킬 것이 따로 없다. 딱히 남는 공터도 없고. 물을 저장해서 넘어가는 몇 군데가 있어야 사람들이 물이 있다는 인식을 하고 관심을 갖고 많이 찾아 올 텐데... 여기에는 관여하는 기관이 많다. 시 관할, 군대 관할 등등.”

“가능3동부터 성불사까지가 안골이라고 생각한다. 그쪽까지는 다 등산로가 되어 있어 폭포도 있는데 선녀폭포가 15~16미터가 된다. 거기는 좁아서 사람들이 들어가지는 못한다.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절에서 구경을 시켜주던지 해야 하는데. 작은 폭포는 국립공원 관할이다. 작은 폭포는 국립공원에서 위험하다는 이유로 망을 쳐놨다. 거북바위도 캐버렸다. 다리 밑 공사하면서 전부 깨버렸다. 돌들이 아주 큰 것들이 물들을 좀 멈추고 그랬는데 공사를 하면서

좋은 돌은 다 다른 곳으로 나가버리고 수입인가 뭔가 하는 돌들을
사다가 갖다 놨다. 안골은 생김새가 굉장히 길잖아. 자연을 좀
살리면서 해야 하는데 나무들이 죽는다. 여기서 한 30분 올라가면
박쥐굴이 있다. 어렸을 때는 참 커 보였는데 지금 가보니까 아주
작더라. 다리 건너 저 산길로만 등산로를 통해 정상으로 쭉 30분
정도 올라가면 좌측에 굴이 요만한 거 있다. 박쥐굴. 들어가고
좀 불편하고. 그전에 시에서 계곡 공사하기 전에는 꼬꺽지,
버들치 민물고기 다슬기 다 살았는데 공사하고 나서 없어졌다. 다
철거하는 마당에 안골에 바라는 점이 뭐가 있겠나. 다른 건 없다.
서운하고 화가 날 뿐이지. 이 경로당이 우리가 밥만 먹으면 와서
시간 보내고 그랬던 곳인데…”

5) 박창열 주민

박창열(당시 82세) 주민은 포천이 고향이고 1962년도에 미군부대에 취
직을 해서 들어오게 되었다고 한다. 안골마을에 들어온 지는 60년 가
까이 되었다.

“그 당시에는 하꼬방집, 월세방이 다닥다닥 붙어있었다. 안골이라는
데가 그전에 조반장 사는 데 바로 그 위에 있었다. 거기 수영장도
있었다. 그땐 여기 의정부 형편없었지. 여기 미군부대에서 경비로
일을 했다. 그때는 월급도 얼마 안 됐다. 애들이 네 명이 있었는데
그 월급 받아서 생활을 했다. 애들이 넷이다 보니 생활이 빽빽했다.
외국을 많이 다녔다. 서독 광부 3년, 사우디, 쿠웨이트 등등
막노동을 하려 간 거지. 돈도 많이 벌지도 못하고 고생만 했다.”

“1998년도 수해 때 우리 집은 피해 본 것은 없고. 그때 내 바로
윗누이가 다리 건너서 살았는데 누님은 당시에 피해를 좀 봤다.”

“예전에는 수돗물이 안 나와서 빨래터에서 빨래를 했다. 수돗물이
약해서 안 나왔다. 개울가에 가서 샘물을 물지게로 떠다가 마셨다.
그렇게 생활을 했었다. 고생 많이 했지… 난방도 나무로 때고 연탄도
때고. 연탄이 차로 왔다. 시에서 지원 같은 건 없었다. 사방공사.
산에 가서 일하고 그렇게 사방공사 하면 밀가루 같은 것도 주고. 뭐
그랬었지. 고생 많이 했다.”

이상으로 7명의 인터뷰 중 5명의 인터뷰 내용에서 ‘계곡과 물’에 관련
된 것을 ‘구어체’로 정리해 보았다. 계곡은 빨래터나 풀장 등으로 주민
들에게 많은 정서적 기억과 추억을 남기고 있으나 시의 개발로 인하여
물이 줄어들고 주변에서 영업을 하던 식당은 10군데에서 3군데로 줄어
들었다. 주변의 가드레일과 나무들은 시 정책의 변화에 따라 세워지고
없어지고를 반복한다.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느껴지
는 바람은 계곡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물이 풍성히 흐르고 그 물에
발을 담그고 그 물속에는 예전처럼 생물들이 살아 넘치는 것이다.

마을의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마을의 현재와 미
래를 위해 사업을 구상하고 관에게 요청한다면, 수행하는 일을 보다 적극
적으로 진행한다면 친환경적 복원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그
렇게 되기 위하여 어려운 점도 몇 가지 있다. 안골마을은 전체 땅 주인이 한
명으로 되어 있고 시에서도 땅 주인에게 땅을 구입한 후 하천개발사업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많은 부분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결국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주민들이 주인 된 입장을 인
식, 주민자치협의체 내에 계곡관리부서를 두고 지역의 하천을 살릴 만
한 역량을 가진 민간업자, 마을 외부의 사회경제적 인사, 시행정부서의
책임자 그리고 무엇보다 마을의 주민들과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보다
다양한 조례를 설치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또 그에 따라 자연환경
을 훼손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경제적 갈증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한다.

5. 백석천의 마을의 유기적 변화에 따른 문화 콘텐츠 개발

마을의 변화는 느리고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기본’이 있다. 이는 마을의 구성원들의 생각과 마음이 합쳐지는 시간의 흐름이기도 하다. 관에서 무엇인가를 주도하기 전에 마을 주민들이 서로 모여 마을의 자연 경관, 하천의 개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이와 관련된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 수행해나가면 보다 합리적인 발전의 방향을 유추할 수 있으리라 본다.

백석천과 안골마을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본 바로는 시 정책과 주민의 삶이 유기적으로 상호 보완되어 왔다가 보다는 일방적인 시의 행정 지침으로 주민들은 ‘피해 의식’을 키워왔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필자는 백석천과 안골마을을 연계하여 어떠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문화 콘텐츠라 함은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어떠한 모양새로 담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필자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마을주민들과 함께 마을의 특정 이야기를 자체 워크숍을 통해 창작하고 그 이야기를 작은 연극의 형태로 담아보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마을 주민은 50여 가구에 불과하고 주민들은 대다수 60대 중반 이후의 나이대로 대부분 연로한 편이다. 새로 유입될 만한 조건이나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안골마을의 문화적, 경제적 상황의 빠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느리고 평화롭게 흘러가는 마을은 그에 따른 속도와 ‘이해’에 맞추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선 예술가가 마을 연극의 매개자로 나서야 하겠다. 즉 예술가주도형의 커뮤니티연극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하는 것이다.

마을주민들과 함께 주 1회 모여서 마을의 사람, 마을의 문화재, 마을의 자연, 하천의 개발, 마을의 정체성, 마을의 경제 등 마을의 ‘현재’와 ‘미래’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작품을 구

상하고 만드는 과정을 진행한다.¹⁵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마을 주민들 간의 친밀감을 더욱 높이고 무엇보다 마을의 하천, 계곡이라는 자연 유산, 친환경 소재를 통하여 서로의 추억과 기억을 소환하고 재생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된 이야기는 ‘연극’이라는 장르를 매개로 새로운 콘텐츠로 전환되는 것이다.

하나의 공연이 가능한 공간으로 안골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카페 담다의 내부 공간, 또는 건물 옆 주차장을 예로 들 수 있다. 주차장 공간을 야외 무대로 꾸미고 공연장으로 이용함으로써 마을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즉 카페담다에서의 장소특정형 연극을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안골마을의 다양한 공간을 개발하여 그곳에 알맞은 민담과 전설, 예를 들면 ‘거북바위’나 ‘작은 폭포’, 또는 ‘안골 풀장’, ‘빨래터’에 담긴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어 공연을 하고 주민들이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는 마을의 추억, 그리고 새로운 마을의 장소 발견 등으로 확장될 수 있다. 마을 밖 사람들에게는 마을에 대한 관심과 마을 발전에 대한 기대를 모을 수 있다. 가까운 화성시의 민들레연극마을(총장: 송인현)¹⁶의 경우, 마을 전체가 하나의 연극 마을로서 계절별로 주말농장, 연극 축제, 교육 프로그램, 연극 마을 관련 자체 워크숍 등을 운영하며 하나의 연극 마을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안골마을에서도 규모에 맞는 작은 연극으로부터 마을의 정체성을 찾고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하는 것이다.

¹⁵ 박수정,『지역커뮤니티연극연구 - 경기도 5개 도시의 예술가 주도형 커뮤니티연극을 중심으로』, 경기대 박사논문, 2019. 참조

¹⁶ 2006년 우리나라 최초의 연극을 주제로 하는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었다. 도시민들이 농촌체험을 하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연극놀이를 하면서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예술적 상상력을 키우는 곳이다. 절기별, 계절별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역 축제(품앗이 축제)를 개최하여 누구나 쉽게 문화적 삶에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획,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지역 이야기를 발굴, 공연으로 발전시키고 나이가 어서야 공연예술 레지던스를 운영, 연극 마을이 국제화도 함께 일구어나감으로써 지역의 글로벌화, 문화의 세계화를 제시하고 있다.

III. 나가는 말

본 연구를 통하여 첫째, 백석천에 대한 인문학적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의정부의 주요 하천인 백석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살펴보았다. 둘째, 주민 인터뷰의 개인적 영향사를 통하여 추억, 정서, 기억을 회상하고 개인적으로 살아온 삶에 대한 존재와 ‘가치’를 느낄 수 있었다. 셋째, 시 정책의 추이에 따른 현재의 부조리함을 파악함으로써 유기적 환경을 위한 올바른 시 정책을 세우는데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넷째, 백석천과의 개인적 기억, 추억, 정서를 소재로 ‘연극’ 또는 ‘뮤지컬’을 구성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제안하는 바다. 특히 현대 연극의 다양한 형식 중에서 ‘뉴다큐멘터리극’, 또는 ‘버바텀’연극의 형식은 마을 주민들도 예술가의 힘을 빌어 얼마든지 만들어 볼 수 있는 형식이기에 가능하다고 본다. 다섯 째, 주민들은 백석천의 아름다움과 위상으로 말미암아 지역 발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하천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 하천과 문화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이상으로 ‘내가 살고 있는 마을’과 그곳이 품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개인의 삶’을 연계하여 백석천이라는 도저한 자연유산과 함께 새로이 이야기를 풀어내고, 그 이야기로 공연예술을 만들어 공유하여 주기적인 행사에서 공연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의 형태를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이러한 행위는 다시금 영상으로 변환되어 우리의 생활 곁으로 다가올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마을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마을 채널, 마을 미디어, 마을 스튜디오, 마을 야외 공간 등을 정하고 그러한 공간들의 공유 아래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활동을 마을 사람과 예술가, 그리고 마을 밖의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또한 백석천에 대한 새로운 의미망을 확대하고 내가 살고 있는 마

을에 대한 소중함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통하여 새로이 다가오는 코로나 시대에 발맞추어 살아나가야 하겠다. 무엇보다 관의 주도보다는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협의체 중심으로 주도해 나간다면 보다 의미 있고 지속가능한 길이 열리리라 기대하면서 졸고를 마치고자 한다.

참고 자료

- 곽수정,『지역커뮤니티연극연구- 경기도 5개 도시의 예술가주도형 커뮤니티연극을 중심으로』, 경기대 박사 논문, 2019
김동수,「하천의 역사」, 네이버 블로그 <http://blog.daum.net/dspark4/8582301>, 2008. 12. 19
김정영 경기도의원 ‘의정부 안골마을 백석천 폐천부지 해결 촉구’ 기사, 경원일보, 2017. 12. 18
박종국, ‘의정부 백석천 친환경 하천으로 복원- 환경부장관과 협약식 가져 … 2012년 준공’ 경기북부 탐뉴스, 2009. 4. 21
이관일, ‘의정부 백석천이 생태하천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북경기신문, 2011. 9. 26
이상은,『일본의 도시·지역 재생을 위한 하천이용 활성화 정책과 시사점』,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 홈페이지 세계도시례 해외도시 리포트 / 일본 편, 2017. 7
의정부시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삶을 가꾸는 스무 개의 공동체』, 2019년 의정부시 마을 공동체 활동 사례집, 2019, 30쪽

영상 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NqKWVaVTuYs>

바다향이 머무는

시 흥 땅, 갯골

3 0 인 3 0 답

박혜숙

I. 갯골생태공원 소개

II. 갯골생태공원이 주는 의미 30인 30답

1. 갯골생태공원을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2. 갯골생태공원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3. 공원 주변이 개발되어 생태환경이 파괴되고 옛 염전의 흔적이 사라진다면?

III. 살아 있는 에코뮤지엄, 갯골의 시간은 계속된다

I. 갯골생태공원 소개



2019년 갯골생태공원
갯골 모습

밀물이 들어서면 갯골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갯골의 흔적을 감추고 바닷물에 잠겨 다시금 썰물 때를 기다리며 햅볕에 마른 갯벌을 바다에 내어 준다. 이를 긴 세월 반복하면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습지를 형성하고 자연생태계 균형을 만들어 온 갯골. 갯골길을 따라서 잔잔한 물기를 머금은 날 좋고 물때가 맞는 날, 걷다 보면, 칠면초 꼭대기로 오르려다 발소리에 놀라 떨어져 허겁지겁 구멍 속으로 도망가거나 먹이를 먹다 놀라 잽싸게 도망가는 농게들이 보인다. 또는 짹을 찾아 나왔다 몇 발도 못 움직인 채 구멍으로 들어가는 게들을 만날 수 있다.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새들이 찾아와 갯벌 사이를 다니며 유유히 먹이를 잡는 모습을 운 좋은 날엔 한 번쯤 만날 수 있는 갯골 생태공원. 다양한 갯벌 생물과 야생 동식물들을 보며 산책과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전하는 이야기들을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는 방식으로 먼저 소개해보고자 한다.

질문: 갯골생태공원은 바다의 기억이 남아 있을까?

답변: 시흥시 동서로 287(장곡동)에 위치한 갯골생태공원은 나룻배를 타고 건너야 했던 갯벌이 드러나는 바다였다라고 가끔 소개했던 기억이 난다. 갯골생태공원을 처음 찾은 사람은 그것이 무슨 소리냐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소개하는 시(詩) 일부분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조수(潮水) 물 빠지는지 살펴보는 어부들 마을 공터 물색하는
봇짐장수들 해변가는 대부분 소금이 주업(主業). 길다란 제방 덕에
염전 쉽게 일궈지네.”¹

1 어인후조낙(漁人候潮落/고객진
허진(估客趁虛前/근해다염호(近
海多鹽戶)/장제호로전(長堤護
鹵田) [전원 생활의 감흥을 읊은
팔운(田居漫興 八韻)], 『계곡선
생집(谿谷先生集)』, 권29, 오언
배율(五言排律) 37수 중

2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지국
(持國), 호는 계곡(谿谷)으로 시
흥시 조남동 산 1-5에 묘와 신
도비가 있다. 1986년 3월 3일
시흥시 향토유적 제2호로 지정
되었다.

3 『고려사』 권79 - 참조 [간척-나
무위키]

조선시대 17대 임금인 효종의 아내, 인선왕후의 아버지 장유(張維, 1587-1638)²가 한때 파직을 당한 후에 본향이던 안산군 군자면 장곡리 매곡(현재 장곡동)에 내려와 살던 때가 있었다. 그 당시 썼던 시(詩) 중에 서 마을을 묘사한 시구(詩句) 일부분이다. 갯골생태공원이 바다였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한편에는 제방을 쌓아 염전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구(詩句)가 보인다. 이미 몇 백 년 후 염전으로 바뀔 것을 예상하는 듯이 말이다. 간척이 언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고려시대(고종 23) 1235년 강화 영안제 축조를 시작으로³ 수많은 서해 한 갯벌이 간척되어 왔다고 한다. 그 간척 안에 갯골생태공원 역시 포함이 되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수심이 얕고 넓게 발달한 갯벌이 있던 과거 시흥 해역 갯골생태공원 역시 간척을 피해 갈 수는 없었을 것이다. 간척으로 바다는 갯골생태공원으로부터 멀어졌지만 바닷물이 시흥 갯골을 따라 드나들며 갯골생태공원에 바다의 기억을 실어 나르고 있는 것은 예(古)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질문: 소래 염전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답변: 갯골생태공원이 되기 이전에는 소래 염전이었다는 이야기를 갯골생태공원에서는 자주 들을 수 있다. 과거 1930년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소래 염전의 흔적이 아직도 일부 그대로 남아 있어 흔들 전망대 위에 올라가 내려다보면 한눈에 보인다. 그리고 소래 염전과 함께 그 당시 지어졌던 소금 창고 역시 2개가 남아 있어 갯골생태공원이 옛 소래 염전이었음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갯골생태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끔 소래 염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해 하기도 한다. 소래 염전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설명할 때면 1900년대 일어난 러일 전쟁으로 체결된 한일 1~2차 협약에 시작점을 두면 이야기가 풀리는 것 같다. 한일협약이 체결된 이후 일본이 재정 확보에 나서면서 전국 각지에서 쌀, 인삼 담배 등 돈이 될 만한 것을 모두 수탈했던⁴ 기록들이 여러 지역에서 나타난다. 그 역사와 아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에 우리 시흥시도 포함되어 있다.

과거 일본은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 식생활 필수품이던 소금을 얻고자 대량 생산이 가능한 중국식 천일염전과 같은 염전지를 물색했고, 갯벌 조간대가 드넓고 갯벌의 경사도가 낮아

조선오만분일 지형도 인천
경성8호 1918년 조선총독부
발간 소래염전위치 자료
제공(시흥 오이도 박물관)



- 5 「짠물 이야기, 주안염전」
향토문화전자대전
6 동아일보, 1934. 10. 11.
7 동아일보, 1934. 7. 11.

평坦했던 시흥해역은 소래 염전이 될 운명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운명의 첫 시작은 인천 주안리에 1907년 1정보(3,000평) 염전을⁵ 만들어 시범운영이 성공하면서부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주안염전이 실패했다면 경기만과 광량만 주변 일대 그리고 평안도, 황해도 지역까지 긴 시간에 걸쳐 일본인들에 의해 염전들이 들어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천일염이란 단어가 우리 생활 속에서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주안염전이 성공을 거두면서 시흥 일대 갯벌도 1920년대 군자염전으로 바뀌고 1930년대 시흥 갯벌이 또다시 소래 염전으로 바뀌게 되면서 갯벌이 사라진 자리가 군자와 소래 염전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 이야기 하나가 소래 염전을 만들 때 참여했던 사람 수가 무려 40만 명⁶이나 되었고, 공사비는 또 58만 원⁷이라는 그 당시의 거금을 들여 만들었다는 것으로, 옛 동아일보 기사 내용을 통해 접할 수 있다.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게다가 40만 명 안에 중국인들이 많았다는 내용까지 덧붙이면, 그 많은 중국인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궁금증까지 던진다. 소래 염전 생성 이야기는 갯골생태공원에서의 빠질 수 없는 부분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래서 과거 소래 염전에서 일했던 박인경 님의 구술 자료를 찾아 덧붙여본다.

“염전은 일본 놈들이 다 맨들은 거란 말이야. 중국 사람들 다 데려다 염전 만들은 거야. (그러면은 염전 일부 중에서 중국 사람이 얼마나 됐어요?) 아, 많았지. 그거 뭐 일일이, 중국 사람이 일 많이 한 거야. 일본 놈들이 중국 놈들을, 이 동네에도 중국 사람들 많이 살았다고. (그럼 다 어디 갔어요?) 해방된 후로 다 없어졌어. 중국 놈들이 염전을 처음으로, 예를 들어, 이렇게 논바닥 수로를 만들은 거, 그거 중국 놈들이 많이 한 거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바닥을 다 만들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지. 그러나 소금은 하나도 내 본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바닥만

8 「낮은 기억을 기록하다」 시흥시,
2018, 275쪽 박인경 구술

만들어 놓은 거고, 소금 내는 거는 다 여기 포동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럼. 여기
사람들이 다 소금은 내는 거고.”

〈포동 박인경 구술⁸〉



질문: 왜 염전으로 계속 운영되지 못하고 폐염전이 된 걸까?

답변: 시흥 지역에 마지막 남아 있던 소래 염전이 문을 닫으면서 염전과 함께 생활해 왔던 사람들 역시 어디론가 사라지고 만나기도 힘들어졌다. 하지만 가끔 염전에서 일했던 분들이 갯골생태공원을 찾아오고 있다. 몇몇은 과거 소래 염전에서 일했던 기억을 회상하며 한번 둘러보고 싶어 온다는 것이다. 소래 염전은 폐했지만, 갯골생태공원 주변에는 아직도 군데군데 갯골길 주변으로 하얀 소금 빛을 남기며 옛 염전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흔들 전망대 위에서 폐염전을 바라보면 하얗게 흩어져 있는 소금 흔적들이 잘 보인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가끔 “저기 하얗게 보이는 게 소금인가요? 왜 소금이 저기 있나요?”라고 묻는다. 과거 소금을 생산하던 옛 소래 염전 터라 소금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 알려준다. 그러면 왜 소래 염전을 닫았는지 묻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다. 그 질문에는 1990년대 수입자유화로 인해 소금 가격이 하락하면서 소래 염전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간단히 답을 하고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금 더 과거로 가서 소래 염전이 문을 닫아야 했던 몇몇 상황을 연결지어 궁금증을

풀어 줄 수 있다.

9 「군자염전 이야기」 후개,
2012년, 32쪽

한국전쟁 이후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염전이 부족해졌다. 소금 가격이 요동치자⁹ 국유 염전이 아닌 민간 염전을 늘리면서 해결점을 찾으려 했다. 그 이후 1970년대 국유 염전으로 남아 있던 ‘대한염업주식회사’가 민간 기업으로 바뀌게 되고 민간 염전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소금 가격 하락을 부추겼다. 그런데 최근에 소래 염전이 폐염전이 되었던 미처 깨닫지 못한 원인을 한 가지 더 알게 되었다. 어린 시절 부엌에서 자주 보던 소금들이 있었다. ‘꽃소금’과 ‘맛소금’이었다. 이 가공 소금들이 폐염전이 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시흥 지속발전협의회’ 강석환 사무국장님의 말을 들으면서 알게 되었다. 그리고 아래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 ‘천일염의 적이 가공 소금이었다니!’하고 생각했다. 이토록 일상생활과 관련이 깊었다는 것이 놀라웠다.



2015년도 갯골생태공원에서
내려다본 폐염전 모습

“옛날에는 소금이 아주 귀했잖아요. 조선시대 이후나 해방 이후나 소금생산하는 게 천일염이었어요. 염전이 첫 번째 없어진 이유는 아시다시피 공업용 소금이 나오잖아요. CJ나 롯데식품 등 뭐 이런 데서요. 근데 여기서는 천일염으로 생산하지 않아요. 공업용 소금은

화학염이에요. 소금 생산 방식이 바뀐 거죠. 그전에는 소금을 생산하려면 햇빛 나는 데서 천일염으로만 생산해야 했는데 이제 회사가 공장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저런 갯골 같은 염전에서가 아니라요. 그전엔 외국에서 싼 소금이 들어오니 수익성이 안 맞은 거지요. 그러니까 천일염 생산 면적이 점점 줄은 거죠. 천일염이 좋은 것을 알면서도 왜 안 먹겠어요. 비싸고, 그다음에 소금을 회사, 공장에서 생산하고, 우리 음식 만들 때 예전에 다 가루 소금을 넣었다고요. 우리 엄마들 보면 천일염을 쓰다가 미원 나오고… 천일염전이 왜 줄게 되는지… 싼 소금 수입산이 들어오고, 공업용 소금이 만들어지면서 폐염이 되는데.”

〈시흥시지속발전협의회 사무국장 강석환 구술〉

이유가 어떻든 소래 염전은 문을 닫게 되었고 역사가 된 지 24년이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옛 염전의 이야기를 수집할 겸 가끔 시흥 토박이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이렇게 물어본다. “혹시 염전에 대해 기억나는 것 있으신가요?”라고 그러다가 행운이 있는 날에는 염전에서 일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최근에 한 분이 이 질문에 해준 답변이 있다. “그럼, 아직도 기억나지. 소금을 싣고 지나가는 기차를 보면 빽빽이 기차라고 불렸어. 지나갈 때마다 빽빽하고 소리를 냈거든. 사진도 가지고 있는걸. 바로 이 기차야.” 사진 속 기차는 1990년대 소래 염전이 문을 닫으면서 함께 모습을 감춘 협궤열차¹⁰였다. 염전 주변에 살던 사람들의 기억에서 염전을 떠올리면 매개 소금창고와 협궤열차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과거 소래 염전 이야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갯골생태공원 역시 소금창고와 협궤열차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매일 많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10 「협궤열차」창, 윤무병,
1992에 소개되기도 했다.

질문: 갯골생태공원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답변: 최근 몇 년 사이 〈남자친구〉, 〈자이언트 팽TV〉, 〈김영철의 동네한바퀴〉, 〈6시 내 고향〉, 〈EBS 한국기행〉 등 여러 매체를 통해 갯골생태공원이 지상파를 타고 전국으로 소개되는 것을 TV를 통해 시청하거나 직접 안내한 적이 있다. 주로 소개된 곳을 보면, 소금창고가 있는 염전체험장과 수도권에서는 보기 힘든 내륙 안쪽으로 길게 뻗어 들어오는 ‘시흥갯골’¹¹의 자연환경이었다. 그리고 갯골생태공원의 랜드마크처럼 되어버린 흔들 전망대와 주변 부흥교 등이었다. 그 효과로 갯골생태공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기도 한다.

11 2012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약 4km의 길이로 방산 대교 아래에서 갯골생태공원 암석원 옆 팔각정까지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이다.

12 〈김영철의 동네한바퀴〉 23회
‘풍요롭다 갯골마을’ 경기도 시흥 2019. 5. 4 방영

한번은 〈김영철의 동네한바퀴〉¹²를 보고 오신 분이 있었다. 소금을 사러 왔다는 것이다. 갯골생태공원을 돌아보기보다는 천일염이 우선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소금을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실망이 참 커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그래도 염전체험장에선 천일염을 맛은 볼 수 있다고 공원을 둘러본 후 염전체험장으로 가기를 권했던 기억이 있다. 이렇게 천일염을 사려고 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갯골생태공원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염전체험장 앞 소금창고 주변으로 수풀이 무성하던 버려진 땅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상상하지 못

1990년대 폐염전 모습
©최영숙



할 것이다. 나 역시 갯골생태공원에 대한 글과 사진 그리고 과거 공원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에게 듣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1990년대 소래 염전이 폐염전이 된 이후 사람들이 폐염전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폐염전 당시 폐염전 주변에 다양한 염생식물¹³이 숲을 이루듯이 자라고 있었고, 드넓게 펼쳐진 갈대밭과 산림청 희귀 및 멸종 위기 식물 제194호로 지정된 옥수수꽃¹⁴을 닮은 모새달 등이 군락을 이루며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는 것이다.

또 한 되살아난 습지에 저서생물들이 서식하자 그 먹이를 찾아서 야생 보호종 조류 등이 관찰되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환경단체와 시민 단체들이 습지를 보존하고자 노력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살아난 습지 생태로 인해서 갯골생태공원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갯골생태공원에 찾아오는 사람 중 누군가에게는 궁금한 이야기이고 누군가에게는 관심 없는 이야기일 것이다. 하지만 잠시 갯골생태공원에 머무르게 된다면 갯골생태공원이 현재 모습을 갖도록 시작을 열어준 갯골 습지를 한번 걸어보는 행운을 가져보길 권해본다. 갯골생태공원의 갯골 습지는 단시간에 형성된 곳이 아닌 서서히 염전의 쇠퇴(衰退)를 따라 조금씩 조금씩 멈추기 시작한 염전을 점령하면서 오랫동안 형성된 습지로,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그들의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할 것이다.

“폐염이 갑자기 문을 닫는 게 아니라 공장도 그렇잖아요 생산량이 점점 줄잖아요. 이만한 큰 공장을 했다가 점점 주문이 줄면서 공장을 점점 줄일 거 아니야. 회사 사장 입장에서는 소금생산 사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남 사장도 옛날에 전체가 염전이었는데 소금이 안 팔려. 그러면 점점 줄일 거 아니에요. 소금 생산 면적을 줄이면 따른 면적은 어떻게 되겠어요. 소금을 이만큼 생산하다가 여기만 생산하면 돼 하면 나머지 면적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냥

13 소금기가 많은 땅에서 자라는 식물로 나문재, 칠면초, 통통마다, 해흥나물, 갯개미취 등이 있다.

14 『자연 습지가 있는 한강하구』, 지성사, 한동욱 외 1인, 2011, 17쪽

놀리네요.) 그렇죠. 놀리는 데에 생태가 살아나고 이렇게 갈대가 우거지고 이거 관리가 안 되는 거요. 여기서만 생산하는 거니까 나머지 너무 넓은 땅이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다 소금밭이었을 때는 다 관리하고 여전히 염전에 소금이 남아있으니까 풀도 안 나고 갈대도 안 나고 그다음에 저어새도 못 오구 그래요. 이만큼만 소금을 생산하고 나머지가 모두 공지야. 나머지가 관리가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갈대들이 나오고 염생식물들이 자라고. 소금 생산 전체를 하면 여기 소금밭에 자라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근데 안 자랐다가 생태가 살아난 거지…”

〈시흥시지속발전협의회 사무국장 강석환 구술〉

질문: 여기 소금창고도 많았었는데 갯골생태공원이 언제 조성되었나요?

답변: 1~2년 전이었던가 갯골생태공원에 찾아와 ‘시간의 언덕’ 조금 떨어진 넘어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을 향해 사진을 한창 찍고 있는 분에게 물어보았다. “갯골생태공원 참 멋있죠?” 그러자 그분이 했던 말이 기억난다. “네. 정말 멋지네요. 인천에 살고 있는데 바로 옆이지만 소래습지생태공원만 가보았지 갯골생태공원이 가까이 있는 줄 몰랐네요. 오늘 와보니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놀라운데요. 인천 소래습지생태공원보다 더 잘해놓은 것 같네요.”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뒤 “이제는 자주 다녀야 할 것 같아요”라고 덧붙였다. 타 지역 주민이 시흥 갯골생태공원을 칭찬해주니 참으로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갯골생태공원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잘 조성된 공원을 보고 감탄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그러면 갯골생태공원은 언제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진 걸까? 이 질문에 답을 찾아서 시흥시 공원과에 요청을 했다. 그리고 아래 ‘갯골생태공원 그간 추진사항’ 안에 갯골생태공원이 언제부터 계획되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갯골생태공원 그간 추진 사항

2003. 3. 15. ~ 8. 31.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서울대학교)

2005. 4. 16.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건교부)

2005. 10. 27. 중앙 투용자 심사 승인(행정자치부, 700억 원)

2008. 4. 16.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설:근린공원)

2009. 2. 27. 공원조성계획 결정(시흥시)

※ 공원 결정 실무 예정일(미보상 지역) - 2028.4.15

2009. 6. 1. 갯골생태공원 1단계(중심시설지구:230,050m²) 공사착수

2012. 2. 17. 시흥 갯벌습지보호지역 지정 (국토해양부)

2014. 6. 27. 갯골생태공원 1단계(중심시설지구:230,050m²) 공사완료

2014. 11. 24. 갯골캠핑장 착공

2016. 5. 11. 갯골캠핑장 준공 (38,157m²)

2018. ~ 현재. 공원 내 미보상 토지 단계별 보상 추진 중

출처: 시흥시 공원과 자료제공

그런데 가끔 공원 조성되기 이전에 폐염전을 찾았던 사람들은 간혹 소금창고가 여기 많았는데 어디로 갔냐고 묻는다. 소금창고가 사라진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항상 마음이 무거워지는 느낌이다. 2007년 이후에 갯골생태공원을 찾은 사람들은 2개의 소금창고밖에 보지 못했을 것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로 본 적이 없다. 왜냐면 과거 영화 속이나 나올 법한 일이 갯골생태공원 조성 과정에서 벌어졌다고 한다. 현재 소금창고 2개가 있는 주변으로 40여 개의 소금창고가 줄지어 있었다고 한다. 그것들은 등록문화재로 지정받으려고 심의를 사흘 앞에 둔 상태에 있었는데 갑자기 (주)성담(과거 대한염업주식회사)이 늦은 밤 몰래 대부분 소금창고를 파괴 해버렸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은 이유였다고 한다.

'(주)성담 관계자는 "1990년대 폐염전이 된 뒤 건물 대부분이 훼손됐고 이번 장마를 앞두고 붕괴 위험이 커져 철거를 한 것"이라며 "그동안 화재 등 크고 작은 사고도 많고 청소년 탈선 장소

등으로 이용돼 철거를 요구하는 주민 민원도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등록문화재 추진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건물 붕괴 위험이 커 철거가 불가피했다"며 "골프장 사업과 철거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¹⁵

현재 남아 있는 소금창고 앞에서 여러 개의 소금창고가 근대문화 유산 지정을 앞두고 사라졌다라는 말을 하면 많은 사람이 안타까워하며 "누가 그랬죠?"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다. 하지만 80년을 넘게 지탱해온 남은 소금창고 2개가 최근 다시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상태라고 한다. 이 소식을 2020년 5월 14일 시흥 지속발전협의회 강석환 사무국장을 찾아갔을 때 들을 수 있었다.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만약 한 번쯤 갯골생태공원을 찾는다면 과거 소래 염전과 연결하고 있는 소금창고의 긴 역사의 문 역시 두드려보길 바란다.

질문: 혹시 2012년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시흥 갯골'은 아시나요?

답변: 7월 29일 오후 12시 반경이었다. 갯골을 돌아보고 나오는 방문객이 큰소리로 "너무나 잘 만들어졌네" 몇 번을 말하며 감탄을 쏟아내는 모습에 반사적으로 물었다. "이곳 갯골생태공원을 다 돌아보셨나요? 그럼 혹시 갯골 습지도 보셨나요? 갯골생태공원을 다 보셨다고 말 하려면 갯골을 돌아보셔야 진짜 배기 모든 것을 보셨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자 "갯골 습지요? 잘 모르겠는데?"라는 대답을 듣게 되었다. 대부분 갯골생태공원에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갯골 습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시간의 언덕' 주변에서 사진을 찍거나 '천이 생태 학습장' 주변으로 짧게 산책하다가, 또는 흔들 전망대까지 갔다가 옆에 있는 갯골을 봤어도 갯골 습지에 대해 모르고 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그런데 반대로 갯골 습지에 대해 듣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



갯골생태공원 ‘습지보호지역’
(시흥시 공원과 제공사진)

나 갯벌 습지에 사는 게 등을 잡을 수 없다고 하면 언제 습지 보호지역이 되었냐고 물기도 한다.

그 질문에 충실히 답변을 해 본다. 갯골 습지는 ‘습지보전법’¹⁶ 제8조에 규정에 정하고 있는 기준, ①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② 희귀하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③ 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요건 중 ②와 ③에 해당하여 그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한다. 그래서 2012년 2월 17일 시흥시 장곡동 724의 10번지 일원 0.71km²(21만여 평)¹⁷ 즉, 방산대교 아래 물이 들어오는 갯골부터 갯골생태공원 암석원 옆 팔각정까지 4km 정도 구불구불 뻗어 있는 시흥 갯골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갯골 습지에서 식물채취나 저서생물들을 잡는 행위가 금지되었다.

갯골 습지보호지역을 거닐다 보면 가끔 멸종 위기 야생동물 11급 종인 황조롱이나 저어새를 보는 행운을 만나거나 백로와 왜가리 등이 먹이를 사냥하며 평화롭게 지내는 모습을 만날 수 있다. 만약 습지 지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부딪혀 시흥 갯골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런 행운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갯골을 훼손하기보다는 갯골의 평화를 지켜주며 많은 사람이 자연이 준 선물 갯골의 아름다움을 만나는 행운이 계속되었으면 한다.

그중에 하나가 식물을 채취하기 위해 봄날에 오는 경우다. 몸에 좋은 통통마디(합초)가 갯골생태공원에 가면 있다고 들었다면서 통통마디가 어디 있냐고 묻는 사람, 봄나물 등을 캐러 오는 사람을 매년 한두 명 정도는 만났던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을 우연히 만날 때면 이곳은 습지 보호지역으로 나물 채취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담합하는 것에는 참여를 했다. 체육센터에 모여서 시민들이 공정회 같은 것을 했다. 2월쯤이었다고 이억한다. 반대 장곡동 주민들과 논을 가진 사람들이 습지보호지역이 들어서면 개발을 못 한다고 시민들의 반발이 있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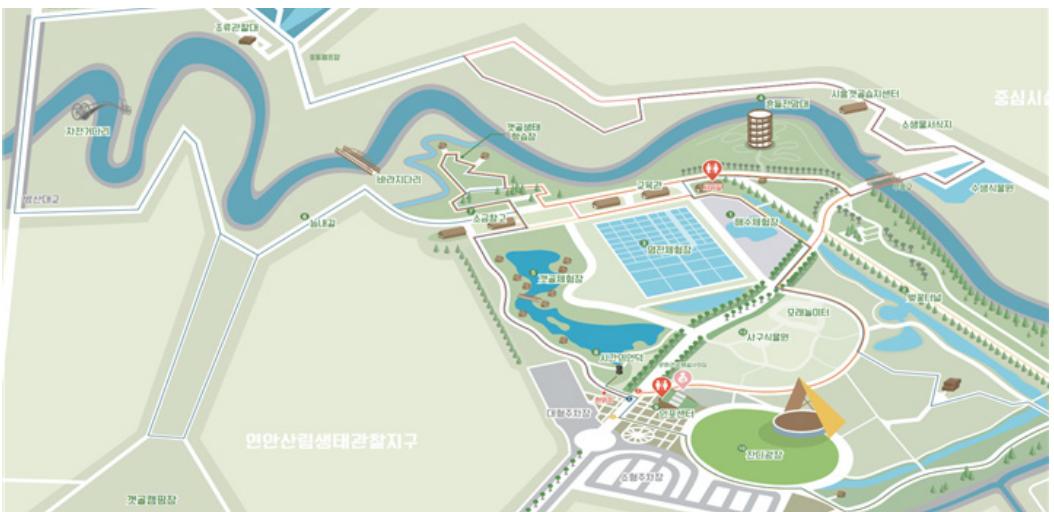
〈김영자 구술〉

질문: 혹시 체험하기 전 남는 시간에 갯골생태공원을 어떻게 돌아보면 좋을까요?

답변: 가끔 염전체험을 신청했던 분들이 더 일찍 갯골생태공원에 와서 남은 시간 동안 갯골생태공원을 돌아보려고 하는데 짧은 시간 돌아볼 수 있는 추천 코스가 있느냐고 묻는 때가 있다. 아니면 갯골생태공원 안내 센터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해주기 위해 공원을 효율적으로 돌아보기 좋은 산책 코스를 안내하는 표지판이 안내 센터 맞은편 입구에 설치되어 있다. 안내판에는 공원 전체 조감도와 함께 A, B, C, D 네 코스를 안내하여 방문객이 선택해서 다닐 수 있게 되어 있다.

갯골생태공원 전체조감도 (시흥시 공원과 제공)



A 코스: 갯골생태공원 안내센터

출발→잔디광장→천이생태학습관→흔들

전망대→염전체험장→갯골체험장(수상자전거)→안내센터 / 총 2.2km /
약 30분 소요

B 코스: 갯골생태공원 안내센터

출발→사구식물원→부흥교→갯골습지센터→소금창고→안내센터 / 총
3.8km / 약 1시간 소요

C 코스: 갯골생태공원 안내센터 출발→소금창고→탐조대→갯골염
생식물원→갯골캠핑장→소금창고→안내센터 / 총 4.5km / 약 2시간
소요

D 코스: 갯골생태공원 안내센터 출발→소금창고→탐조대→갯골자
전거다리→조류관찰대→부흥교→암석원→잔디광장→안내센터 / 총
9.4km / 약 3시간 소요

전기차로 움직이는 코스도 마련되어 있다. 안내센터에서 출발하여 암석원, 흔들전망대, 염전체험장을 지나 다시 안내센터로 돌아오는 코스로 10분 정도 소요된다. 해당 코스는 유료다.

질문: 시흥시를 대표하는 축제 이름이 무엇인가요?

답변: 9월쯤 시흥시 각 마을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특정 장소에 축제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시흥시의 대표 축제인 ‘갯골축제’를 알리는 현수막이다. 시흥시에 살면서도 갯골생태공원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현수막이나 지인 그리고 인터넷 등에서 갯골축제를 알게 되어 왔다가 갯골생태공원을 자주 다니게 되었다는 말을 가끔 듣게 된다. 나 역시 2011년도 갯골축제 소식지를 보고 축제

에 참여하면서 갯골생태공원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케이스다. 하지만 그 당시 축제를 참여하기 위해 갔다가 갯골생태공원 입구를 찾지 못하고 장곡성당 주변에서 헤매다가 가까스로 축제에 도착했는데, 설상가상으로 비가 양수 같이 쏟아져서 축제 콘텐츠를 하나도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던 기억이 난다. 그로 인한 아쉬움이 갯골축제를 자주 오게 만드는 계기가 아닐까 여겨지기도 한다. 그런데 누군가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갯골생태공원에서 열리는 갯골축제를 빼놓고 공원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만큼 중요한 갯골축제는 시흥시 대표 축제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2016년 갯골축제 갯골
패밀리런 참가자들 모습

갯골축제를 간단히 소개해 본다. 먼저 갯골축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궁금할 수 있다. 갯골축제는 2006년 8월 11~15일 ‘갯골의 바람… 그대로의 사랑’¹⁸이라는 주제로 처음 갯골생태공원에서 개최되었다. 그리고 갯골축제를 대표할 만한 프로그램으로는 ‘갯골 패밀리런(Family Learn)’과 ‘어쿠스틱 음악제’를 들 수 있다. 처음 갯골 패밀리런 프로그램이 갯골축제에 도입되던 해에 메달을 따고자 열심히 미션을 수행한 후 100점을 달성해서 메달을 목에 걸어 행복해 하던 엄마와 아들을 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또 한 축제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축제 참여 동기를 물어보면 “갯골 패밀리런에 참가하러 왔다”는 소리를 지금까지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다. 이렇게 끊임없이 좋은 축제 콘텐츠를 제공하려고 노력해온 갯골축제는 2015년 제 10회 축제 때 경기도 10대 축제로 선정되기도 했고,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유망 축제로도 선정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2020년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을 수상하는 한편 문화관광부선정 2020~2021년 문화관광축제로도 선정됐다고 한다. 한 번쯤 시흥시를 대표하는 갯골축제에 관심을 가지고 경기 유일의 내만 갯골이 만들어 낸 습지와 굽이진 갯골의 매력을 축제와 함께 즐겨봄을 권한다.

II. 갯골생태공원이 주는 의미 30인 30답

비릿한 바다향과 갯벌의 은빛 번들거림이 생생히 전해오는 구불구불 희도는 갯골 습지 주변을 따라 산책을 하는 사람들, 땃 달라붙는 스포츠웨어를 입고 열심히 폐달을 밟으며 갯골길을 쌩쌩 앞질러 가는 자전거 탄 사람들, 봄철이면 갯골 옆에서 쑥이나 냉이 등 나물을 캐는 사람들. 가지각색의 이유로 갯골을 찾아와 잠시나마 자연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시간을 보내려는 사람들에게 갯골생태공원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갯골생태공원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물었다. 몇 가지 질문에 대한 짧은 30답을 통해 갯골생태공원에 관한 다양한 생각들을 들어보자.

김영자: 시원함

박영교: 황홀함

위연주: 힐링하는 곳

곽은미: 숨

최선미: 잘 만들어졌다.

이은주: 시흥의 젖줄기

강석환: 과거, 현재, 미래

윤선: 역사적인 산물이 남아 있는 장소

유소양: 가족이 함께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가까운 곳

김지혜: 도심 속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

이소라: 전망대에 올라 훈~히 바라보는 자연의 경치는 백미!!

비공개: 내 동네 광활한 공원

강채윤: 서해 대표적인 습지보호지역 (시흥)

이지원: 살아 있는 생태공원

김세은: 살아 있는 교육장!

조은혜: 탁 트인 자연의 신선함을 느낄 수 있는 곳

조병숙: 자연과 문화가 함께 살아 숨 쉬는 시흥의 랜드마크이자 힐링

공간

김성숙: 휴식처

하영선: 마음의 평화

한민경: 주민을 위한 쉼터 공간

박현정: 소중한 소금을 어떻게 생산했는지, 갯벌이 소금 생산과 더불어 얼마나 소중한 생태환경인지 알아볼 수 있는 훌륭한 지역 유산입니다.

강성종: 바쁜 생활 속에서의 쉼터

우필식: 자연환경이 아름답게 보존된 좋은 곳

정조웰: 집보다 편안하고 바람이 좋은 곳

박상은: 시흥시의 과거 현재 미래의 연결 고리

이경희: 호기심과 힐링을 함께하는 공간

안정순: 시흥의 젖줄

비공개: 사계절을 보지 않고 갯골생태공원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자.

이소희: 나의 그리운 고향

박현숙: 멋지고 소개해주고 싶은 곳

비공개: 모든 것이 살아 숨 쉬는 곳으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

1) 질문: 갯골생태공원을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이소라: 인터넷 추천 여행지

비공개: '시흥 갈만한 곳', '시흥 나들이' 검색할 때 상위권에 나타나서 호기심으로 방문

강채윤: 검색(시흥 가볼 만한 곳)

이지원: 집과 가까워서

김세은: 아는 사람 통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조은혜: 네이버 블로그 검색을 통해

조병숙: 생태환경 관련 교육 중 소개로

이도건: 인터넷 여행 사이트 및 홍보를 보고서
이은: 지인 소개로
박안나: 지인 소개로
한민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장경익: 갯골생태공원 주변 논곡동에 살고 있어서
안경자: 갯골생태공원 옆 솔트베이 골프장 근무해서
김영자: 여기가 공원이 되기 이전 유휴지로 있을 때 남편이랑 차를 끌고
 가다가 섬산 캠프장이 있는 곳으로 우연히 드라이브를 하게
 되었어요. 옛날에 소금 나르던 길 지금 늪내길의 일부분인데
 갯골생태공원 소금창고에서 왼쪽으로 길이 쭉 나 있죠.
 아카시아가 있는 길 쪽으로 소금창고랑 즐비하게 서 있었어요.
 예전에 폐염전 창고랑 쭉 있었고 지금 광경이 아니라 나무가
 이렇게 우거져 있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그 당시 소래 어디를
 가다가 저기를 가보자 해서 우연히 오게 되었어요. 1997년 그때
 폐염전이 되고 얼마 안 되었으니까 아주 푸르렀던 것 같아요.
 너무 푸르러서 찾길로 그곳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 너무
 재밌었어요. 섬산 갈 때 굉장히 큰 숲처럼 어우러져 있었고
 가시령차가 다니던 길이었으니까 그곳에 철길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가니까
 소금 바닥에 말았던 타일들이 널브러져 있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여러 번 오게 되었죠. 그 당시 폐염전 창고 안에서 웨딩
 촬영들을 꽤 많이 하러 왔었어요. 폐염전 소금창고와 나무랑
 어우러져 있는 곳에서 드레스 입고 야외 촬영을 하는 게 너무
 아름다웠어요. 2006년도 첫 축제를 하기 전에는 코스모스 등이
 심어져 있어서 그런 것을 보려 다녔죠. 그러다가 첫 축제를
 한다고 해서 또 왔죠. 현재 수영장이랑 화장실 앞 소금창고
 있는 데에 샌드아트처럼 되어 있던 게 기억에 남아요. 또 이면수
 시장님이 때였나 어깨는 하늘색, 앞뒤는 하얀색인 티셔츠를

관람객 모두에게 주었고, 쿨 수건도 주어서 그때 갯골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곽은미: 지인을 통해서 듣고 갯골축제 현수막을 통해서 알고 오게
 되었다.
위연주: 시흥에 이사온 지 15년 됐는데 시흥에 무엇이 있는지 직접
 찾아다니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
최선미: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을 때 갯골생태공원을 알게 되어서 오게
 되었다.
박현정: 교통표지판 등을 보고 알게 되었다.
강성종: 친구의 추천으로, 옛날부터 학교라던지 여러 곳에서의 장소
 추천으로
우필식: 지역, 지인 소개로
정조웰: 신문을 보고 무료로 제공하는 축제 셔틀버스를 타고 오게
 되었다.
박상은: 갯골축제 시 홍보와 주변 사람들 소개 추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경희: 시흥시 관광 및 축제홍보로
안정순: 2015년 시흥시에 이사 왔는데 몇 년 전 축제를 하던 때 아이와
 와서 노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걷기 운동 때 물왕리에서
 걸어서 오거나 자전거로 왔어요.
비공개: 시흥시민입니다. 시흥시민에게 갯골은 내 집 정원 같은 곳이
 아닐까요? 그냥 바람 쐬고 싶을 때면 오는 곳입니다.
이소희: 주변 이웃들이 소개해 줬다.
박현숙: 소문을 듣고 좋다고 해서
김지혜: 원래 알고 있었습니다.

2) 질문: 갯골생태공원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소라: 생태환경과 어린이 생태 체험을 위한 곳

비공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다양한 체험 거리를 즐길 수 있는 곳. 다만 축제나 행사 개최 이외의 날에는 단순한 나들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쉽다.

강채윤: 습지보호지역으로서의 가치

이지원: 내륙 습지와 생태 서식처

김세은: 공원 내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고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현장성을 느낄 수 있다.

조은혜: 넓은 잔디밭에서 공놀이를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나무, 갈대숲 등 식물들이 잘 자라고 있어서 산책하면 힐링이 돼요.

조병숙: 경기도 유일한 내만갯골을 볼 수 있는 곳이고 저서생물, 철새, 염생식물 등을 관찰할 수 있다. 염전 체험을 할 수 있고 소금창고를 볼 수 있다.

이도건: 맑은 공기, 아름다운 풍광, 생태계 그대로의 신비

이은: 갯벌이 사라지는 것은 너무 맘 아프고, 보존되고 잘 개발되면 좋겠다. 역사적 가치도 다시 한 번 새기고 간다.

박안나: 염전과 갯벌, 습지가 잘 보존되어 있는 것 같다.

한민경: 자연보존?

장경익: 자연 그대로 꽃과 갯골 생태 모든 것

안정자: 아름다움

곽은미: 삭막한 도시를 벗어나서 자연적인 나무도 많고 꽃도 많고 해서 숨통이 트이기 때문이다. 생태가 살아 있는 생물들, 그리고 자연의 가치 등을 알 수 있는 통합적 생태보전구역이다.

위연주: 갯골이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기 때문이다. 내가 알기로 언젠가 순천만을 만든 공무원이 시흥에 왔었는데 '순천만보다 이곳 갯골이 가치 있는 곳이다'라고 말했었다.

김영자: 일단은 도심이라는 것이 모든 면에서 굉장히 발전을 해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시흥은 현재 상태로 생태계가 살아 있는 곳이잖아요. 도심 속에서 생태계를 찾아볼 수 있는 곳이 흔한

곳이 없을 뿐더러 지금의 상승 가치는 자연이 주는 가치가 크다고 보고 있어요. 생태계 하면 순천만을 꼽는데, 순천만까지 굳이 가지 않더라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힐링할 수 있고 생태계 관심이 있는 사람은 바닷가에서 자라는 조류나 식생 종류를 멀리 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볼 수 있죠. 생명의 소중함을 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하영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곳으로 사람과 자연이 서로 상생하는 곳이다. 골프장이 들어오고 있지만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갯골이라는 곳을 개발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자연의 일부고 훼손되지 않는 자연의 일부로 함께 가야 하는 곳이라는 그런 의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최선미: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많았다는 것, 인공적인 것이 많이 없다는 것

윤선: 놓게 본 것이 인상적이었고, 염전의 보존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것 같다. 내 아이와 그것을 또 체험해보고 싶다.

박현정: 갯벌의 생태학적인 가치와 지역의 옛 산업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장소로 소중한 지역 자산이라 생각된다.

강성종: 도심에서 볼 수 없는 자연의 여유로움이 느껴진다.

우필식: 소래 염전의 보존

정조엘: 깨끗한 공기와 드넓은 공간

박상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예전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자연을 가깝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시흥시의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희: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통생활환경과 청정자연환경

안정순: 생태와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것

비공개: 사계절이 뚜렷해서 어떤 계절에 와도 좋습니다. 특히 특이한

지형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곳입니다. 도시에
둘러싸여 있는 연안 습지가 제가 생각하는 갯골의 가치가
아닐까 합니다.

이소희: 경기도에서 자연생태가 그대로 보전되어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함

박현숙: 생태문화적 가치

김지혜: 자연과 어울릴 수 있는 것

3) 질문: 공원 주변이 개발되어 생태환경이 파괴되고 옛 흔적이 사라진다면?

이소라: 책으로만 보는 옛터에 대한 '자료'로서의 의미만 가지게 됨

비공개: 갯골생태공원의 의미를 잃을 것 같다. 단순 공원으로만 이해할
것 같다.

강채윤: 시흥만의 고유한 관광지가 소실된다.

이지원: 시흥의 가장 우수한 환경이 사라지는 것이죠. 갯골은 꼭 지켜야
합니다.

김세은: 수도권(서울 근교)에서 볼 수 있는 생태환경이 파괴된다면
환경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조은혜: 가족들이 힐링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파괴된다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하영선: 안 되지요. 절대로 안 되는 거지요. 변화되는 것도 시흥이고
변화도 역사의 일부분이기는 하나 뭔가 영리 목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이제 우리 시흥은 그만해도 된다고 봅니다.
많이 발전했으니까요. 내가 살고 있는 시흥은 어디를 봐도 예쁜
곳인데… 아~ 좋다 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 주변에 가깝게
있는데, 발전과 개발을 더 하는 것은 시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봅니다.

김영자: 개발이 시흥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이랑 같이 되는 것으로,
혼자만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함께

지켜나가야 할 곳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개발이 된다면 오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지금 이대로 모습이
좋아서 오는 것이니까요.

조병숙: 도심에서 찾아보기 힘든 자연경관이 사라지고, 많은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어 동식물이 사라질 것이다.

이도건: 시민들의 주요 쉼터가 사라지므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은: 슬플 것 같다. 옛 모습이 사라지는 것은 맘이 아프다.

박안나: 안타까울 것 같다.

한민경: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죠!

장경임: 많이 맘이 아픕니다. 자연 모습 그대로 시골스럽고 공기도
좋습니다.

안경자: 아쉬움

위연주: 안타깝죠. 이것은 사람이 다시 만들 수 없으니까, 그리고 다시
회복이 불가능하니까요.

최선미: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윤선: 훼손이 되는 것보다는 그것을 유지해서 더 돌보이게 해주어야
할 듯하다.

곽은미: 사라지면 안 되죠. 갯골생태공원은 우리 시흥의 중심
랜드마크이고, 환경에 많은 좋은 영향을 미치고, 몸과 마음의
힐링 장소고,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중요한 터전이기
때문에 꼭 보전되어야 합니다. 시흥시 하면 생태공원이니까요.

박현정: 생태환경 유지를 위해 바닷물의 유입을 막지 않도록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공원의 가치가 올라가도록 시설 보수
등을 강제해서 개발하도록 유도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강성종: 안될 것 같다. 개발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생태환경을 보존시키는 상황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우필식: 파괴되지 않고 유지되길 바랍니다. 만약 파괴된다면 아이들이

가까이서 소래 염전을 볼 수 없어 아쉬울 듯합니다.

정조웰: 시흥시 주변은 아파트만 있는데 공원이 사라진다면 중요한 보물을 잃는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

박상은: 시흥시의 특색 하나가 없어지고 가족들의 휴식 공간, 아이들의 체험 공간이 없어져 아쉽고 큰 손실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경희: 시흥시만의 특색이 사라져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지 않고, 관광도시로서 기대감이 상실될 것이다.

안정순: 너무 안타깝죠. 그것이 있으므로 해서 공원 환경과 어우러진 것인데, 만약 이것이 없어진다는 것은 무언가 개발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생태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없어진다면 너무 설령하지 않을까요? 그곳에 살고 있는 동·식물도 위낙 많고 좋은데,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공개: 시흥의 역사와 문화를 뒤돌아볼 곳이 어디 있을까요? 시흥에서 아니 갯골에서 염전의 흔적이 사라진다면 시흥 땅의 촛불점을 잊어버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소희: 다음 세대에 남겨줄 수 없어 속상할 듯.

박현숙: 안타깝고 슬플 것 같습니다.

김지혜: 보존되길 원해요!

지 생물들에게 서식 공간을 제공해준다. 야생 조류들은 평화로운 습지가 있기에 자유롭게 먹이 활동을 즐긴다. 하지만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갯골 생태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갯골생태공원을 자세히 들여다 본 사람들이라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갯골 습지에 식물이 없는 곳이 많네요? 또는 야생보호종 붉은 발을 가진 “농계가 잘 보



2020년 5월 시흥갯골 습지보호지역 풍경



2015년 시흥갯골 습지보호지역 풍경

III. 살아 있는 에코뮤지엄, 갯골의 시간은 계속된다

갯골생태공원에 대해 처음 관심을 가지고 배우게 되었을 때 느꼈던 것은 역시, 시흥시의 가장 큰 생태적 자원이 바로 갯골생태공원이라는 것이었다. 시흥시 갯골생태공원을 찾아온다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사계절 변함없이 바다 향기를 실어 나르는 밀물 때는 갯골 곳곳을 적신다. 그로 인해 갈대와 모새달 그리고 염생식물들이 자라 습



최근 들어선 건물

이지 않네요?”라고 말이다. 과거 2015년도 갯골길을 따라 걸을 때는 갯골 습지보호지역인 갯골 습지에 자라고 있는 염생식물이 빼곡히 군락을 지어 자라고 있었다. 하지만 2020년 5월 갯골 습지보호지역에 자라는 염생식물이 군데군데 조금밖에 자라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갯골 습지에 이상 신호가 오고 있는 가장 큰 생태파괴 요인 중 하나로 갯골생

태공원 옆에 들어선 솔트베이 골프장의 강렬한 야간조명을 사람들은 꼽고 있다. 최근도 골프장 조명에 의해 주변 농작물에 빛 피해를 준다고 (주)성담을 향해 시위¹⁹를 벌였다는 기사를 인터넷에서 보았다.

이렇게 갯골 생태가 위협을 받는가 하면 갯골생태공원 주변은 항상 개발 위험에 놓여 있다. 옛 폐염전이 사유지인 탓에 언제 개발로 인해 현재 갯골생태공원의 풍경이 바뀌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 예로, 최근 골프장에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보았다. 그 건물이 들어서면서 갯골생태공원의 소금창고 옆 풍경이 바뀌게 됐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갯골 습지의 위협 요소로 자리하게 됐다는 것이다. 처음 그 건물을 짓는 모습을 보는 순간 안타까움이 밀려왔고 갯골 습지가 조금은 덜 훼손되고 개발되는 속도가 조금은 더 느려지길 바라는 마음을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다.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갯골생태공원에서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갯골생태공원을 여전히 찾는 그들에게 ‘바다 향기가 머무는 땅, 갯골 30인 30답’에 대한 응답을 들을 수 있었다. 그들 역시 ‘시흥갯골’과 ‘옛 염전 터’ 등 갯골 생태가 더 이상 개발되지 않고 지금의 모습 그대로 오래도록 보존되길 바라는 한결같은 마음이었다.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갯골생태공원에 대한 매력을 전부 보고 가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여러 번 공원을 찾아 구석구석 돌아본

19) 인천일보, 2020. 4. 6일, 시흥 갯골생태공원 인근 농민들 “골프장 야간조명 때문에 농작물 피해 심각”

20) 에코뮤지엄(Ecomuseum)이란, 본래 생태 및 주거환경을 뜻하는 ‘에코(Eco)’에 박물관이라는 뜻의 ‘뮤지엄(museum)’이 결합된 단어다. 에코뮤지엄은 지역 고유의 문화와 건축 유산, 생활 방식, 자연환경 등을 보존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문화예술적인 재해석과 활동 가치를 높여내는 살아 있는 박물관이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2018 시흥에코뮤지엄 결과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이다.

사람들은 알 것이다. 우리가 만나는 갯골생태공원이 사계절 내내 바다향기를 담아 갯벌이란 도화지 위에 다양한 색을 입히며 매 순간 작품을 만들어내는 살아 있는 에코뮤지엄²⁰이라는 것을 말이다. 봄이면 싱그런 새싹들과 농게, 방게, 말뚝망둥이, 갯지렁이 등의 흔적들이 갯골을 그려 놓고, 여름이면 붉은 진분홍빛 염색식물로 물들이고, 가을이면 서서히 익어 가는 갈대와 억새 춤 사이로 스치는 바람 소리가 음악이 되고, 겨울에는 차가운 냉기에 움츠린 갯벌 그 자체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경기 유일한 내만 갯골과 탁 트인 옛 염전의 풍경을 그대로 마주하는 행운을 우리는 누리고 있다. 갯골생태공원 주변이 시흥시민에게 얼마나 중요한 생태자원인지 다시 한 번 되새기며, 개발보다는 보존으로 갯골의 시간이 계속되길 바라본다.

참고 문헌

- 낮은 기억을 기록하다 (시흥시, 2016)
- 시흥땅 남아 있는 향기 (시흥시, 2014)
- 염부, 소금밭에 돌아오다! (시흥지속발전협의회 외, 2018)
- 경기만 에코뮤지엄 평화생태기행 (인천일보)
- 길위에서 만난 시흥 (시흥시평생교육원, 2012)
- 시흥시의 어제와 오늘 -간척을 중심으로 (이병권)
- 버려진 염전에 남아 있는 소금꽃 핀 나무말뚝 (2005, 김성원)
- 여행이 즐거워지는 사진 찍기 1
- 시흥갯골 ‘국가습지보호지역 모니터링’ - 시흥시 습지학교자료
www.siheung.go.kr
- www.law.go.kr (습지보전법)
- www.ecomuseum.kr
- 시흥 갯골축제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경기도 화성시

제조업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김양우

I. 서론

II. 본론

1. 경기도 화성시의 제조업
2. 제조업과 외국인 노동자들
3. E-9(비취업전문비자)와 고용허가제
4. 제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
5. 화성시의 외국인 주민들의 문화
6. 외국인 노동자 3인의 인터뷰

III. 결론

I. 서론

경기도 화성시는 경기 남부에 있는 지역이다. 화성시는 남북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며 서남쪽으로는 평택항과 인접해 있는 지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다양한 산업 현장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경기도 화성시에는 20여 개가 넘는 산업 단지들이 있다. 향남제약단지, 덕우공단, 화성팔탄공단, 쌍송공단, 석포산업공단, 금복산업공단, 마도송정공단, 청원공단, 은장공단, 송암산업공단, 우정산업단지, 마도청원공단, 문학공단, 양감산업단지, 고모리공단, 박석공단, 금당공단, 동문공단, 삼덕공단, 호곡공단 등 20여 개가 넘는 산업단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 단지에 속하지 않은 공장들이 위치하고 있다.

본인은 이러한 경기도 화성시를 중심으로 제조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 국내 제조업의 생산직이라는 직업은 1980년대 후반부터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기피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로 대체하여 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들은 제조산업과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문화적으로 차별을 받아오거나 이주노동자의 노동은 평가 절하되기도 하였다. 이 논문은 본인이 경기도 화성시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직접 사람들과 만나 인터뷰했던 결과물을 중심으로 하여 작성하였다.

II. 본론

1. 경기도 화성시의 제조업

경기도 화성시는 경기도 남부에 있는 지역이다. 경기도 화성시는 동서

로는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며 서남쪽으로는 평택항과 인접해 있는 지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화성시는 크게 동부와 서부로 나뉜다. 동부는 수원과 동탄 인근에 도시화가 진행된 주거지, 아파트, 디지털 산업 단지가 자리 잡고 있으며, 서부 지역은 제조업 산업장과 공장들이 비교적 많이 분포하고 있다.

제조산업은 산업화 초기 서울특별시에 많이 몰려 있었던 데 비해 1980년대에 들어서 외곽으로 분산되거나 중국이나 동남아 등 해외로 연결망을 찾기 시작했다. 도심에는 서비스업, 소프트웨어산업들이 집중하여 그 결과 2013년 제조업의 출하액 비중은 경기도, 울산광역시, 충남, 경북, 경남, 서울특별시 순으로 많았다.¹ 이는 현재 국내의 제조산업은 수도권의 교외와 지방에 많은 비중으로 분산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기도 화성시는 제조업의 산업 현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수도권 외곽 지역 중 하나이다. 대표 산업 단지로는 동방산업단지, 동탄산업단지, 발안산업단지, 아산국가산업단지, 장안 첨단2 일반산업단지, 정남산업단지, 팔탄산업단지, 향남제약산업단지, 화성바이오밸리산업단지, 동탄도시 첨단산업단지, 마도일반산업단지, 송산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장안첨단일반산업단지,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주곡일반산업단지, 화남일반산업단지 등이 있다. 그 외에 화성시에서는 산업 단지에 속하지 않은 제조업 공장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화성시 정남면 일대, 많은 공장들이 들어선 모습



발안산업단지(항남읍 구문천리)



신왕산업단지(양감면 신왕리)



마도산업단지(마도면 쌍송리)



화성바이오밸리(마도면 청원리)

2020년 5월 공장등록기준 현황을 보면 화성시 일대에 공장은 9,400개소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기계 금속 공장이 4,676개소로 가장 많으며, 전기전자부품 공장도 1,401개소가 있다. 화성시 내에서 공장의 업체가 많은 지역은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남양읍 순이다.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남양읍은 경기도 화성시의 서쪽과 남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해안 고속도로와 평택시·홍고속도로가 있다. 경기도 화성시의 동부 지역인 동탄에도 산업단지들이 있으나, 동부 지역은 토지의 대부분이 거주 지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반도체, 디지털첨단산업들이 주로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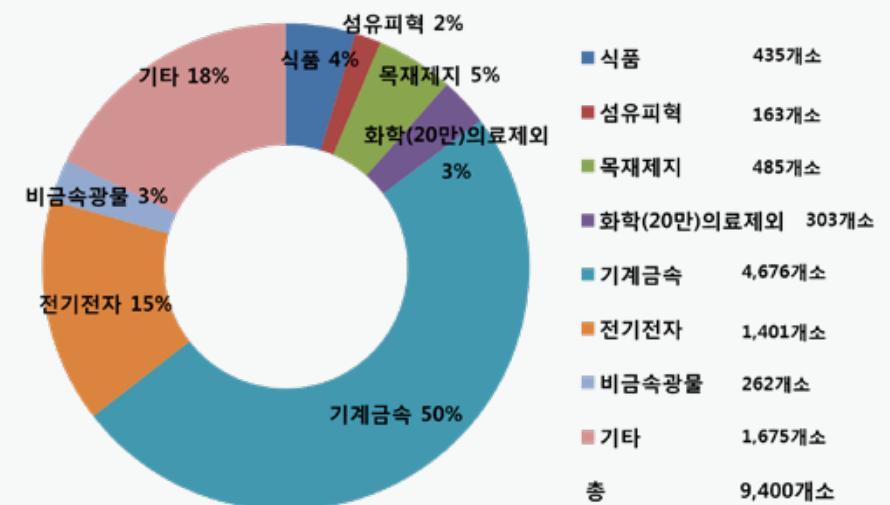
2020년 5월, 경기도 화성시에는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15개소이고, 50인 이상의 중소기업은 388개소, 그리고 50인 미만의 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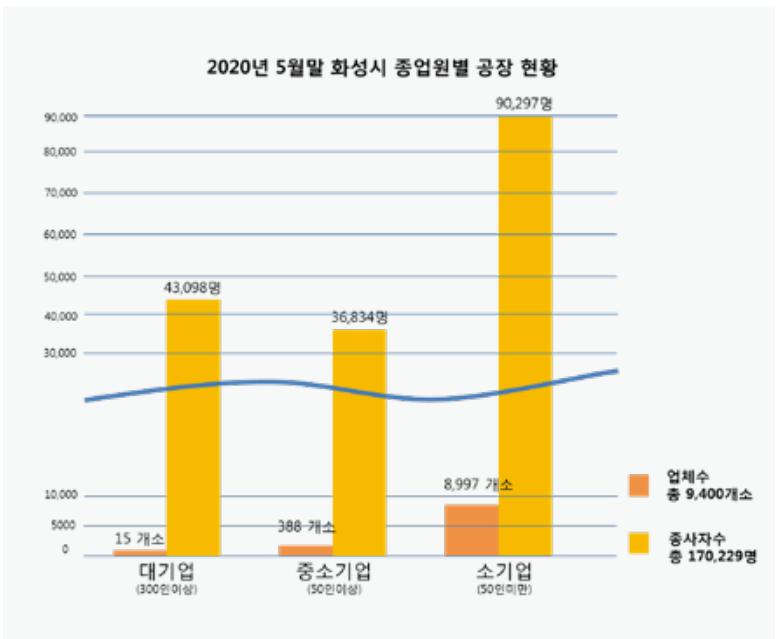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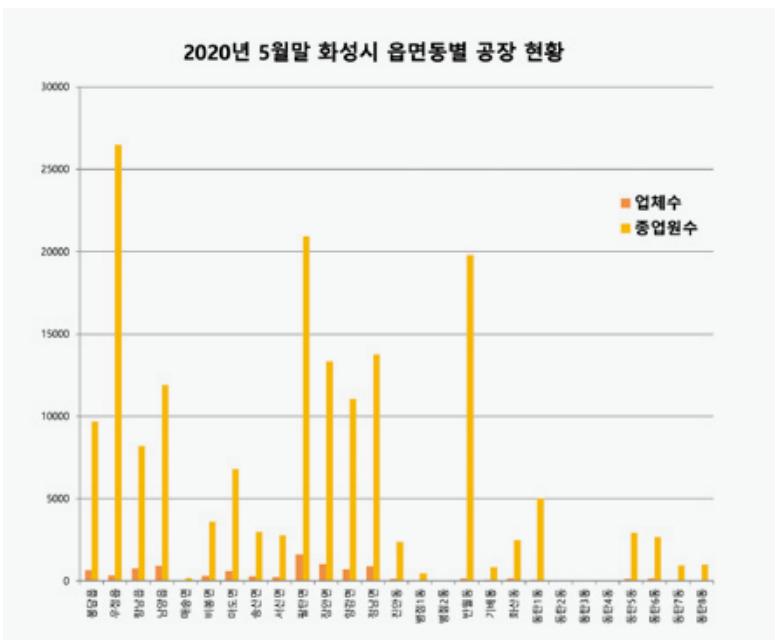
8,997개소가 위치하고 있다. 화성의 근로자의 수는 총 170,229명이며, 대기업이 43,098명, 중소기업이 36,834명, 소기업이 90,297명이다.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제조업 공장 근로자의 반이 넘는 사람들이 대부분 10인 미만의 소기업에서 종사하고 있다. 즉, 경기도 화성의 제조업 규모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보다는 10인 미만의 소기업들이 많이 있으며, 소기업, 즉 영세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 화성시의 종업원별 공장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화성에 위치한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근로자의 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화성시의 서부의 경제는 현대-기아자동차 그 관계회사들이, 화성시 남부에는 제약회사 공장들이, 화성시 동부의 경제는 삼성반도체를 비롯한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제조산업과 연계된 중소기업과 소기업들까지도 함께 찾아 볼 수 있다.

2020년 5월말 화성시 종업원별
공장등록현황 (자료: 화성시청)

2020년 5월말 화성시 공장등록현황





2. 제조업과 외국인 노동자들

이렇게 다양한 규모의 수많은 제조산업 현장들이 자리하면서, 몇몇은 화성시를 국내 제조산업의 중심으로 소개하며,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 등 한국 산업들을 이끄는 향후 부유할 도시로 예측하기도 하였다.² 그러나 이렇게 화려한 면과 달리, 현실의 제조산업 현장들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강경래, “미래산업 메카 화성시-반도체·바이오·미래차 생태계 갖춰”, 이데일리, 2019.10.15. 1쪽

3 이현욱,『한국 고용허가제 정책과 이주노동자의 공간분포 특성』(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8권 3호, 2015), 58쪽

4 윤인진,『국제이주인구의 증가 : 외국인근로자와 결혼 이민자』(한국의 사회동향 - 인구 2008) 25쪽

우선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점점 글로벌화되면서, 1990년대부터 국내 제조업은 경쟁력을 상실했고, 서비스업이나 소프트웨어 등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형태로 산업이 재구조화되었다. 이와 함께, 산업 경제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자본을 집중시킬 수 있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 성장으로 경제 구조를 재편시켰는데, 이러한 상황은 자본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이나 소기업들이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증폭되었다. 또한, 중국이 값싼 노동력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면서 국내 제조업은 더욱더 어려워졌다.³

이와 함께, 국내에서는 1980년대 이후, 국내 기업의 임금이 빠르게 상승되고,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내국인 근로자들은 근무 환경이나 연봉이 좋고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선호하는 현상이 있었다.⁴ 이렇게 글로벌 경제 체제의 변화 속에서 소규모 제조업의 힘든 생산 환경과 낮은 부가가치 창출, 그리고 국내의 제조업 생산 인구의 절감은 제조업에서 외국인 노동력을 필요하게 되었다.

실제 화성시에 위치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조업 사업장을 만나면서 사업장의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이유를 들을 수 있었다. 제조업 현장은 자동차 부품을 성형하는 사출 성형을 하는 3차 제조업 현장이었는데, 낮은 부가가치 창출과 대기업과 하청 관계 속에서 정해진 기간에 납품을 하기 위하여 외국인 노동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을 만나 볼 수 있었다.

“현재 인원 문제, 인건비 문제들이 있다. 정해진 날짜에 제품을 납품해야 하는데 납품하는 업체에서는 생각보다 금액을 많이 주지 않는다. 그냥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로만 준다. 그런데 정해진 기한을 맞추려면 야간은 사용을 할 수가 없다. 어떤 업체가 야간에 추가 근무로 일하는 것에 대하여 제품 값은 많이 주고 제품 값을 적게 주고 그러는 데가 있나. 없다. 그런데 시간을 보면 야간 업무를 할 수 밖에 없다. 이익이 별로 없으니까 잘못하다 보면 적자가 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외국인이랑 똑같이 한국 사람이랑 쟁여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도 하다. 한국인과 똑같은 임금을 주게 되면 마지막 부담은 기업주한테 가게 된다.” (박주식, 66세, 사출 성형, 화성시 팔탄면)

또 다른 화성에 위치한 발포지 회사는 국내 소규모 제조업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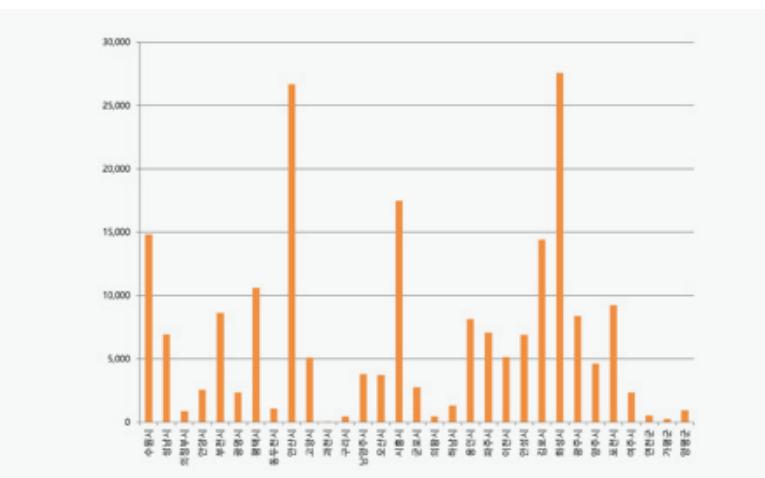
“젊은 친구들은 1년 못 버틴다. 더 좋은 데를 찾아가려고 한다. 화성에 오니 외국인 친구들이 많아서 썼는데, 나는 외국인 친구들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불만도 없고, 일을 덜 하려고 하지 않고, 성실하다. 밤이고 낮이고 일거리만 있으면 일할 수 있고. 한국의 사람들은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야근을 안 하려고 한다.”

(유형태, 61세, 발포지 제조, 화성시 우정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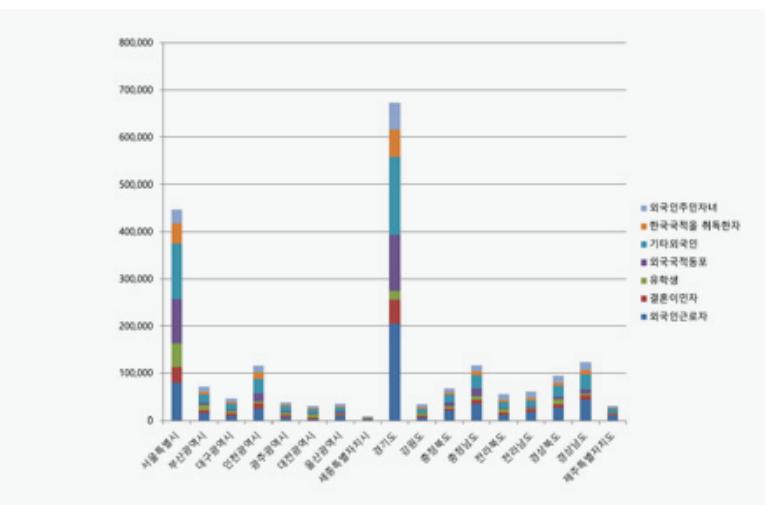
행정안전부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는 국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조사되었고, 그중에 화성시는 수원시와 안산시, 시흥시와 함께 외국인 주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로 발표되었다. 또한 화성시는 결혼 이민자나 외국 국적 동포를 제외한 등록된 외국인 근로자수가 경기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화성시는 2018년 12월 기준으로 등록 외국인이 3만

9000명이 넘는다. 비등록된 외국인과 단기 체류 외국인을 포함하면 5만 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기준으로 화성시 인구가 75만 명에 해당되는 것을 생각해보면, 화성시의 인구 100명 중에 5~6명은 외국인 노동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성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분포를 알아보면, 외국인 노동자의 국적으로는 중국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많고, 그다음은 태국, 베트남, 네팔 순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근무하는 곳은 제조업이었으며, 남성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여성 외국인 노동자보다 더 많은 편이다. 여성의 경우는 결혼한 이주여성들이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경기도 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
주민현황, 2018)



국내 주요 시도별 외국인
주민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
주민 현황, 2018)



3. E-9(비취업전문비자)와 고용허가제

다음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오게 되는 절차와 경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 인력들은 각자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 받는 비자가 다른데, 여기서는 E-9(비취업전문비자)를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E-9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한민국의 취업을 위해 받는 비자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 제조업뿐만 아니라 건설업, 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등에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다.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등 국가의 20세에서 38세의 남성, 여성들이 E-9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비자를 취득하면 3년에서 최대 4년 10개월까지 국내에 취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는 이유는 대부분 경제적인 목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았다. 자국과 한국의 임금차이로, 가족들을 부양하거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하여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자격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입국을 하게 되는 경로를 살펴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자국에서 가장 먼저 1~2달 정도 특정 기간 동안 한국어를 배운다.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어 시험을 준비하고, 체력 테스트, 면접을 통과해야 한다. 이후, 외국인 노동자의 자국 정부는 한국어 시험 성적, 경력 등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한국에 들어올 송출 대상을 선정하면, 한국의 산업인력공단에서 작성된 송출 대상 인력을 기초로 외국인 구직자 명부를 작성한다. 그다음, 한국의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서를 신청한 후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 구직자 명부 중 구직 요건에 맞는 외국인을 복수 추천하고, 사업주가 추천된 외국인 구직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⁵ 그러나

이러한 선행 과정 진행 때문에 일이 적성에 맞지 않거나 어려워서 사업장을 옮기고자 하는 경우, 실제로 사업장을 바꾸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해진 사업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불법체류자가 되기도 한다.

또한, 언어라는 것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막상 타지에 가면 서투른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이 실정이다.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산업 현장에서 소통을 할 때 언어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언어 차이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일을 진행하지 못하거나, 회사와 동료 간에 다툼이나 불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일하는 시간 외에 여가 시간 중에도 많은 시간을 한국어를 배우고 이해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4. 제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

이렇게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화성의 제조업 산업 현장에서 만날 수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제조업 생산 라인에서 단순 반복 노동 업무를 하는 비중이 많았다. 본인이 만나보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동차 사출 성형 공장에서 자동차 부품을 만들거나, 코로나 키트의 케이스의 불량을 확인하고 포장하는 일, 아파트 입구의 자동문을 만들거나, 가로등을 만들고 용접하는 일, 뚝배기 그릇을 만드는 일, 화장품 케이스 안에 들어가는 포장 완충재를 만드는 일, 손 소독용 알콜 스왑 제조 회사에서 탈지면 기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들은 생산 라인에서 기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생산되는 물품을 직접 손수 체크하고 만들거나 확인하는 일을 했으며, 불량 없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맡았다.

⁵ 이대창, 설동훈, 강준원 공저,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추가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2011. 11~12쪽



사출 성형 공장에서 코로나 키트의 케이스를 포장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모습



알콜스왑 공장에서 탈지면을 만들기 위해 배합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모습



포장 밸포지를 겹쳐 만들어내는 외국인 노동자의 모습



정수기 외장 부품을 만들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모습

이들의 업무 환경은 소음이 크거나, 먼지가 많은 곳들도 있었다. 소음이 큰 기계 옆에서 하루 8시간 넘게 일을 하며, 야근을 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일주일에 주 5~6일을 일하며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근무지에서 보내고 있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제조업 생산직 업무에 일하는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기계와 같이 일하거나 기계를 다루는 업무들이 많아 다치기도 하고, 단순노동을 반복하면서 근육통에 시달리며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산업현장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 제품들은 우리가 약국이나 병원에서 사용하는 손 소독용 알콜스왑, 올리브영이나 다이소에서 구매하는 칫솔, 기계의 부품으로 들어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정수기가 되기도 하며, 제품을 포장하는 포장 재료가 되기도 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소비하고 당연하게 사용하는 제품들의 생산 과정에는 이들의 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화성시의 외국인 주민들의 문화

외국인 노동자들은 회사에서 마련해준 숙소나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대부분의 평일은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보내는 편이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인 주민들의 유입과 증가가 도시 내 거주지의 확장으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소규모의 외국인 노동자들,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들이 화성시에 생겨나기도 하였다.

그중에 하나는 발안만세시장이다. 발안만세시장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평리에 위치해 있는 재래시장이다. 만세시장 근처에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외국인 다문화 가정 등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3만 명 이상 되며⁶ 오일장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장의 매출 또한 내국인보다 외국인 거주자들이 매출을 더 높게 올리는 편이다.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장터에 오는 사람들 중 반 이상은 외국인이며,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식료품 마트나, 외국 레스토랑, 여행사 환전소 등도 자리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화성시 향남읍의 외국인 복지센터를 들 수 있다.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에 위치한 화성 외국인 복지센터는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의 복지와 지역 사회 안착

발안만세시장 일대



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이다. 화성 외국인 복지센터는 화성의 이주노동자들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화성 향남 발안 제약단지에 위치하게 되었으며, 외국인 주민들은 휴일인 일요일에 자주 방문하는 편이다. 화성 외국인 복지센터는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주민들에게 부족한 한국어를 알려주고,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에게 한국 체류 기간 동안 도움을 주는 시설이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와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문화적 장소들은 내국인과 가까운 장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차이와 택지개발로 인한 공간 배분으로 인해 삶의 시간을 보내는 경로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차이들이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사이에 거리를 만드는 것처럼 보여 아쉬웠다.

6. 외국인 노동자 3인의 인터뷰⁷

⁷ Chamikara, Khemra, Win Min Aung 외국인 노동자 인터뷰 (2020년 5월 10일, 6월 28일,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아래는 경기도 화성시에 체류하며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3인을 만나 나눈 인터뷰 내용이다. 짧게나마 이들의 삶과 업무에 대하여 들어볼 수 있었다. 함께 대화를 나눈 대화의 기록을 소개한다.

HEELLE LIYANAARA CHCHI CHAMIKARA (39세, 스리랑카)

Q. 소개를 부탁합니다.

A. 스리랑카에서 온 차미카라라고 합니다. 가로등 만드는 회사에 근무하고 용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월급을 계산하는 경리로 일한 다음 졸업 후 지인 부모님의 권유와 얘기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스리랑카 남쪽에서 살았습니다. 2005년 9월에 한국에 처음 왔고, 2015년에 재입국자로 들어왔습니다. 2005년 스리랑카에서 체력도 키우고, 2주 동안 한국말 배우고, 2주 후 한국어 시험을 보고 한국에서 Re-3비자로 2년 동안 일했습니다.

다. 이후 E-9비자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15년 동안 같은 경기도 화성의 팔탄면 노하리에 있는 고속도로나 종합운동장에 들어가는 가로등 만드는 회사에서 용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와이프랑 아이랑 함께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E-7비자인 숙련 전문 인력, 전문직 취업비자를 통해 한국에 오게 되었고, 이 비자의 경우 가족들과 함께 들어올 수 있어 한국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Q. 한국에 와서 어려웠던 지점은 무엇인가요?

A. 처음에는 스리랑카에서 사무실에서 경리로 월급을 계산하는 업무했는데, 한국에 와서 제조업의 생산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제조업이 없었습니다. 용접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큰 회사이기도 하고. 저를 왔다 갔다 하고… 상상도 못했어요. 처음에는 공구 이름도 몰랐습니다. 벤치나 몽키스패너 등 이런 도구들의 이름조차도 몰랐습니다. 회사에서 용접의 보조 역할을 했었는데, 망치를 가져다 달라고 하면 벤치를 가져다주고 몽키스패너를 가져다 달라고 하면 망치를 가져다주고 그랬습니다. 저에게 그걸 던지기도 했습니다. 내가 한국말도 모르고 일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기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지옥이었어요.

그리고 용접을 하다보면, 시력이 안 좋아져요. 처음 시작한 6개월 동안은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용접이라는 게 어떤 일인지 잘 모르니까요. 용접을 하다보니까 눈에 계속 강한 빛이 노출되는 거예요. 밤에 눈이 아파서 혼났었어요. 보통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에 11시간 정도를 일했는데, 일이 끝나고 쉬러 숙소에 돌아가면 밤에 불빛도 못 봤어요.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서 친구가 데리고 가고 그랬어요. 처음에 6개월 정도는 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6개월이 지나고 자꾸 하다 보니까 조금 적응이 되고 숙련이 되기 시작하였어요. 처음에는 손을 한 번 다쳤고, 작년에는 발 다쳤고, 올해는 허리 부상

입었어요.

아직도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차별이 좀 심해요. 월급도 한국인 동료들과 같은 일을 하는데도 더 적고, 저한테는 더 많은 일들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샤큐실도 2개밖에 안 되고 너무 적은 거 같아요.

Q. 한국의 문화와 한국어를 배우는 방법들이 있었나요?

A. 스리랑카에서 2주 동안 한국어 공부를 처음 하였고, 2005년 9월 달에 한국에 와서 수원 이주민센터에서 무료로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데에서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2007년 한국어 능력시험 초급 시험을 보았습니다. 2015년에 다시 한국에 다시 오자마자 한국어 능력시험 보고, 자격증을 따고 외국인 복지센터에 와서 토픽시험 6급을 따고 사회통합 5급을 땄습니다. 계속 1년에 2개씩 시험을 보았습니다.

Q. 일을 하지 않거나 쉴 때 어떻게 시간을 보내나요?

A. 일 끝나고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거나 맥주를 즐기거나, 일요일에는 봉사활동을 합니다. 혹은 시간이 되면 전기나 바리스타 등 배우고 싶은 것들이나 하고 싶은 일들을 틈틈이 하는 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로서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봉사활동을 1년에 몇 시간 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주 5일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가족들과 조금 시간을 보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비교적 오래 한국에서 있었던 편이라 한국의 많은 지역을 다녀보았습니다. 광주 울산, 대구, 강원도, 제주도 도 가보았습니다.

Q. 한국에 오게 된 이유와 향후 하고 싶은 일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A. 스리랑카와 한국의 임금 차이는 6~8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는 만약에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이 된다면 한국과 스리랑카를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한국에 살다보

니 저는 한국 문화가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많이 익숙해졌고 좋은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계속 한국에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음식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그래서 한국어도 많이 배웠어요.

Q. 코로나에 대하여

A. 경기도의 슬로건이 공정한 세상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노동자로서 같이 일하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외국인이라고 못 받고 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우리도 한국인들과 같이 생각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미카라 (39세, 스리랑카)



차미카라의 이동 경로

KHEMRA (28세, 캄보디아)

Q. 소개를 부탁합니다.

A. 캄보디아에서 온 켐라라고 합니다. 밥솥 공장에서 근무하고 현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사출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Q. 한국에 어떻게 오게 되었나요?

A. 저는 원래 캄보디아 프놈펜 서쪽 지방에 살고 있었고, 2015년에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본국에 돌아가서 다시 재입국하였고, 현재 7년째 한국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2005년 본국에서 한국어 시험을

보고 고용허가제에서 승인을 받아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Q. 한국에 와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A. 처음에 한국에 와서 빨리빨리 하는 문화에서 대하여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한국어는 외국어이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국어 시험을 보기도 했지만, 일상생활과 일터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시간 있을 때마다 외국인 복지센터에 가서 한국어를 공부하거나 강의를 들으며 배우고 있습니다.

Q.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A. 현재는 회사 기숙사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E-9비자의 경우는 비취업 전문비자여서 가족들은 함께 올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캄보디아에 있으며 현재는 한국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Q. 쉬는 날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A. 일 끝나고 시간 있을 때마다 운동도 하고 가끔 스트레스를 받으면 놀러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합니다. 경기도나 강원도에 놀러가기도 해보았습니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운전면허도 가르쳐 주고, 차를 소유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가끔 놀러갈 수 있습니다.

Q. 향후 하고 싶은 것들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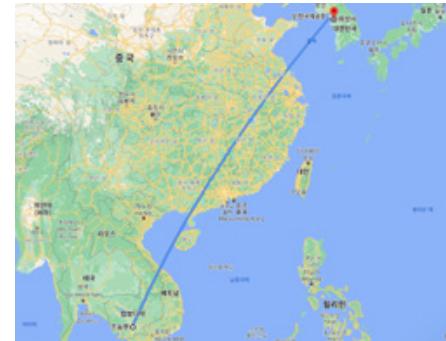
A. 캄보디아의 경우 매월 20달러 정도를 버는 편이라 한국과 임금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돈을 모아 캄보디아로 돌아간다면 집을 사고 작은 국제어학원을 운영하는 것이 꿈이고,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Q. 코로나 이후

A. 코로나 이후 사업장에 일이 없어서 예전만큼 바쁘지 않습니다. 야근도 줄었고 그렇습니다.



캠라 (28세, 캄보디아)



캠라의 이동 경로

WIN MIN AUNG (34세, 미얀마)

Q. 자기소개를 부탁합니다.

A. 미얀마에서 온 원윙밍아웅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화성 장안면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 안 한 회사 동료들(베트남 3명, 스리랑카 3명, 필리핀 3명, 미얀마 3명)과 같이 기숙사에 살고 있습니다.

Q. 한국에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래는 미얀마 네피도라는 수도에서 살았습니다. 한국에 오게 된 가장 큰 목적은 돈이 벌고 싶어서입니다. 미얀마는 평균 월급이 70만 원 정도예요. 한국에서 3년 정도 일을 하였고, 현재는 화성의 장안면에 위치한 알류미늄 회사에서 일해요. 보통 아파트 회사에서 도어락을 만드는데 주요 공정 중 연마하는 일을 합니다. 3년 동안 계속 같은 곳에서 일하고 있고, 주 5일 오전 8시에 시작하여 오후 5시 30분까지 일을 합니다. 야근이 있긴 하지만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회사에 일이 없어서 추가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Q. 한국에 와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A. 기계를 만지다가 손을 다친 적도 있고, 병원에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마를 하다 보니 먼지가 많이 나서 힘들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기후가 달랐지만, 에어컨이나 난로 등 냉난방 시설이 있어서 적응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회사에서 만난 동료들이 많고, 센터에서 만나는 한국인 친구들이 조금 있고 그 외에는 한국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미얀마에 있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좋지만, 가까운 사람들 을 쉽게 볼 수 없어서 힘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음식이 맞지 않아 어려웠습니다. 미얀마에서 원래 오토바이 고치는 센터에서 일을 했고, 그러다보니 하는 일이 비슷하여 적응하는 데 힘들지 않았습니다.

Q. 한국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미얀마에서는 다른 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로 많이 가는 편입니다. 일본을 가기도 하고, 싱가포르, 필리핀, 한국에 많이 가는 편입니다. 한국의 선택하게 된 이유는 한국의 문화들을 좀 알고 있어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Q. 향후 계획들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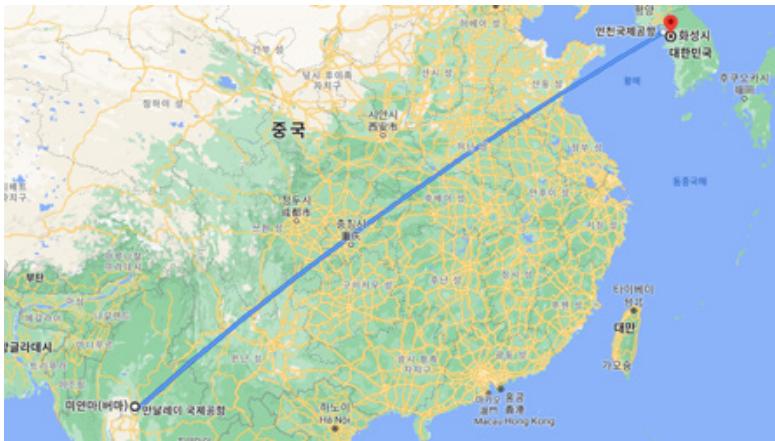
A.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미얀마에 돌아가서 오토바이 고치는 센터를 조금 더 크게 하고 싶습니다.

Q. 쉬는 날 무엇을 하고 지내시나요?

A. 쉬는 날에는 서울에 가서 놀기도 합니다. 화성에는 놀거나 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향남의 홈플러스 쇼핑센터, 발안만세 시장 등 이런 곳을 가고 다른 곳은 자주 가지 않는 편입니다. 가산디지털단지 역에 가서 자주 놀기도 합니다. 쉬는 토요일이면 수원에 가서 버스를 타고 서울에 가기도 하고 한강에서 놀러 가기도 합니다. 화성에

는 버스도 없고 지하철이 있는데 너무 멀리에 있어요. 그래서 회사 버스를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수원을 통해 서울로 가기도 합니다.

원밍아웅의 이동 경로



III. 결론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가 시행되고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국내에 들어오게 된 지 29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다문화 가정의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글로벌화 된 제조산업에서 공백을 채우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내국인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일들을 묵묵히 해내고 있었다. 이들은 생산라인에서 우리가 쉽게 소비하고 있는 물건들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국내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오명과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는 이유로 차별당하거나 내국인들 사이에는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현실이 아직도 존재한다.

제조업 산업 현장을 찾아보고 둘러보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한 폭력과 착취는 과거보다 많이 줄었고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화성에서 직접 만났던 제조업 현장 중에서는 전 직원이 함께 사업장 내에 거주하며 살아가는 현장들도 있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편견 없이 대하려고 노력하는 산업 현장들도 많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며 외국인 주민들을 다르게 보지 않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990년 글로벌화 된 경제 체제에서 지식기반산업과 서비스산업이 두드러진 데 비해, 제조업은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소규모 제조산업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필요로 하는 구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는 인공지능과 사물 인식기능, 공장자동화 등 기계가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산업 체제를 발표했고, 우리는 또 다시 산업 체제의 변화 앞에 서 있다. 이러한 산업 체제의 변화 앞에서 생산직의 노동은 기계로 대체되거나, 더욱더 평가 절하될 수도 있으며, 이주 노동자의 노동과 환경 또한 더 악화될지도 모른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소외되고 있는 노동과 삶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대한민국 국가지도집 Ⅲ』, 2018, 168쪽
강경래, “미래산업 메카 화성시-반도체·바이오·미래차 생태계 갖춰”,
이데일리, 2019. 10. 15.
이현숙,『한국 고용허가제 정책과 이주노동자의 공간분포 특성』(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8권 3호, 2015), 58쪽
윤인진,『국제이주인구의 증가 : 외국인근로자와 결혼 이민자』(한국의 사회동향 - 인구 2008), 25쪽
이대창, 설동훈, 강준원 공저,『외국인 고용허용 업종추가연구』,
한국고용정보원 2011, 11~12쪽
발안만세시장, 2020. 9. 10. <http://bamk.co.kr/>
Chamikara, Khemra, Win Min Aung 외국인 노동자 인터뷰 (2020년
5월 10일, 6월 28일,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도판 목록

- [그림 1] 화성시 정남면 일대, 많은 공장들이 들어선 모습
- [그림 2] 발안산업단지(향남읍 구문천리)
- [그림 3] 신왕산업단지(양감면 신왕리)
- [그림 4] 마도산업단지(마도면 쌍송리)
- [그림 5] 화성바이오밸리(마도면 청원리)
- [그림 6] 2020년 5월말 화성시 공장등록현황
(자료:화성시청, 2020년 5월말 화성시 공장등록현황)
- [그림 7] 2020년 5월말 화성시 종업원별 공장등록현황
(자료:화성시청, 2020년 5월말 화성시 공장등록현황)
- [그림 8] 2020년 5월말 화성시 읍면동별 공장등록현황
(자료:화성시청, 2020년 5월말 화성시 공장등록현황)

안성죽산면에서

이루어진 나말여초, 불사(佛事) 연구

고영창

[그림 9] 국내 주요 시도별 외국인 주민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2018)

[그림 10] 경기도 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2018)

[그림 11] 사출 성형 공장에서 코로나 키트의 케이스를 포장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모습

[그림 12] 알콜스왑 공장에서 탈지면을 만들기 위해 배합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모습

[그림 13] 포장 발포지를 겹쳐 만들어내는 외국인 노동자의 모습

[그림 14] 정수기 외장 부품을 만들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모습

[그림 15] 발안만세시장 일대

[그림 16] 발안만세시장 일대

[그림 17] 차미카라 (39세, 스리랑카)

[그림 18] 차미카라의 이동 경로

[그림 19] 캠라 (28세, 캄보디아)

[그림 20] 캠라의 이동 경로

[그림 21] 원밍아옹의 이동 경로

I. 서론

II. 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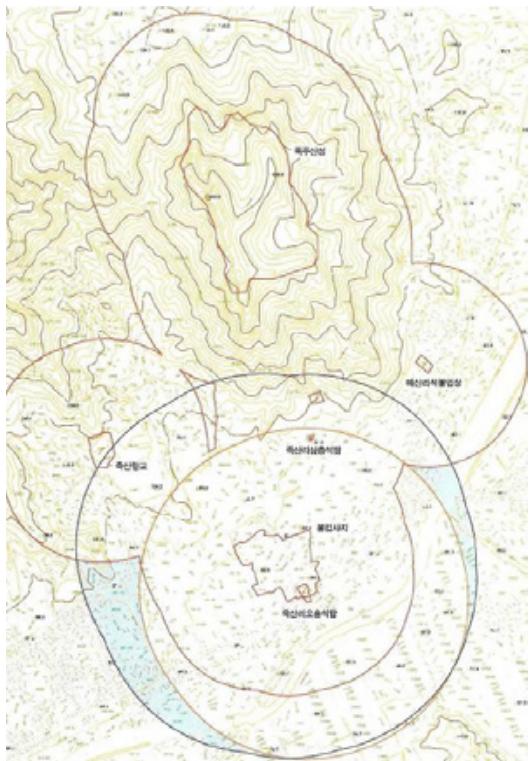
1. 봉업사 주변 지역 불교문화재
2. 궁예와 기솔리 미륵불

III. 결론

I. 서론

이번 연구에서는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기 전후인 후삼국 혼란기에 안성 죽산면에서 이루어진 많은 불사들 중에서 봉업사와 그 주변 지역 그리고 궁예가 자신의 성장과 입지를 다진 곳으로 알려진 기솔리에서 이루어진 불사의 내용과 배경 및 인력 동원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지역 내 불사에서 토착세력인 죽산 박씨의 역할도 동시에 알아본다.

안성시 죽산면(竹山面)은 죽주산성을 중심으로 통일신라시대부터 '나말여초'로 특징지어지는 시대의 많은 불교 유적과 유물이 분포하고 있는 곳이다. 태조 왕건의 진영(眞影)을 봉안한 진전사원 봉업사를 비롯하여 죽산리와 매산리, 장원리 그리고 기솔리 등에서 발견된 많은 불교 관련 유적들을 통해 고려시대에 융성했던 불교문화의 흔적을 접할 수 있다.



죽주산성과 봉업사지 주변 개념도



봉업사지 주변지역 항공사진 (출처: 경기도박물관, 2005)



매산리 석불입상과 오층석탑

죽산(竹山)을 포함한 안성(安城) 지역은 고대국가 중 백제가 가장 먼저 자리를 잡은 곳으로 훗날 신라가 한강 유역으로 진출한 후 대중(對中) 교통로로 이용되었고, 후삼국시대에 궁예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며 성장의 기틀을 다진 곳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신라 하대와 후삼국시기를 거쳐 고려 건국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죽산 박씨와 안씨 그리고 안성 이씨 등 토착 재지 세력들은 궁예와 왕건으로 대표되는 당대의 맹주들과 서로 연합하기도 하고, 대립하면서 새롭고 다각적인 관계를 정립시켜 나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고려 왕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토착 재지 세력의 중앙 관료화 과정 속에서 많은 불사가 이루어졌다.

II. 본론

1. 봉업사 주변 지역 불교문화재

1) 사원의 종창과 인력 수급

봉업사와 주변의 죽산 지역 불교 유적에 대한 학술적 관심은 1960년 대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본격적인 연구의 시작은 1997년 경기도박물관의 봉업사지 발굴조사 이후가 아닐까 한다. 문헌에 나오는 봉업사 관련 기사로 『고려사』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오는 아래의 기록들이 있다.

1 『고려사』 권40, 세가 권제40,
공민왕 12년 2월 5일(음) 병자
(丙子)

A-1 “丙子 次竹州, 謁太祖眞于奉業寺”¹

“병자 죽주에 묵었으며, 봉업사에서 태조의 영정을 배알하였다.”

A-2 “봉업사(奉業寺) 비봉산(飛鳳山) 아래에 있다. 고려 때에

태조(太祖)의 진영(眞影)을 봉안하였는데, 공민왕(恭愍王) 12년
2월에 거가(車駕)가 청주(淸州)를 떠나서, 이 절에 들러 진전(眞殿)에

2『신증동국여지승람』권8, 죽산
현 고적
참알(參謁)하였다. 지금은 석탑만 남아 있다.”²

봉업사는 통일신라 때는 ‘화차사(華次寺)’라는 이름으로 조성이 되었는데, 후삼국 혼란기에 절 전체가 폐허가 되었다. 폐허가 된 봉업사는 925년경 태조 왕건의 명을 받은 청주인 능달에 의해 봉업사지 오층 석탑 주변의 사역이 크게 중창이 되었으며 이후 광종대에 이르러 사역 전체로 확대되었던 것 같다.

925년은 고려가 건국한 918년과 몇 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지방에 대규모 사찰을 중창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창 불사를 밀어붙인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건국 초기의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를 결속하고, 후백제와의 통일 전쟁을 위한 배후기지 정비 차원에서 전선의 최전방에 해당하는 죽주 지역에, 반 왕건 세력이 가장 많은 청주 출신 호족 능달로 하여금 불사의 총 책임을 맡긴 것이다. 이를 두고 왕건의 친 궁예적인 청주 호족에 대한 견제냐 아니면 친 궁예 정서가 강했던 이 지역을 친 왕건파가 아닌 청주 출신 능달로 하여금 반 왕건 정서를 위무하는 차원이었느냐 의견이 갈려지고 있다. 죽주 토착세력의 입장에서 궁예는 자신들의 분신과도 같다고도 할 수 있다. 궁예가 성장하여 입지를 다진 곳도 이곳이고, 양길의 군대를 대파하고, 후삼국 혼란기에 패권을 거머쥐게 된 것도 이 지역에서다. 따라서 고려 건국 초기에도 어느 지역에 비해 이곳은 친 궁예 성향이 강한 곳이었다. 이런 이유로 이곳과 어느 정도 정서가 통하는 능달에게 봉업사 중창 불사를 맡기는 것이 훨씬 전략적 선택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봉업사 중창 불사에 동원된 인력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사원(寺院)의 경우 초창(初創)이든 중창(重創)이든 인력 동원은 필수였으며, 그중 목재, 석재와 같은 기초 재료를 수집하여 건설 현장까지 수송

하기 위해서는 역부(役夫)들과 운송 수단으로 우(牛), 말(馬) 그리고 지역의 여건에 따라 배(船) 등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이런 일들은 백정(白丁) 또는 대중(大衆)으로 표현되는 지역 주민들과 일종의 지방 농민군인 광군(光軍)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광군과 지역민의 경우에는 아무 때나 동원할 수 없었다. 이른바 농한기를 이용해 동원해야 했을 것이다. 물론 지방 수령들에 의해 이 원칙들은 잘 지켜지지 않아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이윽고 왕의 귀에 들어갈 정도였으며, 이를 금지하라는 왕명이 내려지기까지 하였다.

다음으로 이렇게 모아진 자재(資材)들을 적재적소에 배당하고, 필요한 일을 직접 담당하는 것은 전문가 집단인 승장(僧匠)과 공장(工匠)들이었다. 이제부터는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고려시대에는 승려 집단이 사원 건립부터 조탑(造塔) 등을 포함한 모든 불사(佛事)를 주관함은 물론이고, 공장(工匠) 또는 잡역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맡으며 참여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불사의 주축은 승려들이었으며, 이런 승려들의 역할에 대해 대각국사 의천의 「묘실(墓室)과 비명(碑銘) 건립에 관한 사적기」에 나오는 관련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략) 300인이 작업하고, 귀법사의 중대사인 묘열, 충현 등 500인이 대석(大石)을 운반하여 돌을 깎아 묘를 덮었으니 모두 삼중대사였는데, 익현은 감독하였다. (중략) 제당(祭堂) 3칸을 … 50인이 작업하였으며, 또 영통사 스님 450명도 함께 역사(役事)하였다. (중략) 묘 아래에 묘지기가 있을 집을 짓고 백정(白丁) 4명을 불러 살게 하고는 (중략) 중대사 득묘는 식량을 주관하였고, 중대사 승류는 목재를 주관하였으며, 중대사 웅개는 석재를 담당하였고, 단현은 집사를 맡았으며 (결략) 정광 등은 조수였고, 역승(役僧) 25명은 흥왕사 중대사였다. 석종은 석공의 수장이며, 대사(大師)인 유영, 신묘, 진현, 덕보 등은 조수이고, 역승 25명과 성(成)과 찬(贊),

김(金) 등 3인은 불무간에서 도구(道具) 단련(鍛鍊)을 맡았다. (중략)
삼중(三重)인 익(翼)(결락)단사(鍛事)와 석공을 겸하였으며, 중대사인
석종은 역사(役事)를 조역하였다. 귀법사의 스님 35명이 이미 채벌한
청석을 하산하였으니, 이 35명과 흥왕사 천복원의 백정 40명,
그리고 소 33두를 동원하여 석재를 제위보로 운반하였다. 귀법사
주지이며 수좌인 응선이 대중 500명을 거느리고 나와 조역하였다.
(중략) 영통사 대중 500여 명이 경선원 동합(東閣)인 보광원

3 출처: 「대각국사의 묘실과 비명
건립에 대한 사적기」, 한국금
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해
석문)

이 내용에서 삼중대사(三重大師)·중대사(重大師)·대사(大師) 등의 명
칭으로 미루어 계층화된 승려 조직이 존재하였으며, 이들이 각 공사를
지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양식과 자재 등을 마련하는 등의 공사업무
까지 맡아 체계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들은 승려
신분의 공장(工匠)들로 수준 높은 기술을 가진 전문가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들 외에 '성(成)·찬(贊)·김(金) 등 3인은 불무간에서 도
구 단련을 맡았다'라는 것으로 미루어 이들은 직접 일을 담당하는 공
장(工匠)들이었을 것이며, 이 외에 역승(役僧)·백정(白丁) 등이 불사(佛事)
에 동원되었다. 하지만 불사(佛事)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을 담당한
집단은 승려 집단으로 '선(禪)'을 통한 수도(修道)와 함께 기술 습득 또한
수양 과정의 일환으로 노동과 함께 중요시한 것으로 보인다.

봉업사의 경우 지금 사원 건물이 모두 사라지고 없지만, 3차에 걸
친 발굴 조사에 의하면 상당히 큰 규모의 대사찰(大寺刹)이 있었을 것
으로 추정한다. 더구나 태조 왕건과 광종이 심혈을 기울여 봉업사 주
변 사역(寺域)에 중창(重創)을 시도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죽주 주변
의 사찰(寺刹) 승려들뿐 아니라 일정한 규모의 개경에 있는 사찰(寺刹)
의 승려들과 공장(工匠)들까지 파견되었을 것이며, 죽주의 향리, 향도(香
徒) 그리고 지역 주민과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동원한 대역사(大役事)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봉업사지 발굴 과정에서 출토된 '능

달(能達)'명(銘) 기와와 '서주관(西州官)'명(銘) 기와는 사명(寺名)·지명(地名)
등 명문(銘文)이 새겨져 있는 봉업사지 출토 명문기와들 중 가장 많이
출토되었다. 이를 통해 봉업사 중창(重創) 과정에 청주 지역 사찰의 승
려들과 주민들이 상당수 동원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앞서 설명한 불사
의 공정(工程)과 역할에 따라 각자 업무가 배당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봉업사에서 불과 300m도 안 되는 거리에 '매산리 석조보살입상'
이 있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6m에 가까운 거대한 석
불과 방형의 보개를 착용한 모습이다. 그 앞에 서면 일단 규모에서 압
도된다. 머리에는 면류관 형식의 방형의 보개를 하고 서 있는 석조불
은 현재 매산리를 포함해 논산, 당진, 부여 등 충청도 지방에서 많이 발
견되며, 남한강 유역에서 형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매산리석조보살입
상'이 가장 먼저 건립된 불상임이 밝혀졌다. 그 시기는 대략 고려 4대
광종 때라 한다. 광종이 누구인가? 후삼국 통일 이후의 어수선한 상황
이 수습되면서 통일전쟁을 수행한 무신 출신의 강력한 지방 호족들과
왕실과의 결혼을 통한 연합 형식의 정치 구조는 왕권 강화 차원에서
청산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이를 앞에 둔 광종은 스스로 황제라 칭하
고, 개경을 황도라고 했으며⁴, '준풍'이라는 독자 연호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과거제를 처음 실시하여 왕 직속 관리를 선발함과 동시에 왕권
강화의 결집돌인 호족들을 차례로 제압하였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면류관을 쓰고 신하들 앞에 나타나곤 하였다
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존재와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서 개경
뿐만 아니라 지방의 요충지에 자신과 닮은 불상을 건립하였는데, 이곳
매산리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건립의 경우 광종(光
宗)의 왕권 강화를 통한 국가 운영의 확실한 주도권을 대내외에 과시하
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지방 군·현(郡·縣) 차원의 불사(佛
事)에 중앙 정부의 든든한 인·물적 지원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4 「고려사」, 권2 세가, 광종 庚申
11년 "改開京爲皇都".

2) 석탑의 건립 과정

‘매산리석조석불입상’ 앞에 있는 오층석탑은 건립 연대가 8세기 중엽(영태 2, 776)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통일신라시대 석탑의 발원자는 대체로 왕실, 귀족, 승려들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 탑의 발원자는 자료 B-1의 기록에 의하면, 이 지역 토착세력 중 하나인 박씨 가문과 승려였으며, ‘장명사지 오층석탑’은 자료 B-2에 따르면 지역 토착세력이었던 안씨 가문이었다.

발원된 석탑 제작에는 일반장(一般匠)과 승장(僧匠)이 참여하였다. 8세기 초까지 주로 관장(官匠)들에 의해 제작되던 석탑들이 8세기 중엽 이후부터 일반장(一般匠)과 승장(僧匠)들 참여가 보편화되었다. 신라 말기 석탑의 크기가 소형화되고 조형미에 있어 양식적 퇴보가 이어지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죽주 지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수많은 석조문화재들은 그 건립과정을 알아볼 수 있는 명문(銘文)이나 문헌 기록들이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다른 지방에서 발견된 석탑지나 명문을 참고하여야 하는 아쉬움은 있다.

아래 표는 죽산의 석조문화재 현황이다.

번호	명칭	소재지	지정번호
01	봉업사지 오층석탑	죽산면 죽산리	보물 제 435호
02	죽산리 삼층석탑	서종면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78호
03	죽산리 석탑	서종면 문호리	
04	장원리 석탑재	죽산면 장원리	
05	용설리 석탑	죽산면 용설리	
06	죽산리 매곡 석탑재	죽산면 죽산리	
07	장원리 석탑	죽산면 사무소(구 성원목장)	향토유적 제41호
08	죽림리 삼층석탑	칠장사(구 성원목장)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79호
09	죽산향교 석탑 옥개석	죽산향교	
10	봉업사지 석불입상	칠장사	보물 제983호
11	장원리 석조보살좌상	칠장사	

12	두현리 석조삼존불	죽산면 죽산리 산33-3	향토유적 제40호
13	장명사지 석조대좌	죽산면 죽산리 515-5	
14	안성공원내 석조여래좌상	죽산면 낙원동609-5	향토유적 제8호
15	장원리 석조보살좌상	죽산면 칠장리 764	
16	묘골사지 연화대석	죽산면 죽산리	
17	죽산리 석조대좌	죽산면 죽산리 산6-2	

이들 중에서 탑지(塔誌)나 명문(銘文)이 출토된 사례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매산리석조보살입상’ 앞 오층석탑에서 발견된 ‘영태2년 탑지’와 장명사지에서 발견된 ‘오층석탑지’ 등이 제한적이지만 당시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이다.

B-1 “영태(永泰) 2년 병오년(丙午年, 766) 3월 30일 박씨(朴氏)와 방서(芳序)·영문(令門) 두 명의 승려가 석탑을 조성하기로 먼저 모의하고 이를 이루었다. 탑이 처음 이루어진 영태 2년 병오년부터 다시 수리하는 금년 순화 사년 계사년(淳化四年 癸巳年, 993) 정월 8일에 이르기까지 228년이 지났다. 전에 처음 이룬 사람도 박씨이고 다시 수리하는 사람도 박씨로 비록 연대가 다르지만 옛날과 지금이 사뭇 다름이 없었다. 더욱 힘써 지극한 정성으로 보탑(寶塔)을 중수하노라. 조장(造長)은 현뢰장로(玄雷長老)이고 조주(造主)는 박염(朴廉)이다.”⁵

B-2 “(중략)동량 대행명도교위 호장 안제경 창정 쇠□박(백)사 예랑(결학)김위증 요색광□사 현금 유장 지미지”⁶

자료 B-1, 2를 보면 탑의 조성 연대와 발원 주체에 대한 언급 이외 건립 과정에서 필수적인 인(人)·물(物)적 동원에 대한 정보는 없다. 따라서 비록 이들보다 후에 조성되었지만 시기적으로 비슷한 1010년

(고려 현종 원년, 통화(統和) 27년)에 이루어진 경북 예천 「개심사석탑기」와 1032년(고려 현종 22년)에 건립된 칠곡 「정도사오층석탑조성형지기(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에는 건립 과정에 동원된 인·물적 자원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당시 사원이나 불탑 건립 과정을 이해하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들 자료에는 첫째, 완공까지 걸린 시간 둘째, 발원 주체 및 동원된 인력들의 구성에 대한 것들 셋째, 건립 비용 등이 기록되어 있다.



예천 개심사 오층석탑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



칠곡 정도사 오층석탑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개심사석탑기’와 ‘정도사오층석탑조성기’와 자료 B-1과 B-2를 서로 비교하고 참고하여, 죽주 지역에서 일어난 불사(佛事)의 발원(發願) 주체와 건립에 동원된 인력과 건립 비용 등 동원된 물적 자원에 대하여 추정해 보겠다.

예천 개심사 불탑 조성기를 보면 1010년(고려 현종 1년, 統和 27년) 3월 3일 광군(光軍)⁷ 46대, 차(車) 18대, 소 1000마리를 동원해 10칸(間)을 지었으며, 참가한 인원은 승려·속인·선랑(僧俗娘) 모두 1만 인이며⁸, 향도(香徒)를 이끄는 사람으로 상평(上平)은 미륵향도에 신염장

(神廉長), 장사(長司)에 정순, 행전(행전)에 복의·김유·공달·효순·위강(位剛)에 향덕·정암 등 36명, 추향도(椎香徒)에 경성, 선랑(仙郎)에 광협

(光叶)·김협(金叶) 아지(阿志), 대사(大舍)에 향식·김애·위봉·양촌·능령 등 40인이 있으며, 이외에 대정(隊正) 방우, 기두(其豆)·흔경(忻京), 위강(位剛)에 뇌평(儡平)·의전(矣典)·차의(次衣) 등 50명이 참가했다⁹고 한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불사(佛事)를 주도한 세력은 향도(香徒)이며, 1만 명의 대규모 인원과 심지어 군사 조직인 광군(光軍)도 동원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수레(車)와 소(牛) 등이 불사(佛事)에 필요한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동원되었다. 동원된 인원의 규모는 각 지방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방에서 행해지는 불사(佛事)의 경우 그것이 중앙 정부가 주도하든 아니면 지방 행정관청에서 주도하든 필연적으로 향도(香徒) 조직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음은 확실하다. 따라서 자료 B-1의 ‘…朴氏芳序令門二僧 謂一造之先…’ 대목에서 박씨는 죽주 지역 향도(香徒)의 우두머리 격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을 것이며, 죽산 박씨 가문은 당시 이 지역 유력한 토착세력이었다. 여기에 더하여 영월에 있는 『홍녕사징효대사보인탑비』(興寧寺澄曉大師寶印塔碑)를 보면 탑비(塔碑)의 조성에 참여하고 있는 단월로 죽주의 토착세력으로 짐작이 되는 사간 덕영(沙干德榮)·사간 제종(沙干弟宗)과 함께 원윤 기오(元尹奇悟)가 확인되는데, 기오는 고려 왕건의 건국을 도와 삼한벽상공신으로 봉해진 박기오를 지칭한다. 이렇듯 박기오계 죽산 박씨는 여전히 죽주 지역의 유력한 토착세력으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정도사오층석탑조성형지기(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를 살펴보면 1019년(고려 현종 10년)~1022년(현종 22년)에 걸쳐 정도사(淨兜寺)에 오층석탑을 건립하는 과정에 향리는 물론이고 일품군(一品軍) 군사 조직과 승려 및 ‘군내남녀노소백성(郡內男女老少百姓)’이 다양한 역할을 맡으며 참여했다고 기술되어 있다. 여기에 동원된 노동력을 살펴보면 두 차례에 걸쳐 행해지는 바위 채취와 운반, 다듬기 과정에서 첫 번째 역사(役事)에 승려 신분의 감독관 3명과 역부(役夫) 348명이 참가했으며, 두 번째 역사(役事)에서는 호장과 부호장이 감독관이 되어, 수원승속(隨願僧俗) 1000여 명을 좌우도(左右徒)의 두 패로 나누어 석재를 운반

⁷ 947년(정종2)에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여 농민으로 편성된 예비군사조직, 후에 일품군으로 개편

⁸ “上元甲子四十七統和二十七庚戌年二月一日正骨開心寺到石析三月三日光軍式六隊車十八牛一千以十間入矣僧俗娘合一萬人了人”, 「예천 개심사불탑조성기」

하게 하였다고 한다. 또한 탑의 기초 공사에 대정(隊正) 2명을 포함한 3인이 감독을 맡으면서 일품군(一品軍) 21명이 참여했다. 각 단계에서 어떻게 작업하고 필요한 물품은 무엇인지 등을 결정하는 데는 호장(戶長)이하 향리총 여려 명이 참여했으며, 일품군(一品軍) 장교는 앞서의 인물 이외에도 별장(別將) 1명(호장 겸직), 산원(散員) 1명이 참여했다. 전문 기술자로 24개 사원에 소속된 44명의 승려와 칠장(漆匠), 유장(鐵匠), 철장(鐵匠), 각 1명과 수장(繡帳) 2명, 악인(樂人) 15명과 30여 명의 군현민(郡縣民)이 참여했다고 한다. 즉, 호장(戶長), 부호장(副戶長)을 위시한 지방 향리총¹⁰과 이들 토착재지세력이 주도하는 향도(香徒), 그리고 불사(佛事)에 동조하는 지역민들의 참여는 물론 불사(佛事)라는 작업의 특성상 승려 조직의 참여가 필연적이라 하겠다. 여기에 광군(光軍)들까지 동원되었다.

'개심사 오층석탑'과 '정도사 오층석탑'은 규모나 양식적인 면에 있어 '봉업사 오층석탑'과 매우 닮아 있다. 따라서 '봉업사 오층석탑'은 이들과 비슷한 과정을 거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봉업사 오층석탑'뿐만 아니라 규모나 조형미에서 작고 투박한 '매산리 오층석탑'이나 '장명사지 오층석탑'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어느 한 개인에 의한 불사가 아닌 지방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대규모 불사로 진행되었고, 동시에 동원 노동력 구성에서 광군과 일품군, 향도와 승려 등 다양한 세력들이 동참하였다.

2. 궁예와 기술리 미륵불

현재 남한 지역에서 미륵불이라고 불리어지는 석불만 400기 가까이 된다고 한다. 이들은 뛰어난 조각품에서 자연석에 가까운 것까지 매우 다양하며, 자리 잡고 있는 위치도 사찰 내부나 마을 앞 또는 논밭이나 마을 뒷산 호젓한 곳이다. 이는 미륵이라는 존재가 민중 친화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불교에는 많은 부처들이 있는데 왜 하필 미륵불이 유독 민중들과 친한 것일까? 미륵신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한다. 미륵상생 신앙과 하생신앙으로 미륵보살이 설법하는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미륵상생 신앙이라고, 석가모니 부처가 입멸한 후 56억 7000만 년이 지난 후 하생한 미륵보살이 용화수 아래에서 세 차례에 걸쳐 법회를 열며 중생을 구제한다는 것이 하생신앙이다. 상생신앙은 죽음 이후의 문제이지만 현재 힘들고 펫박 받는 고통에서 해방시킨다는 하생신앙의 현재 진행형의 메시지가 일반 민중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로 간절하게 다가온 것이 아닐까 한다. 어느 시대이든 가진 것이 없거나, 일천한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만큼 시급한 것이 없었다. 아무리 위대한 사상이나 철학이라도 지금 당장 지긋지긋한 배고픔과 질병에서 구원해 주지 못한다면 소용없는 것이다. 특히, '나말여초' 정치적 변동기에 궁예의 등장과 이 지역에 미륵불이라 전칭되는 것이 여러 개 세워진 것 그리고 1000년 이상 궁예와 관련한 설화가 이 지역에 구비 전승되고 있는 점은 이것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1) 역사 속 궁예와 설화 속 궁예

궁예의 예사롭지 않은 탄생은 처음부터 상서롭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훗날 왕건 세력에 의해 비참한 죄후를 맞이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역사서는 기술하고 있다.

"궁예는 신라 사람으로 성은 김씨다. 아버지는 제47대 헌안왕 의정(誼靖)이며 어머니는 헌안왕의 후궁이었는데 그 성과 이름은 전하지 않는다. 또는 48대 경문왕 응렴(膺廉)의 아들이라고도 한다. 5월 5일 외가에서 태어났다. 그때 지붕 위에 흰 빛이 있어 마치 긴 무지개가 위로 하늘에 이어진 것 같았다. 일관(日官)이 아뢰기를 “이

아이는 중오일(重五日)에 태어났고, 나면서부터 이가 있었으며, 또 광염이 이상하였습니다. 아마도 장차 국가에 이롭지 못할 것이오니 마땅히 그를 키우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왕이 중사(中使)에게 명하여 그 집에 가서 그를 죽이도록 하였다. 사자가 포대기에서 빼앗아 그를 다락 아래로 던졌다. 유모인 여자 종이 몰래 그를 밟았는데 실수하여 손가락으로 한 쪽 눈을 멀게 하였다. 안고 도망가서 힘들고 고생스럽게 길렀다.”

『삼국사기』 권제50, 열전 제10

궁예 출생의 신비로움은 일관(日官)에 의해 상서롭지 못함으로 판단되고 훗날 불행한 죽음의 원인으로 묘사되어 있다. 뒤에서 서술하겠지만 왕건 또한 궁예와 같이 신비로운 탄생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궁예의 경우와 정반대로 기술되어 있다. 역사의 승자와 패자에 대한 극단적인 서술 방식이다. 아무튼 유모로부터 자신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궁예는 세달사¹¹에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으며 스스로 선종(善宗)이라고 법호를 지었다.

스스로 법호를 짓고, 계율에 구애받지 않는 등 비범함을 갖추어 주변에 많은 동조세력이 생겨났다. 훗날 죽주의 도적 ‘괴수’인 기훤에게 몸을 의탁할 때는 비록 보잘 것 없는 적은 수의 무리를 이끌고 갔지만, 기훤에 의해 홀대를 받아 본거지인 죽주산성과 봉업사 일대에서 떨어진 변방으로 갔다. 죽주산성에서 서쪽으로 약 20여 리 떨어진 곳으로, 쌍미륵이 세워진 기솔리나 더 깊숙이 위치한 국사봉 아래 국사암이나 서남쪽 칠장사 인근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들 지역에서 궁예와 관련한 이야기가 다수 수집·전승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궁예미록’으로 전칭되는 미륵불들이 당시에 건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듯하다. 막대한 자본과 인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불사가 자신의 세력을 더욱 키워야 했을 당시 궁예 입장에서는 버거운 일이였을 뿐만 아니라, 건축 양식 면에서 맞지 않는 것들

¹¹ 고려 때 흥교사로 알려진 경북 영월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



국사암 마당에서 본 기솔리
모습, 암자 오르는 길은 매우
협소하고 가파르며 양쪽 모두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있기 때문이다.

892년 궁예는 기훤의 부하 일부를 데리고 북원의 양길에게 의탁하고, 인정을 받아 동쪽 땅을 공략하였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궁예는 뛰어난 야전 지휘관이자 항상 군사들과 동고동락하는 덕장(德將)이었던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사졸과 더불어 즐거움과 괴로움, 어려움과 편안함을 함께하였고,
상벌에 있어서 공정히 하고 사사로움이 없었다. 이로써 뭇 사람들이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사랑하여 추대해 장군으로 삼았다.”

『삼국사기』 권제50, 열전 제10

가는 곳마다 연전연승하여 그의 군대는 3,500명으로 불어나 군세가 매우 왕성하였다. 강릉을 비롯한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 대부분을 점령한 궁예에 관한 소문은 ‘패서(지금의 황해도)의 도적’들이 와서 항복을 하는 자가 매우 많을 정도로 강성하였다. 이때 왕건의 아버지 왕릉도 그중 한 명이었다. 그동안의 내륙 지방 출신 위주의 인적 구성에서 서해 해상세력까지 합류하게 되어 명실상부 인적 구성과 규모에서 나라로 칭할 정도가 되었다. 궁예가 기훤에게 의탁한 891년에서 불

¹² 실제 스스로 왕위에 오른 해는 901년(천복 원년 신유년)이다.

¹³ 이도학, 「궁예의 북원경 점령과 그 의의」, 『동국사학』34, 동국사학회, 2007, 104~202쪽

과 6년 후인 897년이다. 6년¹²이 생각하기에 따라 긴 세월일 수도 있지 만, 지방 변방인 영월에 있는 사찰 세달사의 한 승려의 신분에서 시작 하여 불과 6년 밖에 걸리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그의 탁월한 지도력과 융화력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한 편 이에 위협을 느낀 북원(지금의 원주)의 양길은 주변의 30여 성(城)의 강한 군사를 모아 궁예를 공격하려다 오히려 궁예의 기습 공격에 대패하고 만다. 이 전투가 일어난 곳이 ‘비뇌성’이다. 다른 의견이 있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뇌성을 죽주산성으로 간주한다.¹³

이 의견에 따르면 궁예는 비뇌성을 치기 위해 집결한 양길의 군대를 기습 공격하여 대파시키는데, 양길의 입장에서 비뇌성, 즉 죽주산성에 주둔한 궁예의 눈을 피해 대규모 군대를 은닉할 수 있는 곳은 비뇌성 서쪽, 지금의 한남정맥 너머 기솔리 마을 부근 밖에는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뇌성, 즉 죽주산성의 지정학적 위치로 보면 서쪽을 제외한 모든 방향은 시야가 완전히 탁 트인 평야지대이거나 하천(청미천이나 죽산천)이 천혜의 해자로 놓여 있어, 군대를 주둔시키기에는 지극히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기솔리 쌍미륵 석불이 위치한 쌍미륵사 일대는 양길의 군대가 주둔한 곳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궁예가 이곳을 기습 공격하여 대승을 거둔 곳일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궁예의 입장에서 자신을 있게 한 이곳에 기념할 만한 것을 남기고 싶었을 것이며, 스스로 미륵이라 자칭하던 그로서는 다른 석불보다 미륵불을 더 선호하였을 것이다. 민중들 또한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흔쾌히 이 역사(役事)에 동참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웃고 있는 미륵불

한반도 중부 지역 대부분을 차지하며 ‘태봉’이라는 나라를 세운 궁예는 결정적 역할을 한 비뇌성 전투의 대승을 기념하는 동시에 자신을 지상에 강림한 미륵불임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기존의 석불에서는



기술리 쌍미륵불. 왼쪽은 여미륵, 오른쪽은 남미륵으로 알려져 있다.



웃는 것 같은 입술을 가진 남미륵불

그 예를 찾아 볼 수 없는 웃는 입술을 한 거대한 미륵을 조성하였다.

양식적 측면에서도 개태사 석조삼존불입상과 매우 흡사하며, 시기적으로는 936~940년인 개태사 석조삼존불입상보다 앞선 통일신라 양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부처의 입이 벌려져 있고 윗입술과 아랫입술 사이에 세로로 선이 조각되어 있어 마치 활을 연상하게 한다. 활은 한 자로 ‘궁’이니 ‘활의 후예’ 즉 ‘궁예’를 연상하게 한다. 궁예는 출가 후 처음에는 스스로 법호를 ‘선종’이라 하다가 후에 ‘활의 후예’라는 뜻의 ‘궁예(弓裔)’라 칭하였다. 이에 대해 활의 의미를 ‘활’이라는 이름 자체의 뜻을 가지고 있는 주몽을 뜻하므로 궁예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는 주몽의 고구려 후예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궁예가 처음 세운 나라의 이름이 후고구려(고려)라는 점과 궁예의 초기 활동이 고구려 계승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종(善宗, 흥날 궁예)이 자신의 이름을 ‘궁예’로 바꾼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견해도 있다. 그리고 앞에서도 잠시 언급하였지만 ‘남미륵’으로 불리어지는 동쪽 석불입상의 상호(相好)는 입을 약간 벌리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최고의 신성한 존재로 숭상 받고 있는 불상의 입을 벌려 조각할 수 있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존재는 스스로 미륵이 된 궁예만이 할 수 있다.¹⁴

그리고 기술리 석불 입상은 여러 개의 돌을 이용하여 조성한 것이 아닌 하나의 돌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성하였다. 땅에 파묻혀 있는

¹⁴ 정성권, 「‘궁예미륵’ 석불입상의 구비전승적 연구」, 『민속학 연구』 30호, 2012, 101~102쪽

부분을 감안하면 6~7m 이상이 되는 거대한 석불을 제작하기 위해 이보다 훨씬 거대한 크기의 돌을 운반해 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백 명의 인력과 수레 등을 포함한 대규모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화강암 1m³의 무게는 약 3톤에 가깝다. 남미륵으로 불리어지는 우측 석조불의 경우 전면 폭이 약 1.2m이다. 이 정도의 석불을 조각하기 위해서는 원석의 무게는 최소한 25톤에 이를 것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1톤의 석재를 옮기는 데 필요한 인원이 약 10명 정도이다. 그렇다면 25톤의 석재를 옮기기 위해서는 최소 250명 내외의 인력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석불 조성에 이 정도의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었다는 것은 지방의 향도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또한 운반의 편의를 위해 여러 개로 쪼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통째로 옮길 정도였다면 당시 이곳에 이를 감당할만한 인력과 동원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결국 궁예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세력이 있었으며, 당시 신라, 후백제와의 치열한 전쟁을 치르던 최전선 지역에서 이 정도의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지원세력은 이 지역 토착세력인 죽주 지역 호족들이었다. 이런 점에서 봉업사 중창 불사 때와는 다른 궁예 정권에 대한 당시 죽주 지역 주민의 자발적 지원 측면이 강하였다고 하겠다. 하지만 역사의 승자는 왕건이었기에 궁예에 대한 정사의 기록들은 모두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궁예의 활동과 업적에 대해 현재 우리가 유추해 볼 수단은 그와 관련되어 구비 전승되고 있는 설화가 유일하다 할 것이다.

궁예와 관련한 설화 연구에 가장 주목 받는 결과를 낸 사람은 이재범이다. 그는 궁예 관련 설화의 구비전승의 특징에 대하여 집중성, 구체성 그리고 통일성을 들었다.¹⁵ 집중성과 관련하여 안성의 경우 궁예의 성장기에 해당되며, 이 시기와 관련하여 안성에서 궁예 설화가 집중적으로 발견된다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궁예 관련 설화는 조작의 가능성이 적은 역사적 사실에 더 가깝다고 한다. 다음으로 언급할 것

¹⁵ 이재범, 「철원 지역의 궁예 전승과 고려 재건에 대한 평가」, 『고려 건국기 사회동향 연구』, 경인문화사, 2010, 153쪽

16 위의 글과 동일, 175쪽

은 설화 내용의 구체성이다. 궁예 설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설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황당한 내용이 아닌 상당히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궁예 설화의 통일성은 궁예가 태어나서 멸망에 이르기까지 지역적으로 중복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시기와 지역에 맞게 안성에서는 성장기, 철원과 평강에서는 그의 전승기와 멸망과 같이 시간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겹치지 않는다고 한다.¹⁶ 이러한 점에서 궁예와 관련한 설화는 설화의 특징과 함께 역사적 실체를 규명하는 귀중한 사료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술리 석불입상은 궁예에 의해서 건립되었을 가능성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곳 쌍미륵사에서 약 400여 미터 떨어진 국사암에 조성되어 ‘궁예미륵’으로 불리어지는 국사암 석조삼존불입상은 양식적인 측면에서 궁예가 활동한 시기에 비해 한참 후에 조성된 것으로 궁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국사암 마당에 있는
‘궁예미륵’으로 불리는
미륵삼존불입상 양 옆 두
협시보살은 궁예의 아들이고
가운데 있는 것이 궁예
자신이라고 전해진다.

하지만 왜 지금도 가운데 석불은 ‘궁예미륵’으로 불리어지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기술리 석불입상이 예전부터 ‘궁예미륵’으로 불리어지는 상황에서 이곳으로부터 멀지 않은 국사암에 조성된 삼존석불도 함께 ‘궁예미륵’으로 불리어진 것이 아닐까 한다. 여기에 더하여 하루하



루 사는 것 자체가 힘겨웠던 기층민중들의 간절한 바람이 ‘미륵’이 하생하는 꿈으로 투영된 결과라 할 수도 있겠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소원과 바람’을 위해 찾고 있으며 영험하다고 소문이 날 정도이다. 안성에서 확인한 궁예와 관련한 설화의 내용들 대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궁예’와는 전혀 다른 벼름을 받은 밑바닥 인생에서 왕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로서, 민중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그려진 것들이었다.

III. 결론

고려 건국을 전후한 혼란기에 죽산면 일원에서 일어난 불사에 대해 단편적으로나마 알아보았다. 지방에서 행하는 불사라 하더라도 이는 어느 한 개인이나 가문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지방 수령과 관리들이 포함된 행정 조직과 향토 집단 그리고 승려와 공장(工匠)의 전문가 집단, 마지막으로 지방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가능한 일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승려와 공장이 포함된 전문가 집단이 불사에 중심에 있었다는 것도 아울러 알게 되었다. 그리고 불사에 동원되는 물적 자원도 어마어마한 것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동원되는 인력 또한 지방민들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부처가 되고자 하였던 고려인들은 불사를 통해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며 기꺼이 불사에 동참한 것은 지금의 논리로 생각해 본다면 이해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9~10세기는 한국 중세사에 있어서 격변(激變)의 시대였다. 그 격동(激動)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죽주(竹州)를 포함한 경기 남부와 충주·청주 일대가 놓여있었다. 한반도의 패권을 놓고 수많은 영웅호걸들이

태어나고, 사라져갔다. 그중 ‘궁예’와 ‘왕건’이라는 두 인물의 발자취가 동시에 찍혀 있으면서, 훗날 정반대의 삶과 역사(歷史)적 평가를 받고 있는 곳 중 한 곳이 이곳 죽주(竹州)를 포함한 안성(安城) 지역이 아닐까 한다. 안성 기솔리 일대에서 ‘궁예’를, 죽주산성과 봉업사 일대에서는 ‘왕건’을 만나게 되었다. 이 둘은 항상 대척점(對蹠點)에 서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솔리 쌍미륵 앞에서 ‘궁예’를 만나면서 동시에 ‘왕건’이 떠올랐고, 봉업사지 오층석탑 앞에서 ‘왕건’을 만나면서 ‘궁예’가 떠올랐다. 더불어 기솔리 쌍미륵사는 한남정맥 국사봉 산줄기와 이곳에서 비봉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로 둘러싸인 협소하고 답답한 골짜기에 위치해 있는데 반해 봉업사는 탁 트인 너른 벌판 양지 바른 곳에 위치하고 있다. 마치 역사의 승자와 패자가 서 있어야 하는 위치를 말해주는 듯하다. 하지만 궁예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궁예에 대한 평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비좁고 경사진 기솔리 마을 끝자락에 거대한 석불 두 개를 조성하기 위해 최소한 250명 이상의 장정과 수백 마리의 우·마(牛·馬)가 동원되었을 불사(佛事)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궁예와 관련한 미륵불 설화가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최소한 이곳에서 만큼은 ‘폭군 궁예’가 아닌 ‘구원자 궁예’로 기억되고 있으며, 자신의 일을 기록할 수단을 가지지 못하였던 당시의 민중들은 입에서 입으로 그날의 역사를 오늘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같다.

고희상

물과 용암, 그리고 시간이 아름다운 한탄강 관한 연구

I. 들어가는 말

II. 본론

- 물이 빚어낸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 국가지질공원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 한탄강의 역사적 유래
- 한탄강 현무암 협곡이야기
 - 한탄강에 흐른 용암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명소들

III.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연천은 물의 고장이며, 물이 만든 놀랍고 신비로운 협곡과 아름다운 자연 생태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이 지역을 흐르는 하천과 강은 어떤 지역보다도 많다. 대표적으로 좌측에는 임진강, 중간에는 차탄천, 그 우측에는 한탄강이 굽이쳐 흐른다. 이렇게 연천을 주변으로 많은 하천 (河川)과 강이 흘러서 연천(漣川)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漣川의 漣은 잔물결 연, 또는 물놀이 칠 연, 눈물 흘릴 연이고, 뜻을 나타내는 삼수변(水=水, 水→물) 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連(련)이 합(合)하여 이루어졌다.¹ 물놀이 치는 하천이 계속 연결된다고 하는 뜻으로 도 해석할 수 있겠다. 옛 사람들은 이렇게 고을 이름 하나를 지어도 주변 풍경에 적합한 멋들어지고 뜻이 담긴 이름을 지었나 보다.

연천 지역의 자연생태를 바라보면 물이 가져다 준 신비와 그 힘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평상시에는 바닥이 들여다보일 정도로 얕지만 장마와 홍수 때는 임진강과 한탄강, 차탄천이 범람할 듯 넘실대며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무서움을 느끼게 한다.

오늘날 연천의 지형지물을 만든 물의 특성을 살펴보면 물은 무서운 힘을 갖고 있으나 부드럽고 유연하여 어떤 형태가 없다. 또한 겹손하여 늘 낮은 곳을 찾아 흐르고 또 흘러 모든 것을 받아 주는 바다가 된다. 그래서 중국 고대의 사상가이며 도가(道家)의 시조인 노자(老子)는 『도덕경(道德經)』에 “으뜸이 되는 착함(善)이란 물과 같다. 물이 착하고 좋다 하는 것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으며, 여러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그러므로 거의 도에 가깝다”²고 하였다. 끊임없이 흐르는 물은 세상 만물에 꼭 필요한 성분을 공급하여 생기를 주고 성장시키며, 낮은 데로만 찾아 흘러가는 본연의 성질은 막히면 머물렀다 모이면 넘쳐서 또 기어이 낮은 곳을 찾아 돌고 돌아 흘러내려간다. 무위자연 사상의 대가인 노자는 물이 만드는 자연의 생태를 바라보면서

겸손함을 찾았고 도의 본질을 노래한 것이다. 연천에서 바로 이와 같이 물이 빚어낸 아름답고 살아 있는 자연의 생태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숨 쉬는 삶의 인문학과 억겁의 세월 속에 살아온 사람들의 자취다. 이를 기억해내면서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위치와 본질을 깨달을 수 있다.

이렇듯 수십만 년 동안 강물과 용암이 만나 빚은 한탄강 협곡은 갖가지 아름답고 놀라운 지질 명소(名所)들을 만들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평지보다 20~40m 깊은 곳에 수직절벽을 따라 흘러들어가는 강, 강 둘레에 펼쳐진 현무암 절벽과 주상절리, 폭포 등 다양하고 아름다운 지형과 경관을 만들어 우리나라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됨은 물론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사이트가 되었다.

최근 국내의 많은 지자체들과 지질 관련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지질 유산을 통해 그 지역을 잘 보전하고, 지질을 이용한 관광과 지구의 생성 과정에서 빚어낸 지질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서 흥미를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의 활용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는 지질공원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연천 지역도 그동안 휴전선 인근 지역으로 소외되어 잘 알려지지 않고 묻혀 있던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한탄강의 지질 명소들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인증을 통하여 재조명되고 있다. 연천 지역의 한탄강과 차탄천 지역을 중심으로 생성된 자연생태와 물과 용암이 만나 빚어낸 화산 지형으로의 시간여행을 통해 다양한 풍화 지형, 하천 지형으로의 학술적 가치를 알아보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된 한탄강이 어떤 과정을 겪으며 생겨났고, 그 변화의 과정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지금의 모습을 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본다. 또, 지질 명소에 얹힌 설화와 유래들도 함께 연구하고자 한다.

II. 본론

1. 물이 만든 한탄강 국가지질공원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연천의 한탄강 유역은 우리나라 땅의 변천사, 즉 한반도의 생성과 발달 과정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이며, 약 20억 년 전인 선캄브리아시대, 중생대, 신생대 제4기 화산 활동과 관련된 지층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 땅과 물은 이 지역에서 선사시대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숨 쉬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는 수많은 역사를 품고 있다.

다양한 우리 땅의 생성 역사를 잘 간직한 아름다운 명소들로 인해 한탄강 유역은 2015년에 국가지질공원(제7호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OO국립공원이라는 명칭에 익숙해져 있다가 최근에 OO국가지질공원이라든지 OO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이라고 부르는 지역 명칭 또는 용어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국가지질공원과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

1) 국가지질공원

국가지질공원이라는 개념은 지질 유산을 보전하고 교육과 문화, 관광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인증한 지질공원이다. 이러한 지질공원의 개념은 1990년대 중반 유럽에서 대두되어 2004년 유네스코에서 세계지질공원네트워크가 출범하면서 강조되었고, 우리나라는 2011년 자연공원법에 국가지질공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지질 유산의 보존과 현명한 이용이라는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게 되며 2020년 7월을 기준으로 13개 지역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우리나라 국가지질공원은 울릉도·독도, 제주도, 부산, 청송, 강원평화지역(화천, 인제, 양구, 고성),

무등산권(광주, 화순, 담양), 한탄강(포천, 연천, 철원), 전북 서해안권(고창, 부안), 백령·대청, 진안·무주, 단양 국가지질공원이 있다.

국가지질공원의 정의를 살펴보면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이다”³라고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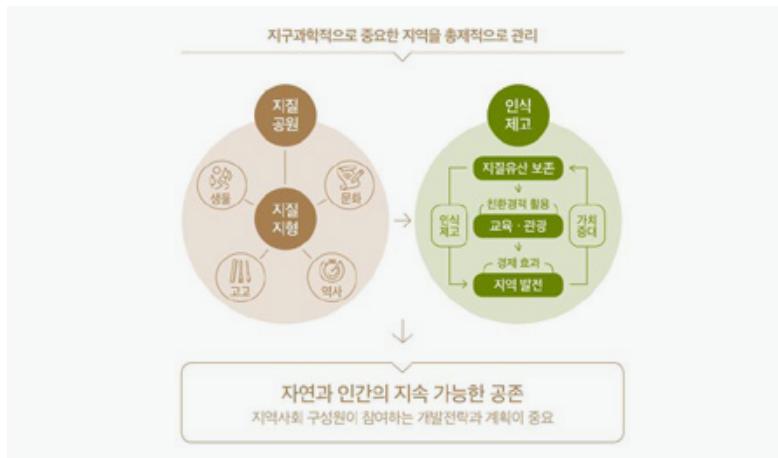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자연 보전이 중심인 국립공원과 달리 국가지질공원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연 보전을 하면서도 교육, 문화, 관광 활성화를 기본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 국가지질공원은 단순하게 지질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 즉 지역 주민 중심의 활동을 핵심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중심이 되어 지질 유산을 보전하고, 교육과 관광에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 전략을 세운다는 것이다.

[그림 1] 지질공원의 개념⁴

³ 자연공원법 제2조(정의), 제36조의 3(지질공원의 인증 등)

⁴ 국가지질공원사무국『지질공원 바로 알기 가이드북』, 2020, 5쪽

⁵ 이병욱,『지질공원 기본계획 및 인증기준 수립 연구』, 국립공원관리공단, 2013, 16쪽



국립공원은 한 국가의 자연 경관을 대표하는 경승지를 국가가 법으로 지정하여 유지하고 관리하는 공원으로서, 자연 경치가 뛰어난 지역의 자연과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나라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공원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자연 보전과 이용하는 주체가 국가이고 관리도 국가 재정으로 이루어진다. 즉 국립공원이 국가 등이 주도하여 지정하는 하향식(top-down) 보호 제도라면 지질공원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상향식(bottom-up) 제도라 할 수 있다.

다음 국립공원, 지질공원 및 기타 보호 지역의 주요 차이점에 관한 표를 보면 그 차이점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구분	국립공원	지질공원	다른 보호 지역(예: 천연기념물 등)
규제 정도	매우 강함	거의 없음	매우 강함
재정 지원	지원 많음	지원 적음	상황에 따라 변동
선정 방식	지정	인증	지정
해제 방법	타율적 1. 군사상, 공익상 목적 2. 천재지변 3. 지정 기준 결여	자율적 (자발적, 미 이행 혹은 재인증 취소)	타율적 *해당 법규 적용 허가, 해제 등
관리 원칙	보전>이용	보전과 이용의 조화	보전>>이용

표1. 국립공원, 지질공원 및 기타 보호지역의 주요 차이점⁴

지질공원이 생기기 이전에는 국립공원이나 다른 보호 지역은 자연 환경보호라는 측면이 강해서 규제 정도가 매우 강하고 통제와 개발에 대한 제한을 두었다. 그러다보니 개발을 바라는 지역 사회와 주민들과는 지속적인 마찰이 생기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질공원 프로그램이 생기고 지질 유산을 잘 보전하면서 교육과 관광을 통해 지역 사회의 실질적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질공원의 좋은 가치와 계획은 흐려지고 있다. 오히려 지자체가 무분별한 개발 정책을 시행하면서 상업적인 대규모 관광 단지를 개발하는 등 관 주도의 정비 계획으로 인해 지질 유산이 훼손되고 있다. 이는 지역 사회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을 하지 못하는 개발 행태다.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지역 주민의 참여하는 상향식 제도다. 즉,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지질공원의 탄생 목적은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중심이 되어 지질 유산을 보전하고, 교육과 관광에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주요 목표를 두고 개발 전략을 세운다는 것인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관 주도로 개발한다면 국가지질공원의 가치는 결국 훼손되고 말 것이다.

2)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라는 것은 단일의 통일된 지리적 영역으로, 세계적으로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명소와 경관을 보호, 교육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룬다는 개념을 가지고 관리되는 곳으로 2015년 제38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공식 프로그램이 되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지역 사회와 주민이 이해 당사자로서 지질공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지역 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사회·경제적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이 살고 있는 자연 경관을 보호하며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⁶

현재 우리나라 3개소(제주도, 청송, 무등산권)를 포함해 한탄강(2020.7.7)이 새롭게 인증되었고, 올해로 모두 44개국 161개소 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었다.⁷

세계지질공원은 국제적인 지질학적 가치가 입증된 지역을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질공원 내의 지질 명소는 물론이고 생태, 문화, 역사, 고고 등의 비 지질학적 자원과 서로 연계 및 활용함으로써 지질공원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 있다. (UNESCO, 2017)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가지질공원으로 먼저 인증되어야 하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세계지질공원의 인증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질과 경관에 대한 부분으로 지질공원의 경계가 분명해야 하며, 지질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지질의 다양성은 지역 안에서 지질학적 시대, 타 지질 공원과 비교하여 독특한 지질학적 가치가 있는지를 말한다.

둘째, 신청지의 체계적인 관리 구조와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질공원의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질 관광을 위한 기반 시설 및 체계적인 관리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된다.

⁸ UNESCO Global Geoparks. *Celebrating Earth Heritage, Sustaining local Communities*(UNESCO, 2016d)의 주요 내용을 이용하여 기술한 부분이 포함되었다. 세계지질공원 현장 심사자 모임에서 도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이수재의『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운영 강화에 따른 국가지질공원제도의 개선방안 연구』(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2016, 22쪽을 재인용하였다.

셋째, 지질공원에는 해설과 교육이 있어야 한다. 지질공원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지질 유산을 보호하면서 교육과 해설을 통해 지질 유산의 가치를 공유하고 인식하며 자발적인 보호를 유도함에 있다.

넷째, 지질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탐방객 안내 센터, 2개 이상의 언어로 구성된 홍보 및 안내 자료, 대중의 접근성 및 시설, 홈페이지, 탐방객의 관리 등의 항목이 기본적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다.⁸

다섯째, 해당 지역에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개발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증 조건 중에서도 최근에 세계지질공원이 공식화됨에 따라 인증 요건이 강화되는 다양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다음은 지질공원의 4가지 필수 요소라고 하여 매우 중시한다.

- 국제적 가치의 지질 유산 (Geological Heritage of International Value)
- 관리 구조 (Management)
- 가시성 (Visibility)
- 망구성 활동 (Networking)

이 중에서도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기 위해서는 지질공원 내에 존재하는 지질학적 사이트에 대한 국제적 지질학적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적 지질학적 가치의 입증은 2015년 세계지질공원이 유네스코의 정식 프로그램으로 채택된 이후, 세계지질공원 수의 증가와 다른 프로그램과의 차별화를 위해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세계지질공원을 염두에 둔 관리 기구는 지질 유산의 국제적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전문 학술 연구 상태를 점검하여 국제 논문에 투고하고 그 국제적 중요성을 입증하는 논문을 신청 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지질공원 내의 모든 지질 명소 또는 지질 유산 지역이 국제적인 지질학적 가치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체 지질공원 지역

이 가지는 지질학적 가치 또는 지질공원 내에서 가장 중요한 지질학적 가치를 가지는 일부 지질 명소가 국제적 지질학적 가치를 가져도 세계지질공원으로서 인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⁹

이에 따라 세계지질공원 신청 및 인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당 지질공원에 대한 국제적 지질학적 가치의 입증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지질학적 가치 평가는 앞서 제시한 분류 체계, 지표,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지질학적 가치 평가를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이유는 일부 낮은 지질학적 가치를 가지는 지질 유산이 높은 교육적, 관광적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도 국제적 지질학적 가치를 가지는 지질 유산보다 더 높은 가치 등급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세계지질공원 프로그램은 지질학적 대상을 비 지질학적 가치와 연계하여 교육 및 관광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각 지질 명소의 가치 평가에서는 교육적 가치와 관광적 가치가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질 유산의 지질학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질 유산이 가지는 지질학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평가한 후, 추가적으로 교육적·관광적 가치를 평가해야만 한다. 이에 대한 가치 평가 항목은 지질 명소로서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경관적 가치, 지질 다양성, 접근성, 안전성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높은 교육적 가치와 관광적 가치를 가지는 지질 명소는 지질 관광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2. 한탄강의 역사적 유래

한탄강의 발원지는 북한의 강원도 평강군 현내면 상원리의 장암산(長岩山, 1,052m)이다. 이로부터 임진강 합수머리인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의 도감포(都監浦)에 이르기까지 총 연장 136Km의 길이를 갖고 있다. 한탄강을 포함하고 있는 행정 구역은 북한의 평강군과 우리나라 강

10 관찬 지리서이다. 55권 25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목활자본이며 원래의 <동국여지승람>은 1481년 50권으로 완성했다. 이 책은 1485년 김종직 등에 의해, 1499년 임사홍·성현 등에 의해 2차에 걸쳐 교정과 보충이 이루어졌고 종종대에 새로 증보하였다. 1530년에 속편 5권을 합쳐 전 55권으로 완성, 이에 '신증(新增)'의 두자를 삽입하여 간행하였다. 임진왜란을 겪은 뒤 이 책은 더욱 희귀해져 일본 경도대학소장본이 유일하며, 1611년(광해군 3)에 복간한 목판본이 규장각 도서 등 국내에 소장되어 있다. 1455년(단종 3)의 을해자로 인쇄된 <동국여지승람>의 초간본 중 권37·38은 김두종(金斗鍾)이 소장하고 있다.

11 「八道郡縣地圖」작자미상, 간행 연도: 18세紀(英祖年間: 1724-1776)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소장.

12 「八道地圖(草本), 一」연천현 필사본. 영본2책(全3책). 전국의 군현(郡縣)별 지도의 초본을 모아 놓은 책으로, 上冊에는 황해, 경기, 충청의 각 군현의 지도초가, 中冊에는 경상, 평안의 지도초가 실려 있다. 제작자는 미상이지만, 中冊의 지도를 붙인 배접지가 건륭 31년(영조42: 1766) 장연중기(長淵重記)라는 점에서 몇 가지 유의한 추정이 가능하다. 따라

한탄강의 지명은 원통하고 한이 많다는 뜻인 한(恨)이 담긴 恨灘江(한탄강)으로도 불린다. 옛날 태봉을 건국한 궁예가 패망할 때 이 강에 이르러 비운을 한탄했다는 설과 일제 강점기를 벗어난 8.15직후 3.8선 경계가 되었던 지리적 입지 조건과 6.25전쟁 발발로 인한 많은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恨)을 심어주었다고 하여 恨灘江(한탄강)으로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다.¹³

한탄강은 조선 후기의 팔도지도초본 1의 연천현(지도 2 참조)에 마천(摩訶川)이라고나온다. 이 지도에는 차단과 아미천이 보이는데 이



[지도 1] 팔도군현지도(八道郡縣地圖)¹¹



[지도 2] 팔도지도초본 일(八道地圖草本 一) 연천현¹²

원도의 철원, 포천, 연천이다. 한탄강의 옛 이름은 '대탄(大灘)'이라 한다.(지도 1 참조) 옛 지리지인『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¹⁰이나 조선 후기의 각종 지리지, 각 군읍지 등에는 지금의 한탄강이라는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체적으로 예전에는 강이나 하천의 구간별마다 고유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한탄강도 발원지로부터 광탄, 당탄, 제천, 마흘천으로 이어진다. 이 대탄은 전곡을 신답리 아우라지에서 임진강에 합류하는 군남면 남계리 도감포까지의 옛 이름으로 '한 여울'이라는 순우리말을 갖고 있다.

예부터 지명이나 인명, 관직명 등에 '크다'는 뜻으로 써온 말인 '한'은 '큰'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인데, 강이나 바다에서 바닥이 얕거나 폭이 좁아 물살이 빠르게 흐르는 곳인 '여울'이라는 말을 합하여 '한 여울'로 불렸던 것이 어느 때부터인가 실제 뜻과 무관한 한탄(漢灘)이 되었고, 후에 일제 강점기에 와서 이 지명에다 강이 덧붙여져 한탄강이라는 지명으로 변하였다.

한탄강의 지명은 원통하고 한이 많다는 뜻인 한(恨)이 담긴 恨灘江(한탄강)으로도 불린다. 옛날 태봉을 건국한 궁예가 패망할 때 이 강에 이르러 비운을 한탄했다는 설과 일제 강점기를 벗어난 8.15직후 3.8선 경계가 되었던 지리적 입지 조건과 6.25전쟁 발발로 인한 많은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恨)을 심어주었다고 하여 恨灘江(한탄강)으로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다.¹³

한탄강은 조선 후기의 팔도지도초본 1의 연천현(지도 2 참조)에 마



[지도 3] 1872년 지방지도

서 고려대 도서관 소장의 지도 초는 여암 신경준의 군현별 지도첩의 초본임을 추정할 수 있겠다.(고려대학교 도서관 지도 컬렉션 소장)

13 연천문화원,『향토사료집』 이화상사, 1995, 56~58쪽

14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는 조선시대 官撰地圖 제작 사업의 마지막 성과로 평가되는 1872년 지방 지도가 소장되어 있는데 총 459매다. 이 때 제작된 지도들은 郡縣지도뿐만 아니라 城·鎮·堡·牧場·山城 등을 그린 지도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한 시기에 제작되어 수렴된 지방 지도로는 가장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다.

15 『광여도(廣輿圖)』 조선 후기 18세紀(英祖 13-英祖 52: 1737-1776) 제작됨, 7冊, 彩色圖, 筆寫本. 규장각 소장

16 원종관 외,『한탄강 지질 탐사 일지』, 이성사, 2010, 19쪽

17 용암이 흘러나온 시기인 50만년 전~12만년 전에 대한 논의는 뒤에 나오는 재인폭포의 형성 과정에서 설명하였다.

지명들은 지금도 그와 같이 부르고 있다. 그러나 한탄강은 조선 후기의 지도에는 대체적으로 마가천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음을 『1872년 지방지도』¹⁴ 나 『광여도(廣輿圖)』를 보면 알 수 있다.¹⁵

3. 한탄강 현무암 협곡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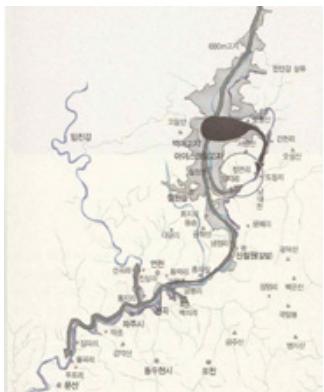
1) 한탄강에 흐른 용암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한탄강은 지질학의 보물창고라 한다. 한탄강에는 선캄브리아시대부터 신생대까지 다양한 지질 시대의 지층을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 중부 지역을 가르는 커다란 단층과 여러 모양의 계곡과 다양한 지질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¹⁶

한탄강의 현무암 협곡이 생긴 것은 대체적으로 지금부터 50만~12만년 전¹⁷인 신생대 제4기 때다. 한탄강이 시작된 북한의 평강 북동쪽에 있는 680m고지라는 곳에서 화산 활동을 통해 용암이 흘러나와 아이스크림이 녹아 흐르는 것처럼 북한의 평강, 철원, 연천의 전곡까지 낮은 한탄강 유역과 평야 지대를 대부분 덮었고, 임진강 하류에 있는 파주 율곡리까지 약 140km를 흘러 내렸다. 그 후 평강읍 동남쪽 약 4Km 지점에 있는 오리산(453m)에서 용암이 다시 분출하여 흘러 내렸다.



[지도 4] 용암을 분출한 680m고지와 오리산의 위치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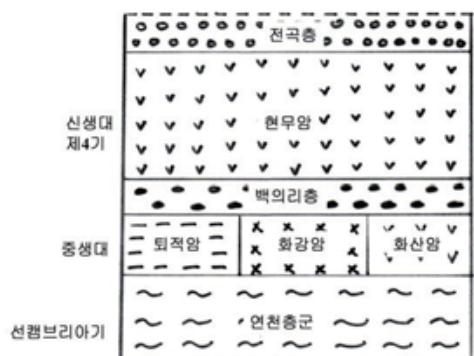


[그림 2] 680m고지와 오리산 용암이
한탄강 일대에 흘러내린 모습¹⁹

¹⁸ 원종관 외, 상계서, 24쪽

¹⁹ 「한탄강 유역의 지질과 고고학을 연계한 답사 체험 활동」, (사)한국지구과학회, 5쪽

지금의 한탄강은 ‘옛 한탄강’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680m고지에서 분출한 용암은 기존의 한탄강을 메워버렸기 때문이며, 그 후에 오리산에 분출한 용암이 다시 그 위를 덮으면서 댐이 막는 듯 옛 한탄강의 길을 막아버렸다. 그 뒤로 침식 작용과 하천 쟁탈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현재의 한탄강 물줄기는 옛 한탄강보다 동쪽으로 치우쳐 흐른다.



한탄강의 지형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한탄강 일대의 기반암은 선캄브리아기의 변성암 복합체인 연천층군과 장락층군(경기 변성암 복합체)이다. 이 위에 중생대 초기-중기 퇴적암과 대보화강암(명성산 화강암)이 넓게, 백악기 장탄리 현무암질 응회암과 퇴적암

이 부분적으로 분포한다. 이들 위를 제4기 추가령 현무암과 전곡현무암이 덮고 있다. 중생대층과 제4기 현무암층 사이에는 고기 하성층인 백의리층이 협재되어 있다. 제4기 현무암 위로는 최종적으로 하성층인 전곡층이 피복되어 있다. ([그림 3] 참조)²⁰

한탄강에 오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의 협곡을 볼 수 있는데, 거의

똑같은 모습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한탄강의 현무암 협곡의 형태를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하천바닥과 계곡 양쪽 벽이 모두 현무암인 경우이다. 이 계곡의 모양은 대체로 좁은 협곡이며, 옛 한탄강을 따라 가장 낮은 지역으로 현무암이 흘러 들어와서 용암이 가장 두껍게 쌓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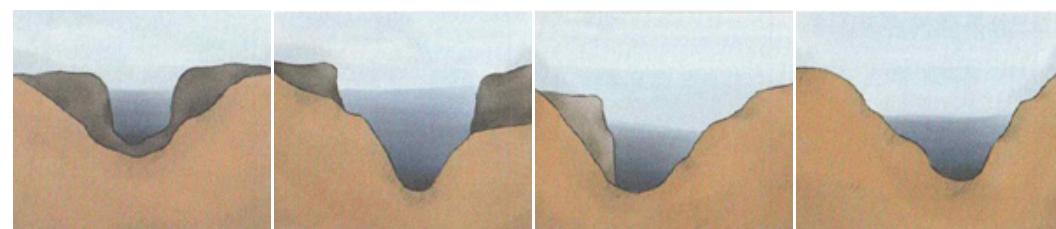
둘째, 하천 바닥은 화강암이나 변성암이고 양쪽 벽은 현무암인 경우가 있다. 기반암과 용암 사이에는 대개 화산 활동 이전에 퇴적되어 있던 미 고결층인 백의리층이 있으며, 하천 바닥은 화강암이나 변성암이 있는 경우이다.

셋째, 하천 바닥과 한쪽 계곡 벽은 화강암 또는 변성암이고, 한쪽 계곡 벽만 현무암인 경우다. 한탄강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형태다. 한탄강 용암이 용암대지를 만든 후 기반암과 맞닿는 곳의 침식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다.

넷째, 하천 바닥과 화강암 계곡 양쪽 벽이 모두 기반암(또는 변성암)인 경우이다. 계곡 양쪽 벽이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곳이다. ([그림 4] 참조)²¹

이와 같이 한탄강 계곡은 다양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형적 특징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한탄강 현무암의 분포, 깊이, 두께와 기반암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또 물의 침식 작용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그림 4]
한탄강 현무암 협곡의
4가지 형태



① 하천 바닥과 계곡 양쪽 벽이
모두 현무암인 경우

② 하천 바닥은 화강암이나
변성암이고 양쪽 벽은 현무암
인 경우

③ 680m고지와 오리산 용암이
한탄강 일대에 흘러내린 모습

④ 680m고지와 오리산 용암이
한탄강 일대에 흘러내린 모습

2) 한탄강의 세계지질공원 인증 명소들

한탄강의 지질 명소들은 철원 지역의 샘통(용출수), 소이산(철원용암대지), 직탕폭포, 고석정, 삼부연폭포, 포천시 지역의 화적연, 지장산웅회암, 비둘기낭 폭포와 명우리협곡, 포천아우라지 베개용암, 아트밸리와 포천석, 연천 지역의 재인폭포, 백의리층, 좌상바위, 은대리 판상절리와 습곡 구조, 전곡리 유적 토층으로 나눌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연천 지역의 지질 명소 중 지면 관계로 전곡리 유적 토층은 제외하고 나머지 명소들에 한하여 물이 만들어낸 지질 명소들의 형성 과정과 명칭의 유래와 설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① 재인폭포

재인폭포의 명칭 유래와 형성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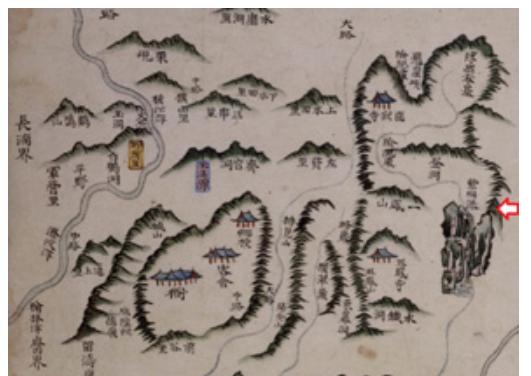
재인폭포는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부곡리 192에 소재하고 있으며, 한탄강에서 가장 아름답고 빼어난 경관을 가지고 있다. 에메랄드빛 물로 인하여 사시사철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대표적인 명승지다.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선 영조 때 그려진 광여도²²에 의하면 자연폭(紫烟瀑)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니까 재인폭포의 옛 이름이 자연폭(紫烟瀑)이라는 것이다. 자연폭은 자줏빛으로 물들인 옷을 입은 것 같은 아름다운 폭포란 뜻이다. 그리고 연(烟)은 연기, 아름다움

22 「廣輿圖」, 18世紀(英祖13-英祖52: 1737-1776), 책 권수는 7冊, 채색도(彩色圖), 판본사항은 필사본(筆寫本)이다.



[사진 1] 재인폭포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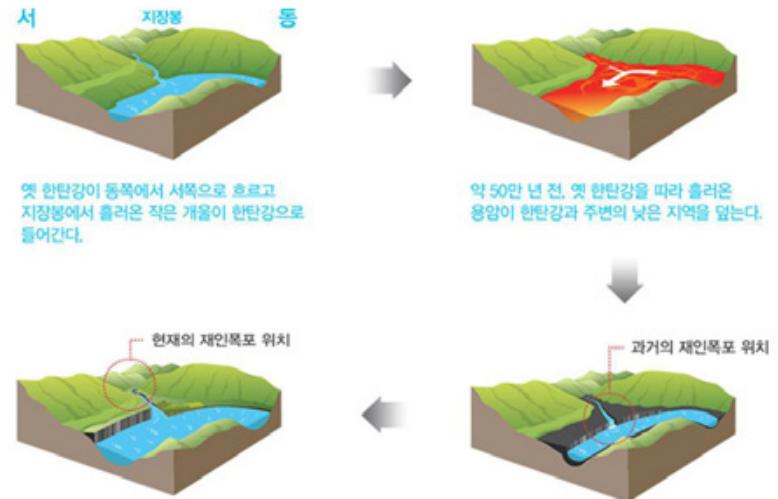
[지도 5]『광여도』의 자연폭

연이기도 하지만 제사 지낼 것으로도 쓰인다. 그래서 자연폭이라 부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재인폭포는 원래 자연폭이나 자연폭으로 부르다 재인(才人)의 설화가 덧씌워지면서 재인폭포(才人瀑布)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인폭포의 북쪽에는 지장봉(877m)이 있는데 이곳에서 흘러내려온 하천이 높이 약 18m에 달하는 현무암 주상절리 절벽에서 쏟아지는 모습은 장관이다. 재인폭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재인폭포를 보면 주변 땅이 한꺼번에 내려앉은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흐르는 물의 침식 작용을 받아 깎여서 생성된 폭포다.

폭포라는 것은 하천이나 강에서 암석이 깎이거나 암석 덩어리들이 떨어져 나가 생긴 높은 절벽이다. 옛 한탄강을 따라 흐르던 용암이 한

[그림 5]한탄강 일대의 지형과 재인폭포가 만들어진 과정



탄강을 다 덮고 지장봉에서 흘러내리던 하천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폭이 좁은 지류의 입구를 덮은 용암은 오목한 지형에 모여 표주박처럼 생긴 용암호를 만들었다. 용암호가 만들어진 후 시간이 흘러 이곳 용암 위로 물이 흐르면서 침식 작용에 의한 하천이 점차 만들어졌다. 이 현무암 용암은 주상절리가 잘 발달되어 그 절리를 따라 풍화와 침식이 잘 일어나서 일부 현무암층이 큰 덩어리로 떨어져 나가면서 이곳에 작

은 폭포를 만들었다. 50만 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지속적인 풍화와 침식에 의해 폭포는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폭포의 위치도 점점 골짜기 뒤쪽으로 옮겨 가게 되어 지금과 같은 형태의 폭포가 만들어진 것이다. 높이 약 18m에 달하는 폭포는 계속해서 폭포 아래를 침식시켜서 수심 5m에 달하는 포트홀(potheole)을 만들었다. 포트홀이란 하천에서 암석의 오목한 곳이나 깨진 곳에 와류(물이 회오리치는 현상)가 발생하여 깊은 구멍이 생겨난 것을 말한다.

재인폭포는 주상절리를 따라 현무암 암석이 무너져 절벽이 생기므로 앞으로도 재인폭포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보다 더 안쪽으로 이동하며 물러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원래 한탄강 입구에 있던 폭포가 지금은 380m를 후퇴하여 현 위치에 있게 된 것이다.²³

재인폭포 절벽에는 수평으로 발달한 선 3개가 보인다. 이것은 용암이 크게 세 번 정도 흘러 들어왔다는 표시이다. 이 선의 모양은 전곡읍 차단천 은대리 협곡 지역과도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곡읍 은대리 지역 하식절벽에서 산출하는 제4기 현무암 질 암석에 대한 연대 측정 결과 약 12만 년 전과 48만 년 전, 54만 년 전에 일어난 네 번 이내의 반복적인 화산 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²⁴ 재인폭포의 포토홀에는 어름치(천연기념물 제238호)가 살고 있고 절벽 틈 사이에는 분홍장구채(멸종 위기종)도 볼 수 있다. 특히 재인폭포에서는 다양한 현무암의 특징들을 관찰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주상절리를 비롯하여 하식동굴과 포트홀, 가스튜브 등을 볼 수 있다.

재인폭포와 설화

재인폭포에는 슬픈 두 가지 설화가 전해 내려온다.

그 첫째는 문헌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로 조선 영조(1765년)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 연천현 산천조에 “재인폭포는 연천관아에서 동쪽으로 20리 거리인 원적사 동구에 있는데 벽립(壁立)해 있는 양 절벽 사이로 수십 길 높이를 수직으로 흐르며 떨어진다. 옛날에 한 재인이 있

었는데 하루는 마을 사람과 이 폭포 아래에서 즐겁게 놀게 되었는데 마을 사람의 아내가 매우 미모가 뛰어난 고로 자기 재주를 믿고 혹심을 품은 재인은 그 자리에서 장담하며 약속하기를 ‘이 절벽 양쪽에 외줄을 걸고 내가 능히 지나갈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하자, 마을 사람은 재인의 재주를 믿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 아내를 내기에 걸게 되었다. 잠시 후 재인은 벼랑 사이에 놓여 있는 외줄을 타기 시작하는데, 춤과 기교를 부리며 지나가는 모습이 평지를 걸어가듯 하자 이에 다급해진 마을 사람은 재인이 줄을 타고 반쯤 지났을 때 줄을 끊어 버려 재인은 수십 길 아래 구렁으로 떨어져 죽게 되었고 이러한 일로 인하여 이 폭포를 재인폭포로 불리게 되었다”²⁵라고 쓰여 있다.

두 번째 설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인폭포 인근 마을에 금슬 좋기로 소문난 광대 부부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줄을 타는 재인이었던 남편과 아름다운 아내에게 날벼락이 떨어졌다. 마을 원님이 재인폭포에서 줄을 타라는 명을 내린 것인데 광대의 아내에게 혹심을 품은 원님의 계략이었던 것이다. 줄을 타던 남편은 원님이 줄을 끊어버리는 바람에 폭포 아래로 떨어져 그만 숨을 거두게 되었고, 원님의 수청을 들게 된 아내는 원님의 코를 물어버리고 자결하게 된다. 그 후로 사람들은 이 마을을 코문이가 산 마을이라 하여 ‘코문리’라 부르게 되었고, 현재 재인폭포 마을인 고문리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²⁶ 이처럼 재인폭포는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광대 재인과 못된 원님의 이야기가 아름답고도 슬픈 설화로 전해지고 있다.

설화라는 것은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꾸며낸 이야기로 신화·전설·민담 등을 포괄하는 구비문학을 말한다. 그리고 설화 가운데 사실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사실 자체를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라기보다는 흥미와 교훈을 위해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설화의 내용을 유추해볼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다산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암행어사 시절과 연관이 있다.

『일성록(日省錄)』에 있는 1794년(정조 18년) 정약용의 어사, 정약용 서

²³ 원종관 외, 상계서, 88~89쪽

²⁴ 김정민 외, 『전곡 지역 제4기 현무암질 암석의 40Ar-39Ar 연대측정』 암석학회지, 2014, 389쪽

²⁵ 『여지도서(輿地圖書)』 연천현 산천조: 1757년~1765년에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아 성책한 전국 지방지. 읍지. “才人瀑 在縣東二十里圓寂寺洞口懸流數十丈兩崖壁立古有一才人與村氓. 遊此悅其氓之妻美約日繫繩兩崖我能步過氓不信遂約以奪妻才人舞踏如履平地半過氓斷其繩才人落死坑中仍爲名”

²⁶ 연천문화원, 『향토사료집』 이화상사, 1995, 101~102쪽

계(書啓)에 보면, 정약용이 경기도 암행어사를 제수 받아 경기도 적성, 마전, 연천, 삭녕, 4개 읍을 다녀와 이 서계를 바쳤으며 각 지역의 전 현직 수령들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를 올리고 있다. 이때에 연천의 전 현감 김양직(金養直)에 대한 서계를 올리기를 “김양직은 연천현감을 5년 동안 벼슬살이하면서 온갖 나쁜 짓을 다하였는데, 흐리멍덩하게 일을 수행하여 정사를 어지럽게 만들고 탐오(貪汚)한 짓을 일삼았습니다. 게다가 청(妾)까지 거느리고 있습니다. 환곡(還穀) 3500석을 함부로 나누어주었다가 거둔 모조(耗條)를 모두 사사로운 용도에 써버렸습니다. 재결(災結) 51결을 나누어주지 않고 훔쳐 먹어 백성에게 내리는 실제의 혜택이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 게다가 직책을 팔아 자신을 살찌우면서 신역(身役)을 벗어나게 해준 것이 무수히 많고, 종을 놓아주고 돈을 요구하면서는 코를 찌르는 더러운 이름이 끝이 없을 지경입니다. 이런 사람을 엄히 징계하지 않는다면 백성을 보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²⁷라고 보고하고 있다.

²⁷ 『일성록(日省錄)』 1760년(영조 36)부터 1910년까지 주로 국왕의 동정과 국정을 기록한 일기

이렇게 전 연천 현감의 모습은 마치 정사는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재인의 부인을 탐하는 등 온갖 나쁜 짓이란 다한 재인 설화에 나오는 고을 원님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다. 이 재인폭포의 설화가 역사적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사실 여부보다는 지배 계층의 부패한 권력에 대한 풍자와 조선시대 여인의 강한 정절 등을 통한 문학적인 흥미와 교훈 때문에 설화가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②백의리층

연천읍 고문리 212에 있으며, 고문리 양수장 아래 지역에 20~30m 현무암 주상절리 절벽이 있고, 그 아래에 자갈층 바닥을 볼 수 있으며, 이곳을 흐르는 한탄강은 기반암인 변성암과 현무암 사이를 따라 흐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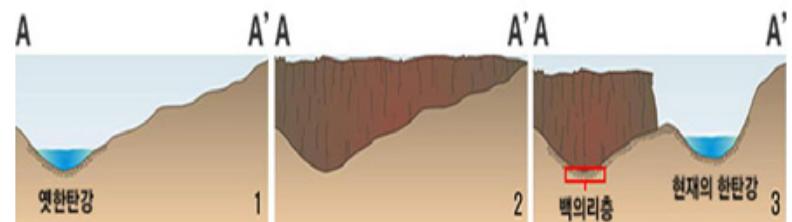
한탄강 백의리층이 형성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옛 한탄강이 흐르고 있었다. 두 번째, 신생대 제4기 한탄강 현무암이 옛 한탄강



[사진 2]
백의리층 모습²⁸

을 따라 흘러 두꺼운 현무암층이 만들어 졌다. 이것은 현재의 한탄강 유로와 옛 한탄강의 유로가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세 번째, 이후 오랜 시간에 걸쳐 현무암이 물에 침식되어 깎여 나가면서 현재의 한탄강이 옛 한탄강 앞쪽에 만들어졌고, 새로운 한탄강 옆에는 웅장한 용암 절벽이 생겼다. (그림 6 참조)

[그림 6]
백의리층 형성 과정²⁹



다. 이것은 용암이 분출하기 전에 흐르던 옛 한탄강가에 있던 퇴적층이다. 이 백의리층 두께는 대략 1m 정도이며, 화강암, 편암, 규암 등 여러 종류의 자갈들로 구성되었다. ‘백의리’층이라고 이름이 붙게 된 것은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한탄강변에서 처음 발견되어 백의리층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백의리층은 국내 내륙에서는 한탄강 일대에서만 관찰되는 매우 특이한 현상으로 지질 교육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질 명소에 해당한다.

백의리층에는 옛 한탄강의 퇴적층은 물론 아름다운 주상절리, 판상절리가 잘 발달되어 있고, 하부에서는 용암이 흐르다 물과 만나면 만들어지는 베개용암(pillow lava), 클링커(Crusher)³⁰를 함께 볼 수 있다. 현무암 절벽 주변으로 현무암 바위들이 떨어져 있는데 이런 모습에서 수직 방향의 절벽이 물에 의한 침식과 풍화 작용으로 현무암 절벽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잘 볼 수 있다.

²⁸ 출처: 한탄강지질공원사이트

²⁹ 원종관 외 상계서, p.97.

³⁰ 분출된 시기에 따라 상층과 하층이 응결되면서 현무암층 사이에 기공질이 형성된 층을 말함.

③좌상바위(풀무산, 선봉)

명칭 유래 및 선봉바위 전설



[사진 3]
좌상바위 모습³¹

³¹ 출처: 한탄강지질공원사이트

좌상바위는 경기 연천군 전곡읍 청산면 장탄리에 있다. 주변의 평탄한 대지에 높이가 약 60m로 우뚝 솟아 있으며, 중생대 백악기 말의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현무암으로 압도적인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이 산의 명칭은 산의 외형이 대장간에 있는 풀무와 같이 생겼다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풀무산(冶山: 야산)이라 한다. 전설에 의

하면 예전에 어떤 풍수가가 능 안 뒷산에 올라서서 주위 산세를 보니 전방에 솟은 이 산은 풀무와 같고, 남쪽의 숯골은 숯가마, 동북쪽 신답리의 쇠춘이(金村)는 쇠 빛깔, 북쪽 연천읍 고문리 느즌모루는 대장간에서 불린 쇠를 올려놓고 망치로 두드릴 때 받침으로 쓰는 쇳덩이인 모루 형상을 하고 있어 풍수학상으로 쇠를 녹일 수 있는 도가니 혈을 찾기 위해 능 안 골짜기를 뒤졌으나, 그 위치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이 봉우리에 신선이 자주 내려와 노닐었다 하여 '선봉(仙峰)'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른다.

옛날에 이 바위 봉우리에 한 스님이 살고 있었는데, 바위굴 속에서 생식(生食)을 하며 도를 닦고 있었다. 이 스님은 사람의 근접을 싫어하며 혼자 살고 있었다. 어느 해 봄 날씨가 무척 가물어 비가 오지 않아 새싹이 나오자마자 말라죽어서 스님이 생식할 풀과 나뭇잎이 없어져 살아가기가 곤란하게 되었다. 하루는 스님이 식량을 좀 얻으려고 마을에서 제일 큰 부잣집을 찾아갔다. 이 집은 욕심 많은 구두쇠 시아버지와 젊은 며느리가 살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스님의 구걸을 거절하고 쌀 대신 쇠똥을 한 삽 퍼 주었다. 이 광경을 본 마음씨 고운 며느리는 안타까워서 광에 들어가 쌀을 한 바가지 퍼서 스님에게 몰래 주었다. 스님은 감사의 인사를 하고 바위굴로 돌아왔다.

며칠이 지난 후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모이더니 천둥번개가 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마을 전체가 물바다가 되어 벙렸다. 이 며느리는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선봉바위 쪽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이때 스님이 내려와 그 며느리를 구하면서 말하기를, “어떤 소리가 나더라도 뒤를 보지 마시오!”라고 하였다. 바위 위로 올라갈 무렵, “사람 살려요!”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며느리는 스님이 이야기한 당부를 깜빡 잊고 그만 뒤를 돌아보았고, 그 순간 스님과 며느리는 바위 문턱에서 화석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지금도 선봉바위의 작은 돌문 밑에는 그 모습이 남아 있다고 전한다.

그러나 6.25전쟁 이후 수복이 되고 몇 해가 지난 뒤 이 바위산에서 어떤 사람이 몸을 던져 자살했다 하여 '자살바위'라는 이름이 생겼다. 그 후로 약간 변형되어 '좌살바위'라고도 했으며, 현재 많이 불리고 있는 명칭은 좌상바위인데, 궁평면 좌측에 있다 하여 좌상(左象)바위라고 부른다는 설과 아름다운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모습과 같다하여 좌상(坐裳)바위라고 부른다는 두 가지 명칭이 혼재 되어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좌상바위의 모습이 마치 아름다운 치마를 두르고 앉아 있는 모습인 좌상(坐裳)바위로 통일하여 불렀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 좌상바위 아래는 우무소라 하였고, 북쪽에 있는 소(沼)는 강물이 굽어 돌아 흐른다고 하여 '도리소'라 하였으며, 이 도리소 서쪽에는 선봉나드리(仙峰渡: 선봉도)라는 전곡읍 신답리로 통하는 나루터가 있었다.³² 이 좌상바위 명칭에 대한 유래를 살펴보면 원래 풀무산이란 이름으로 부르다가 6.25 이후에 자살바위→좌살바위→좌상바위로 점차 바뀌어 온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³² 연천문화원,『향토사료집』이화상사, 1995, 197쪽

좌상바위 생성 과정

한탄강 유역은 대체적으로 신생대 제4기에 있었던 화산 활동 때 분출한 용암에 의해 형성된 지질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곳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인 중생대 백악기에 있던 격렬한 화산 활동과 용암 분출에

³³ 지하의 마그마가 용암이나 화산기체로 지표에 분출하는 출구. 내측벽 금경사

³⁴ 화도(火道, volcanic vent), 화산물질이 지표로 분출되는 통로

³⁵ 권동희,『한탄강 유역 화산지형의 지오팍크 조성 가능성』한국사진지리학회지, 제21권 제2호, 2011, 41쪽

의해 형성됐다. 이곳 암석을 장탄리 백악기 현무암질 응회암으로 부르며, 화산의 화구(crater)³³나 화도(vent)³⁴ 주변에서 마그마가 분출하여 만 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위에 세로 방향으로 띠가 관찰되는 것은 빗물과 바람에 의해 풍화된 것으로 오랜 시간 동안 땅 밖으로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고, 좌상바위 부근의 한탄강 하상은 중생대 응회암 질 퇴적암으로 되어 있어 특이하다. 주로 궁신교 아래 하천 바닥에서 관찰되며 녹회색 또는 담갈색을 띤다. 이들 퇴적암은 화산 폭발 시 분출한 화산재가 물이나 바람에 의해 이동해 와 쌓이면서 여기에 둉근 자갈들이 함께 섞이게 된 것이다.³⁵

④차탄천 은대리 판상절리와 습곡구조

연천읍에서 전곡으로 훌러 한탄강으로 합류하는 차탄천에는 다른 하천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지질 구조로 용암의 역류로 인해 생성된 아름답고 놀라운 현무암 협곡을 만날 수 있다. 연천군은 이곳에 '차탄천 에움길'이라는 약 9.9km 지질 트레킹 코스를 조성했다. 이곳에서 연천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19억 년 전 선바위) 편암부터 신생대 제4기(약 55만 년에서 12만 년 전)의 현무암 주상절리와 판상절리, 습곡구조를 볼 수 있다. 이번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은 것은 은대리 판상절리와 습곡구조이다.

차탄천의 유래

차탄천(車灘川)은 강원도 철원 금학산 북쪽 계곡에서 시작하여 신탄리, 대광리 및 연천읍을 거쳐 전곡읍 은대3리 삼형제 바위에서 한탄강과 합류하는 총 연장 40km의 준용 하천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연천 남쪽 5리에 있는데, 물의 근원은 강원도 철원부 서쪽 고을파(古乙坡)이고 남으로 훌러 양주(楊州) 유탄(榆灘)으로 유입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지도서』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광여도』, 『여지도』에는 연천 남쪽으로 훌러가는

³⁶ 김기혁 외,『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지명, 2008

³⁷ 차탄천에 있는 경원선 철교의 옛 이름으로 교각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 하여 '공굴'로 어휘가 변하여 부르고 있다.(연천『향토사료집』)

³⁸ 태종: 太宗, 1367년 6월 13일(음력 5월 16일) ~ 1422년 5월 30일(음력 5월 10일, 재위: 1400 ~1418년)은 조선의 제3대 임금이다. 개요 성은 이(李), 휘는 방원(芳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유덕(遺德)이다.

³⁹ 연천문화원,『향토사료집』이화상사, 1995, 77쪽

하천으로 표기되었으며, 『팔도군현지도』, 『조선팔도지도』에서는 한탄강과 합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³⁶

차탄천의 본래 명칭은 장진천(漳津川)이다. 고려시대 연천군의 명칭이었던 '장주(漳州)와 연관되어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된다. 차탄천이라고 부르게 된 유래는 연천읍 차탄천에 있는 공굴다리³⁷ 북쪽의 여울로 '수레여울' 또는 '수레울'로 인하여 차탄천(車灘川)으로 부르고 있다. 이렇게 부르게 된 연유는 조선 개국 초 고려 신하로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절을 지키기 위하여 연천 도당골에 숨어 살며 은거하던 고려 진사금은 이양소(李陽沼, 1367~?)를 만나기 위해 연천으로 친행하던 태종³⁸의 어가가 이 여울을 건너다 빠졌다 하여 '수레여울'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³⁹

온대리 판상절리



[사진 4] 은대리 판상절리

판상절리는 용암이 흐른 지표면에 평행한 수평적 형태의 절리로서 현무암 내에 발달되어 있다. 은대리 판상절리의 모습은 기와장을 쌓아 놓은 형태를 하고 있어 와상절리라고도 한다. 넓은 판상으로 분리되는 절리로서, 암체가 침식으로 지표에 노출되면서 상부에 가해지던 하중이 제거되어 지표면과 평행하게 균열이 발생한 것이다.

⁴⁰ 「한탄강유역의 지질과 고고학을 연계한 답사 체험 활동」(사) 한국지구과학회, 24쪽

즉, 땅속 깊이 묻혀 있던 암석이 침식을 받아 땅 표면에 드러나면 암석이 받치고 있던 하중(荷重)이 제거되면서 균열이 생긴다. 이러한 균열은 지표에 평행하게 배열되며, 그 간격은 지표에 가까울수록 좁고 지표에서 멀어질수록 넓다. 판상절리가 잘 발달한 암괴(岩塊)는 양파 껍질처럼 조금씩 암석 조각이 떨어져 나간다. 하지만 판상절리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다.⁴⁰

사진 4의 은대리 판상절리 모습에 볼 수 있듯이 최근의 풍화와 침식으로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 속에서 또 다른 판상절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에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지질 형성 과정을 관찰할 수 있어 다양한 지질 학습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습곡구조

차탄천 은대리 하천가에는 지층이 종잇장처럼 구겨진 습곡을 간직한 암석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암석을 보면 어떻게 암석이 이렇게 심하게 휘어지고 구부러질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자아낸다.



[사진 5]
은대리 습곡구조 모습

이 암석은 약 14억 년 전인 선캄브리아시대에 만들어진 편암(변성퇴적암)으로 원래 물속에서 여러 물질이 쌓인 후 굳어져 만들어진 퇴적암이다. 퇴적될 당시에 석회질과 규질의 퇴적물이 여러 차례 교대로 퇴적되었다. 이와 같이 다른 퇴적물이 교대로 퇴적되면서 층리라는 경계가 발달된다. 그 후에 이 암석은 지각 변동을 받아 땅속에서 변성 작용을 받았지만 원래 암석에 있던 특징은 거의 그대로 남아 있다. 따라서 이 암석은 변성암이지만 퇴적암의 특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변성퇴적암이다. 쉽게 말해, 원래 평행한 줄무늬를 가졌지만 양쪽에서 미는 횡압력에 의해 구불구불하게 휘어진 것이다. 이렇게 심하게 휘어지려면 단단한 암석의 성질이 약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암석은 지표 부근보다는 온도와 압력이 높은 지하 10km 정도의 깊은 곳에서 한반도가 대규모 지각 변동을 받았을 때 양쪽으로부터 강한 횡압력을 받아 이렇

게 굽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습곡 작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대륙이 충돌해서 생긴 땅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략 2억 5000만 년 전 3개의 땅덩어리로 나누어져 있었다. 남중국과 북중국의 충돌로 중국 동쪽에 있던 작은 땅덩어리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었다. 오늘날의 한반도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땅이 충돌할 때 강한 압력이 작용하여 암석이 구겨지고 끊기는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한반도의 중앙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임진강 습곡대가 바로 한반도 충돌의 현장이다. 이 지각변동으로 생긴 지질 구조가 심하게 구부러진 습곡이다. 지각 변동으로 습곡과 함께 높은 압력을 받아 석류석, 남정석, 십자석 등의 여러 가지 변성 광물들이 생겨났다.⁴¹

차탄천 하천가에서는 붉은색 광물이 군데군데 박혀 있는 어두운 녹색의 암석을 관찰할 수 있는데 붉은 색 광물은 석류석이고, 어두운 녹색 암석은 각섬암이라 한다. 이런 암석들이 발견된다는 것은 과거에 고온 고압의 환경 속에 있었다는 것인데 지각 변동을 받아 지표로 나온 것임을 알려준다.⁴²

이외에도 차탄천 지질 협곡에서는 백의리층에서와 같이 옛 강바닥 퇴적층을 발견할 수 있고, 주상절리는 물론 적은 수이지만 베개용암과 클링커도 볼 수 있다.



III. 나오는 말

용암대지에 물에 의한 침식 작용과 풍화로 용암 지형과 하천의 상호 작용을 일으켜 다양하게 형성된 한탄강 현무암 협곡의 지질 및 지형들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희귀하고 가치 있는 지질학적 특성을 갖췄다.

물과 용암 그리고 시간이 만나 빛은 한탄강 현무암 협곡의 아름다운 경관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으로 그동안 접경 지역으로서 어려움이 많았던 경기 북부 연천, 포천 그리고 강원도 철원의 대외 인지도 및 관광의 질이 향상되어 경제적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연천 지역의 지질 명소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탄강 지질 명소의 지질학적 특성은 물론 이 땅을 밟고 살아 온 사람들에 대한 삶이 담긴 설화를 많이 담고자 노력하였다. 인문·역사적 측면에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명소의 명칭에 대한 유래, 설화를 발굴하여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시하였다. 위에서 소개한 지질 명소들 말고도 많은 명소와 설화들이 있지만 지면 관계상 다 소개하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그러나 이런 연구를 통해 역사·인문 자원 스토리텔링을 통한 네트워크화로 주요 명소별로 스토리를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이 될 수 있는 지질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소망이다. 또한 이러한 지역학 연구들이 지평을 넓혀 ‘지질공원은 지질유산을 보전, 교육, 및 관광에 활용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일정한 경계와 면적이 있으며, 생물·고고·역사·문화를 모두 포함하여 사람(지역주민)들이 관리하는 것’이라고 하는 지질공원의 조건과 필요성에 잘 결합하길 바란다. 또 ‘과거로부터 배우고 익혀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모토를 통해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지역을 보전하고 이를 토대로 한 교육과 관광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지역학 프로그램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 『도덕경(道德經)』
「八道郡縣地圖」
「八道地圖(草本)」
「광여도(廣輿圖)」
「여지도서(輿地圖書)」
『일성록(日省錄)』
국가지질공원사무국, 『지질공원 바로 알기 가이드북』, 2020
이병욱, 「지질공원 기본계획 및 인증기준 수립 연구」,
국립공원관리공단, 2013
이수재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운영 강화에 따른
국가지질공원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주성욱, 『지질유산의 지질학적 가치평가 방법 제안과 한탄강
지질공원의 가치평가』,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8
연천문화원, 『향토사료집』, 이화상사, 1995
원종관외, 『한탄강 지질 탐사 일지』, 지성사, 2010
권동희, 『한탄강 유역 화산지형의 지오파크 조성 가능성』,
한국사진지리학회지, 제21권 제2호, 2011
김정민외, 『전곡지역 제4기 현무암질 암석의 40Ar-39Ar연대측정』,
암석학회지 2014
김기혁외,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지명, 2008
『한탄강유역의 지질과 고고학을 연계한 답사 체험 활동』,
(사)한국지구과학회
자연탐사학교, 『차탄천 협곡 지질이야기』, 연천군청, 2018

구리 토풍마을과 수변 지역 자연마을의 물환경 변천사

김명희

I. 머리말

II. 본론

1. 구리시 자연환경
2. 물길 따라 변천하는 구리 역사·문화

III. 맷음말

환경부 “자연생태복원 우수사례” 지역으로 지정된 신도시 청출어람

I. 머리말

한강과 접한 구리시 자연환경을 자연 지형의 관점에서 지리학적으로, 물길 자연 마을의 장소가 담고 있는 역사와 다양한 사건에 대한 기억의 정보를 사회와 역사적 시각으로 풀어보고자 한다.

물이 드는 자연 마을의 물길 변화 과정을 문헌과 지금도 살고 있는 토착민들의 구술 내용, 물길의 현장 답사 과정을 통해, 지형학적 요인과 문제가 되는 다양한 요소들이 반응하며 남긴 변화의 흐름은 토착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현대의 도시 변화 형성에도 지형적 배경이 근간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길 자연 마을 형성과 변천 과정은 수변 지역의 공간적 규모에 따라, 시간적, 공간적 변화 과정이 토착민들의 삶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이 드는 땅에서 살아간 토착민의 기억 속에 삶의 터전이었던, 물길에 맞닿은 자연 마을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져 있을까?

한강과 왕숙천을 끼고 있는 구리시는 검암산 동구릉의 구릉으로 인해, 공간적으로는 단절된 형상의 갈매마을 주변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과거에는 물 재해에서 예외이긴 어려운 실정이었다. 물길은 양날의 칼처럼 치수의 방법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과거 우리가 열악하게 살아왔던 삶의 터전이, 작금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돌아와 새로운 수변 경관 축을 조성하였다. 바쁘게 사는 현대인에게 삶의 여유를 중요시하는 힐링의 여가 명소로, 건강을 위한 산책길로 변하여 주변의 많은 지역에서 찾아온다. 그러나 물길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에 살았던 토착민은 1950~1990년대 어려웠던 시절의 추억과 오염된 물길도 함께 떠올릴 것이다.

새롭게 만들어가는 수변 경관 자원은 공간적 유전자를 시간적으로 산술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을 담아 복원된 물길을 즐기는 사

람들 모습에서, 물길의 구조적 특징과 사회 변화에 따른 과정을 살펴보자는 것이다.

II. 본론

1. 구리시 자연환경

한국지명총람에서 구리시(九里市)에 대한 개요는 “양주군 지역으로 ‘곶’으로 되었으므로 구지면(龜旨面)이라 하여 동창, 인창, 사로, 이문, 백교, 수택, 평촌, 토막, 아차, 우미천의 10개 동리를 관할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강과 왕숙천이 만나는 일대에서 나타나는 지형적 특징인 ‘곶’을 거북 ‘龜’형상으로 지칭하는 구지(龜旨)라는 명칭이 구리시 지명의 기원으로 조선시대 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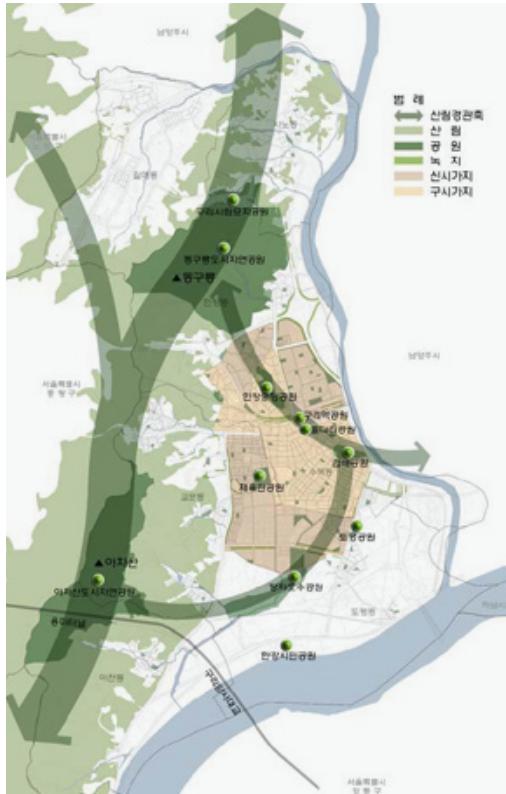
지명의 기원처럼 구리시의 약 71%가 자연 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아름다운 산과 강을 끼고 비옥한 토지와 온화한 기후를 자랑한다.

지형적 특징은 서고동저(西高東低)의 지세로 서쪽 아차산 지대와 동쪽 왕숙천 일대의 평지로 인해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게 나타난다. 주로 산지 사이의 하곡에 형성된 구릉지를 이루고 있고, 수락산과 아차산을 연결하는 산줄기 동쪽으로는 왕숙천이 흐른다.

구리시의 지형은 산과 강에 의해 그 성격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지형의 공간적 형태가 동서 방향 남측으로 한강이 넓은 벌을 만들면서 완만한 농경지를 형성하였다. 서측 남북 방향으로 길게 뻗은 아차산 자락은 서울과의 경계를 만들고, 대부분의 소하천들도 동서 방향으로 흐른다. 전체적인 지형의 공간적 흐름은 북서쪽 아차산 자락에서 남동쪽 한강과 왕숙천으로 나란히 흐르는 모습이다. 남측의 한강 주변으

로 갈수록 다양한 물줄기들이 곡천을 만들면서 논경작지와 섞여서 나타난다. 특히 1960년대에는 구리시의 중심부에는 장자못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저수지나 못의 형태들이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장자못과 아차산 자락의 일부 저수지를 제외하고는 그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구리시를 통과하거나 시에 접해 흐르는 주요 하천은 한강과 왕숙천이다. 한강을 제외하고 구리 지역을 통해 흐르는 하천은 왕숙천·교문천 등 중천(中川) 2개, 백교천·우미천 등 소천(小川) 2개 그리고 13개의 세천(細川)을 포함하여 모두 17개로 총연장은 23km이다. 구리시에는 1개의 자연호수와 3개의 인공저수지가 있었으나, 현재 인공 저수지는 재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소하천 정비 공사를 완료하고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쾌적한 녹지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그림1] 산림녹지 경관분석도



[그림2] 하천-저수지 경관분석도

구분	소하천 및 저수지
하천	한강, 왕숙천, 용암천, 갈매천, 불암천 외 소하천 17개
저수지	장자못 저수지, 샛다리 저수지, 이문안 저수지, 백교 저수지
생태습지	왕숙천 생태습지, 아천빛물펌프장 생태습지

2. 물길 따라 변천하는 구리 역사·문화



[그림 3]
구리타워에서 바라본
왕숙천과 한강 전경

하천을 통해 구리시를 이해하려면 한강과 왕숙천을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 이외의 하천은 구리시의 서쪽을 통과하는 산줄기로부터 발원하여 흐르는 소규모의 하천이다.

한강은 강원도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흐르다가 토평동에서 왕숙천이 합류된다. 국가 하천에 해당하는 한강은 유로 연장 494.4km에 이르고 총 유역 면적은 35,770.4km²에 달하는 대하천으로, 남한에서 유역 면적이 가장 넓고 한반도의 중앙부를 동서로 관류하는 하천이다. 구리시에서는 토평동에서부터 아천동에 이르는 구간이 한강에 접해 있다. 한강은 왕숙천과 합류하면서 구리시에 광활한 범람원을 형성시켜 놓았다.

왕숙천은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신팔리에서 발원하여 광주산맥 서측의 골짜기를 따라 남류 하다가 동구릉의 동쪽 사노동에서부터 토평동까지 흐른 후 토평동에서 한강에 합류한다. 지방 하천에 해당하는 왕숙천의 길이는 총 37km이고, 유역 면적은 276.7km²이다. 왕숙천은 지

[그림4] 구리시 지세도



류 및 그보다 규모가 작은 세류를 포함하여 모두 13개의 물줄기를 갖고 있다. 왕숙천 유역은 고도 40m 이하 부분이 90% 이상을 차지하며, 경사별로는 10도 이하의 완사면이 40%에 달한다. 왕숙천 유역의 구릉지는 과거부터 거주 공간으로서 양호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 일찍부터 정착 생활이 가능하였다.

구릉성 산지를 감싸고 한강으로 흘러드는 왕숙천의 하류에는 곡저(谷底) 충적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곡저 충적평야는 강폭이 갑자기 넓어지고 유속 감소에 의한 퇴적작용을 통해서 하류 연안 곳곳에 만들어진다. 이러한 퇴적지형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자연제방과 강물이 넘쳐서 생긴 범람원과 배후습지로 되어 있다.

왕숙천 하류의 경우 흥수 시 한강의 수위가 상승하면서 왕숙천과 한강의 합류 부근에서 왕숙천의 유속이 급속하게 감소한다. 이때 왕숙천이 운반해 온 많은 토사가 그 합류점 부근에 퇴적되어 자연제방이 만들어지고 그 뒷면에 배후습지가 형성된다.



[그림 5]
왕숙천하류 자연제방
-하적도, 배후습지

자연제방은 왕숙천의 한강 유입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발달하며, 왕숙천은 자연제방에 가로막혀 한강과 나란히 흐르다가 한강으로 유입된다. 이렇게 형성된 왕숙천 하류 지역의 ‘자연제방~하적호(河跡湖: 하천이 흐르던 흔적으로 인해 생긴 호수)~배후습지’의 형체제는 다음 [그림5]와 같다.

이렇듯 왕숙천~한강 접점 지역, 장자못 주변의 자연제방은 이러한 작용이 반복되어 형성된 것이다. 오늘날 왕숙천 하류 지역이 개발되

기 이전 돌섬과 토평동 일대에는 높이 5~10m, 길이 약 4km의 자연제방이 있었다. 자연호수인 장자못은 왕숙천이 한강으로 흘러들다가 자연제방에 막혀 유로가 바뀌어 한강과 나란히 흐른 흔적이 남아 생긴 것이다.

배후습지는 하천 유역 정비 결과 거의 없어졌다. 현재 배후습지에는 아파트 등 주택지가 들어서고 있으며, 그밖에도 비닐하우스 영농방식을 도입한 원예농업 용지로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자연제방 위로는 흙을 쌓아 인공제방을 만들고 도로로 이용하고 있다.

1980년대 급격한 도시화의 과정에서 물길은 복개공사로 길이되어 실제로 보이지는 않지만 도로 밑에서 여전히 흐르고 있다. 그리고 더러는 우물터나 빨래터가 남아 있어서 과거 물길을 증명하는 주요 근거가 되어주고, 도로의 이름으로 남아 소하천의 물길은 다른 모습으로 변했지만 여전히 이 지역의 장소성을 의미하는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다.

소하천과 크고 작은 못들, 저수지들의 물길 복원은 구리시가 친환경적인 수변도시로 구상할 때 매우 중요한 수변경관 생태축으로 자리 잡으며 도심 속 명품생태도시가 될 것이다.

1) 왕숙천과 한강의 공간적 특징

구리시는 한강변에 있는 도시다. 조선시대 모든 물류는 한양으로 유입된다. 서쪽의 경기도, 황해도, 충청도, 전라도의 물자는 바다를 통해 한양으로 들어온다. 서강, 용산, 마포 일대가 서해를 통해 들어오는 물자의 집산지였다. 구리시 앞을 지나는 물길은 남한강, 북한강 일대에서 들어오는 배가 지나던 길이었다.

동국여지승람 양주목 편에 기록된 구리시 인근의 나루가 ‘미음진(美音津)’, ‘독포(禿浦)’, ‘광진(廣津)’이다. 나루는 강의 흐름을 따라 동서로 연결되는 뱃길이면서 동시에 강의 남북을 연결하던 통로이기도 했다. 미음진, 미음나루는 현재의 남양주시와 하남시를 연결하던 나루였다.

배가 구리시를 지나면서 서울로 향하는데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 부근에 있던 나루가 광진, 광나루이다. 아차산 동쪽 한강에 있던 나루이다. 이 나루를 거쳐야 송파나루, 삼전나루, 한강진으로 향할 수 있었다.

현재 한강에서 나루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조선시대 하천과 다르기 때문이다. 한강에 제방을 쌓고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유로가 달라지고 한강에 있었던 여러 섬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구리시의 왕숙천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 있던 섬이 석도(돌섬)인데 이 섬도 옛



[그림 6]
대동여지도, 양주목-구리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왕숙천 주변도 달라졌다.

조선시대 한강에서 나루는 하천이 강이 아니라 길로 보아야 한다. 물길의 중심지가 나루와 포구라면 흙길의 중심지는 역원이었다. 육로가 개발이 안 된 시절 물길이 편리한 교통수단이었다.

2) 마을 이름에 나타난 물길의 장소성

토평동은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때 구지면의 토막리(土幕里)와 평촌리(坪村里)에서 한글자씩 따와 토평리(土坪里)가 되었다. 별말은 별판에 위치했다고 하여 별말이고, 과거 지도에는 별리(伐)로 표기되기도 한다. ‘별말삼거리’의 지명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돌섬은 별말 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본래 미음면 소속이었다. 일제시대 지도에는 석도(石島)로 표기된 만큼 어원이 분명하며, 말 그대로 돌이 많은 섬이어서 ‘돌섬’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과거 석도 남쪽 한강 연안에는 모래밭이 있었으나, 1990년대부터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토평리는 별말과 돌섬이 개울 하나로 물이 흘러내려 동네가 나뉘어 있어 돌섬, 별말이라고 했다. 토막리와 별말은 1리, 돌섬은 2리로 3개 부락이 모여 토평리다.



[그림 7] 왕숙천과 한강의 배후습지 자연 마을



[그림 8] 물길 원형 지도

토막리는 토막나루라고 불렸는데, 토막리에서 배를 대고 바윗살(암사동)을 가려면, 광나루로 돌지 않고 가로 질러서 바윗살로 건너다녔다. 나무토막을 엮어 만든 배가 드나드는 곳이라 유래되었으며 한강 맞은편의 암사, 천호동으로 가는 소규모 나루터로, 1960년 제방 건설로 사라졌다. 나루에는 나룻배가 있어 강 주변 사람들이 이 나룻배로 강을 건너 장 보러 가기, 관청일 보기, 학교 다니기, 농사짓기, 물건 싣기 등을 하기도 하며, 사공이 없을 때에는 양쪽 강기슭에 튼튼한 쇠밧줄을 걸어서 그 줄을 잡아당기며 나룻배를 움직이기도 하였다.

나루터가 지금의 버스 정류장 기능을 수행할 동안에 토막나루는 수택리나 돌섬마을과 교문리 마을을 비교해볼 때 결코 작은 마을이 아니었다. 물길 이용이 활발할 때는 30여 호의 집이 확인되고, 1966년도 항공사진에는 약 20여 호의 건물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까지도 나루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해서 한강 이남지역으로의 이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장자마을은 별말 남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장자늪과 관련된 마을은 아니다. 1970년대 중랑교 제방 둑에서 돼지 키우며 살던 사람들이 철거되면서 이주해서 세운 마을이다. 호 수로 30호 정도 되는데, 세대수로는 60세대로 지금도 살고 있다. 원주민이 아닌 이주해서 조성된 마을이라 ‘새마을촌’이라고도 한다.

‘수택’이라는 명칭은 예부터 왕숙천이 범람해 만들어진 자연 늪을

수늪이라고 부른데서 기원했다. 수누피·수늪이라 불려왔다. 원주택이라고도 불리는 것을 보아 과거주택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다. 수누피는 개무기라는 것이 있어서 물이 하품하면 잠긴다는 동네였다. 원래는 크고 검은 바위가 있어 ‘검배’라 불렸다. 현재 이러한 소지명들은 다 없어졌으나 사람들은 여전히 이 지역을 ‘검배’라고 부른다. 옛 마을로는 구리시 중심 변화가로 수누피, 검배, 이촌 등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 형태를 찾을 수 없고 현대식 상가와 주거지로 변하였다. ‘검배사거리’, ‘수누피 공원’ 등의 지명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우미내(아천동)는 구지면의 아차동(峨嵯洞)과 우미천리(牛尾川里)에서 한 글자씩 따와 아천리(峨川里)가 되었다. 아차동은 아차산에서 이름을 따왔고, 우미천리는 소나무를 베어도 움이 잘 튼다 하여 우미내마을이라고 부른 것이 그 어원이다. 버스 정류장에 쓰여 있는 ‘우미내고구려대장간마을’, ‘우미회관’ 등과 같은 지명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여기에서 거론된 모든 지명에는 한강으로 흐르는 지천의 물과 관련된 수(水), 천(川)의 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구리시 권역이 ‘물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수변 지역 자연 마을의 문화와 생활 문화상

구리시는 ‘물’과 함께 성장해온 도시다. 물이 풍부했던 지형적 특징은 거꾸로, 한강과 왕숙천의 퇴적층의 발달과 물의 범람이라는 물의 재해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도시화를 거치면서 하천은 대부분 복개되어 도로가 되면서 도시 인의 삶에서 잊히고 사라진 물길이 되었다. 그러나 다시 도로 아래로 흐르는 물길을 복원해서 수변생태축과 녹지축으로 연결하여 여가와 야외 운동 공간으로 활용하는 시대가 되었다. 도시화로 와해돼 버린 지역공동체도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문화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과거, 마을의 중심이자 사랑방 공간이었던 작은 물길에서의 기억이나 흔적을 마을의 문화유산으로 인식해 보자.



[그림 9]
토평마을의 과거와
현재 모습

① 토평동 자연 마을의 시간적, 공간적 변화상

토평동, 아치울, 우미내 지역에 대한 향토문화조사는 2012년 4월~11월 까지 진행되었다.

토평동은 1990년, 1996년 택지 개발로 구리시에서 가장 빨리 수도권 배후도시로 성장한 곳이다. 토평동은 한강을 경계로 서울시 강동구와, 왕숙천을 사이로 남양주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핵심 경제권인 강남·잠실이 약 10~15km 내에 인접해 있다. 주거 도시로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 및 서울의 진입 관문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 여건으로 서울 근교 최고의 주거 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다.

토평동은 개발의 역사가 짧고 신도시로 본격적으로 육성된 것도 아니지만, 장자호수공원을 바로 옆에 두고 강변 조망권도 갖춘 친환경 물세권 도시이다. 내부적으로는 유흥 시설이 없고 학교가 밀집해 있는 통학권인 동시에 수택동 변화가가 매우 가까워 돈하고 차만 있으면 살기가 좋아 의외로 땅값이 비싸다. 지하철 8호선 연장 공사가 진행 중이고 근처에 생활 편의 시설이 잘 갖춰진 동네이다. 한강 근처 배후습지의 황량한 벌판에 형성된 벌말, 돌섬, 토막리의 합집합 공간이기도 하다.

토평동은 하천 주변 저지대의 잦은 침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하천의 복개 및 제방 축조 때문에 하천 형태가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다. 한강변과 왕숙천변을 따라 보이는 자연제방의 흔적과 왕숙천이 한강과 만나는 주변에 인공제방의 구조물 모습이 보인다. 돌섬을 포함한 수택제방이 생기면서 지도상 섬으로 표기된 석도(돌섬)는 더 이상 섬이 아니다.

벌말과 한다리마을을 잇는 장자못 방향으로 꺾인 코스모스길이라 불리는 뚝방길도 이후 아스팔트를 깔고 도로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왕숙천과 한강의 형태는 변형되게 되는데, 구리시 행정 구역의 경계는 아직도 과거의 왕숙천의 형태를 따라 형성되어 있어 과거의 왕숙천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토평리 일대는 홍수로 인한 범람이 잦은 지역으로, 경기도 내에서 주요 홍수범람 위험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벌말, 돌섬, 토막리는 구리시 남쪽 한강 근처 배후습지에 형성된 자연 마을로 잦은 물난리로 마을이 사라지면서 돌섬, 벌말, 토막리(토막나루)가 합쳐지면서 토평리가 됐다. 사라진 토막나루 마을은 강 건너 암사동이나 천호동을 가려면 나룻배를 타고 건너던 나루터 주변이었는데, 구리암사대교가 개통되면서 사라져서 자동차로 한강을 건넌다. 지금은 악조건이었던 물난리, 물의 오염 등의 수난을 거쳐 엄청난 친환경 유전자로 환원되어 새롭게 자연친화적인 생태도시로 탈바꿈했다.

'장자못 며느리 전설'이 있는 장자늪은 '장자호수생태공원'으로 격상하여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멀리서도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고, 생태관을 찾아 자연 학습과 환경의 중요성을 학습하는 장소가 되었다. 주변은 계절마다 다양한 꽃과 나무뿐만 아니라 연꽃 습지와 한강까지 이어지는 호수 안의 하중도에 100여 마리의 백로가 서식하며 산책길을 더욱 풍요롭게 해준다. 물이 넘치던 한강 주변은 시민공원이 되어 각종 축제와 문화 행사가 열리고, 강변의 퀘적한 수변공간을 즐기는 라이딩족의 천국이 되었다.

언덕 위에 400여 년 마을을 지켜온 당산 느티나무와 돈대가 있는 물의 마을, 돌섬과 벌말은 한강과 왕숙천이 합류하는 접점의 벌과 모래밭에 만들어진 마을이다. 왕숙천은 한강 지류 중에서 가장 길이가 긴 제1지류인 만큼 장마 중에는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일제 강점기 때부터 제방을 축조한 흔적이 나타나고, 최근 1998년 주택지와 농경지가 침수되었으며, 2010년 집중 호우로 인해 토평동과 수택동 일

대 약 113세대가 침수되었다. 구리시가 근대화 과정에서 도시화되기 이전의 대부분의 촌락 형태들은 침수 우려가 없는 구릉지대에 형성되어 있었으나, 돌섬과 벌말은 배후습지인 물길에 마을을 형성했다. 돌섬은 60여 채, 벌말은 90여 가구가 있었다고 토착민 구술 내용에 있다. 이런 정주 현상은 왕숙천이나 한강의 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업에 관여했으리라 본다. 돌섬의 경우, 제방이 축조되기 전까지는 돌섬마을과 벌말을 건네주는 샛강과 개울길들의 흔적이 보인다.

왕숙천과 한강에 형성된 자갈과 모래밭은 산업화 시기 골재 채취하는 산업 역군의 임무를 수행했다. 돌섬마을과 벌말 지역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의 관통, 그리고 부분적으로 소규모 공장과 창고 등과 같은 산업 시설 관련 건축물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논경작지 당시에 존재하던 도로와 논두렁의 흔적 위에 새로운 도로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새로운 건축물들이 초기 촌락의 경관과 마을 구성 방식의 변화를 만들고 있지만, 도시화가 매우 더디게 진행된 돌섬마을, 벌말의 역사적인 초기 촌락의 형태와 구성은 아직 상당부분 남아 있다.

마을 문화는 돌섬마을의 오래된 당산 느티나무 한 그루와, 홍수 때 헬리콥터가 이동을 해주는 돈대가 아직도 보존되어 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홍수 때마다 다리가 물에 잠겨 없어지면 다음 해 새로 다리를 만들며 행했다는 '벌말다리밟기', 현재 94평의 도당터가 남아 있는 '벌말도당굿'이 이야기로 전해온다,

토평리 토박이들이 기억하는 물길의 공간성

"돌섬이 옛날에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수석리 쪽, 그리고 이쪽으로는 대부분 밭농사 밖에 없었어. 돌섬은 논이 없어. 동네에서 강가 쪽으로 한강변 약 100m가 순 자갈밭이었어. 자갈밭을 한동안 지나가면 하얀 백사장을 한 100m 이상 가야 한강물을 담그는 거야."

저기 민동네(지금의 수석동)까지. 한강이 여울이 위낙 세니까. 여기는 강이 깊지가 않고 엄청나게 여울이 셨었지. 덕소부터 내려오면서 강비탈이 엄청 심했는데, 지금은 골재 채취해서 강바닥이 낮아져 수심이 깊어진 거야. 그 옛날엔 뗏목이 다니고, 둑단배가 다녔던 거지… 해방 전부터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둑단배가 다녔어. 뗏목도 어쩌다 내려오고. 1950년 51년, 52년까지도 둑단배는 다닌 걸로 알고 있어. 그리고 팔당댐이 생김으로써 그런 게 못 오는 거지, 막혀서… 둑단배에는 나무는 안 싣고 뭐 다른 거 싣고 왔다가 광나루에서 팔고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 배도 대고 뗏목도 거기다 풀어 놓으면 목상들이 실어 가는 거지. 토막나들이 지나서 광나루로 가는 거야. 광나루도 나루터고 토막나들이도 나루터야. 둑단배에는 감자, 옥수수 등 채소 종류를 싣고 왔어. 그게 교통수단이었어. 가을에는 메조, 차조, 여름 농사는 밀, 보리, 다 밭농사를 지었지. 나중에 1966년도 지나면서부터 채소를 조금씩 심기 시작해 가지고, 개발이 돼서 지금 하우스고 뛰고 한 거지. 그 채소 심기 전에는 거의 쌀밥을 먹어보기 힘든 동네가 이 동네야. 여름엔 보리밥, 감자밥, 가을엔 조밥, 메밀. 왜냐면 홍수가 들어갔다 나오면 심을 게 없어. 메밀밖에 남지 않아. 홍수가 지면 거의가 집이 방에까지 물이 차는 거지. 그럼 어디로 가냐면 돌섬에 돈대라는 곳이 있어. 거기로 일단 피난을 가가지고 그래도 비가 계속 올 때면 배를 요청하고 다른 데서 배가 와서 실어가고. 거의 헬리콥터로 실어 날랐지. 옛날 모습은 돈대밖에 없어.”

“돈대가 만들어진 지는 대략 40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 때문에 인창리, 교문리, 검배로 피 난을 갔다가 들어와서 만든 것이 돈대예요. 경기도에 돈대가 있는 곳이 김포, 강화, 벌말, 돌섬. 1965~1966년에 을축년 큰물이 났으니까. 홍수지요. 옛날에 비만 오면, 돌섬에서 벌말 건너오려면 그 중간에 샷강이 있어요. 그걸



[그림 10] 돌섬 돈대



[그림 11] 돌섬 도당느티나무



[그림 12] 벌말다리밟기



[그림 13] 벌말 우물터



[그림 14] 돌섬 샷강



[그림 15] 토막나루

건너오면 수누피 그 중간에 또 샷강이 하나 있고 수누피 건너와서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었거든요. 웬만한 집은 집 천장까지 물이 치달았어요. 노인들이 을축년 물보다 컸다고 해요. 그때가 다목적댐이 많이 생겼지요. 그래도 집을 안 떠났지. 큰물이 나기 전부터 5~6년 토마토 농사를 지었지. 오이, 돼지 호박을 심었지. 그때는 돈이 되었지요.”

“우물이 저기 하나 있고, 요 아래 하나, 두 개 있었어요. 우물이 깊어 푸기 힘들어 별로 안 먹었어. 적게 먹고 개울물이나 한강물 먹었지. 여름에 한참 더울 때 시원한 물 먹는다고, 한 동이씩 떠다가 먹었지. 부엌의 큰 독에 길어다가 넣어 두고 먹었지. 왕숙천 물도 길어다가 독에 넣어두면 시원해요.”

“마을 풍속으로 마을 대동굿도 하는데 돌섬은 없어요. 동네를 위해서 치성 들이는 것이 있는데, 벌말이 크게 했지요. 청량리까지 다 아는 대동굿이야. 수누피, 건배도 했는데 그중에서 벌말이 가장 크게 했어요. 샷강 운영은 (양종남-돌섬에서 농사 및 샷강의 배 운영) 샷강을 이용하려면 1년에 두 번, 조 한말, 보리 한 말을 지불했지. 외부 사람이 이용할 시는 200원을 냈어. 그때 송아지 한 마리가 2만 원하던 시기예요.(55년 전) 토막나루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보상을 받아 모인 곳이 ‘한다리저수지’ 보이는 언덕이에요.”

<2012년 양종남(토평동 돌섬, 1930년생) / 김학운(토평동 벌말, 1933년생) 구술> 일부 편집

구리시에서 발생한 자연 재해 가운데 가장 취약한 부분은 수해와 관련된 것이다. 1989년 8월 9일부터 3일간 쏟아진 340mm의 집중 호우로 지대가 낮은 수택동 일대 1500동의 건물이 침수되었다. 이로 인해 2000여 세대에서 8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농경지 348ha가 물에 잠겼다. 이듬해인 1990년 9월에 내린 358mm의 집중 호우로 건물 1585동이 침수되었으며 8136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2001년에는 304mm의 폭우가 쏟아져 2명의 인명 피해와 주택 수십 채가 침수되기도 하였으며, 2010년에는 집중 호우로 인해 토흥 지구의 원룸 200여 채가 물에 잠긴 적이 있다.

2010년 이후로 수해 방지 대책을 실시한 결과,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는 크게 감소하였다. 2011년 7월 26일부터 3일간 구리시에는 475mm의 집중 호우가 내렸다. 시내의 주택가와 제방 도로, 하천 등이 일부 침수되거나 유실되었지만,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인명 피해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②우미내·아차울 마을의 시간적, 공간적 변화상

아치울은 아차산 동쪽 골짜기 가운데 넓고 깊숙한 골짜기에 자



[그림 16]
수택동(옛 벌말 지역)
일대 홍수 피해 모습

리하고 있는 마을이다. 구리시와 서울시 광장동 국도 43호선 4차선도로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 60여 채의 집 밖에는 없었으나 지금은 수백 채의 집들이 들어서 있다.『구한국지방행정구역 명칭일람』에는 아차동으로 표기되어 있다 특징은 서쪽으로 흐르는 소하천을 따라 형성된 도로 양방향으로 집들이 형성되어 지형적으로 자연적 경사 지형에 형성되는 마을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마을 입구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골이 넓어지며 소하천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길이 나란히 올라가면서 3개의 구역으로 나뉘며 마을을 형성한다. 아차산 골에 형성된 마을들은 산 지형에 형성된 초기 촌락의 구성을 잘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미내(牛川里)는 아차산의 대성암 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서울특별시의 워커힐에서 구리시로 들어오면서 처음 나타나는 마을이다. 옛날에는 너머말·양지말·건너말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건너말·양지말이 있던 자리에 K1 기지가 들어섰고 너머말만 남아 있다. 지금도 이 너머말을 우미내로 부른다. 우미내는 이 마을 주위의 산이 바위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나무가 잘 자라고 소나무 숲을 베어내도 잘 튼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구한국지방행정구역 명칭일람』에는 ‘우미천리’라 표기되어 있다.

이 지역의 특징은 농업에 종사하기보다는 토흥리처럼 한강 광나루 접근이 가까웠고, 당시에는 도로 사정도 열악하여 주로 물길과 관련된 일에 종사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림 17] 한다리마을



[그림 18] 아치울마을



[그림 19] 우미내마을

지금 43번 국도에 위치한 워커힐을 지나 우미내로 가는 길은 농사 짓는 마차가 다니는 마차길이었고, 산사태가 자주 나며 낙석도 떨어졌고, 좁고 곱은 길 아래는 낭떠러지로, 한강과 이어져 험난한 여정 길이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우미내 K1 기지 기름 저장 탱크를 만들면서 도로가 뚫렸고 이후 1980년대에 군인이 도로를 넓혔다고 한다.

학군도 구리 본토 지역보다 서울 광장동 지역이 가까워서 우미내는 초등학교 학군이 서울 광장동 학교로 다니고, 한다리마을부터 인창초등학교로 다녔다. 구리 인창초등학교로 다니기에는 길 사정도 안 좋고 서울 광장동보다 멀어서 항의 끝에 학구제 예외로 시도교육위원회가 합의를 했다.

일반 전화도 우미내에 한해서 서울 지역 전화번호를 사용한다.

전체적으로 한강과 접한 지역인 마을에서 물로 인한 재해로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면서 토막나루에서 온 이주민은 한다리저수지 주변으로, 우미내 건너말, 양지말은 그 자리에 K1 기지(한국석유공사) 기름 탱크 저장 시설이 들어오면서 아천리로 이주했다. 지금 우미내라고 하는 곳은 옛마을로 남아 있는 너머말을 우미내로 부른다.

마을 문화 특징으로는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대동굿을 간소화되었지만 주민들이 지내고 있다. 10월 상달의 향나무 앞에서 제사는 밤 12시에 지낸다. 제사진설도가 사노리, 갈매동, 우미내는 있지만 한다리에는 없어서 정성배씨가 살아 있는 동안 자료와 사진들을 모아

정리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다리마을은 10월 상달에 있을 마을 향나무 제사, 우미내마을은 할머니 며느리상 성황당 제사를 마을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간소하지만 해마다 주민들이 모여 지내고 있다.

우미내·아차울 마을의 토박이들이 기억하는 물길의 공간성

“홍수 피해를 본 분들이 거처를 잃고 결국 이리로 밀려와서 여기로 정착했어요. 일단 어디 살 곳을 찾아가자고 해서 온 게 여기로 온 거지요.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서울 쪽이니까, 시골 사람들은 겁나서 서울은 가지 못해서, 여기가 맨 끝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정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보면 광나루 살던 분들이 여기로 올라온 분들도 있어요. 우미내하면 산수가 좋잖습니까? 그래서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땅 사서 집 짓고 해서 그렇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우미내 본토 분들은 많지 않아요. 본토 분들은 10가구가 살고 계시며. 지키고 있는 거지요.”

“여기 마을이 정착되면서 이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여기는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운송 수단이 수상 수송이었어요. 물 위로 뗏목이나 배, 이런 걸 가지고 물물 교환을 하고 그랬는데, 거기 종사를 했지요.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한 겁니다. 가계를 그걸로 꾸려나갈 수 있었던 거지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 또래 분들이 배 타고 강원도에 가서 땔감이나, 지금으로 보면 연료가 아니고 나무 자른 거, 말린 거를 큰 돛단배에다 싣고 오고, 마포에 가서 물건으로 새우젓 이런 걸로 많이 가져 와서 곡물하고 바꿉니다. 그런 물물 교환에 종사하는 분들이 생계유지를 한 거예요. 저도 조그만 새우젓 같은 것들을 본 기억이 나요.”

영월 정선, 이쪽에서 뗏목을 띄워가지고 그 뗏목을 타고 여기 와서. 이 앞이 정착지였어요. 여기 강 모양을 보면, 안이 들어가 있어요. 포구 마냥 여기다 뗏목을 대 놓고 필요한 사람들이 오면 완전히 여기서 해체를 해 가지고 가져갔는데, 그걸로 주로 이 주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을 해서 먹고 살았던 거지요

광나루가 원래 요지였어요. 도로도 좋고 해서 거기서 뗏목에 필요한 목재 같은 걸 가지고 가려면 교통수단이 좋으니까 금방이라도 가져가지만, 여기는 고개를 넘어와야 하는데, 단 편리한 건 뭐냐면 포구 마냥 들어와 있고 거기보다 한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장소를 이쪽으로 정해놨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거기에서 수입을 올릴 수 있어서 먹고 사는 데 큰 다행스런 일이었지요.”

“그리고 여기 이 벌판 축구장(현LG구장) 있는 데서부터 저 위 토평동 수택동까지가 벌판이었지요. 그러면 ‘땅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생계를 이런 어려운 쪽으로 했느냐, 농사를 짓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거의가 땅에 대해서는 신경들을 안 썼어요. 여기는 쉬우니까 바로 현금 나오지, 그때 한번 갔다 오거나 배 타고 오면 현금 나오니, 땅에 대한 욕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황무지에 억새 같은 것들이 있었고 여기 습지가 많으니까, 장자늪에서 내려오는 물이 자주 들고 해서, 농사짓는 데는 아주 악조건이었었어요. 그래서 농사보다는 뗏목이나 배타는 쪽으로 선호를 했지요.”

“여기 할머니 며느리상(장자못 장자와 며느리)은 어디 있는 건가요?”

“여기에서(마을회관) 위커힐 쪽으로 가면 옛날에는 고개가 시작되는데, 쪽 올라가면 성황당이 나타나요. 이 길이 1972년도에 확장되면서

지금의 자리에 모셔진 셈이죠. 사람들이 성황당을 지나가면서 오늘 하루가 무사하기를 바라면서 돌을 거기다 놓고 갔는데, 그 돌이 쌓이고 쌓여 길로 자꾸 내려왔어요. 그런데 우리 집이 성황당에서 제일 가까웠기 때문에 늘 가서 돌을 굽어서 올리고 올렸던 기억이 나오. 당집에 성황님을 모시는 그곳에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놓거든! 그래서 그거 먹으려고 그랬지. 쳐다보면 지켜보는 것 같고 엄청 무서웠어요. 그때는 겁에 질려가지고 빨리 여기 있는 거 필요한 거 가지고 가려고 해서 제대로 보지도 못 했어요. 그것을 동네에서 알면 큰일 났거든요.”

〈2012년 이광무(현 우미네 대동회회장) / 정성배(한다리, 전 구리농협조합장) 구술〉

일부 편집

4) 1개의 자연호수와 3개의 인공저수지의 화려한 변신

농업용수로 개발된 저수지는 도시 팽창에 따라 구도심의 기능 상실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주변의 갖은 오물과 쓰레기로 악취를 내는 흉물이 되면서 용도 재생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공간 환경의 현황과 문제점, 주변 환경과의 연계를 토대로 저수지의 수변 공간을 도시 재생 활용과 생태학적 공간 구성 요소에 초점을 맞추었다. 현재는 경관과 기능이 공유되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한다.



[그림 20] 우미내 나루터



[그림 21] 한다리 할배향나무제사



[그림 22] 우미내 며느리 성황당제사



[그림 23] 오염된 장자못



[그림 24] 장자호수공원



[그림 25] 생태학습장

장자못은 왕숙천이 한강으로 흘러들다가 자연제방에 막혀 유로가 바뀌어 형성된 자연호수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화 속에 가정 하수의 증가로 수질 오염이 심화되어 사람이 접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황폐화되어 자칫 매립될 위기에 처해 있던 장자못을 1997년부터 호수 밑 바닥의, 저니층을 준설하고, 한강물을 유입시켜 유지용수로 활용하고, 다년생 초화류, 관목류, 교목류, 부들, 부레옥잠 등의 수생식물 식재, 습지와 새들의 섬, 광장,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2002년 6월 수변생태공원으로 재탄생시켰다.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환경을 가꾼 결과 주민 휴식공간으로 널리 활용하고 있으며, 2005년 2월 환경부로부터 '자연 생태 복원 우수 사례'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약 3만 2000평의 면적에 3.6km의 산책로가 있고, 야외무대에서 각종 음악회, 전시회 등이 주말에 열리고 주민 휴식 공간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주변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찾아오는 구리시의 랜드마크로 여가 명소가 되었다.

이문안저수지, 샛다리저수지, 백교저수지는 1945년에 농업용수 용도로 건설한 인공저수지다. 당시 구리시의 먹골 배를 많이 과수했던 때로 배 농장과 논밭을 경작하는 주민들이 많이 살던 곳이다. 당시 논 농사를 주업으로 삼았던 이문안, 박촌, 가능골, 이촌말, 한다리, 샛다리 등의 주민들이 이용하던 저수지로 농업기반공사가 만들었다.

그러나 주변의 도시화로 주변 지역이 택지로 개발됨에 따라 주택지가 들어서 주택가와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 농업 용도가 폐지됨에



[그림 26] 이문안저수지공원



[그림 27] 백교저수지



[그림 28] 샛다리저수지 양서류보호

따라 농업을 위한 저수 기능이 상실되어 이 일대는 1970~1980년대를 거치면서 논농사를 주업으로 했던 토착민들은 농사를 포기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 지역 주민들의 젖줄이었던 이문안은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온갖 생활 하수로 인한 악취가 골칫거리가 됐다.

이후 이문안저수지는 구리시·시민·환경시민단체들의 노력과 관심으로 점차 수질이 개선되기 시작했으며 이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생태습지로서의 기능을 갖추어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원으로 탈바꿈하여 지역 주민들의 조용한 휴식처로 사랑 받고 있다.

2017년 말에는 도심 속 시민공원 조성을 추진하게 됐다. 저수지를 준설하고 오수 유입을 차단하여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했고, 양서류와 동식물 서식처로, 시민들을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녹지 공간으로 복원했다. 이름도 저수지 공원에서 호수공원으로 바뀌어 휴식 공간으로, 주변의 직장인과 동네 주민들이 산책과 운동을 하는 쉼터로 명소가 되었다.

백교저수지는 아차산 방향 한다리마을에 있다. 2020년 재해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백교천 소하천 정비 공사를 완료하고,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쾌적한 녹지 공간으로 조성했다. 이번 백교천 소하천 정비로 여름철 집중 호우 대비 재해 예방 및 하천 부지를 활용한 수변 광장, 순환 산책로, 수변 데크, 정자 쉼터, 주민 운동 시설, 분수 등 생활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녹지에 다양한 꽃나무를 식재해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조성했다.

셋다리저수지는 어린이 공원으로 특화하여 어린이 놀이 시설과 유치부 대상 생태 체험을 진행하는 곳으로 유치원에서 자주 찾는 장소가 되었다. 또한 이곳은 물두꺼비 서식지로, 마을에 도로를 만들면서 두꺼비 로드킬 현장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2010년부터 시의 지원을 받아 ‘양서류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활동’과 근교 학교의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두꺼비 생태학교’를 운영하는 생태 공원으로 변신했다.

III. 맷음말

환경부 “자연생태복원 우수사례” 지역으로 지정된 신도시 청출어람

수변 공간은 자연환경과 도시적 활동이 만나는 접점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쉼터가 되어 준다. 오랜 세월 산업 용수가 흘러들어 썩으면서 고약한 악취를 풍기던 장자못은 이제 캐나다의 ‘부차트가든’을 연상케 하는 명품 호수공원으로 변신하여 수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필요에 의해 보이는 자연을 바꾸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일 것이다. 도시 확장과 공간의 생산은 인류 역사의 필연적 과정이다.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공간을 만들어 왔다. 구리시 왕숙천이나 장자못의 역사도 다르지 않다.

한강 유역과 인접한 이곳도 역사의 변천과 더불어 구리시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변화했다. 수변 지역을 친수 공간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왕숙천과 장자못은 구리를 대표하는 표상적 공간이 되었다. 이러한 수변 지역이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도 역사적으로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

현대사회를 상징하는 휴식 공간이자 위락공간이다. 이렇게 수변 공간을 개발한 도시 발달은 우리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다. 강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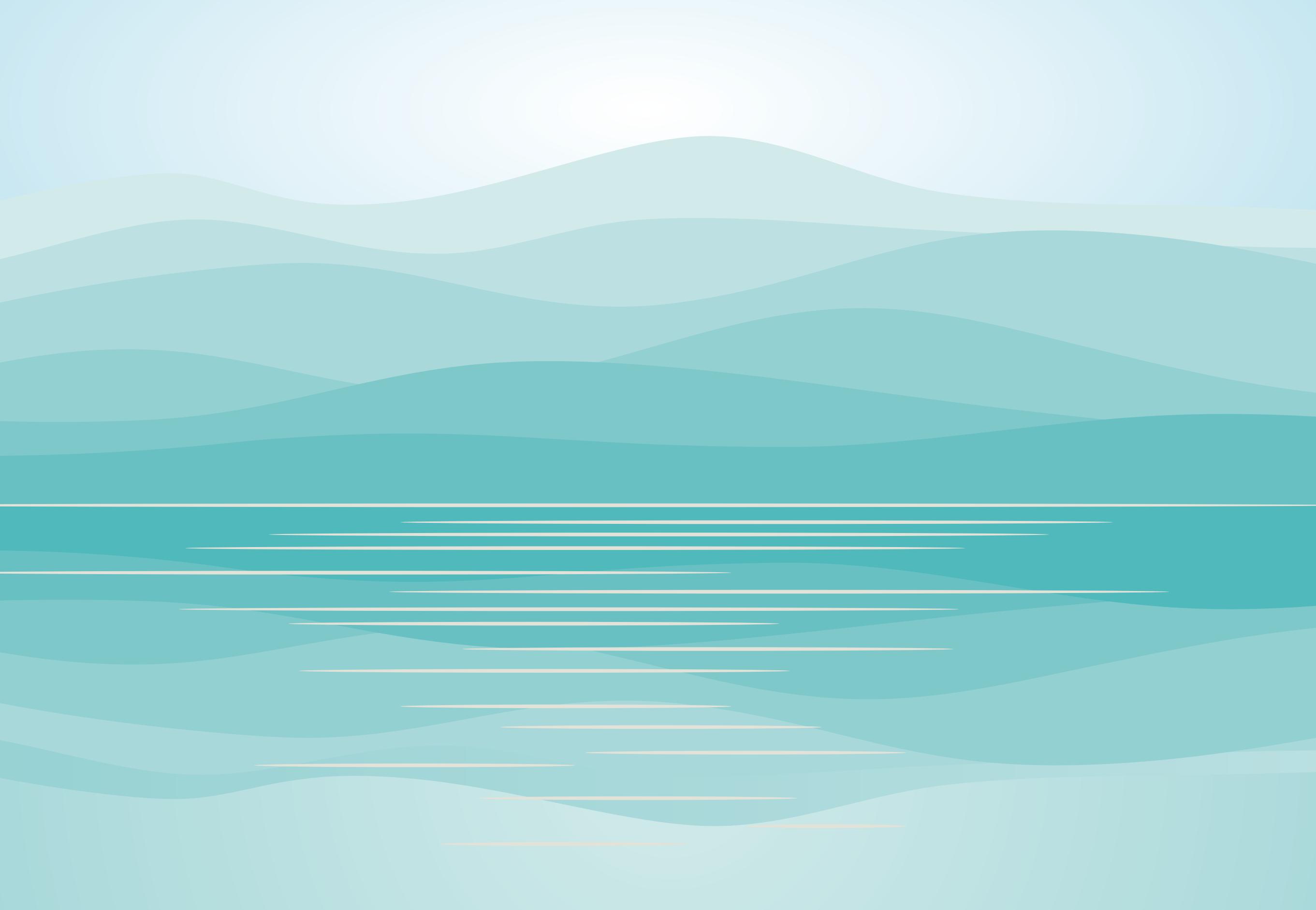
호수, 하천을 중심으로 각종 공원과 운동 시설, 산책로 등 여가 시간을 즐기기에 좋은 자연적 주거 환경이 삶의 만족도까지 좌우하게 되면서 수변 공간의 가치는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하지만 인간이 바꾼 풍광 중에 가장 급격한 친수 공간의 변화는 자연 생태계에서 이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오염원을 잘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은 이렇게 아주 조금씩 변화하면서 경고를 하는 것은 아닐까?

물길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살았던 우리 민족의 저력이 모여 한강의 기적을 일구었다. 흐르면서 깊어지는 강. 강이 온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도 이어갈 수 없고, 물길을 제대로 보존해야 인간의 미래가 있다.

참고 문헌

- 『구리의 역사와 문화』, 구리시, 1996
고동환·이현군, 『경강, 광나루에서 양화진까지』, 서울역사박물관, 2018
장수아, 『구리시 도시공간의 역사적 정체성 분석』, 공감하는경기학
자료집, 2018
나평순, 『물길의 변화로 본 북촌의 장소성』, 한국지리학회지 6권 1호,
2017
『교문동, 토평동(옛 토평리), 동구동 향토문화자료 보고서』,
구리향토사연구회, 2012
1963년 국토지리정보원 deginersparty
1966년 국토지리정보원(c)도시건축연구소 디트라스
경기문화재단 아카이브
2020 구리시 기본경관계획 요약
구리시 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위키백과
구리시 홈페이지(www.guri.go.kr)



경기문화재단

